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44호 2014.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衛滿朝鮮에 대한 歷史·考古學的 접근

박경철 | 古朝鮮 對外關係 進展과 衛滿朝鮮 13

이중수 | 요하 평원지역 '燕 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 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65

이청규 |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95

이후석 |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
-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149

논문

김재웅 |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209

서영교 | 연개소문의 對鮮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249

이정빈 |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285

허재영 |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315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55

Contents

Special Issue A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 to Wiman Joseon

Park Kyungchul | Ancient Joseon's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and Wiman Joseon 13

Lee Jongsu | A Review of the Distinction of Yan Remains and Its User Group in the Liaohe River Plains; On the Relationship to Yan Immigrants 65

Lee Chungkyu | The Early Iron Cultures of Eastern Liaoning and Northwestern Kore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Wiman Joseon State 95

Yi Whoseok |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and Gojoseon in the Liaodong Area and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149

Articles

Kim Jaewoong | Socioeconomic Status of Japanese and Policies towards Japanese Technicians in North Korea(1945~1950)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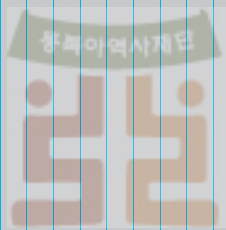
Seo Youngkyo | Yeon Gaesomun(淵蓋蘇文) Who Dealt with Xue Yantuo(薛延陀) Khan and Emperor Taizhong of Tang China(唐太宗) And Defeat in the War in Koguryo in 645 249

Lee Jeongbin |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aoxi and Koguryo's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late 570s and the early 580s 285

Heo Jaeyoung | Stud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Japanese Language Influence in the Modern Period 315

특집

衛滿朝鮮에 대한 歷史·考古學的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위만조선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까지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에 걸쳐 있던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다. 왕과 관료조직이 있고, 왕검성으로 불리는 도성이 있었으며, 兵威財物을 갖추고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하던 국가 수준의 정치체였다. 이러한 위만조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이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위만조선이 고조선과 이후 부여 및 삼국 초기의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만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곧 한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위만조선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 자료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주로 문헌기록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기존 역사학계의 연구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계기적 전개의를 틀 속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연구 주제 역시 주도집단의 성격, 국가형성, 중심지와 강역, 지배체제, 그리고 한과의 전쟁과 멸망 등에 집중되었다. 고고학 방면으로는 주로 세죽리-연화보유형과 세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학계의 경우에는 위만의 출신이 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위만조선을 중국 식민정권으로 이해한 三上次男의 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도 위만조선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아닌 중국 중앙 왕조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역사지도에는 요동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북부를 모두 중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동지역 연, 진·한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역사를 내국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특집은 그동안 역사학과 고고학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만조선 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체적 실체를 밝혀내고, 위만조선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하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4명의 연구자가 역사학과 고고학 방면으로 나누어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과 대외관계, 물질문화상의 특징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경철은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사 전개에 맥락 위에서 위만조선의 대외관계 진전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기원전 12세기부터 위만조선 시기까지 고조선사 전개와 관련된 기존 학계의 통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자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이며 다소 대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원전 4세기경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중국 연과 고조선의 각축관계, 이후 한·흉노·위만조선 간의 관계망 속에서 진전되는 국제정치 구도상의 변동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 진개의 고조선 공략 이후 양국의 경계인 '만변한'을 천산산맥으로 비정하였고, 연의 요동군 치소인 양평을 지금의 요양시가 아닌 河北省 薊縣의 無終 일대로 보았다. 연의 요동지역 통제방법 역시 직접적인 군현제보다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통제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秦代에는 고조선의 경역범위가 천산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확장되었고, 한대 초 한-조선의 경계인 패수를 혼하로 비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만조선과 한의 대립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漢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무제의 '세계정책'으로 인해 야기되었고, 결국 '흉노의 왼쪽 팔'인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귀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종수는 위만조선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중국 유이민 집단의 물질문화가 어떤 양상인지 파악해보기 위해 요하 평원일대 연 유적을 대상으로 그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지금까지 연의 지방지배 거점으로 인식되어왔던 요하 평원지역의 연 유적의 문화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중국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유적들의 사용집단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국 연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인식되어오던 신성묘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이 무덤의 주인이 기존에 중국 측에서 주장하던 연에서 파견된 관리보다는 진 혹은 진한교체가 중국계 유이민 집단의 수장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대유적과 이용호성지에서 보이는 연 문화와 토착문화의 공반출현 양상을 통해 이들 유적이 연계 유이민 집단이 요하 상류지역까지 이동해와서 안착한 후에 기존의 토착민들과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 문화와 토착문화의 공반은 중원계 유이민 집단과 기존의 토착집단 상호 간에 공존과 화합 혹은 투쟁과 갈등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 융합의 결과이며, 이러한 문화 융합은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청규는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인 철기 갖춤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만조선의 영역범위와 국가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위만조선의 철기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요동과 서북한의 기원전 3~1세기 초기철기문화를 시간적으로 5단계, 공간적으로 6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요동과 서북한 북부지역에 농기구와 공구를 중심으로 한 철기가 보급되었고, 기원전 3세기 후반부에 들면 무기류까지 보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서북한 남부에도 철기가 보급되고, 기원전 2세기 후반에는 철제 무기류가 보급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원전 2세기 말에는 단조방식으로 제작된 철검 중 장검은 요동에서, 단검은 서북한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기원전 1세기 전반에 모든 지역에 철검이 제작 보급된 것으로 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위만조선의 경역범위가 요동과 서북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다양한 유형의 철제 유물 갖춤새가 동일한 정치체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만조선을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경역범위를 평양지역으로 한정하면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은 보다 단순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후석은 요동과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를 통해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형성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형동검문화 요소는 요동과 서북한지역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문화를 지역별로 나누어 그 특징과 발전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성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동 동부지역의 문화요소들이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의 문화적 양상으로 보았으며, 이후에 보이는 윤가촌유형 요소들은 전국 말~전한 초의 위만집단과 관련된 문화요소로 파악하였다. 또한 위만조선의 최고 지배층은 연 문화와 한 문화의 전통이 내재된 철제무기와 거마구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표현하였고, 이후 흉노계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대외교류의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은 서북한지역에 요동계 문화요소와 한반도계 문화요소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연·진·한 철기문화 요소들이 추가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특집은 위만조선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특집의 기획 의도는 위만조선의 역사·문화적 실체를 파악하여, 위만조선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 물질적 기반은 무엇이며, 주변지역과 어떻게 교류하였고, 멸망 후 그 주민과 문화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본 특집에서 제시한 일부 새로운 자료와 견해는 향후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위만조선을 연구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우리 학계가 중국 자료와 학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더불어 그들의 연구결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조그만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본 특집에서 제시한 몇몇 견해는 앞으로 좀 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가설'적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만큼 위만조선, 나아가 고조선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특

집에서 제기된 견해들은 향후 많은 토론과 수정을 거쳐 더욱 완성도 있는 담론으로 진전될 것을 기약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위만조선을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학문적 대응논리로써 활용되고, 나아가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를 위한 협력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이 종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古朝鮮 對外關係 進展과 衛滿朝鮮¹⁾

박경철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종래 우리 학계의 古朝鮮 對外 關係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中心地와 疆域’ 문제 인식과 관련한 대외적 契機를 해명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왔다.²⁾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우리 학계는 흔히 ‘大同江 중심설 · 遼東 중심설 · 中心移動說’의 當否를 에워싸고 논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文獻史學者들 각자의 입장과 視點에 따라 演繹的 논지 전개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本稿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중국 측 동북 지방의 고고학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본고에서의 ‘古朝鮮’은 『三國遺事』 상의 ‘檀君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朝鮮’이란 이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을 제외한 시기의 그것을 特稱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고조선사 및 위만조선사에 관한 연구서는 고조선사연구회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고조선사 연구 100년 -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참조.

자료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조차 現場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이 분야 전문가들의 수적 한계성, 그리고 연구 역량의 미흡적으로 아직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조선사 대외관계 해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문헌자료 자체가 질량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고조선사 인식의 상한이 올라가고 있지만, 자료가 破片화된 형태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그나마 사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마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먼저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蘊蓄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대외 관계 해명을 위하여 본고를 작성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고조선사는 濊貊·고조선·中原 諸勢力·遊牧 제 세력의 關係網 속에서 일정한 進退와 變動相을 示現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문헌자료상에서 주로 中원 제 세력의 인식의 지평상에서 ‘예맥·發朝鮮·조선·衛滿朝鮮’ 등의 존재로 捕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문헌자료상 B.C. 7세기 이래, 그리고 고고학 자료로는 B.C. 12~10세기 이래 동북아시아 一隅의 동질적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한 주민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주제는 위만조선의 대외 관계이지만, 그 자체는 이러한 고조선사 전개의 흐름 속에서 胚胎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은 위만조선의 중심과 강역을 논의할 때마다 반드시 고조선사 전반의 ‘중심지와 강역’의 변화상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러하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고조선사 대외 관계 進退의 흐름 속에서 또 그것의 대내외적 계기와 意味項을 파악해가면서 위만조선의 대외 관계 進退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고조선사 대외 관계의 전개상의 매개 꼭지점마다 당시 東北 아시아 국제 관계를 구성한 中원 측과 고조선·유목계 제 세력이라는 제 當事 세력의 내적 계기와 이들 상호 간의 拮抗 관계라는 외적 계기가 작용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먼저 B.C. 7세기 이전부터 琵琶形銅劍文化 담당 집단으로 규정되는 예맥의 존재 양태와 이들과 B.C. 7세기경 齊의 桓公의 北伐과의 관련성, 그리고 B.C. 6~5세기경의 ‘發朝鮮’의 실체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B.C. 4세기 말~3세기 초 고조선 國家形成과 조선과 燕

의 충들에 대한 구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B.C. 2세기 말 秦과 조선의 관계와 위만조선의 성립 및 漢과의 갈등 문제를 검토해볼 것이다.

II. B.C. 4~3세기 이전 濊貊社會와 ‘發朝鮮’

1_ 遼西琵琶形銅劍文化的 진전

종래 우리 학계는 先秦文獻들 가운데 나오는 『墨子』³⁾ 兼愛篇의 “貉”, 『逸周書』의 “稷慎·穢人·良夷·發人·孤竹”,⁴⁾ 『周禮』의 “九貉”,⁵⁾ 『詩經』 大雅 蕩之什 韓奕篇의 “其追其貊”⁶⁾ 등의 존재와 관련, 그 자체가 갖는 사료적 한계성 혹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B.C. 11세기경 이래 西周 시대에는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濊와 貊으로 분별되는 種族 혹은 주민집단의 존재가 당시 中原 세력의 인식선상에 포착·인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정도로서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濊貊은 문헌자료상 매우 불안한 근거 위에서 西周 초(11세기 B.C.)에서 春秋 중기(8~7세기 B.C.)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예와 맥으로 분별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⁷⁾

한편 고고학 자료상 예맥은 이 시기 중국 東北 지방에서 나름대로 주변의 다른 주민집단과 분별성을 가진 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다. 즉 이들 예맥의 문화는 이후 琵琶形銅劍·多鈕鏡·無文土器·

3) 『墨子』 兼愛篇.

4) 『逸周書』 卷7 第59 王會解篇.

5) 『周禮』 夏官 職方氏.

6) 『詩經』 大雅 蕩之什 韓奕篇.

7) 박경철, 2005, 「고조선·부여의 주민구성과 종족」, 『북방사논총』 6, 105~113쪽.

石棺墓-支石墓를 그 문화적 內包로 하여 時·空間상 단계적으로 확산·발전되어가게 된다. 특히 비파형동검은 중국의 遼寧省·吉林省 및 韓半島 등을 포섭하는 청동기시대 예맥문화의 標識 유물로서 위상을 점하고 있다. 또 최근 이것과 더불어 多鈕鏡의 존재에 주목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중심지 구명 및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고조선 실상 파악을 둘러싼 제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⁸⁾

필자는 遼河以西 지방의 청동기문화를 ‘夏家店上層文化’라 總稱하면서, 그 문화의 성격과 주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명하고자 함은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본다.⁹⁾ 오히려 필자는 요하 이서 지방 가운데 努魯兒虎山脈 이남 大凌河 유역(오늘날의 ‘遼西 지방’)에서의 비파형동검과 多鈕鏡을 공반하는 청동기문

8)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는 靳楓毅, 1982·1983, 「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 82-4·83-1, 김영수 옮김, 1994, 「曲刃青銅短劍을 포함하는 中國東北地區의 文化遺存論」, 金瑛洙 主編, 『古代東北아시아의 民族과 文化』, 驪江出版社, 289~310·335~367쪽; 박진옥·황기덕, 1987, 『비파형 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盧泰敦, 1990, 8,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37~38·42~49쪽; 金廷鶴, 1990, 「古朝鮮의 起源과 國家形成」,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171~177쪽; 林炳泰, 1991,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81~94쪽; 이청규,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특히 19~22쪽; 姜仁旭, 1996, 4, 「요녕지역 비파형동검에 대한 일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21, 173~247쪽; 吳江原, 1997, 10, 「西遼河上流域 青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12, 368~369쪽; 宋鎬晷, 1999, 2,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35~38·43쪽; 朴京哲, 1999, 「遼西琵琶形銅劍文化의 再認識」, 『先史와 古代』 12; 吳江原, 2002, 9, 『琵琶形銅劍文化의 成立과 展開過程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33~134·143~153·273~284쪽; 이청규,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 6, 14~16·27~32쪽; 박경철, 2005, 위의 글, 115~125쪽;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35~38쪽; 박준형, 2012a,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174~191쪽; 오강원,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청동기 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동양학』 51, 141~154쪽; 오강원, 2013a,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작용 및 족속」, 『高句麗渤海研究』 46, 19~23쪽.

9)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에 관한 정리는 朴京哲, 1999, 위의 글, 231~245쪽, 박경철, 2005, 위의 글, 115~125쪽 참조.

화인 ‘十二臺營子類型文化’를 예맥이享有 주체가 되는 ‘遼西琵琶形銅劍文化’의 중심 문화라 파악하고 있다.¹⁰⁾ 즉 요서 지방 및 내몽고의 청동기문화 즉 종래의 ‘遼西青銅器文化’의 제 유형은 ‘십이대영자 유형·南山根 유형·大井 유형’으로 분별·인식되는 바,¹¹⁾ 이들 중 山戎이 담당 집단인 남산근 및 대정 유형을¹²⁾ 제외한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가 예맥계의 ‘요서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 문화인 셈이다.

B.C. 8~6세기로 편년되는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는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말재갈·Y字形銅器·십자형 동기 같은 馬具類 및 동끝·도끼와 같은 工具類,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하학 무늬 銅鏡과 사람 얼굴 모양과 동물 모양 등 장식품들을 그 주요 출토 유물로 갖춘 유형의 문화라 파악된다. 이 유형 문화에서 눈여겨볼 것은 만주·한반도 출토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連續Z字무늬 동경의 존재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울이 遼東 지방 本溪 梁家村에서도 출토되고 있다는 점¹³⁾ 양 지역이 요허를 사이에 두고 문화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¹⁴⁾

10)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대체로 노로아호산맥 이북의 내몽고 지방과 그 이남 요하 이서의 요령성 관할 구역 양 지역의 고고문화의 차별성을 담당주민과 문화 성격의 差別性으로 연결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따를 경우, 필자는 현재 주로 요령성 관할 구역 내에서 비파형동검-다뉴문경을 표지 유물로 갖는 예맥을 향유 주체로 하는 청동기 문화를 ‘요서비파형동검문화’로 개념 정의코자 한다. 또 필자는 이 문화를 동질적인 종족적·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시기별·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며 전개된 요령 지역 중에서도 요동 지역의 ‘요동비파형동검문화’와도 분별하고자 한다. 이 경우 ‘요서비파형동검문화’ 가운데서도 십이대영자 유적을 중심으로 시기별·지역별로 특화되어 하나의 유형화된 고고문화 현상을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라 보고 있다. 즉 필자는 요령 지역에서 전개된 요령 지역 비파형동검문화에는 시기별·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요서비파형동검문화’와 ‘요동비파형동검문화’가 있고, 전자의 하위 유형 문화로서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朴京哲, 1999, 위의 글, 247~253쪽.

11) 李清圭, 1993, 앞의 글, 10~11쪽; 이청규, 2005, 앞의 글, 14~16쪽.

12) 夏家店上層文化의 담당 주민=山戎을 중심으로 한 戎狄이라고 파악한 대표적 견해는, 宋鎬晟, 1999, 2, 앞의 글, 35~38쪽. 이와는 달리, 이 문화 담당 주민=東胡라 파악한 대표적 견해는 吳江原, 1997, 앞의 글, 404~415쪽.

13) 李清圭, 1993, 앞의 글, 10~11쪽; 이청규, 2005, 앞의 글, 14~16쪽.

14) 朴京哲, 1999, 앞의 글, 250~251쪽.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이른 단계 多鈕鏡이 부장된 무덤 중 지금까지 조사된 최대급 무덤은 遼東과 요서 모두에 존재한다. 그중 요서에는 朝陽 十二臺營子, 炮手營子 등이 있다.¹⁵⁾ 그런데 조양 십이대영자의 인근 수km 이내에는 다수의 청동기 副葬墓가 조사된 바 있어 이 일대에 초기단계의 ‘國’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⁶⁾ 곧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 하담 집단은 B.C. 8~6세기경 國家(state) 직전의 ‘君長社會(chiefdom)’ 수준의 複合社會(social complexity)로 접어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군장사회(chiefdom)’란 首長을 중심으로 한 특정 血緣 집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地緣에 바탕한 ‘地域集團(regional group polity)’을 일컫는 용어다.¹⁸⁾

朝陽은 그 서쪽의 중원 청동기문화와 북쪽의 하가점상층문화의 남산근 유형 文化圈과의 접촉 지대로서 일찍부터 遼河 유역에서 중원과 북방 내몽고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였다. 大凌河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建平의 포수영자 등지에서도 다뉴경 부장묘가 있으므로, 이곳은 십이대영자 유형 분포권 내의 주변으로서 하위의 ‘국’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곧 B.C. 8~6세

15) 이청규, 2005, 앞의 글, 27쪽.

16) 이청규, 2005, 위의 글, 37~38쪽.

17) 박준형은 이를 “자체적으로 교역권을 갖는 정치단위”인 “국가성립 이전 단계인 小國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박준형, 2012, 앞의 글, 191쪽. 최근 吳江原 또한 십이대영자를 포함한 노호산하유역권의 이 시기 복합사회 수준을 ‘발달된 군장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강원, 2013b, 「遼寧地域 青銅器-初期 鐵器時代 複合社會의 形成과 社會變動」, 『선사와 고대』 38, 164~174쪽.

18) 최근 정치인류학계 일각에서는 인류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진전 상을 (family level society(group) → local group(局地的 集團) → regional group polity(地域集團) → state(國家))로 파악, regional group polity의 실체를 ‘simple and complex chiefdom(君長社會)’으로 적시하고 있다. 고구려의 ‘那’는 물론 흔히 ‘國’·‘城邑國家’·‘小國’도 그 실체는 군장사회인 것이다. Allen W. Johnson & Timothy Earle, 1987,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5~22; Timothy Earle,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Edit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 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Routledge, pp. 940~961, 朴京哲 譯, 1999. 12, 「政治的 支配와 社會進化」, 『史叢』 50, 高史會, 解題.

기경 多鈕鏡을 표지로 한 십이대영 자유형의 圈域에서 그 중심은 조양 십이대영자이고, 주변의 서쪽은 건평으로서, 상호 일정한 네트워크(net work)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¹⁹⁾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내몽고 지역 山戎 등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었음이 여러 고고문화 현상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즉 2000년 현재 국내 학계에 소개된 내몽고·東北3省·한반도에서 확인된 비파형동검 개체 수는 모두 331點으로서 내몽고 지역에서만 19개가 출토되었다.²⁰⁾ 그중 老哈河 유역 남산근 M101 石槨墓에서는 曲刃과 直刃式 동검 7점과 더불어 비파형동검 1점이 공반된 바 있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전체 출토 동검 수량의 1/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것은 피장자의 威勢品으로서 요서 지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혹은 청동 제품의 원료 취득과 관련하여 요서 지방과 하가점 상층문화와 일정한 교섭 관계가 있었다고²²⁾ 추론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비파형동검은 동부 내몽고 呼倫貝爾盟 鄂溫克族自治旗 伊敏河 煤鑛遺蹟에서도 발견된 바,²³⁾ 요서 지방 비파형동검문화 담당 세력들과 大興安嶺山脈 北麓 초원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양상이 의외로 깊고 광범위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헌자료상 그 존재의 확인이 어려웠던 B.C. 12~7세기경 예맥은 고고학 자료 속에서나마 노로아호산맥 이남 대릉하 유역 청동기문화의 향유자로서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지는 현 단계로서는 조양 십이대영자 일대로 추정된다. 또 바로 이들이 후술할 사료 (1-b)상에 적

19) 이청규, 2005, 앞의 글, 37~38쪽; 박경철, 2005, 앞의 글, 125쪽; 박준형, 2012, 앞의 글, 185~191쪽.

20) 金貞培, 2000,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 88, 2~6쪽.

21) 박경철, 2005, 앞의 글, 119쪽.

22) 吳江原, 2002, 9, 앞의 글, 133~134·143~153·273~284쪽.

23) 金貞培, 2000, 앞의 글, 2쪽. 필자는 이 비파형동검이 현재 呼倫貝爾市(舊 海拉爾市)에 위치한 '呼倫貝爾民族博物館'에 伊敏 출토 '靑銅短劍'으로 전시 증임을 2012년도의 현지 답사 당시에 확인한 바 있다.

시된 '穢貉'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_ 齊 桓公의 北伐과 濊貉

史料

- (1) (a) 於是桓公東救徐州, ……中救晉公, 擒狄王, 敗胡貉, 破屠何, 而驕寇始服, 北伐山戎, 制令支, 斬孤竹, 而九夷始聽, 海濱諸侯, 莫不來服, ……(b) 桓公曰, 余 乘車之會三, 兵車之會六, 九合諸侯, 一匡天下, 北至於孤竹山戎穢貉. (『管子』卷8, 小匡篇 第20)
- (2) (桓公)二十三年(663 B.C.), 山戎伐燕, 燕告急於齊, 齊桓公救燕, 遂伐山戎, 至于孤竹而還 ……(『史記』卷32, 齊太公世家 第2)
- (3) (莊公)二十七年(664 B.C.), (a) 山戎來侵我, 齊桓公救燕, 遂北伐山戎而還, (b) 燕君送齊桓公出境, 桓公因割燕所至地予燕, 使燕共貢天子, 如成周時職, 使燕復修召公之法.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第4)
- (4)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莢, 可得以聞呼, 管子對曰, ……燕之紫白金一莢也, 發朝鮮之文皮一莢也. (『管子』卷23, 揆道篇 第78)
- (5) (a) 管子曰, 陰王之國有三 而齊與在焉, 桓公曰, 若此言可得聞乎, 管子對曰, 楚有汝漢之黃金, 而齊有渠展之鹽, 燕有遼東之煮, 此陰王之國也 ……(b)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游於天下, 而傷寡人, 寡人之行, 爲此有 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毳. 服而以爲幣乎, ……一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管子』卷24, 輕重甲篇 第80)

『관자』는²⁴⁾ 齊 桓公의 霸業 곧 “천하를 바로잡는(一匡天下)” 과정(사료 1)

24) 『管子』(사료 5·8·9)는 齊 桓公(685~643 B.C.) 당시 宰相 管仲의 언행을 모아 놓은 글로서, 漢代 劉向(77~6 B.C.)이 校定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先秦 시기 자료들의 실제 저작 시기는 빠른 순으로 정리해보면 [『관자』(7C B.C., 사료 1-4-5) → 『詩經』(470 B.C.) → 『墨子』(390 B.C.) → 『孟子』(280 B.C., 사료 12) → 『呂氏春秋』(237 B.C., 사료 11)]가 된다. 선진 문헌 자료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저

이 다른 여러 자료들, 예컨대 사료(2와 3)과도 합치한다는 점에서 선진 문헌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신뢰도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春秋時代(770~475 B.C.), 특히 B.C. 7세기경을 전후한 예맥과 조선의 존재 양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료의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 책의 조선·예맥 관련 기사는 ‘一匡天下’ 관련 자료(사료 1)와 ‘發朝鮮’ 관계 자료(사료 4와 5) 두 계통으로 분류되며, 그들이 시사하는 역사적 제 事象의 함의 또한 각기 달리 새기는 것이 타당함은 물론이다. 특히 후자 즉 사료(4와 5)는 선진 문헌들 가운데서 ‘朝鮮’이라는 명칭이 처음 보인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에 값하는 자료다.²⁵⁾

B.C. 7세기경 齊는 천하의 패업을 도모할 만큼 강국인 반면, 燕의 사정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 연은 西周 중기 이후 춘추시대에 걸쳐 거의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연의 입지인 燕山 지역에는 軍都山 일대의 玉皇廟文化·내몽고의 夏家店上層文化·太行山 일대의 白狄 계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 세력집단이 雄據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은 이들의 압박 속에서 중원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召公之法(사료 3)’의 실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고단한 처지를 堪耐하고 있었다. 춘추 연의 상황은 그 都城을 琉璃河 遺址 → 臨易(河北 容城縣 南陽 유지) → (臨)易(古賢村)’으로 세 차례나 옮겨다닌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된다.²⁶⁾ 사료(1과 2 및 3)의 B.C. 663년 제 환공의 북벌은 B.C. 664년의 ‘山戎伐燕’ 상황에 대응한 군사행동이었던 것이다.²⁷⁾

현재 사료(1)에서의 ‘穢貉’의 존재에 대한 신빙성에 관한 논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료(1)은 제 환공 천하 평정의 결과 ‘穢貉’과 중원 세력이 일정한 관계

술된 것이 『관자』라 할지라도, 비록 서주 대의 역사적 사실을 적시한 기사가 실린 자료들의 예맥에 관한 인식에도 『관자』 이후 형성·정립된 예맥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金時俊 外, 1980, 『中國의 古典 100選』, 東亞日報社; 皮錫瑞, 李鴻鎮 譯, 1984, 『中國經學史』, 同和出版社; 유권중·방준필, 1995, 『함께 가보는 중국고전여행』, 사민서각 참조.

25) 朴京哲, 2005, 앞의 글, 126쪽.

26) 배진영, 2008, 「춘추 연의 도성 천도와 의미」, 『이화사학연구』 36, 133~159쪽.

27) 배진영, 2002, 「춘추시기 연국 대외관계의 변화」, 『中國史研究』 17, 2~5쪽.

(사료 4와 5)를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사료(1)의 時點은 B.C. 660년대 어간으로 추정된다. 곧 환공은 “狄王을 생포하고, 胡貉을 패배시키며, 屠何를 공파함으로써 말 타고 침구하는 敵을 처음으로 복속시켰고, 북으로 山戎를 정벌하고, 榑支를 제압하며, 孤竹을 뱀으로써, 九夷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사료 1-a)고 한다. 따라서 환공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북으로 고죽과 산용 그리고 ‘穢貉’에 이르렀다고 술회하고 있다(사료 1-b). 한편 사료(2)를 보면, 환공은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에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으며”, 사료(3)에서는, 이를 “북으로 산용을 정벌하고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예맥은 산용·고죽 등의 동쪽 곧 大凌河 이동 지역에 위치하여²⁸⁾ 환공의 북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는 제 환공의 북진이 灤河 유역에 그쳐 그 동쪽의 예맥과는 직접 접촉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는 이 북벌을 계기로 ‘예맥’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적인 접촉·교류보다는 燕을 통해 입수하거나 傳聞하였을 가능성도²⁹⁾ 없지 않은 것이다.³⁰⁾

그러나 제가 북벌 과정에서 원하던 원치 않았든 간에 예맥과 직접 接續·交戰하였을 가능성도 지나쳐볼 수 없음은 사료(1-a)의 ‘敗胡貉’ 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본래 산용(內蒙古 방면)과 영지(난하 유역) 및 고죽·도하(대릉하 유역)는 내몽고와 요서 방면에 거주하던 종족들이었다.³¹⁾ 그런데 사료(1-b)에서는 이들 외에도 ‘예맥’이 분별 언급되고 있는 바, 이것의 존재는 사료(1-a)에서의 ‘호맥’에 대응된다. 이는 ‘胡貉=穢貉’이 이들과 요서 지방에서 뒤섞여 살면서도 종족적으로 峻別되는 존재였음을 시사한다.³²⁾

28) 宋鎬晷, 1999, 2, 앞의 글, 76쪽.

29) 金貞培, 2000, 앞의 글, 75쪽.

30) 朴京哲, 2005, 앞의 글, 126~127쪽.

31) 宋鎬晷, 1999, 2, 앞의 글, 23~26쪽; 金貞培, 2000, 앞의 글, 75쪽;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78~91쪽.

32) ‘호맥’의 맥이 핏의 북방에서 연의 북방에 걸쳐 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박준형, 2012b, 『“濊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 『學林』 22, 21~22쪽.

이 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은 요서지역의 주민집단 분포와 그에 따른 종족적·문화적 地形圖가 매우 뒤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의 凌源·건평·喀左·北票·조양 등지의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지들의 존재는³³⁾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제 환공의 북벌 시 예맥계 주민집단과의 遭遇·교전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만 없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쨌든 B.C. 7세기를 기점으로 제와 연 등의 중원 세력이 산용·고죽 등의 敵對 세력 너머에 존재하는 예맥에 관한 구체적 지식·정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사료(1-a)에서의 “始聽”은 이를 가리켜 하는 말로 짐작된다.³⁴⁾ 한편 이후 연은 중원 제국의 질서에 재편입하는 “復修召公之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사료 3).³⁵⁾

B.C. 663년 제 환공의 북벌 이후 B.C. 6~4세기 요서 지방에서의 연을 포함한 중원 세력 및 북방계 제 세력과의 相關性이 보다 뚜렷해진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제 환공의 북벌 이후 연의 중심 지역인 연산 일대에 대한 유목 제 세력의 압박이 약화됨에 반하여, 요서지역에 대한 이들 세력 및 문화의 침투 강도가 제고 되고, “燕復修召公之法(사료 3)”의 결과 연의 요서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릉하 유역의 객좌 南洞溝, 능원 三官甸子 유적에서는 동과·동정·동계·차축두·재갈과 같은 중원적 요소와 직인동부·동물장식과 같은 북방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武器 체계에서는 여전히 비파형동검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원식 銅戈가 공반된다. 建昌 于道溝 土壙墓 유적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대표적인 중원식 동검인 도씨검 및 동과와 함께 출토되었다. B.C. 5세기 이래 대릉하 유역에서는 비파형동검 문화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戰國系와 일부 북방계 문화 요소가 토착적 요소를 압도하는 단계로 진전된다. 특히 B.C. 4세기 건창 東大杖子 유적에서 나타나는 중원 문화의 영향력은 주목에 값한다. 즉 요서지

33) 金貞培, 2000, 앞의 글, 14~28쪽.

34) 朴京哲, 1999, 앞의 글, 247~253쪽.

35) 배진영, 2002, 앞의 글, 25~30쪽.

역에서는 비파형동검 문화의 正體性이 退色하는 고고문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3_ 遼東琵琶形銅劍文化和 ‘發朝鮮’

예맥계 주민집단을 주체로 하는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 지방에서 B.C. 10세기 경 성립한 뒤, B.C. 8~7세기경 이래 요령 지역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生態的·地政學的·生業經濟的 조건에 卽應한 ‘발전의 不均等性’이나 생태적 적응 전략의 차별성에 따라 異形同質의 종족·주민집단으로 분별되면서, 여러 下位 문화권으로 분화·발전해 나간다. 필자는 이를 ‘濊貊文化圈’이라 지칭한 바 있다. B.C. 8~7세기경 이래 예맥문화권의 중심 지역은 요동 지방 곧 太子河와 渾河를 중심으로 하는 遼河 유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요서비파형동검 문화가 요동 지방 瀋陽지역 일대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B.C. 6~5세기에 접어들어 심양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즉 ‘遼東琵琶形銅劍文化’의 주요 內包가 되는 鄭家窪子類型文化가 바로 그 중심 문화로 새로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³⁷⁾

B.C. 6~5세기경이 되면 동북아 최대급의 다뉴경 副葬墓는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정가와자 유형에서 나타난다. 즉 이 시기 요동지역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 유형 문화가 요동비파형동검문화의, 나아가 새로운 예맥문화권의 중심 문화-중심지로 부각되게 되었다.³⁸⁾

한편 遼東半島 南端 大連市 일대에는 심양지역과는 별개의 요동 비파형동검 문화 집단이 ‘요동 早期 청동기문화’의 하나인 ‘雙砬子文化’의 전통을 잇는 積石墓를 造營하며 발전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집단은 石槨墓와 支石墓를 기

36) 그러나 오강원은 B.C. 6~5세기 십이대영자문화의 중심이 객좌 중심과 심양 중심으로 다극화됨을 주장하고 있다. 오강원, 2012, 앞의 글, 22쪽.

37) 吳江原, 2002, 9, 앞의 글, 295~303쪽; 이청규, 2005, 앞의 글, 38~39쪽, 박경철, 2005, 앞의 글, 132~135쪽.

38) 이청규, 2005, 위의 글, 38~39쪽.

본묘제로 삼는 여타 예맥계 집단들과 준별되는 崗上墓로 표상되는 자기 특유의 埋葬慣行을 견지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을 갖춘 세력집단이었던 것임은 분명하다.³⁹⁾

『管子』의 사료(1)에 적시된 제 桓公의 북벌 사실과 사료(4와 5)의 ‘發朝鮮’ 관련 記事가 모두 환공 當代 사실의 기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관자』는 漢代 劉向(77~6 B.C.)이 校定할 당시 B.C. 7세기 이후 齊國의 주변 제 세력 관계가 환공 대의 사실로 假託되어 서술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사료(1)→사료(4와 5)’는 齊를 포함한 중원 제국의 대동북아 인식이 춘추시대의 ‘穢貉’에서 그 이후 ‘發朝鮮’으로 보다 구체화되어갔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다. 더구나 사료(4)에서의 ‘海內=天下’론이나 (5의 b)의 “發朝鮮不朝” 논의 자체는 B.C. 5세기 이후의 戰國時代 統一論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中國=九州=天下’論의 관념적 표현으로 이해된다.⁴⁰⁾ 사료로서의 『관자』 역시 중국 天子의 당위적인 지배 범위를 ‘天下’로 상정하고, 이민족 세계를 그 천하의 일부에 포함시켜 주변 민족의 역사를 사실상 중국 왕조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중국 측 문헌자료의 문제점⁴¹⁾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필자는 사료(1)의 제 환공의 북벌은 B.C. 7세기경 춘추시대의, 사료(4와 5)의 ‘發朝鮮’은 전국시대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사료(5의 b)에는 ‘發朝鮮’이 사료(1-b)의 ‘穢貉’에 갈음하여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發朝鮮’=‘穢貉’]이 될 것이다. 이 자료들에서 발조선은 문피 곧 豹皮(표범 가죽) 혹은 ‘文皮氊服(표범 가죽과 그것으로 만든 옷)’의 특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發’은 종족·주민의 개념과 유관한 듯하며, ‘朝鮮’은 지역 혹은 집단에 대한 呼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

39) 朴京哲, 1997. 9, 「紀元前 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 『韓國史研究』 22, 2~12쪽.

40) 李成珪, 1975. 11, 「戰國時代 統一論의 形成과 意味」, 『東洋史學研究』 9·10, 東洋史學會, 86~89쪽. 이에 대해서는, 朴京哲, 2005, 앞의 글, 130쪽.

41) 李成珪, 2004. 5,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이성규 외,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12~13쪽.

인다. 따라서 사료(4·5의 b)의 ‘發朝鮮’은 곧 ‘發族(貊族)의 조선’이라는 뜻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貊族이 조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주민들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⁴²⁾

사료(5의 a와 b)는 당시 발조선이 문피를 매개로 제와, 같은 계통의 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구운소금(煮)을 가지고 연과 교역을 하고 있었음을 적시해준다. 사료(5의 a)는 당시 연이 인접한 요동에서 구운소금의 교역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齊도 이 교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다. 실제로 요동의 소금은 시기는 떨어지지만 漢 대에는 鹽官이 설치될 정도로 역대 중원 세력들에게 탐나는 資源이 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논자에 따라서는⁴³⁾ 사료(5의 a)에서 “燕有遼東之煮” 기사를 당시 제가 요동을 연의 통치범위에 포함시켜 이해했던 것으로 보면서, 이 당시부터 요동과 조선이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齊가 연과 인접한 요동에서 구운소금이 산출됨을 인식할 정도로 연을 넘어선 요동 지역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연이 요동으로 직접 세력을 뻗친 것은 그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전국시대 B.C. 4세기 말~3세기 초경의 일이다.

발조선의 문피는 중원에 익히 알려진 특산물이었다. 따라서 사료(5의 b)는 제의 환공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제와 발조선으로 표방되는 예맥 제 집단 사이에 문피를 매개로 한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⁴⁴⁾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되듯이 요동반도와 山東半島(특히 膠東半島) 사이의 廟島列島를 통한 해상교류는 이미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⁴⁵⁾ 당시 강국이었던 齊는 환공의 북벌을 빌미로 燕을 제치고 동북아 一隅 요동에 자리한

42) 金貞培, 2000, 앞의 글, 71쪽. 이하 ‘발조선’에 관해서는, 朴京哲, 2005, 앞의 글, 128~131쪽.

43) 송호정, 2003, 앞의 책, 165쪽.

44) 송호정, 2003, 위의 책, 92~93쪽.

45) 李清圭, 2003,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 『韓國古代史研究』 32, 105~107쪽.

예맥 제 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산둥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제는 춘추시대 이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묘도열도를 이용해 조선과 활발한 교역 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이다.⁴⁶⁾ 이 묘도열도를 이용하는 해상로는, 산동의 登州(지금의 蓬萊)에서 출발하여 大謝島(長山島)·龜歆島(砫砬島)·末島(廟島)·烏湖島(隍城島)의 列島를 지나 요동반도 남단의 馬石山(지금의 旅順 老鐵山)에 이르는 길이였다.⁴⁷⁾ 제와 조선은 요동·산둥 양 반도를 연결하는 열도의 해상교통로를 통해 육로상의 중간지대인 연을 경유하지 않고도 상호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⁸⁾

사료(4·5)에서 제·연 등 중원 제 세력과 교역을 매개로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 ‘발조선’의 실체는 요동 비파형동검 문화권 내에서 정가와자 유형 문화를 향유하는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맥계 주민집단으로 추정된다.⁴⁹⁾

발조선의 ‘文皮’는 대체로 호랑이와 같은 얼룩무늬의 맹수를 지칭하며, 옷보다는 깔개나 수레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 환공이 주변의 諸侯들을 慰撫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위신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⁵⁰⁾ B.C. 7~3세기대의 모피는 吉林省 중남부 지역, 특히 鴨綠江 중상류 유역이 그 중심 產地다.⁵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요동반도 남단 崗上 집단 존재다. 이곳 유적지들이 거의 전부 海岸에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해상교통로와 유관한 집단

46) 박준형, 2004, 「古朝鮮의 대외 교역과 그 의미-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2, 63~93쪽.

47) 박준형, 2006,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 『北方史論叢』 10, 177~178쪽.

48) 흑자는 춘추시기 膠萊河 이동지역 즉 교동반도 일대에는 萊夷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내이가 춘추시대 이래 斥山(山東省 榮成市)을 중심으로 제와 조선 간의 교역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준형, 2006, 위의 글, 179~183쪽;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3, 5쪽.

49) 박경철, 2005, 앞의 글, 137~138쪽.

50)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244~245쪽.

51) 강인욱, 2011, 위의 글, 260쪽.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발조선의 중심 세력인 심양 지역 집단과 대련 지역 집단 사이에는 원거리 국제교역을 담보하는 네트워크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컨대 모피의 국제 교역로는 ‘鴨綠江 상·중류 유역 → 심양 정가와자 집단 → 대련 강상집단 → 齊都 臨淄’로 상정되어진다.

연·조선의 교역 품목인 구운소금은 생필품으로서 그 附加價值가 제·조선 간의 그것인 文皮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난다. 더구나 연의 요동으로 연결되는 육상 교역로 자체가 내몽고·요서 방면의 諸夷族의 위협에 항상 노출된 상황인 까닭에 제에 비해 무척 불리한 交易條件을 강요받고 있었다. 따라서 연의 제·조선 관계에 대한 疑懼心과 당혹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 연은 그에 대한 특단의 해결책을 찾게 된다.

B.C. 6~5세기경 발조선으로 인식됐던 이들 요동의 예맥계 제 집단들은 제·연 등 중원 제 세력과 육상과 해상의 遠距離交易 메커니즘(mechanism)을 무리 없이 稼動·운용할 수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조선’이라 인식되던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 유형 문화에 바탕한 요동 지역 예맥계 제 주민집단은 複合君長社會(complex chiefdom) 수준의 정치적 삶의 樣式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²⁾

Ⅲ. B.C. 4~3세기 東北亞 情勢變動과 朝鮮과 燕의 衝突

1_ B.C. 4세기 말~3세기 초 古朝鮮 國家形成

史料

(7) 蘇秦將爲從，北說燕文侯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 樓煩。

52) 오강원, 2012, 앞의 글, 164~174쪽.

(『戰國策』卷29, 燕1 燕文公)

- (8)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史記』卷69, 列傳第9 蘇秦)
- (9) 魏略曰, (a) 昔箕子之後, 朝鮮侯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 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b)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 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韓條)
- (10)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鹽鐵論』第45, 攻伐篇)

前章에서 B.C. 6~5세기경 요동 지역 예맥계 주민집단은 複合君長社會 수준의 정치적 삶의 樣式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요동 지역 예맥계 주민집단의 문화는 B.C. 4세기경에 이르러 말기 비파형동검 단계 혹은 다음의 典型的인 세형동검 단계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적 양상을 示顯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이곳에서 청동기문화의 鐵器文化로의 繼起의 진전 과정 가운데서 齎출된 力動性(dynamics)은 고조선 國家形成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사료(9)를 요동에서의 고조선 국가 형성과 직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 일찍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견해는 사료(9)가 조선의 ‘朝鮮侯’가 조선의 ‘王’이 되며, 조선이 ‘大夫’와 같은 일정한 官僚 體系를 갖추고, 戰國七雄 중 하나인 燕과 대등한 외교 및 戰爭의 당사자로서 성장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예맥의 나라 ‘朝鮮’은 예맥문화권의 선진 지역인 요동 지방에서 B.C. 4세기 말~3세기 초 初期國家 / 原生國家 (pristine state)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본다.⁵³⁾ 이 경우, 이 조선은 청동기시대 이래 축적된 제 역량을 토대로 철기시대에 진입하면서 성립된 우리 민족 최초의 ‘國家’였던 것이다.

53) 金貞培, 1986, 『韓國古代的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出版部, 79~81쪽.

한편 이와 관련 우리 학계에서는 이때의 고조선이 聯盟王國 단계의 ‘國’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파악하는 견해와,⁵⁴⁾ 당시 고조선이 연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眞番·臨屯과 같은 小國과 聯盟體를 결성하여 대외적으로 통일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개진되고 있다.⁵⁵⁾ 그러나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전쟁을 통해 성장한 군사 지도자가 祭祀權까지 확보하여 君長(chief)으로 발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지위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世襲시키면서 등장한 최고 統治者가 바로 국가의 ‘王(king)’인 것으로 이해한다. 또 이 견해는 國王이 직전 단계의 군장과 다른 점은 바로 권력을 세습하는 측면이라고 보면서, 이 세습적인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국가의 형성기라고 파악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점에서 B.C. 4세기 말 고조선의 지배자는 중국 측 사료에 따르면 燕王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朝鮮王’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B.C. 282년 무렵 연의 反擊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갔지만, 王號는 계속 이어져 沮王-準王으로 계승되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⁵⁷⁾ B.C. 4세기 말은 고조선이 전국 7웅의 하나인 燕王國에 대한 공격을 도모할 정도로 정치·군사적 역량이 축적된 시기로서, 당시의 조선왕을 군사통수권자로서의 國王(king)에 상정해도 무리가 없는 시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고조선은 본격적인 國家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판단된다.⁵⁸⁾

그럼에도 『戰國策』(사료 7)에서 B.C. 4세기 말경 蘇秦(?~317 B.C.)은 燕이 동으로 “朝鮮遼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사료(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실제 동북아 정세와 다른 관념론에 불과함은 사료(9의 b)와 (10)에서 연이 실제로 그보다 다소 시기가 떨어지는 B.C. 282~280년에 이르러서야 秦開의 東征을 계기로 “度遼東而攻朝鮮(사료 10)”하게 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4) 이청규, 2005, 앞의 글, 41쪽.

55) 박준형, 2012, 앞의 글, 201쪽.

56) 박대재, 2005, 「고조선의 ‘王’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187쪽.

57) 박대재, 2005, 위의 글, 164~165쪽.

58) 박대재, 2005, 위의 글, 165~166쪽.

따라서 사료(7)과 (8)에서의 “燕東有朝鮮遼東”이란 사료(5의 b)의 “燕有遼東之煮”와 다름없는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 즉 이는 정확히 말해서 “연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다만 사료(9)에 비추어는 바, 당시 燕과 조선의 관계는 ‘發朝鮮(사료 5의 b)’ 때와는 달리 단순한 교역 수준 이상의 정치·외교·군사상의 관계망 속에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 조선·연 사이의 전쟁 勃發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_ 朝鮮과 燕의 衝突

史料

- (1) 往者四夷俱強 并爲寇虐 朝鮮逾徼 劫燕之東地. (『鹽鐵論』 卷7, 備胡)
- (2) 箕子居朝鮮 其後伐燕. (『博物志』 卷8)⁵⁹⁾
- (3) 蘇秦將爲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噶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匹 粟支十年. (『戰國策』 卷29, 燕1)
- (4) 昭王二十八年 燕國殷富 士卒兵鐵輕戰.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 (5) 太史公曰 燕北迫蠻貉 內措齊晉 崎嶇疆國之間 最爲弱小幾滅者數矣.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 (6) 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于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史記』 卷110, 匈奴列傳)
- (7)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朝鮮 爲置吏 築障塞.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 (8)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 (9) 燕王亡 徙居遼東 斬丹以獻秦 …… 三十三年 秦拔遼東 虜燕王

59) 『鹽鐵論』과 『博物志』는 각각 前漢 宣帝(B.C. 74~49) 때 桓寬이 편찬하였고, 후자는 西晉 때 張華(232~300)가 편찬한 바 있다.

喜.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第4)

(사료 9-a)는 燕과 조선은 ‘稱王’ 문제에서 비롯된 戰爭 勃發 일보직전의 상황이 외교적 타협을 통해 모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B.C. 334년 齊의 ‘칭왕’에 뒤따라, B.C. 323년 즈음에 연 등 戰國期 제 列國은 다투어 칭왕하게 된다. 이는 각국의 諸侯가 국내체제 안정 및 국력신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領域國家의 군주로서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고 더 나아가 ‘王天下’의 열망을 표출한 결과였다.⁶⁰⁾ 이러한 연 등 중원 제국의 동향에 대응하여 조선 역시 ‘朝鮮侯’ → ‘朝鮮王’으로 스스로 ‘칭왕’하게 된다. 이 B.C. 323년 무렵이 고조선 국가 형성의 時點이 됨은 상술한 바 있다.

당시 燕은 북쪽으로는 ‘蠻貉’에게 막혀 있고 중국 내부(서·남쪽)로는 제와 췌에게 交錯되어 있어 세력을 뺏어나가기가 어려운 형세였다(사료 15). 그런데 B.C. 323년 무렵은 제·연 간의 무장충돌이 小康狀態에 처한 시기였던 까닭에, 연은 國勢 팽창의 돌파구로서 조선에 대한 強硬政策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역시 그 이전부터 다져온 齊와의 우호적인 교류관계에 힘입어(사료 5), 그리고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도 감수하는 대연 강경책을 구사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연 간 갈등의 裏面에는 B.C. 5세기 이래 遼西 지역에서 濊貊系 세력의 退潮 현상과 이를 계기로 한 연 측의 이곳에서의 影響력 확대 시도에 대한 조선 측의 반발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상황은 양국 간의 외교적 교섭의 결과 잠정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었다(사료 9-a).

그러나 齊·燕·朝鮮 사이의 소강상태가 깨지게 된 것은 연에서 일어났던 ‘子之의 亂(314 B.C.)’을 빌미로 齊가 연에 군사적으로 개입, 침공하면서부터다. 연의 이 內亂과 그로 인한 대혼란, 그리고 그 틈을 탄 齊의 침공과 연왕 噲의 사망 등으로 연은 거의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史記』 燕世家에 따르면 연에 왕이 없는 극심한 혼란 상태가 그 후 2년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무렵에 조선이 연의 동쪽 땅을 침공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

60) 박대재, 2006, 앞의 글, 7쪽.

다.⁶¹⁾ B.C. 311~314년경 조선은 이러한 연의 망국 위기 상황을 틈타 “燕之東地(사료 11)”를 “伐燕(사료 12)”하는 군사행동을 단행한다. 요서 지역은 서쪽 중원의 華北 農耕文化圈과 努魯兒虎山脈 이북 내몽고 일대의 遊牧 문화권과의 접촉 지대로서 요동에서 이들 방면으로 접근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朝鮮逾徼 劫燕之東地”하는 “伐燕”은 아마도 요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強攻手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조선 측의 의도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는 사료(13)이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당 사료상 蘇秦이 合縱說을 유세한 대상은 연 文侯(文公)가 아니라 사실은 연 昭王(311~279 B.C.)이다. 즉 이 사료는 연 소왕 즉위 초기 소진이 연이 처해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⁶²⁾ 물론 소진은 이 사료에서 主君의 富國強兵 의지를 자극하고자 다소 과장된 내용을 말했겠지만, 당시 연 측마저도 조선의 상대적 강세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실제로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사료(13)의 “朝鮮遼東”을 ‘조선과 요동’으로 새기면서, 연의 대혼란기에 조선이 요하를 넘어 연의 동쪽 요서 지역을 침공하여 점거하게 되었으며, 이 변화를 계기로 소진이 소왕 즉위 초기에 연의 동쪽 정세에 대해 “朝鮮(遼西)과 遼東”이라고 설명했다고 보기도 한다.⁶³⁾

燕人들은 B.C. 311년에 이르러서야 趙의 원조하에 公子 職을 昭王으로 옹립할 수 있었다. 소왕은 체제 개혁 곧 ‘變法’과 이를 바탕으로 富國強兵政策, 燕下都 경영을 통하여 ‘巨燕’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사료 14). 특히 合縱策을 憑藉하여 제를 고립시키고 견제하는 소왕의 대외 정책은 伐齊를 위한 외교적 포석이었다.⁶⁴⁾ 소왕 28~29년(284~283 B.C.)에 연은 ‘벌제’를 단행, ‘濟西之戰’을 치르면서 제의 왕도인 臨淄를 포함 70여 城을 함락시켜, 卽墨·

61) 박대재, 2006, 위의 글, 11~14쪽. 한편 서영수는 이 사료를 진한교체가 조선이 秦에게 빼앗겼던 涇水 以東의 땅을 회복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수, 1999,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114~115쪽;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변동」, 『白山學報』 76, 475쪽.

62) 박대재, 2006, 앞의 글, 17~18쪽.

63) 박대재, 2006, 위의 글, 18쪽.

64) 배진영, 2003, 「燕昭王之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3~8쪽.

함·聊를 제외한 제의 全域을 차지하여, 지난 B.C. 314년의 수모를雪辱하게 되었다.

연은 합종론을 구사하여 齊를 고립시키는 한편 東胡와 조선에 대한 現狀維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기들의 제일의적 과제인 ‘벌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환경 조성에 腐心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 소왕은 南伐 직후인 B.C. 282~280년 동호와 조선에 대한 北伐과 東征을 감행한다.⁶⁵⁾ 전국시기(5~3세기 B.C.) 내몽고 주민은 東胡라고 볼 수 있다. 동호란 동부 내몽고의 大興安嶺地區 呼倫貝爾草原을 중심으로 삼는 유목민족인 바, B.C. 3세기 말 匈奴와의 충돌에서 패배, 이후 鮮卑와 烏桓으로 分岐된다. 사료(16)에 따르면, 奏開는 동호에 머무르는 동안 깊은 신임을 얻어 그곳의 여러 제도나 혹은 주변과의 관계를 충분히 감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이 두 세력은 항상 親緣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破齊 이전까지 동호와 연 상호 간에는 人質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큰 위협이 될 존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⁶⁶⁾ 그럼에도 동호는 사료(11)에서 적시된 바처럼 항시 “寇虐”의 가능성이 있는 “四夷”였던 것이다. 즉 동호란 연에게 있어서는 조선과 더불어 항시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자리 매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은 사료(10)의 “襲”이나 사료(16)의 “襲破”에서 엿볼 수 있는 바처럼 이제까지의 상황에 안주하여 방심하고 있던 동호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이들을 千餘里 가량 패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연은 B.C. 282~280년 동호 “襲破”에 잇달아 지난 B.C. 311~314년 이래 조선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던 요서 지역과 그 너머 요동의 조선에 대한 反攻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地二千餘里”를 차지하고, “滿番汗”을 경계로 삼았다(사료 9-b).

연의 대조선 군사행동의 구체적 성과는 “滿番汗”을 경계로 “略屬眞番朝鮮

65) 진개의 동정 시점에 대해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燕昭王 B.C. 284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60~63쪽.

66) 裴真永, 2003, 앞의 글, 21~22쪽.

(사료 17)”이었다. 당시 연장 진개는 요서를 장악함으로써 고조선의 동호 등 유목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동 지역으로 진공하여 당시 조선의 중심지인 瀋陽 지역에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齊와 의 해상 교역로를 끊고 이를 자기 통제하에 두기 위해 만변한까지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한편 우리 학계의 일각에서는 燕將 진개가 동호 경략에 이어 요서 지역까지 들어와 있던 조선 세력을 요동 지역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遼河를 건너 진군을 계속했고, 그 최종 공격 목적지는 제와 조선의 주요 해상 연결 거점이었던 요동반도 서남부 해안지역의 만변한을 지향했던 것으로⁶⁷⁾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은 이러한 동호·조선에 대한 북벌과 동정의 결과 燕5郡의 설치와 造陽~襄平 사이의 燕長城 축조 役事를 벌일 수 있었다(사료 18). 이를 전후한 燕上都인 薊城(北京 일대) 遷都는 소왕의 巨燕 정책의 마무리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滿番汗(사료 9의 b)’의 실제, 그리고 燕 즉 遼東 지배의 실상 곧 사료(17)의 “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障塞”의 구체적 해석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진개가 침공했다고 한 서쪽 2,000여 리 땅(사료 9의 b)을 모두 고조선의 그것으로 보기보다는 동호의 지역 1,000여 리까지 포함된 의미로⁶⁸⁾ 이해하고 있다. 燕軍은 현재 北京 지역에서 山海關이 아닌 喜峰口를 거쳐 朝陽으로 들어와 요서 지방을 확보하였던 것이다.⁶⁹⁾ 이어 연군은 義縣을 거쳐 당시 요동과 요서를 가르는 醫巫閭山 남록을 통과 요동에 진입, 요하를 넘어 당시 조선의 중심지인 渾河邊의 심양을 제압하고, 滿番汗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이 경우 요서에서 만변한에 이르는 진개의 進攻路의 거리가 1,000여 리라는 셈이다.

『漢書』地理志에는 遼東郡의 屬縣으로 文縣(汶縣)과 番汗縣이 붙어서 기

67) 박대재, 2006, 앞의 글, 28쪽.

68)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69) 李龍範, 1996, 「大陸關係史 古代篇(上)」, 白山學會, 『韓民族의 大陸關係史』, 백산학회, 5~11쪽.

록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학계는 ‘滿番汗’이 바로 이 두 현의 連稱이라고 본 丁若鏞의 견해⁷⁰⁾에 주목하여, 그것을 문현과 변한현이 위치했던 요동반도 서남부 蓋州市 일대(千山山脈 서쪽 지역)로 비정하고 있다. 이를 따른다면, 필자는 조선과 연의 界線으로 千山山脈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千山山脈은 太子河 상류 유역 本溪 일대에서 시작하여 南西向하여 남북으로 遼東半島의 脊椎 형세로 뻗어나간 거대한 산맥이다. 이 산맥 이서 지역에는 遼河平原이, 그 이동 지역은 심양-鳳城-丹東-新義州로 연결된 통로를 제외하고, 대부분 험한 山地다. 개주 역시 이 천산산맥 서측 즉 요동반도의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고조선이 만변한을 연과의 계선으로 삼았다면, 결국 천산산맥이 그 경계가 됨을 상정할 수 있다.⁷¹⁾ 실제 B.C. 3세기 대 요동 동부 및 西北韓 지역의 遼寧式 및 韓國式 청동무기(細形銅劍·柳葉形銅鉞·遼寧式銅戈·細身形銅鉞 등)가 출토되는 유적지의 분포는 주로 천산산맥 남-북쪽의 본계·新賓·봉성·寬甸·桓仁·通化·集安 등에, 특히 그 남쪽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이⁷²⁾ 본 所論의 고고학적 방증이 된다고 본다. 현재 本溪博物館에 전시된 遺物들 중 戰國期에 해당하는 중원 계통의 그것을 찾아보기 힘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Google Earth’에 따르면, ‘朝陽~沈陽=317km’+‘沈陽~本溪=74.7km’=391.7km, 곧 ‘조양~본계=약 400km, 1000里’가 된다는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사료(17)의 “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障塞”에서의 ‘眞番’의 존재가 주목된다.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진번의 위치와 실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後漢의 주석가인 應劭가 “옛 眞番은 朝鮮의 胡國”이었다고⁷³⁾ 지적했듯이 朝鮮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주변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⁷⁴⁾ 그 시기 여

70) 丁若鏞, 『我邦疆域考』, 卷1, 朝鮮考.

71) 서영수, 1999, 앞의 글, 110쪽; 서영수, 2006, 앞의 글, 470쪽; 박준형, 2012, 앞의 글, 204쪽.

72) 이후석, 2013,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위만조선」, 2013. 9/27 고조선사연구회 발표문, 29쪽.

73) 『漢書』卷28下, 地理志 玄菟郡條 注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74) 이 논의에 대해서는 박대재, 2006, 앞의 글, 29쪽.

하를 불문하고 ‘北·南眞番 移動說’이⁷⁵⁾ 맞다면, 필자는 ‘胡國’이라는 표현에 따라 眞番이란 요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南下 전 조선과 親緣 관계를 갖는 예맥계의 유력한 세력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漢四郡의 眞番郡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略屬”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연이 진번과 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복속시켜 실질적 지배를 행하였는가의 여부다.

종래 학계에서는 燕 長城의 서쪽 끝인 造陽은 上谷郡의 郡治인 懷來縣에 비정되며, 동쪽 끝인 襄平은 遼東郡의 郡治인 지금의 遼陽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래 학계는 연5군의 郡과 郡治는 상술한 두 郡 외에도 漁陽郡(郡治: 密雲縣 혹은 懷柔縣)·右北平郡(郡治: 河北省 平泉·遼寧省 凌源縣 安杖子古城址·內蒙古 寧城縣 甸子鄉 黑城古城址·寶坻縣)·遼西郡(郡治: 朝陽市 十二臺營子 袁臺子 遺址)으로 파악해온 바 있다.⁷⁶⁾

그런데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연 長城 유적의 분포 현황을 보면,⁷⁷⁾ 연이 동호를 몰아내고 설치했다는 5군 가운데 요동군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연 장성(赤峰 南長城)의 東端은 요하를 건너지 못하고 당시 요서와 요동의 실질적인 分水嶺인 醫巫閭山 서쪽 阜新에서 그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연이 襄平에 설치했다는 遼東郡의 실체에 대해 그 實在을 인정하는 쪽⁷⁸⁾과 懷疑的으로 보는 쪽으로⁷⁹⁾ 시각차가 있어 왔다.⁸⁰⁾ 실제로 우리 학계

75) 千寬宇,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47~148쪽; 박준형, 2012a, 앞의 글, 199쪽.

76) 裴眞永, 2005,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中國史研究』 36, 5~11쪽.

77) 요서지역에서도 內蒙古 赤峰 지역과 마찬가지로 3道の 장성 유적이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발견되는데, 燕 長城은 동쪽으로 醫巫閭山 서쪽의 阜新에서 멈추고 있다. 다시 말해 燕이 東胡를 몰아내고 쌓았던 장성이 실제로는 遼河를 건너지 못하고 요서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박대재, 2006, 앞의 글, 25쪽.

78) 裴眞永, 2005, 앞의 글.

79) 徐榮洙, 1988, 앞의 글, 41쪽; 서영수, 1999, 앞의 글, 110쪽 각주(60); 서영수, 2006, 앞의 글, 470쪽 각주(38).

80) 박대재, 2006, 앞의 글, 25~26쪽.

의 일각에서는 연의 요동군이 地目만 있을 뿐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⁸¹⁾ 제시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당시 연의 遼東郡 治所인 ‘襄平’을 과연 遼陽이라 비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疑問은⁸²⁾ 이미 先學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즉 秦漢 고चे기 項羽는 舊燕 지역에서의 封國體制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옛 燕將 출신인 臧荼를 ‘燕國’의 燕王에, 韓廣을 ‘遼東國’의 왕으로 봉한다. 그런데 臧荼가 한광을 5개월 후 요동국 수도인 無終에서 살해한다. 무종의 현재 위치는 河北省 薊縣으로서 山海關-遵化-平谷으로 이어지는 현존 萬里長城 이남에 위치한다. 전국기 연 昭王은 燕上都인 薊城(北京 일대)으로 천도한 바 있다. 그 이후 연은 요동군의 郡治를 인근의 無終(河北省 薊縣)에 설치하고 이를 ‘襄平’으로 칭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⁸³⁾

B.C. 227년 秦은 燕太子 丹의 秦王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연을 정벌하게 된다. 이에 연왕 흠은 요동으로 물러나 丹을 죽이고 화의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C. 222년 진장 王賁은 요동을 공격, 희를 생포, 연을 멸망시킨다. 사료(19)는 B.C. 227년 연왕 흠가 王都인 薊(北京 일대)에서 진을 피해 遼東으로 徙居하였다고 한다. ‘Google Earth’에 따르면, ‘北京~沈陽=666.8km’인데, 요양은 그보다 더 남쪽인 太子河 유역에 자리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먼 거리로 연왕의 遷徙가 가능할지 의심이 든다. 더구나 秦은 B.C. 222년 요동에 잔존했던 연을 공멸시킨 후, B.C. 221년 곧장 남하하여 돌연 산둥반도 臨淄로 진공하여 쉽게 齊를 멸한다. 이 점은 사료(19)상의 ‘요동’이 진의 突出的 대제 군사행동이 가능한 작전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만큼, 그곳은 요양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곧 秦이 요동 즉 하북성 계현 일대로 피신한 연 희왕을 공격한 직후 곧바로 병력을 산둥 방면으로 남하시켜 齊都인 임치를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연 장성은 현재 요동 지

81) 박대재, 2006, 위의 글, 26쪽.

82) 권오중, 1995, 「전한시대의 요동군」, 『인문연구』 29(영남대), 273~274쪽.

83) 권오중, 1995, 위의 글, 273~276쪽.

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료상의 요동군 치소 '양평'을 오늘의 요양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그러므로 필자는 연의 요동군치인 襄平을 현재의 遼陽으로 비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북성 薊縣의 無終 일대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해볼 때, 연의 요동 지배단 “略屬” 수준의 일정한 지배 기제가 驅動하는 강력한 그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특히 昭王 사후에 惠王과 樂毅 사이의 갈등과 이 틈새를 타서 齊의 復國이 이루어지고, 이후 연의 약체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연이 요동에 線狀의 장성은 물론 點列狀의 그것조차 構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요동 대부분 지역에 燕長城이 처음부터 축조되지 않았다고 봄이⁸⁴⁾ 타당할 것이다. 실제 요동군치인 襄平으로 알려진 요양의 '燕秦漢' 유적이란 것도 대부분 漢대의 그것임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종래 관련 학계는 B.C. 3세기 이후 요하~淸川江 유역에서 철기를 위시한 戰國燕系 유물이 공반되는 고고문화를 '細竹里-蓮花堡類型'이라 지칭하며, 이를 연의 요동~청천강 이북에 대한 실질적 지배의 근거로 개념해왔다. 그런데 본고의 '滿番汗=千山山脈'論이 맞다면, 이 종래의 논의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화보 유적이 천산산맥 훨씬 북쪽 渾河 북안 撫順 외곽에, 세죽리 유적은 천산산맥과는 동떨어진 서북한 영변에 위치하는 점은 이러한 고고문화 유형의 내용 여하를 떠나 그 문화유형 개념의 정당성에 일말의 의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또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철기문화 향유 지역이 연의 領土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연국 境內의 유물 공반상에 비견되는 유적 및 城址와 같은 연 문화의 특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유적이 대량으로 발굴되어야만 하지만, 철제 농기구와 貨幣를 제외하면 예맥 문화계 유물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상

84) 오강원, 2010a,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195~196쪽. 한편 중국 학계의 '長城' 조사 및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종수, 2011, 「中國의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한국사학보』 참조.

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화의 존재를 일괄적으로 연의 요동 지배의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⁸⁵⁾

다만 현재 遼寧과 서북한 지역에서 연나라 유물이 공반되는 유적이 516개 소이라는 점은⁸⁶⁾ 연의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천산산맥 이동 지역 주민들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鐵嶺縣 新台子鎮 新台子村의 燕나라 建物遺址인 ‘邱臺遺址’와 梨樹 二龍湖 城址 등의 요동 외곽 주변부에서 확인된 예외적인 사례는⁸⁷⁾ 사료(17)의 “爲置吏 築障塞”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심증을 준다.⁸⁸⁾ 즉 당시 연은 郡縣制와 같은 강고한 지배기제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略屬”을 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邱臺遺址’와 같은 “爲置吏 築障塞”한 點在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자국 商賈들이 개척한 교역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의 일정한 세력 부식과 영향력 행사를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이 지역 제 집단들의 사회적 複合度는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연의 철기문화와 새로운 기술·지식·정보에 대한 需要는 예맥계 주민들 사이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곳 주민들의 연의 문화 등에 대한 수요와 이 지역의 문피·구운소금 등 특산물에 대한 연 측의 경제적 動機가 相乘 작용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연의 세력과 영향력이 일정하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고고 문화적 증거가 明刀錢 유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때 명도전이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집중 출토된다고 하여 연과 조선의 새로운 경계가 된 ‘滿番汗’이 그곳에 위치했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국내학계에서도 명도전을 조선과 연의 경계 기준보다는 양국 사이의 교역과 관계된 유물로 보는 경향

85) 강인욱, 2011, 앞의 글, 267쪽.

86) 오강원, 2010a, 앞의 글, 173~191쪽.

87) 오강원, 2010b, 「연나라 요동군과 동요하유역 토착집단의 독특한 교류방식: 이용호 성지」, 『백산학보』 88.

88) 오강원, 2010b, 위의 글, 196~197쪽.

이 강하다.⁸⁹⁾ 그리고 최근에는 요하 동쪽 명도전 유적의 담당자를 燕이 아니라 조선의 주민이라고 보는 좀 더 진전된 견해가⁹⁰⁾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의 고찰을 볼 때 명도전 관련 유적들은 대체로 천산산맥 이동 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며, 이것은 고조선 내부의, 혹은 연의 상고와 고조선인들 간의 교역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或者는 이 지역 명도전 埋納 유적들을 毛皮貿易과 관련된 中繼貿易의 증거들이라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 명도전 관련 유적에서 발견되는 화폐들의 다수가 명도전이긴 하지만 秦漢代의 화폐가 일부 섞여 있다는 점을 들어 연의 이 지역 지배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⁹¹⁾

조선은 B.C. 282~280년 진개의 동정 이후 滿番汗을 경계로 요서·혼하·천산산맥에 이르는 1,000여 리(약 400km)에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상실하고 천산산맥 이동으로 웅크려들게 되었다. 사료(9의 b)에서 적시한 “朝鮮遂弱”이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IV. B.C. 2세기 衛滿朝鮮의 成立과 漢과의 葛藤

1_ 秦의 天下統一과 朝鮮

史料

- (20)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朝鮮爲置吏築障塞 秦滅燕屬遼東外徼 漢興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史記』卷115, 朝

89) 최몽룡, 1997,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경제」,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90)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先史와 古代』 14; 박선미, 2005, 「戰國~秦·漢初 화폐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北方史論叢』 7.

91) 강인욱, 2011, 앞의 글, 262~270쪽.

鮮列傳 第55)

- (21)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至遼東. (『史記』 卷88, 蒙恬列傳 第28)
- (22) 魏略曰 …… (a)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到遼東, (b)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三國志』 권30, 烏桓鮮卑東夷傳 제30 韓條 所引『魏略』)
- (23) (a) 三十二年(B.C. 215), 始皇之碣石, (b) 二世皇帝元年 (B.C. 209), 年二十一 ……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史記』 卷6, 秦始皇本紀 第6)

秦은 B.C. 221년 천하를 통일한 뒤에 蒙恬을 시켜서 장성을 쌓게 하여 요 동까지 이르렀다(사료 21과 22의 a). 이때 조선왕 쯤가 즉위하였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사료 22의 b).

진의 대조선 정책은 연의 그것에 비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사료(23)은 秦始皇과 秦二世의 巡幸 관련 기사인데, 그들 旅程의 동쪽 한계는 ‘碣石’이었다. 이 갈석은 현재 渤海灣을沿한 하북성 山海關 秦皇島市 北戴河 지역과 이서의 碣石山이 있는 昌黎 일대를 일컫는다. 특히 창려 서쪽으로는 灤河가 흐르는바, 이 난하는 중원과 塞外 문화의 계선으로 주목받는 하천이다. 사료(23)은 진이 이곳 갈석 지방을 자기들 統治圈의 동한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료(20)의 “秦滅燕屬遼東外徼”는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⁹²⁾ 곧 진은 연을 멸한 후 그곳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徼’란 “巡察하다, 巡幸하다”라는 뜻의 글자다. 즉 진은 구 연나라 지역을 ‘遼東巡察地域’이라는 특수 관리 구역 정도로 인식·규정하였던 것이다. 진나라는 전국을 36개 郡으로 나누는 郡縣制度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진의 요동에 대한

92) 서영수는 이 사료가 秦의 조선 정벌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면서, 당시 조선은 천산 산맥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땅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영수, 1999, 앞의 글, 112~114쪽; 서영수, 2006, 앞의 글, 473~474쪽. 서영수는 ‘徼’를 “夷敵을 막기 위해 강가에 설치한 서남쪽의 요새”를 뜻한다고 새기고 있다. 서영수, 1999, 앞의 글, 112쪽 각주(67).

이러한 인식과 조치들은 자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먼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대외정책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다. 진의 제1차 과제는 匈奴 문제였다. B.C. 4세기 무렵 흉노는 이미 중국의 북방 초원 지대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으며, 전국기의 趙·秦·燕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흉노는 진의 중심부인 關中 지방에 인접해 출몰한 까닭에 매우 위험한 존재였다. 따라서 秦始皇은 B.C. 215년 몽념의 지휘하에 30만 대병을 동원하여 흉노를 토벌하여 전국 말에 빼앗겼던 오르도스(Ordos) 지역을 수복하고, 九原郡을 설치하였다. 이어 진시황은 B.C. 214~213년 ‘直道’라는 軍事道路網을 구축하고, 萬里長城을 축조하였다. 또한 B.C. 214년 진은 남방의 ‘百越’을 정벌하는 등 동북의 요동과 조선 문제까지 손댈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기에는 진의 治世(221~207 B.C.)가 너무 짧았던 것이다.

이 시기 고조선은 B.C. 3세기 전반 중심지 이동에 따른 정비과정을 거쳐 상당한 역량을 축적시킨 것으로 보인다. B.C. 214~213년에 조선왕 조가 즉위 하였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으나, 入朝하지는 않았다(사료 22의 b)고 한다. 그러나 진에 복속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大帝國 진과 일정한 정치·외교적 관계를 맺는 주체로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平壤에서 발굴된 秦 銘文 銅戈가 이러한 조선·진 교류의 물증이 된다.⁹³⁾ 그러나 衛滿이 한때 머물렀다는 涇水 이동의 “秦故空地 上下鄣”⁹⁴⁾의 존재는 진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혹자는 진이 연을 멸망시킨 후 이곳을 邊方 혹은 空地로 남겨두어 일종의 완충지대로 기능케 한 것이라 보고 있다.⁹⁵⁾ 그런데 ‘障’이란 산간 지역에 설치된 소형 城堡나 戰略的인 필요에 따라 長城 本體 외에 별도로 요충지에 축조해놓은 城堡·城堡群을 일컫는다.⁹⁶⁾ 당시 秦은 涇水 이동의 땅을 일종의 자기 영역으로의 제 적대 세력의 침투를 차단해주는 防牌의 땅, 곧 ‘遮斷地(cordon

93) 이청규, 2005, 앞의 글, 48~49쪽.

94) 『史記』 卷115, 朝鮮列傳 55.

95) 이청규, 2005, 앞의 글, 49쪽.

96) 오강원, 2010a, 앞의 글, 198쪽.

sanitaire)’ 혹은 ‘防衛前地(glacis)’로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⁹⁷⁾ 당연히 진은 이곳에 2중의 城堡(“上下鄣”)를 구축하여 조선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던 듯하다. 이처럼 당시 조선의 동향은 진의 눈에도 심상치 않게 보였을 것이다. 아마 조선은 연과의 전쟁으로 상실한 천산산맥 즉 ‘滿藩汗’ 이서 지역을 蠶食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까 추측해본다. 사료(22-b)의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으나 입조하지” 않음도 이런 점과 유관한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진은 이러한 조선의 동향에 대하여 “上下鄣”을 운용하는 위기관리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요동 지역에 존속되었던 明刀錢 관련 연화보·세죽리 유형의 철기문화는 변화를 겪게 된다. 고조선계 청동기(細形銅劍), 粘土帶土器의 갖춤새와 연나라 계통의 철기, 회색도기의 갖춤새가 융합된 上堡村(本溪) 유형의 문화가 이 시기의 요동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명도전 매납 유적은 조선·연과의 교역 관계망 아래에서 유지되었던 명도전의 화폐 기능이 상실되면서 退藏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⁹⁸⁾

2_ 衛滿朝鮮의 成立

史料

- (24) (a) 盧綰者, 豐人也, 與高祖同里 …… 高祖已定天下, 諸侯非劉氏而王者七人 …… (b) 燕王綰悉將其宮人家屬騎數千居長城下 …… 四月, 高祖崩, 盧綰遂將其衆亡入匈奴, 匈奴以爲東胡盧王. 綰爲蠻夷所侵奪, …… (c) 太史公曰, 韓信·盧綰非素積德累善之世, 徼一時權變, 以詐力成功, 遭漢初定, 故得列地, 南面

97)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는 나라는 그 領土가 확대되는 경우, 자국의 邊境, 나아가서는 자국 全土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자기 나라 주위에 타국이면서 자국에로의 外侵을 막아줄 수 있는 防牌의 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패의 땅을 政治地理學에서는, 外侵을 遮斷해준다는 의미에서 ‘遮斷地(cordon sanitaire)’라고 부르거나 자국 앞에 있는 땅이 자국을 防禦해준다는 뜻에서 ‘防衛前地(glacis)’라 부른다. 任德淳, 1985,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237~239쪽.

98) 이청규, 2005, 앞의 글, 47쪽.

稱孤。內見疑疆大，外倚蠻貊以爲援，是以日疏自危，事窮智困，卒赴匈奴，豈不哀哉! 『史記』 卷93, 韓信盧縮列傳 第33)

- (25) (a) 朝鮮王滿者，故燕人也 …… 秦滅燕 屬遼東外徼，(b) 漢興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淇水爲界 屬燕，(c) 燕王盧縮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淇水 居秦故空地 上下鄣稍役屬 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史記』 卷115, 朝鮮列傳 55)
- (26) 燕丹散亂遼間，滿收其亡民，厥聚海東，以集眞藩，葆塞爲外臣。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 (27)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無使盜邊，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勿得禁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 『史記』 卷114, 朝鮮列傳3)

B.C. 3세기 말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B.C. 207년 秦帝國이 붕괴되고, 劉邦의 漢이 B.C. 202년 項羽의 楚를 제압함으로써 중원은 다시 통일되었다. 바로 이 무렵인 B.C. 206년 북방 초원 시대에서도 匈奴 冒頓單于가 내몽고 시라무렌(Siramuren) 유역으로 추정되는 ‘棄地’에 대한 지배권 갈등을 빌미로 동쪽의 東胡를 強襲하여 이를 대파, 이들을 鮮卑와 烏桓으로 奔散하게끔 만들었다. 이제 동아시아 霸權을 둘러싼 한과 흉노의 장기간의 角逐戰이 시작된 것이다.

漢은 高祖가 B.C. 200년 平城(山西省 大同) 인근 白登山에서 흉노에게 참패한 이후, 文帝~景帝대(179~141 B.C.)에 이르기까지 對匈奴和親策에 매달리면서 국내에서의 郡縣制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일제국 정립에만 부심하고 있었다. 곧 建國期 한 고조의 제일의적 과제는 郡國制하 다수의 異姓諸侯王(사료 24의 a)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일이었다. 고조의 이러한 정책은 B.C. 203년 楚王 韓信에서 시작되어 韓王 信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B.C. 195년 燕王 盧縮에 대해서 차례로 관철되었다. 이들 이성제후 왕들의 존재는 사료(24의 c)의 “內見疑疆大，外倚蠻貊以爲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匈奴·‘蠻貊’ 등과도 연결되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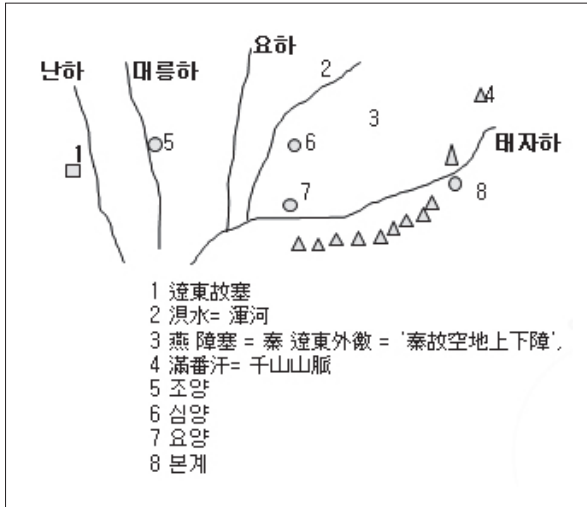
기 생존기반을 공고히할 것을 도모하고 있었다. 실제로 韓王 信·陳豨·盧縮이 모두 흉노로 망명하고 있다. 특히 노관은 사료(24의 b)처럼 “宮人家屬騎數千”을 이끌고 흉노로 투항하여, 그들의 ‘東胡盧王’이 되어 오히려 한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上谷 이동에서 요동에 이르는 동북 諸郡은 흉노의 左方王將(左賢王)의 소재지에 인접해 있어 흉노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문제~경제 시대에는 동북지역의 안정 확보를 위한 出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文帝 시기 흉노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으로는 雲中郡과 아울러 遼東郡이 꼽히고 있다. 武帝期 이전의 요동군은 중앙의 군사적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 아래에서 매우 불안한 지역이자 열약한 郡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⁹⁹⁾

사료(25의 a와 b)는 한이 진의 “遼東外徼” 管轄 지역이 멀어서 지키기 힘들다 하여 요동의 故塞를 다시 고쳐 사용하면서 涇水를 朝鮮과 경계로 삼아 그 이서의 땅을 ‘臧荼 → 盧縮’이 다스리던 燕國에 소속하게 하였음을 말해준다. 주목할 것은 漢初 요동 방면에서의 한의 세력 萎縮相이다. 한은 본래 있던 “秦故空地 上下鄣(사료 25의 c)”을 포함한 “요동이 멀고 지키기 힘든 까닭”에 요동의 옛 거점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界線을 과거 조선과 燕의 경계에서 더 후퇴하여 涇水로 정한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 조선이 본래 ‘滿番汗(千山山脈)’ 이동으로 밀려났다가, 秦의 소극적 대동북아 정책과 진한고체기의 혼란 그리고 이 방면에서의 흉노의 강세와 跋扈를 틈타 천산산맥 이서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적시해주고 있다.¹⁰⁰⁾ 따라서 필자는 ‘遼東故塞’는 전국 연기의 요동 군치인 하북성 계현의 無終 일대에 위치했다고 본다. 진이 대조선 ‘차단지’ 혹은 ‘방위전지’로 운용한 바 있던 “秦故空地上下鄣”은 만번한 이서 涇水 사이에 있었고, 여기서 더 서쪽에 ‘遼東故塞’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涇水는 지난 국가형성기 조선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瀋陽에 연하여 흐르는 渾河가 아

99) 권오중, 1995, 앞의 글.

100) 徐榮洙도 본고의 논지와는 다소 차별성이 없지 않지만, 고조선이 한초 실지를 회복했다고 본 바 있다. 서영수, 1999, 앞의 글, 114~116쪽; 서영수, 2006, 앞의 글, 474~476쪽.



<개념도 1>

닐까 추정해본다.¹⁰¹⁾ 이를 圖示한 概念圖가 <개념도 1>이다.

사료(25의 b)와 (26)과 (27)은 B.C. 194년 “故燕人”인 衛滿이 “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을 규합하여 고조선의 王權을 장악하였고, 衛滿朝鮮은 대외적으로 漢과의 外臣關係를 맺음으로써 兵威財物을 얻어 주변 지역을 복속하여 廣域의 領域國家로 성장하였다고 보는 通說의 근거가 된다.¹⁰²⁾

“故燕人”인 위만이 쉽게 조선에 받아들여져 중용된 것은 그의 역량을 뛰어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 위만과 그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은 고조선사 전개 的 流轉 속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大凌河 유역 遼西 지역의 문화가 요령 비파형동검문화 초기의 한 軸으로 구실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 문화는 특히 B.C. 5~4세기를 起點으로 燕 문화의 영향으로 그 내용이 점차 變容되어갔다. 특히 대릉하 유역의 南洞溝·東大杖子 유형은 戰國

101) ‘渾河=溟水說’은, 서영수, 1999, 위의 글, 115쪽; 서영수, 2006, 위의 글, 476쪽.
 102) 박준형, 2011, 「위만조선의 지배구조와 대외관계」, 고조선사연구회 2011. 9. 30 발표문, 1쪽.

系·북방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비파형동검을 무기체계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요서 비파형동검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다.¹⁰³⁾ 그러나 8.C. 282~280년 연 陳開의 동정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존재 양식의 변화마저 강요하게 된다. 특히 B.C. 3세기 초 이후 이곳 예맥계 요서 집단은 급격한 문화 변동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연 勢力圈 아래로 편입되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곳 지역 주민들은 濊貊·燕·秦·漢 등 지배 세력의 빈번한 교체하에서 자기들 상호 간 일정한 관계망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정치·문화적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역량을 온축한 집단이었다. 진한교체기 중국인들의 視線에서 위만을 “故燕人(사료 25의 a)”이라고 한 기록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⁴⁾

衛滿集團 역시 이 요서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被髮左衽(魑結蠻夷服)’의 전통을 지켜온 예맥계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은 위만을 수장으로 연·진 및 진·한 교체의 動亂期 속에서 臧荼·盧縮으로 이어지는 燕王의 지배기제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라 추정된다. 사료(24의 b)에서 盧縮이 흉노로 망명시 함께 움직인 “宮人家屬騎數千”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위만의 “聚黨千餘人(사료 25의 b)”은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님을 적시해준다. 특히 노관이 위기시 흉노로 亡入한 것이 “外倚蠻貊以爲援(사료 24의 c)”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는 점에 비해, 위만은 종래부터 종족적·문화적 친연성이 깊은 朝鮮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위만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사료(25의 c)와 (26)은 “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들이 眞番에 일단 집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이 경우 ‘진번’은 만번한과 패수 사이에 위치한 ‘燕 障塞=秦 遼東外徼=秦故空地上下障(〈그림 1〉의 3)’에 자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만조선은 위만계를 中核 집단으로 하는 예맥계 流移民 중심의 王權과

103)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68~73쪽; 박준형, 2012a, 앞의 글, 201~202쪽.

104) 金貞培, 1972, 「古朝鮮의 民族構成과 文化的 複合」, 『白山學報』 21, 45쪽.

재지 토착세력에 바탕한 相權이 연합한 집단의 寡頭制의 支配構造(origarchy system)로 구성되었다.¹⁰⁵⁾ 따라서 우리 학계는 이러한 이중적인 불안정한 지배 구조가 위만조선이 갖는 한계성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⁰⁶⁾ 예컨대 右渠王 때 朝鮮相 歷谿卿처럼 언제든지 스스로 국가 支配圈 밖으로 恣意的 퇴출을 감행한다든지, 한의 王儉城 攻圍戰 당시 드러난 지배집단의 自中之亂 등이 그 사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지배구조 形骸化의 계기는 언제나 대외 관계 진전의 고비고비에서 찾아온다.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장은 보통 對外交易(中繼貿易)과 領域化 과정(征服戰爭)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細形銅劍문화 요소의 대외교류 측면이다. 河北·山東 지역과 沿海州에서 확인되는 한국식 청동기, 요령·吉林 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문화 요소들은 위만조선 성립기의 교류양상을 대변한다. 한편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明刀錢과 半兩錢 등의 중원계 화폐와 車馬具, 그리고 전국시대 북방 草原系 문화에 기인하는 동물 장식이나 鳥形劍把頭飾은 이 시기 대외교류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결국 위만조선 청동기문화의 특징은 중원계 문화요소와 동북계 혹은 북방 초원계 문화요소가 세형동검문화 속에 복합, 변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의 지역 간 교류는 주민 이주와 模倣競爭, 전쟁 등 다양한 기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만조선 시기의 청동기문화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기반 위에 성립, 발전하였다는 지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위만조선의 문화는 세형동검문화를 바탕으로 한 철기문화로의 진전 상황 아래에서 마주 부딪치게 된 질·양 면에서 압도적이며 침투력과 同化力에서 빼어난 중원문화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오히려 중원문화를 자기들 문화 역량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105) 위만조선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는, 박준형, 2012c,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4~198쪽.

106) 노태돈, 1998, 「衛滿朝鮮의 정치구조-官名 분석을 중심으로」, 『汕耘史學』 8; 송호정, 2008, 앞의 책; 박준형, 2012c, 위의 글.

있게 되었던 것이다.¹⁰⁷⁾

國初 위만은 遼東太守를 통해서 한과 外臣 관계를 맺었다. 외신의 의무는 塞外的 蠻夷를 지키고(“保塞外蠻夷”), 변경에서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며(“無使盜邊”), 모든 蠻夷의 君長이 天子를 入見할 때 막지 않는다(“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는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사료 27).¹⁰⁸⁾ 그러나 학계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위만조선의 성장의 계기가 된 한과의 사이의 “兵威財物” 授受 관계는 외신 관계 체결 당시의 限時的인 것이었다. 또 이때 한에서 받은 발달된 鋼鐵製 武器類가 위만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주장은 고고문화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료(27)의 내용은 위만이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修辭的인 표현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⁰⁹⁾ 오히려 이 경우 위만은 외신의 직위를 감수하는 대가로 한으로부터 王權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위만조선의 주변 세력과의 대외 교섭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한이 內憂外患으로 외신의 의무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 위만조선은 주변 제 세력을 압박하며 광역의 영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⁰⁾

3_ 衛滿朝鮮과 漢의 葛藤

史料

- (28)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 …… , 北隣烏丸夫餘, 東綰穢貉朝鮮 眞番之利. (『史記』卷129, 貨殖列傳)
- (29)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史記』卷 110, 匈奴列傳)
- (30) 孝武皇帝愍中國罷勞無安寧之時, 乃遣大將軍驃騎伏波樓船之屬, 南滅百粵, 起七郡. 北攘匈奴, 降昆邪十萬之衆, 置五屬國,

107) 박경철, 2005, 앞의 글, 148쪽.

108) 박준형, 2011, 앞의 글, 3~6쪽.

109) 박준형, 2011, 위의 글, 5~6쪽.

110) 박준형, 2011, 위의 글, 18쪽.

起朔方，以奪其肥饒之地。東伐朝鮮，起玄菟樂浪，以斷匈奴之左臂。西伐大宛，竝三十六國，結烏孫，起敦煌酒泉張掖，以鬲婼羌，裂匈奴之右肩。單于孤特，遠遁于幕北。四垂無事，斥地遠境，起十餘郡。(『漢書』卷73, 韋賢傳 第43)

- (31) 衛滿擊破準，而自王朝鮮，傳國至孫右渠。元朔元年，濊君南閭等畔右渠，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武帝以其地爲蒼海郡。(『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濊條)
- (32) 彭吳穿穢貉朝鮮，置滄海郡，則燕齊之間靡然發動。(『漢書』卷24 下, 「食貨志」第4下)
- (33) 武帝以其地爲蒼海郡，數年乃罷。(『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濊條)
- (34) 傳子至孫右渠 眞番旁衆 國欲上書見天子，又擁 闕不通。(『史記』卷115, 朝鮮列傳 55)

사료(28)은 漢 초 異姓諸侯王으로서 分封된 燕國이 “穢貉朝鮮眞番”과 일정한 경제적 관계망 속에서 상당한 富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의 臧荼·盧綰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匈奴 左賢王(“左方王將”)과 일정한 연계하에 朝鮮 등과 교역을 행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의 一翼을 요서의 衛滿 집단이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흉노의 좌현왕은 上谷郡과 그 이동의 예맥 및 조선 방면을 통할하고 있었다(사료 29). 그런데 B.C. 195년 燕王 노관의 흉노 망입 이후 文帝~景帝대(179~141 B.C.)까지 上谷 이동에서 요동에 이르는 동북 계곡에서의 흉노의 발호가 더욱 극심하게 된다. 이 틈을 타 조선이 溟水 선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음은 상술한 바대로다. 이후 이런 정황을 숙지하고 있는 위만조선도 한과의 기왕의 外臣 관계를 무시·破棄하고, 흉노와 제휴하여 자국과 그 지배집단의 이익 제고에 진력하였을 것이다.¹¹¹⁾

위만조선과 匈奴 관계는 사료(30)을 비롯한 관련 史書에 “朝鮮=匈奴左臂”라는 記事 외에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몇 가지 傍證은 꼽을

111) 권오중,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27~28쪽.

수 있다. 匈奴에 있던 ‘裨王’이라는 官職이¹¹²⁾ 위만조선의 관직에도 있다는¹¹³⁾ 점이다. 또 고조선 태자가 王儉城 공위전시 항복 교섭차 “獻馬五千匹”을 시도한 사실이¹¹⁴⁾ 있는데, 전략물자인 말의 이런 물량의 需給은 오직 유목 세력 즉 흉노와의 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시 위만조선에게 말을 대량공급해줄 수 있는 루트는 ‘심양 → 通遼 → 烏蘭浩特 → 阿爾山 → 呼倫貝爾 草原이나 錫林郭勒(Xilingol) 초원’인데 이 大興安嶺 일대 또한 흉노 좌현왕이 통제하는 지역이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비록 同 시기는 아니지만 호룬패이시 ‘呼倫貝爾民族博物館’과 통요시 ‘科爾沁博物館(Horqin Museum)’에는 비파형동검이 전시되어 있는 바, 이전부터 이곳이 예맥계 주민과 초원 유목민들 간의 접촉 루트임을 짐작케 해준다. 또 『淮南子』에서 “以匈奴出穢裘”는¹¹⁵⁾ 흉노가 穢에서 산출되는 가죽 옷(穢裘)를 다시 중국과 교역한 것으로, 당시의 흉노와 예맥의 교역을 방증해주는 자료다.¹¹⁶⁾

그러나 위만조선과 흉노와의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과 속뜻은 B.C. 128~126년 蒼海郡 설치 문제에 드러나 있다. 武帝期(147~87 B.C.)에 이르러 한의 대흉노 정책은 공세적으로 전환된다. B.C. 133년 漢軍의 첫 出兵이 단행되었다. 그런데 B.C. 129년에는 한이 將軍 韓安國을 파견하여 漁陽·右北平·遼西郡에 駐屯하도록 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장군이 동북 지역에 駐紮하였음은 이제까지 방치해온 요동군을 비롯한 동북 제 군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¹¹⁷⁾ 곧 한의 동북지역에 대한 이러한 군사력 전개는 흉노의 좌측방 戰線을 위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판단된다. B.C. 128년 濊君南閭가 內屬하였다는 사실(사료 31과 32 그리고 33)은 바로 이 1년 전의 漢의 조치와 유관한 것

112) 『史記』 卷110 匈奴列傳에서의 霍去病에게 투항한 흉노 渾邪王의 裨王 呼毒尼가 그이다.

113) 『史記』 卷115, 朝鮮列傳 55.

114) 위의 책.

115) 『淮南子』 卷1 原道訓.

116) 박준형, 2004, 앞의 글, 85쪽.

117) 권오중, 1995, 앞의 글, 278쪽.

이다.¹¹⁸⁾

오늘날 우리 학계는 이 예군남여의 존재를 高句麗 국가 형성사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견해가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창해군의 입지는 扶餘史의 맥락에서 검토함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¹¹⁹⁾ 즉 첫째, 貊족의 住地를 ‘濊’라 하지 않고, 예의 그것을 일부 ‘濊貊’이라 지칭하기는 했어도 ‘맥’이라 한 적이 없다는 점, 둘째 압록강 유역 창해군의 경영 비용 과다로 이를 포기한 한이 예군남여 세력에 비해 보다 강력했고 훨씬 먼 곳에 위치한 위만조선과 치열한 교전상태를 2년간이나 끌면서 어떻게 끝내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B.C. 2세기 말 당시 高句麗社會의 정치적 통합 노력이 아무리 활발히 또 급속히 진전되었다 할 지라도, 이 지역에서 한에게로의 ‘內屬’ 같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수준의 응집력을 가진 28만 口의 대규모 집단을 통할하는 예군남여의 존재를 상정함은 무리라는 점이 그것이다.

당시 예군남여 집단은 위만조선이 흉노와의 癒着 관계에 기대어 주변 예맥계 제 집단과 한 및 흉노 간의 교섭을 제어하면서(사료 34) 자기 지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함에 반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예구’는 본래 훗날의 東濊가 되는 지역의 특산물이었다. 위만조선이 이를 貢納받아 흉노에게 賣買하고, 흉노가 다시 이를 중원에 轉買하여 수익을 취하고 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위만조선이 주변 제 세력에 대한 자원 수탈 구조를 구동시키고 있었음의 방증이 된다. 이러한 위만조선의 수탈적 貢納制는 비단 동예뿐 아니라, 松花江 유역의 예군남여 집단에게도 강요되었을 것이다. 예군남여 집단·沃沮·동예·“眞番旁衆國” 같은 주변 예맥계 제 집단은 한이나 흉노와의 직접 교섭을 막는 위만조선의 존재에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사료 34). 이에 한은 흉노와 위만조선을 側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예군남여 집단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

118) 권오중, 1995, 위의 글, 280쪽.

119) 朴京哲,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白山學報』 40; 朴京哲,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2: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여 이곳에 蒼海郡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의 조치가 “燕齊之間(사료 32)”의 위만조선이 운영하는 수탈구조와 이해관계를 가진 제 세력에게는 한 측의 새로운 동북 정책의 시행을 알리는 前兆로 받아들여져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창해군은 B.C. 126년 경영 비용 문제로 폐지되지만, 이후에도 한의 예군남여 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각별했던 듯하다. 위만조선은 長劍 아닌 細形銅劍이라는 短劍을 常用한 데 비하여, 扶餘의 先行 집단인 예군남여 집단(彩嵐·舒蘭·西岔溝·榆樹 등)은 ‘雙鳥形劍柄의 銅柄銅劍 → 雙鳥形劍柄의 銅柄鐵劍 → 원주식 劍柄의 銅柄鐵劍(3세기 B.C.~ 1세기 A.D.)’이라는 長劍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예군남여 집단이 한 측으로부터 ‘兵威財物’ 곧 장검 제작 기술을 이전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추론된다. 이처럼 창해군 설치하는 한이 흉노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渦中에서 단행한 위만조선과 흉노의 連帶에 썩기를 박는 조치였다. 그만큼 한의 양 세력 관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는 컸다고 짐작된다. 당시 한 측의 이러한 인식이 여러 사서에 投影된 것이 “朝鮮=匈奴左臂”라는 기사인 것이다.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위만조선 건국기 漢과 체결한 外臣 관계에 대해 한 측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에게 臣이라는 호칭을 강제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유력 君長에게만 外臣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친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모든 蠻夷를 그 外臣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外臣이 비교적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그들에게 특수한 의무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¹²⁰⁾ 문제는 그 外臣 관계의 내용에 대한 해석권이 언제나 한 측에 留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위만조선과 한 사이에는 갈등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常存하고 있었던 셈이다. 오히려 外臣이라는 개념 자체에 특정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恣意的인 요구를 강요할 수 있었다. 前漢 초기는 전란이 막 평정된 시기이므로 外臣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外臣에 대한 요구

120)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0, 15쪽.

는 景帝 시기 吳楚七國의 난을 전후로 諸侯國에 대한 한의 우세가 본격화되면서 크게 달라졌고, 더욱이 皇帝權이 크게 강화된 武帝 시기가 되면 內臣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외신의 의무 또한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¹²¹⁾

漢 武帝(147~87 B.C.)의 世界政策(world policy)은 漢-匈奴를 기축으로 한 2원적 동아시아 國際秩序를¹²²⁾ 한 중심으로 재편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은 자국의 안전보장의 담보와 주변 제 세력을 통제·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賦存 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무제의 세계정책은 주변 제 국가·민족·집단의 무장 해제와 세력 재편 심지어는 공간적 생존 영역의 재조정을 강제하는 매우 폭력적인 강제 機制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한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世界體制 곧 漢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平和體制(pax-Scinica system)의 실상이었다.

B.C. 133~119년간에 벌린 제1차 흉노와의 전쟁과 잇달은 B.C. 112~109년 간의 對越戰 그리고, B.C. 108년의 朝鮮征伐과 연이어 108년 이래 지속된 西域 정벌 등이 모두 이러한 정책의 구현 과정이었다. 특히 위만조선에 대한 한의 군사행동은 주변 제 민족을 흉노로부터 분리시킴을 통해 그들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漢은 자국의 '外臣'에서 '匈奴左臂'로 轉身한 조선에 대한 응징과 흉노와의 小康期에 그들을 간접적이며 迂廻의으로 공격하고자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¹²³⁾ 결국 사료(30)처럼, 한은 “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하게 된다.¹²⁴⁾

위만조선은 B.C. 2세기 말 동북아시아 방면의 유력한 武裝勢力(armed power)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당시 위만조선을 선두로 한 예군남여 집단·옥저·동예·“眞番旁衆國” 등 예맥계 제 집단의 정치적 성장은 交易圈의 확대와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力學 구조상의 위만조선의 위상과 이에서 비롯된 교역망 통제를 둘러

121) 김병준, 2008, 위의 글, 17~18쪽.

122) 권오중, 1992, 앞의 책, 26~27쪽.

123) 권오중, 1992, 위의 책, 29~30쪽.

124) 위만조선·한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는, 김병준, 2008, 앞의 글 참조.

싸고 漢帝國과의 갈등이 증폭되게 된다. 따라서 위만조선은 자기를 ‘匈奴之左臂’로 인식하던 한 측과의 전면적 군사대결을 벌이면서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 위만조선과 한제국과의 전쟁은 漢民族 제1차 팽창기인 秦·漢帝國 시기에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의 機會費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만조선을 중심으로 한 예맥계 제 집단은 여러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동아시아의 국제적 재분배 시스템으로 관념되는 ‘朝貢·冊封體制’을 매개 고리로 압박해오는 한 세력의 霸權主義에 대한 拮抗作用을 벌이면서, 꾸준히 자기 발전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東아시아史의 진전이 중국 문화의 受容과 이를 自己力量化한 주변 제국 세력의 저항이라는 상호 관계의 역동성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結語에 갈음하고자 한다.

B.C. 12~7세기경 예맥은 고고학 자료 속에서나마 노로아호산맥 이남 대릉하 유역 청동기문화의 향유자로서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지는 현 단계로서는 朝陽 十二臺營子 일대로 추정된다. 또 십이대영자 유형 문화 하담 집단은 B.C. 8~6세기경 국가 직전 단계인 군장사회 수준의 복합사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B.C. 7세기 齊桓公의 북벌을 기점으로 제와 燕 등의 중원 세력이 산융·고죽 등의 적대 세력 너머에 존재하는 예맥에 관한 구체적 지식·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B.C. 5세기 이래 요서 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 문화의 정체성이 퇴색하는 고고문화 현상이 진행되어가게 된다. B.C. 6~5세기에 접어들어 심양 지역이 비파형동검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다. 즉 요동 비파형동검문화의 주요 내포가 되는 鄭家窪子類型文化가 바로 그 중심문화로 새로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제·연 등 중원 제 세력과 교역을 매개로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 ‘發朝鮮’의 실체는 요동 비파형동검 문화권 내에서 정가와자 유형 문화를 향유하는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맥계 주민 집단으로 추정된다. B.C. 6~5세기경 발조선으로 인식됐던 요동 지역 예맥계 제 주민집단은 복합군장사회 수준의 정치적 삶의 양식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B.C. 4세기 말은 고조선이 전국 칠웅의 하나인 연에 대한 공격을 도모할 정도로 정치·군사적 역량이 축적된 시기로서, 당시의 조선왕을 군사통수권자로서의 국왕에 상정해도 무리가 없는 시기였다. 당시 고조선은 본격적인 국가 단계로 발전하였다.

B.C. 311~314년경 조선은 연의 망국 위기 상황을 틈타 “燕之東地”를 “伐燕”하는 군사행동을 단행한다. 조선의 “별연”은 요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강공수였다. 연은 B.C. 282~280년 동호 “襲破”에 잇달아 지난 B.C. 311~314년 이래 조선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던 요서 지역과 그 너머 요동의 조선에 대한 반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地二千餘里”를 차지하고, “滿番汗”을 경계로 삼았다. 고조선이 만번한을 연과의 계선으로 삼았다면, 결국 천산산맥이 그 경계가 됨을 상정할 수 있다. 연의 요동군 치인 襄平을 현재의 遼陽으로 비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河北省 薊縣의 無終 일대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시 연은 군현제와 같은 강고한 지배 기제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略屬”을 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邱臺遺址’와 같은 점재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자국 상고들이 개척한 교역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의 일정한 세력 부식과 영향력 행사를 꾀하고 있었다. 요동 주민들의 연의 문화 등에 대한 수요와 이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연 측의 경제적 動機가 相乘 작용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연의 세력과 영향력이 일정하게 확산되었을 것이다.

秦의 대조선 정책은 연의 그것에 비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秦故空地上下鞞”의 존재는 진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음

을 짐작케 해준다. 진은 涇水 이동의 땅을 일종의 자기 영역으로의 제 적대세력의 침투를 차단해주는 방패의 땅, 곧 ‘차단지’ 혹은 ‘방위전지’로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본래 ‘滿番汗(千山山脈)’ 이동으로 밀려났다가, 진의 소극적 대동북아 정책과 진한교체기의 혼란 그리고 이 방면에서의 흉노의 강세와 발호를 틈타 천산산맥 이서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涇水는 瀋陽에 연하여 흐르는 渾河로서 조선과 한의 경계가 된다.

B.C. 194년 衛滿이 “眞滿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을 규합하여 고조선의 왕권을 장악하였다. B.C. 5~4세기 이래 요서 지역 주민들은 예맥·燕·秦·漢 등 주도세력의 빈번한 교체하에서 자기들 상호 간 일정한 관계망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정치·문화적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역량을 온축한 집단이었으며, 이들이 바로 위만의 출자가 된다.

위만조선과 흉노의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과 속뜻은 B.C. 128~126년 蒼海郡 설치 문제에 드러나 있다. 당시 濊君南閭 집단은 위만조선이 흉노와의 유착 관계에 기대어 주변 예맥계 제 집단과 한 및 흉노 간의 교섭을 제어하면서 자기 지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함에 반발하였던 것이다. 위만조선 건국기 한과 체결한 외신 관계의 내용에 대한 해석권이 언제나 한 측에 유보되어 있었다. 한 武帝(147~87 B.C.)의 세계정책은 한·흉노를 기축으로 한 이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한 중심으로 재편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은 자국의 안전보장의 담보와 주변 제 세력을 통제·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부존 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B.C. 108년 위만조선에 대한 한의 군사행동은 주변 제 민족을 흉노로부터 분리시킴을 통해 그들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은 자국의 ‘외신’에서 ‘匈奴左臂’로 전신한 조선에 대한 응징과 흉노와의 小康期에 그들을 간접적이며 우회적으로 공격하고자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결국 한은 “伐朝鮮，起玄菟樂浪，以斷匈奴之左臂”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오중,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出版部.
- 박진욱·황기덕,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宋鎬戩, 1999. 2,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任德淳, 1985,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 Johnson, Allen W. & Earle, Timothy, 1987,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姜仁旭, 1996. 4, 「요녕지역 비파형동검에 대한 일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21.
-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 권오중, 1995, 「전한시대의 요동군」, 『인문연구』 29, 영남대학교.
-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50.
- 金貞培, 1972, 「古朝鮮의 民族構成과 文化的 複合」, 『白山學報』 21.
- 金貞培, 2000,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研究」, 『國史館論叢』 88.
- 金廷鶴, 1990, 「古朝鮮의 起源과 國家形成」,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 盧泰敦, 1990. 8,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 노태돈, 1998, 「衛滿朝鮮의 정치구조-官名 분석을 중심으로」, 『汕耘史學』 8.
- 朴京哲,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白山學報』 40.
- 朴京哲, 1994, 「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한국사2: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 朴京哲, 1997. 9, 「紀元前 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의 存在樣式」, 『韓國史研究』 22.
- 朴京哲, 1999, 「遼西琵琶形銅劍文化의 再認識」, 『先史와 古代』 12.
- 박경철, 2005, 「고조선·부여의 주민구성과 종족」, 『북방사논총』 6.

- 박대재, 2005, 「고조선의 '王'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 기원전 4세기말~3세기초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3.
-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先史와 古代』 14.
- 박선미, 2005, 「戰國~秦·漢初 화폐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北方史論叢』 7.
- 박준형, 2004, 「古朝鮮의 대외 교역과 그 의미-春秋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2.
- 박준형, 2006, 「古朝鮮의 海上交易路와 萊夷」, 『北方史論叢』 10.
- 박준형, 2012a,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 박준형, 2012b, 「濊貊의 形成過程과 古朝鮮」, 『學林』 22.
- 박준형, 2012c,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진영, 2002, 「춘추시기 연국 대외관계의 변화」, 『中國史研究』 17.
- 배진영, 2003,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 배진영, 2008, 「춘추 연의 도성 천도와 의미」, 『이화사학연구』 36.
-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변동」, 『白山學報』 76.
-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8.
- 吳江原, 1997, 10, 「西遼河上流域 青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12.
- 吳江原, 2002, 9, 「琵琶形銅劍文化의 成立과 展開過程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 오강원, 2010a,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 오강원, 2010b, 「연나라 요동군과 동요하유역 토착집단의 독특한 교류방식: 이용호 성지」, 『백산학보』 8.
- 오강원,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청동기 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동양학』 51.

- 오강원, 2013a,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작용 및 속속」, 『高句麗渤海研究』 46.
- 오강원, 2013b, 「遼寧地域 青銅器-初期 鐵器時代 複合社會의 形成과 社會變動」, 『선사와 고대』 38.
- 李成珪, 1975. 11, 「戰國時代 統一論의 形成과 意味」, 『東洋史學研究』 9·10.
- 李成珪, 2004. 5,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이성규 외,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 李龍範, 1996, 「大陸關係史 古代篇 (上)」, 白山學會, 『韓民族의 大陸關係史』, 백산학회.
- 이중수, 2011, 「中國의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한국사학보』.
- 이청규,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 李靑圭, 2003,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의 접근」, 『韓國古代史研究』 32.
- 이청규,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 6.
- 이후석, 2013,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위만조선」, 2013. 9/27 고조선사 연구회 발표문.
- 林炳泰, 1991, 「考古學上으로 본 濊貊」, 『韓國古代史論叢』 1.
- 千寬宇,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최몽룡, 1997,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경제」,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靳楓毅, 1982·1983, 「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의 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 82-4·83-1, 김영수 옮김, 1994, 「曲刃青銅短劍을 포함하는 中國 東北地區의 文化遺存論」, 金瑛洙 主編, 『古代 東北아시아의 民族과 文化』, 驪江出版社.
- Earle, Timothy, 1994, "Political Domination and Social Evolution," Edited by Tim Ingol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 Culture and Social Life*, New York: Routledge, pp. 940~961, 朴京哲 譯, 1999. 12, 「政治的支配와 社會進化」, 『史叢』 50.

[ABSTRACT]

Ancient Joseon's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and Wiman Joseon

Park Kyungchul

The central area of Yemaek(濊貊) culture is thought to be around Yoseo(遼西), Joyang(朝陽), and Sipidaeyeongja(十二臺營子) from around the twelfth century BCE to the seventh century BCE. This Yemaek group advanced to the complex society at the level of chiefdom from around the eighth century BCE to the sixth century BCE. And the residence group in the Liaodong(遼東) area of the Yemaek group, which was perceived around the sixth century BCE–fifth century BCE as Bal Joseon(發朝鮮), with the Jeongga Waja(鄭家窪子) culture type in the Simyang(瀋陽) area, should have had a political structure such as a complex chiefdom.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BCE Ancient Joseon had entered the state level according to state formation theory

From around 314–311 BCE Ancient Joseon attacked the eastern area of Yan(燕) China. To this attack Yan replied in 282–280 BCE with a successful counter attack that seized a wide area of approximately 800 kilometers and maintained the border at the Manbeonhan(滿番汗), that is, the Cheonsan(千山) Mountains. Yangpyeong(襄平), which was in the central area of Yan's Liaodong(遼東郡), should be Gyehyeon(薊縣) in Habuk Province(河北省) rather than the present-day Liaoyang(遼陽) area. The Yan's domination policy for the Liaodong area was a strategy to control trade routes depending upon the scattered central places.

Jin(秦), which followed Yan, was very close to Ancient Joseon. Thus Ancient Joseon could expand its power to the western part over the Cheonsan Mountains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Chinese Jin Dynasty to the Han Dynasty. In the meantime, the Xiongnu also had the same chance as Ancient Joseon to expand their power. Thus Ancient Joseon maintained Paesu(溟水), that is, Honha(渾河), as the border with the Han Dynasty.

Emperor Mu(武帝) of the Han Dynasty adopted his world policy so to re-arrange the two dimensional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nd to partake of hegemony with the Xiongnu. Thus he waged war to directly attack Ancient Joseon, which had transformed its position from Han's external subject(外臣) to the left arm of the Xiongnu(匈奴之左臂), and indirectly weakened the power of the Xiongnu.

Keywords

Ancient Joseon, Sipyidaeyeongja, Bal Joseon, Jeongga Waja, Yangpyeong, Paesu, the left arm of the Xiongn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하 평원지역 '燕 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 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

이종수 |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하 평원지역은 중원 세력의 동북방 진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원전 3세기경 연이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부터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대립의 접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하 평원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

고조선과 연의 교류는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대략 4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들어 요하 평원지역의 물질문화도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지역은 연 철기문화의 도입으로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무덤을 대표로 하는 비파형동검문화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 특히 기원전 3세기에 들어 진개의 고조선 침략과 연의 멸망(222 B.C.)으로 인한 중원 유이민 집단의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대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5쪽.

대거 유입은 이 지역 물질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2세기 초에 들어 연에서 망명한 위만은 중원의 유이민 세력을 규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위만조선 성립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이민 집단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만과 함께 망명한 천여 명의 무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연의 멸망과정에서 고조선으로 들어온 유이민 집단, 세 번째는 秦末漢初 혼란기에 넘어온 燕·齊·趙 유이민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한 물질문화적 흔적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집단 이주자들일 경우 문화 중 생업경제, 종교, 묘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이주자들과 같이 이동하였기에 그런 문화요소들은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게 된다.²⁾ 이는 위만조선의 핵심세력인 중원 유이민 집단의 물질문화가 연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을 가능케 한다.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진개의 조선정벌 이후 연이 균현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조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요양과 심양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 연 유적들은 대부분 균현 중심지에 조성된 유적으로 인식되어왔고 이러한 견해는 우리 학계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연의 멸망으로 유입된 유이민 집단, 진한교체기의 유이민 집단, 위만과 함께 들어온 유이민 집단, 이들이 사용한 물질문화의 흔적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가 연 균현세력이 조영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요하 평원지역에 확인되는 연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유적을 중원지역 연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이 지역 연 유적만의 특징과 편년을 새롭게 정립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문화적 변화양상과 사용집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이송래, 2002, 「복합사회의 발전과 지식묘문화의 소멸」, 『전환기의 고고학 I』, 학연문화사, 217~119쪽.



1. 遼陽 襄平城遺址, 2. 遼陽 新城墓, 3. 遼陽 徐王子墓, 4. 遼陽 望水臺墓, 5. 沈陽 故宮地下古城址, 6. 沈陽 熱鬧路墓, 7. 沈陽 新光墓, 8. 新民 公主屯 後山城址, 9. 鐵嶺 邱台遺址, 10. 梨樹 二龍湖城址

〈그림 1〉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 분포도

II. 유적 현황

2009년도에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발행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요하 평원지역에서 확인된 전국시대 유적은 대략 41곳에 이른다. 지역별로 심양시·영구시가 10개소를 넘고 있고, 기타 지역은 8~4개소 내외다. 성격별로는 생활유적이 31개소, 매장유적이 10개

〈표 1〉 요하 평원지역 전국시기 유적 현황

지역	생활유적	매장유적	합계	비고
遼陽市	3(1)	2(2)	5	
營口市	10	4	14	
盤錦市	8		8	
沈陽市	8(2)	2(2)	10	
鐵嶺市	2(1)	2(2)	4	
합계	31(4)	10(6)	41	

* ()안은 시·발굴 유적 수.

소다.³⁾

그러나 이 자료에 소개된 유적은 10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들이다. 또한 전국시대라는 시간적 범위 안에 연 혹은 연계 유적뿐만 아니라 토착문화 유적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유적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본문에서는 연 혹은 연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撫順 蓮花堡遺蹟과 같이 토착문화 전통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유적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순수 연으로 인식되는 유적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략 25곳에 이르는 유적 중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을 제외한 발굴 혹은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대략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들 유적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요양 일대에서 확인된 연 유적으로는 襄平城遺蹟⁴⁾·新城墓⁵⁾·徐往子墓⁶⁾·望水臺墓 등이 있다. 양평성 유적은 지금의 요양시 시내 중심의 四大廟, 金銀庫 일대에 위치해 있던 것으

3)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 西安地圖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下)』, 西安地圖出版社.

4) 鄒寶庫, 2012, 『遼陽考古紀略』, 遼寧民族出版社, 11쪽.

5) 李慶發, 1984, 「遼陽市新城戰國墓」,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主編, 2001, 『遼寧省志-文物志』, 遼寧人民出版社, 121쪽.

6) 鄒寶庫, 2012, 앞의 책, 56쪽.

로 추정된다. 현재 성곽이 위치한 지역에는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정확한 성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사대묘 부근에 방공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9m 아래에서 전국시대 토기로 제작된 우물 2기가 발견되었는데, 우물 내에서 전국시대 管 형태의 청동제 수레 부속품, 襄平布, 明刀錢, 罐 등이 출토되었다.

서왕자묘는 遼陽市 白塔區 鐵西街道 徐往子村에 위치해 있다. 1982년 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장방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1.50m, 너비 1.10m, 잔존 높이는 0.6m이다. 묘곽은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관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부장품은 모두 30여 점으로 토기 16점, 夔紋⁷⁾ 활석편 13점, 靑銅帶鉤 1점 등이 있다. 망수대묘는 遼陽市 북부 교외의 望水臺村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1983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은 지표에서 3m 깊이의 모래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장방형의 수혈식에 목관을 사용하고 있다. 무덤은 전신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었다. 부장품은 토기와 夔紋 활석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신성묘는 遼陽市 太子河區 東京陵鄉 新城村 내의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1983년 7월에 도자기 가마 작업장에서 흙을 파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두 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장방형의 수혈식으로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거리는 2.6m이다. 장구는 두 개의 곱과 하나의 관이 사용되고 있다. 관 내부에서 인골 1구가 확인되었는데 두개골과 대퇴골만 남아 있다. 두향은 북쪽을 향해 있으며, 양신직지 장법이 사용되고 있다. 관 북단의 내외곽 사이에 前箱이 만들어져 있는데 벽면에 “口城”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유물은 주로 전상과 관 내부에서 확인되는데, 수습된 유물의 수는 대략 100여 점에 이른다. 대부분 실용기로 漆器·土器·靑銅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무덤은 이혈부부합장묘로 부장품의 종류로 볼 때 1호 무덤은 여성, 2호 무덤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7) 고대 전설에 나오는 다리가 하나고 용과 비슷한 상상의 동물 문양.

심양지역에서 조사된 연 유적으로는 故宮地下古城址⁸⁾·熱鬧路墓⁹⁾·新光墓(401庫墓)¹⁰⁾ 등이 있다. 고궁지하고성지는 심양시 고궁 지하와 그 주변에 위치해 있다. 상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漢代 성벽의 성심으로 이용된 전국시기 성벽 북쪽 구간 일부가 발견되었다. 성벽은 황토 판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의 두께는 13cm 내외며, 잔고는 2.3m, 너비는 24m이다. 한대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거쳐 사용되고 있으며, 성벽 북측에 해자 흔적이 확인된다. 1차에 축성된 전국시대 성벽과 2차에 축성된 한대 성벽의 토층에서 다량의 전국시대 반식 와당, 기와 편, 토기 잔편이 수습되었다. 또한 1971년 심양 고궁 東路院, 1972년 沈河區 公安分局院을 발굴하면서 판축대지가 발견되어 성내 시설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벽돌로 쌓은 우물과 대형 토기로 제작된 우물 2기도 함께 발견되었다.

열로묘는 沈陽市 沈河區 熱鬧路 熱愛里 1호에 위치해 있다. 1958년 5월 주민이 하수도를 파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은 장방형의 수혈식 토광묘로 묘광의 길이는 2.2m, 너비 1.4m, 깊이 1.2m이다. 관곽은 부식되어 두 줄의 흔적만 남아 있다. 관의 북벽에 감실이 설치되어 있다. 인골은 부식되어 잘 남아 있지 않으나, 두향은 북쪽을 향해 있다. 부장품은 토기 위주이며, 명기로 제작되어 감실에 안치되어 있다. 신광묘는 沈陽市 大東區 東塔街 新光機械廠 401공장 보일러실 남측에 위치해 있다. 1980년 11월에 발견되어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발견 당시 이미 현대 건축물로 인해 파괴되어 있었다. 무덤은 장방형의 수혈식 토광묘로 형식은 분명하지 않다. 부장품으로는 소량의 토기가 확인되었다.

-
- 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近年來遼寧考古新收穫」, 『遼海文物學刊』 1期; 李曉鍾, 2007, 「沈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沈陽考古文集』 1, 科學出版社, 231쪽; 劉長江, 2010, 「沈陽宮后里遺址及相關發現」,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57쪽.
- 9) 金殿士, 1959, 「沈陽市南市區發現戰國墓」, 『文物』 4期; 李曉鍾, 2007, 위의 글, 231쪽.
- 10) 李曉鍾, 2007, 위의 글, 232쪽.

요북지역 연 유적으로는 鐵嶺 邱台遺蹟¹¹⁾ · 梨樹 二龍湖城址¹²⁾ · 新民 公主屯 後山城址¹³⁾ 등이 있다. 구대유적은 철령시의 남쪽 심양과 경계지점인 鐵嶺縣 新台子 經濟技術開發區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심양과 철령의 경계인 萬泉河의 북쪽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해 있다. 1973년 벽돌공장에서 유적 내의 흙을 파내가는 과정에서 대량의 전국시기 화폐저장구덩이가 발견되면서 확인되었다. 1982년에 철령시 문물조사팀에서 두 차례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는 이 지역이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되면서 긴급 구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결과 주거지 5기, 저장구덩이 7기, 무덤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말각 방형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주거면, 주공, 노지만 일부 잔존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 위주로 夾砂와 泥質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석기 · 철기 · 청동기 · 골기 · 기와편 · 유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용호성지는 吉林省 梨樹縣 石嶺鄉 二龍山村 北歲子屯 남쪽에 위치해 있다. 1983년 四平地區 박물관에서 실시한 문물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1987년 吉林大學 考古專業과 四平地區 博物館이 연합으로 성곽 전체에 대한 측량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 대한 시굴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에서 성 내부 동남쪽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성의 평면은 방형으로 전체 길이는 800m다. 성벽은 모두 토석혼축이며, 현재 서북부의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내의 지세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약간 낮게 되어 있다. 성문은 남쪽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는 모두 수혈식에 실내에 화덕이 설치된 구조며, 주공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다. 출입문은 동쪽 혹은 남쪽을 향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와 철기가

-
- 11)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主編, 2001, 앞의 책, 39쪽; 鐵嶺市文管辦, 1996, 「遼寧鐵嶺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2期; 周向永 · 許超 著,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79쪽.
 - 12) 四平地區博物館 · 吉林大學考古專業, 1988, 「吉林省梨樹縣二龍湖古城址調查簡報」, 『考古』 6期; 王洪峰, 2008, 「二龍湖古城」, 『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紀念』, 文物出版社, 39쪽.
 - 13) 李曉鍾, 2007, 앞의 글, 231쪽.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소량의 청동제 장식품과 燕 刀幣 등이 발견되고 있다.

공주둔 후산성지는 新本市 公主屯鎮 後山에 위치해 있으며, 1980년 문물 조사시에 처음 확인되었다. 성지의 평면은 방형이며, 한 변의 길이는 250m×300m이다. 유적의 동측에서 판축 성벽을 확인하였는데, 잔존 높이는 2.8m, 판축층의 두께는 0.1~0.12m이다. 1984년 성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두 곳의 건축유구를 발견하였다. 건물지 상부에서 완형의 승문 기와 편이 산재해 있으며, 용·관·분 등의 토기 잔편도 함께 출토되었다.

III. 유적의 특징과 편년

1. 유적의 특징

지금까지 조사된 연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성지 및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지와 생활유적의 입지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요양 양평 성유적의 경우 太子河의 서쪽 대지상에 위치해 있다. 성의 동·북·서 삼면은 태자하가 흐르고, 그 주변으로 넓은 충적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남쪽은 천산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심양 고궁지하고성지는 남쪽으로 5km 거리에 渾河가 흐르고, 성지 주변으로 넓은 개활지가 형성되어 있다. 공주둔 후산성지는 역시 동쪽으로 요하의 지류인 秀水河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고, 그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구대유적은 구릉과 평야가 만나는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유적 남쪽에는 萬泉河가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동남쪽으로 천산산맥이 지나며, 서북쪽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용호성지는 대흑산산맥의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성이 위치한 지역은 분지 지형으로 성 동쪽으로 동요하가 흐르고 북서쪽은 넓은 평원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요양에서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시로 통하는 요동로의 주요 거점지에 해당된다.¹⁴⁾

전체적으로 모든 유적들이 하천이나 강을 끼고 그 주변으로 넓은 층적평원이 펼쳐진 지역에 입지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농경 정착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방어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의 형태와 축성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곽은 모두 방형 혹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축성방법은 대부분 판축으로 층의 두께는 대략 10~13cm 내외다. 연의 도성인 연하도유적과 요서지역 냉수당성지의 판축방법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 성의 축조집단이 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⁵⁾ 다만 이용호성지의 경우 성벽을 대량의 자갈을 섞은 황토를 다져 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원지역의 전형적인 판축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내 시설물로는 건축대지·주거지·회갱·우물 등이 확인되고 있다. 건축대지는 심양 고궁지하고성지와 공주둔 후산성지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판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판축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로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파악



1. 연하도

2. 냉수당성지(이한상, 2010)

3. 이용호성지

〈그림 2〉 중원·요서·요북지역 연계 성지 성벽 단면 비교

14) 이종수, 200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 96호, 86쪽.

15) 이한상, 「연북장성의 走向에 대한 論議」, 『고고학탐구』, 고고학탐구회.



〈그림 3〉 요양성 출토 우물(遼陽
考古紀略 재인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대지 상부에 다량의 기와편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성내 주요 건축물의 기저부로 추정할 수 있다.

성내 시설물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평성과 심양 고궁지하고성지에서 토기 혹은 벽돌로 쌓은 우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평성에서 확인된 우물의 경우 승문이 장식된 4개의 대형 토기를 이어서 만들고 있는데, 구경 75cm, 각각의 높이가 35cm이다. 이러한 종류의 우물 유적은 중원지역 연 유적에서도 자주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분묘유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확인된 무덤유적은 모두 6기¹⁶⁾로 대부분 요양과 심양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덤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요양지역의 경우 서왕자묘와 망수대묘는 태자하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신성묘는 태자하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들 무덤은 모두 양평성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서왕자묘는 서쪽, 망수대묘는 북쪽, 신성묘는 태자하를 건너 동쪽에 입지해 있다. 서왕자묘와 망수대묘는 강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평지에 무덤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 신성묘는 강의 동쪽에 그리고 구릉상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무덤 주인의 신분상 차이에서 기인하거나 혹은 무덤 조영시기의 시간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심양지역의 경우도 요양과 마찬가지로 심양 고궁지하고성지를 중심으로 열료묘는 성의 남쪽에, 신광묘는 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성곽과 무덤의 거리는 대략 1~3km 내외며, 신광묘만 5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일반

16) 신성묘 2기, 서왕자묘 1기, 망수대묘 1기, 열료묘 1기, 신광묘 1기 등 모두 6기다. 이 밖에도 구대유적에서 4기, 이용호성지에서도 4기가 조사되었으나 발굴보고서가 미간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적으로 연의 무덤과 취락유적은 성곽 주변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요양과 심양지역 연 무덤 역시 모두 성곽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원지역과 동일한 입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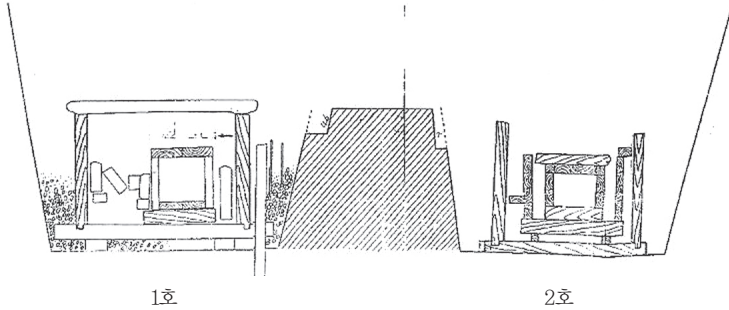
다음으로 무덤의 규모를 살펴보면 요하 평원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무덤은 신성묘로 묘광의 규모가 남북 6.3m, 동서 3.3m, 깊이 3.4m이다. 이 밖에 묘광의 규모가 확인된 서왕자묘와 열료묘는 대략 2.2~1.5m, 너비 1.4~1.1m, 깊이 1.2~0.6m이다.

중원지역의 연 무덤은 규모면에서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묘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묘다. 이 종류의 무덤은 묘광의 면적이 매우 큰데, 80~350m²에 이르며, 거마갱과 대량의 거마구를 갖추고 있다. 이 종류의 무덤은 지금까지 연하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는 청동기가 매납된 중형 무덤이다. 묘광의 크기는 3.5~50m²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10여m² 내외다. 세 번째는 소형 부장품이 매납된 중소형 무덤이다. 묘광의 크기는 대부분 2~4m² 좌우다. 네 번째는 부장품이 없는 무덤으로 묘광이 0.7m² 내외로 협소하고 대부분 관곽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⁷⁾ 앞에서 살펴본 무덤을 중원지역 연 무덤 분류에 대입해보면 신성묘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고, 서왕자묘와 열료묘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덤에 사용된 관곽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하 평원지역의 경우 관곽이 모두 사용된 무덤은 신성묘와 열료묘이고, 망수대묘는 관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신성묘의 경우 두 개의 곽과 하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1·2호 무덤이 하나의 봉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원지역 연 무덤의 경우 관이 없는 무덤에서 관만 사용된 무덤, 一槨一棺이 사용된 무덤, 二槨一棺이 사용된 무덤, 三槨一棺이 사용된 무덤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고 있는데, 요하 평원지역 역시 중원 연 무덤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무덤의 방향은 열료묘가 북향이며, 신성묘의 경우도 무덤이 동서로 병렬

17) 張長壽·殷璋璋 主編, 2004, 『中國考古學(兩周卷)』,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中國社會科學出版社.



〈그림 4〉 신성묘 1호·2호 무덤 단면도(『遼陽考古紀略』 도면 재인용)

배치되어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북향일 가능성이 높다. 중원 연 무덤의 경우도 지금까지 조사된 무덤의 91%가 두향이 북쪽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 무덤 조영 습속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제의 경우 신성묘에서 양신직지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무덤은 골격이 잘 남아 있지 않아 장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원지역의 경우 전국 초기와 중기 무덤에 일부 골지장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양신직지라는 점에서 이 지역 연 무덤 역시 양신직지장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장품 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광묘·열료묘·망수대묘는 토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량의 夔紋 활석 장식품과 소형 청동기가 함께 매납되고 있다. 토기조합은 豆·鼎·壺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무덤에는 罐·鉢·盤·匣 등이 공반되고 있다. 신성묘의 경우 이들 무덤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기는 罐·壺 두 종류만 확인되고 있다.

2. 편년 검토

연 유적의 편년을 검토하는 작업은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사용집단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 유적 중 구대 유적¹⁸⁾과 이용호성지¹⁹⁾의 경우 유적의 편년을 전국 만기에서 漢代까지 연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적과 출토유물의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적절한 연대설

정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두 유적에 대한 편년분석은 생략토록 하겠다. 다만 무덤유적의 경우 보고된 자료의 편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어 무덤유적을 중심으로 편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연 무덤은 대략 169기에 이른다.²⁰⁾ 이들 무덤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의 무덤은 모두 수혈식 토광묘로 이층대와 벽감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중기에는 일부 무덤에서 이층대가 출현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묘도를 가진 '中'자형 대묘(연하도 M16)가 축조되고 있다. 후기에는 이층대와 벽감이 보편화되고, 새롭게 前箱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부장품을 매납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²¹⁾

부장품의 조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연대 파악이 가능한데, 청동기의 경우 초기와 중기에 鼎과 豆 각각 1점을 매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가 부장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기의 경우 고분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기에는 罍·鼎·豆·罐·壺·盤을 조합으로 하고 있으며, 중기에는 鼎·豆·壺·盤·匣를 기본 조합으로, 후기에는 鼎·豆·壺·盤·匣·鑿·鬲 조합이 확인되는데, 중기 조합과 비교하여 鑿과 鬲이 추가되고 있다.²²⁾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요하 평원지역 연 무덤의 연대를 파악해보면, 먼저

18) 鐵嶺市文管辦, 1996, 앞의 글.

19) 四平地區博物館·吉林大學考古專業, 1988, 앞의 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田野考古集粹』, 文物出版社.

20)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보고서가 발간된 중원지역 연 무덤 유적으로는 徐水大馬各庄, 張家口白廟, 天津寶坻牛道口, 河北新樂中同村, 天津南郊巨葛庄, 天津東郊張貴庄, 內蒙古赤峰市, 北京豐台區, 北京通縣, 北京順義縣, 北京懷柔城北, 北京昌平, 豐寧縣鳳山鎮, 易縣周仁村, 易縣燕下都, 三河大唐迴, 雙村, 唐山賈各庄, 承德灤河鎮, 懷來北辛堡 등이 있다. 요서지역은 喀左大城子 眉眼溝, 朝陽袁臺子 등이 대표적이다. 張長壽·殷璋璋 主編, 2004, 앞의 책; 陳平, 2006, 『燕文化』, 文物出版社.

21) 張長壽·殷璋璋 主編, 2004, 위의 책.

22) 張長壽·殷璋璋 主編, 2004, 위의 책.

서왕자묘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 기형이 연하도 東頭城 29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무덤의 연대를 東頭城 29호와 같은 전국시대 초기로 파악하고 있다.²³⁾ 그러나 무덤에 부장된 토기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무덤의 조영 연대가 보고서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토기의 조합부분에서 鼎·壺·豆·盤·杯 등과 더불어 鬲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 초기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토기의 기형을 중원 연 무덤 출토 토기와 비교해보면, 협사질에 승문이 장식된 회색 鬲은 저부가 둥글고 복부 하부가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대략 전국 중기 이후에 해당된다.²⁴⁾ 뚜껑이 달린 회색 鼎(그림 5-1)의 경우도 뚜껑에 짐승모양이 장식되어 있고, 양옆의 손잡이가 길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경 창평 송원에서 출토된 鼎(그림 5-2)과 비교해보면 형식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토기를 鄭君雷의 연 토기 형식 변화 과정 도식²⁵⁾에 대입시켜 보면, 연 중기 후반부에 해당된다. 다만 연대가 전국 만기 혹은 서한 초²⁶⁾로 비정되는 연하도 辛莊頭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鼎(XZHM30:206)과 비교해볼 때, 덮개 장식품의 형태가 짐승모양과 불꽃모양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형에서도 서왕자묘 출토품은 복부가 약간 볼록하고 저부가 둥근 반면에 연하도 출토품은 복부와 저부가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 만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뚜껑 구연부에 한 줄의 침선문이 장식된 회색 豆(그림 5-3)의 경우 전국 중기의 창평 송원 출토 豆(그림 5-4)와 역시 전국 중기에 해당되는 연하도 解村村 東2호묘에서 출토된 豆(YNXM2:458)에 비해 뚜껑에 장식된 뿔 장식이 더 길고, 덮개가 약간 편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台子』, 文物出版社, 208쪽.

24) 陳光, 1998, 「東周燕文化分期論(續完)」, 『北京文博』 2, 22쪽.

25) 鄭君雷, 2001, 「戰國時期燕墓陶器的初步分析」, 『考古學報』 3期, 288쪽 <그림 6> 참조.

26) 조진선, 2012, 「燕下都 辛莊頭 30號墓의 年代와 性格」, 『한국고고학보』 84, 한국고고학회.



1. 鼎(서왕자묘) 2. 鼎(창평 송원) 3. 豆(서왕자묘) 4. 豆(창평 송원)

〈그림 5〉 서왕자묘와 중원지역 출토 토기 비교

적인 기형은 일치하고 있어 편년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무덤에서 출토된 銅帶鉤와 夔紋 활석 장식물 등도 조양 원대자유적의 연중기 무덤²⁷⁾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서왕자묘 무덤의 연대는 대략 전국시대 중기에서 중기 후반대로 볼 수 있다.

망수대묘의 경우 부장된 토기 조합이 鼎·豆·壺·盤·罐·鉢을 세트라고 하고, 일부 토기의 표면에 붉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 繩紋이 장식되어 있는 점, 夔紋의 활석 장식품을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경 창평 송원에서 출토된 유물²⁸⁾과 거의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무덤의 연대 역시 전국 중기 후반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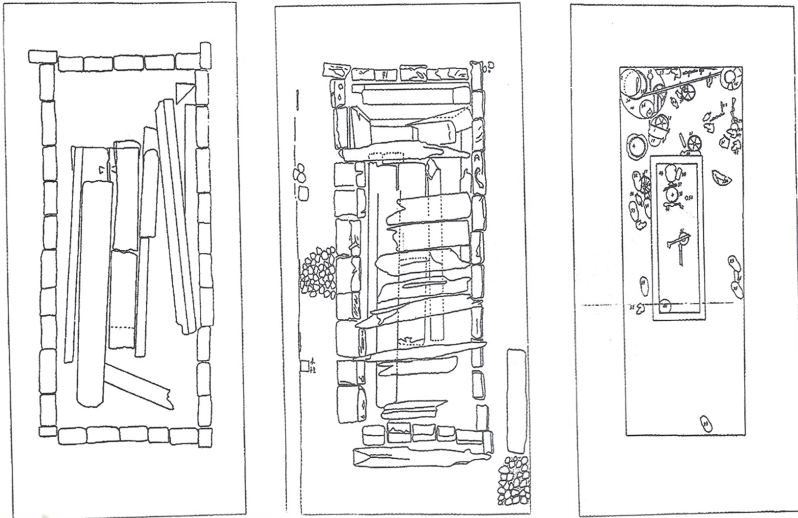
열료로묘의 경우 묘곽의 북벽에 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장품이 모두 감실 내에 안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 만기 무덤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장 토기는 鼎·壺·盤·匣를 기본 조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연 중기 혹은 만기로 볼 수 있다. 심광묘 역시 豆·鼎·壺를 기본 조합으로 하고 있고, 죽절형 손잡이 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점²⁹⁾으로 미루어보아 전국 중만기에 해당된다.

요하 평원지역의 연 무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신성묘다. 중국 학계에서

2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앞의 책, 207쪽.

28) 北京市文物工作隊, 1959, 「北京昌平區松園村戰國墓葬發掘記略」, 『文物』 9期.

29) 鄭君雷, 2001, 앞의 글.



1. 2호묘 관곽 덮개 평면도

2. 무덤 상부 구조

3. 2호묘 유물 분포도

(그림 6) 요양 신성묘 2호묘 실측도(도면 『遼陽考古紀略』 재인용)

는 신성묘의 연대를 전국 중만기로 비정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성묘는 무덤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종류 등에서 위에서 언급한 무덤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덤의 제작방법에서도 중원지역 연 무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원지역 晩期 연 무덤에서는 이층대와 감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신성묘에서는 이런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덤의 구조 역시 묘곽을 사다리꼴 형태로 파고 방향의 목재를 세워 1차 곱을 만든 후에 그 안쪽에 다시 목재를 가로로 쌓아 2차 곱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 무덤의 형식을 따르면서 이 무덤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제작방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출토유물 역시 토기의 경우 전국 만기에 유행하던 鼎·豆·壺·盤·匱·鑿·甗의 조합이 보이지 않고, 罐과 壺 두 종류만 매납하고 있다. 또한 토기의 기형 역시 연식 토기와 한식 토기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 무덤은 무

30) 李慶發, 1984, 앞의 글.



1. 罐

2. 壺

3. 兩耳壺

〈그림 7〉 요양 신성묘 출토 토기

덤의 형식과 제작방법, 부장유물의 조합과 토기 형식상의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전형적인 연 무덤의 형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대를 전국 말기에서 한초로 비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왕자묘·망수대묘·열료로묘·심광묘 등은 그 연대가 대략 전국 중만기로 비정할 수 있으며, 신성묘는 전국 말기에서 한초로 볼 수 있다.

IV. 유적의 성격과 유이민 집단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에 대한 검토 결과 중원계 유이민 집단의 물질문화와 결부시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유적으로 신성묘·구대유적·이용호고성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 세 곳의 유적을 대상으로 그 성격과 유이민 집단과의 관련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보도록 하겠다.

요양은 일찍부터 연 요동군의 군치로 비정되는 지역이다. 요동군의 군치인

양평으로 비정하는 이유는 요양 시내에서 연식 토기로 제작된 우물이 발견된 점과 우물 내에서 전국시기 管 형태의 청동제 수레 부속품, 양평포, 명도전 등이 출토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요양 시내에서 세 곳의 연 무덤이 발견된 점, 양평포가 처음 제작되었던 장소라는 점, 왕망시기에 양평의 다른 이름인 '昌平'명 토기편이 출토된 점 등도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과 관련된 어떠한 성과 흔적 혹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의 흔적이 확인된 예가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요양시 시내를 襄平城으로 인식하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평성의 위치를 태자하 동안의 신성묘가 위치한 동경성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¹⁾ 이렇듯 신성묘는 요양을 연의 요동군 치소인 양평으로 비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물질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성묘의 연대를 전국 중만기로 설정하고, 요동군을 다스리던 관리의 무덤으로 비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성묘는 무덤의 구조적 특징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전형적인 연 무덤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이 무덤의 주인을 무덤에서 출토된 채색된 목제 樂備·木車·木馬 등을 부장하는 풍속이 趙나라에서 유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요동군에 파견된 조나라 출신 관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진의 공격으로 연왕 희가 요동으로 후퇴한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³³⁾

이 무덤의 구조와 형식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기존 천산산맥 이동지역, 요남지역, 서북한지역에서 발견된 연계 유물이 부장된 토광목관(곽)묘³⁴⁾와는 달리 토착문화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과의 직접적인 관련

31) 王成生, 2010, 「從考古資料看西漢遼東等五郡治及都尉治的地望」,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366쪽.

32) 鄒寶庫, 2012, 앞의 책, 58쪽.

33) 郭大順·張星德 著,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606쪽.

34)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평양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동양학』 5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무덤의 사용연대를 고려하면 연 멸망과 秦漢교체기 혼란으로 인해 대량으로 유입된 燕·齊·趙 유이민 집단의 수장이 사용했던 무덤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구대유적에서는 전국 연에서 한대에 걸쳐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과 한초의 望平縣 縣城으로 비정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최근에는 유적 내에서 연계 유물과 더불어 토착계의 협사도 계통 토기가 공반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유적을 다민족 문화교류의 근거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³⁶⁾ 이 유적에서 발굴된 주거지와 저장구덩이, 무덤의 특징을 통해 볼 때, 명확하게 중원의 문화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옹광묘 1기에 불과하다. 또한 발견된 3기의 토광묘 중에서 4호 무덤의 경우 성년 남성이 매장되어 있는데, 돼지의 아래턱뼈가 매납되어 있고,³⁷⁾ 갈색의 單耳杯와 삼각형의 철기,³⁸⁾ 소철도, 화살촉 등이 부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토착계의 무덤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물의 경우 전국시기의 반원형 와당을 비롯하여, 명도전과 포전, 중원계통의 청동검 등 다량의 중원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그림 8-1·2·3). 이와 더불어 후기고조선의 표지적 유물 중에 하나인 점토대토기와 쌍이관, 배 등 협사도 계통의 토착계 유물도 함께 출토되고 있다(그림 8-4·5·6).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계 유물의 연대가 연 만기에서 한초를 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 유이민 집단의 생활터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이 주변의 토착민들과 혼합 또는 교류를 통해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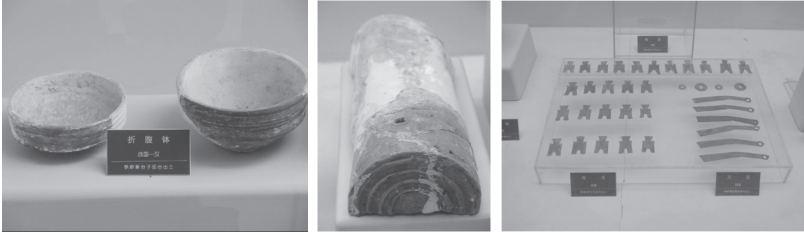
이용호성지는 요하 평원지역에서 확인된 연 성곽 중 유일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이용호성지의 문화내용을 중원지역의 연나라 성곽과 비교

35) 周向永·許超 著, 2010, 앞의 책.

36) 周向永, 2010, 「遼北戰國漢時期多民族文化交匯的考古學考察-鐵嶺邱臺遺址例說」,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37) 돼지 턱뼈의 매납은 주로 길림 합달령 주변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 무덤에서 주로 나타나는 장례습속이다.

38) 이 철기의 경우 보고서에 심하게 부식되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기록되었으나, 당시 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던 반달형 철도일 가능성이 있다.



1. 발(중원계)

2. 반원형와당(중원계)

3. 명도전 및 포전(중원계)



4. 점토대토기(토착계)

5. 쌍이관(토착계)

6. 소형토기(토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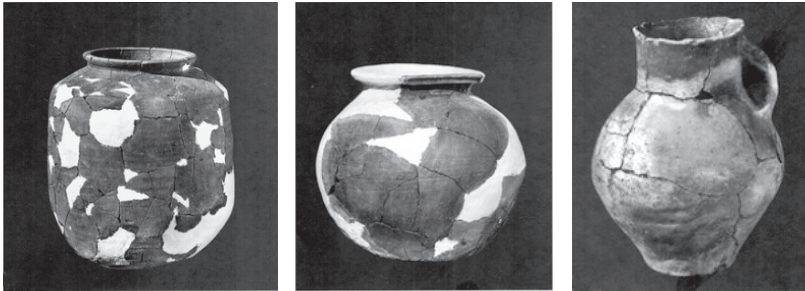
〈그림 8〉 철령 구대유적 출토유물

해보면, 먼저 성벽의 축조방법에서 이용호성지는 성벽이 연 성곽 축조방법인 판축이 아니라 자갈이 포함된 토석혼축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긋문 형식으로 성문을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 역시 연계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굵은 모래가 혼입된 토착 계통의 토기도 함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요서지역과 내몽고 동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연나라의 주요 거점 성곽 주변에는 취락지와 고분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 이 성 주변에서는 이러한 연 관련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기존의 연나라 성곽과의 차이로 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용호성지에서 출토된 전국 연계 유물을 근거로 연나라가 요하 평원지역에 진출한 이후에 동요하 상류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성곽을 축조하였고, 이후 漢代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⁹⁾ 국내에서는 요동군과 동요하 유역 토착집단 간의 일종의 교역 거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39) 四平地區博物館·吉林大學考古專業, 1988, 앞의 글.



1. 용(중원계)

2. 관(중원계)

3. 호(토착계)

〈그림 9〉 이용호성지 출토 토기

제기되었다.⁴⁰⁾ 그러나 이 성이 연의 군현으로 지역 지배를 위해 사용된 성곽이었다고 한다면, 성 내부에서 행정관서 등의 건축유구와 공방 등의 작업장 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주거지와 회갱, 무덤 등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은 중원지역의 유이민 집단이 동요하 상류지역까지 이동해 와서 안착한 후에 중원지역 성곽을 모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내 토착유물의 출토는 이후 이 지역의 토착민과 서로 융합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이 요하 평원지역으로 이동해온 초기 즉 기원전 3세기경에는 연의 군현 치소를 중심으로 유적에 연의 문화내용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예는 서왕자묘·만수대묘·열료로묘·심광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연의 멸망과 진한교체기에 연·제·조 등의 중원 유이민 집단이 대량으로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다시 한 번 물질문화상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적이 신성묘다. 즉 기존의 전형적인 연 문화내용을 가진 무덤이 사라지고 중원의 다양한 문화내용이 융합된 형태의 무덤이 조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토착문화와의 문화적 교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0) 오강원, 2010, 「연나라 요동군과 동요하 유역 토착 집단의 독특한 교류 방식, 이용호 성지」, 『백산학보』 88호, 백산학회.

이후 이들 중원 유이민 집단이 요하 평원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착세력들과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번 물질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중원문화와 토착문화가 교류를 통해 문화적 융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융합이 가장 잘 나타나는 유적이 바로 이용호성지와 구대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연의 유이민 집단이 거주하면서 토착문화와의 경계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토착민과 쉽게 교류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문화적 융합 현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융합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주변으로 전파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예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물이 철제 반달형 칼이다. 토착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반달형 칼을 철기로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문화 융합 양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 현상은 무순 연화보유적⁴¹⁾과 牧羊城유적⁴²⁾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화보유적의 경우 돌담으로 쌓은 원형 주거지와 협사질계통의 토기를 대표로 하는 토착계 문화를 기반으로 중원계의 토기와 주조 철기가 함께 공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적의 사용집단이 유이민 집단보다는 토착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목양성유적의 경우 성곽의 평면형태와 축조방법 등이 중원의 전형적인 성곽 축조방법과 유사하다는 점, 성내에서 연계 유물과 더불어 한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 유이민 집단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 주변에서 확인되는 尹家村·刁家村·劉家村 등 토착문화 요소와 중원문화 요소가 결합된 무덤과 취락유적의 확인은 이 지역이 전국시대부터 교통로상의 중요한 거점지역이었고, 주변의 토착계 집단과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원 유이민 집단과 토착세력의 융합은 이후 위만의 왕위 찬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위만이 천여 명의 유민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망명해 왔을 때,

41) 王增新, 1964, 「遼寧撫順市蓮花堡遺址發掘簡報」, 『考古』6期.

42)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二冊.

이미 조선의 서쪽 변경지역에는 다수의 중원 유이민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기존의 토착세력과 문화적 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을 기반으로 위만은 점차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었다. 위만의 왕위 찬탈에도 불구하고, 토착세력이 커다란 저항 없이 위만정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중원 유이민 집단과 토착세력 간에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융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중원문화와 토착문화의 문화적 융합을 두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갈등과 투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두 집단의 문화적 결합을 공존과 융합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이들 유적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특징과 연 유이민 집단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원전 2세기 초에 위만은 중국 유이민 세력을 기반으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우게 된다.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유이민 집단이 영유했던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은 결국 위만조선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중국 유이민 집단의 물질문화는 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의 지방 지배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던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은 대략 41곳에 이르는데, 이 중 시발굴이 이루어진 유적은 遼陽 襄平城遺址·遼陽 新城墓·遼陽 徐往子墓·遼陽 望水臺墓·沈陽 故宮地下 古城址·沈陽 熱鬧路墓·沈陽 新光墓(401庫

墓)·新民 公主屯 後山城址·鐵嶺 邱台遺址·梨樹 二龍湖城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요하 평원지역 성곽유적의 특징은 평면이 방형에 규모는 중소형이 주를 이루며, 축성방법은 대부분 토축으로 이용호성지만 토석혼축이 사용되고 있다. 성내 시설물로는 관축대지와 주거지·회갱·우물·해자 등이 있는데,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수혈식으로 불다짐, 노지와 주공 설치, 동쪽 혹은 남쪽에 배치된 출입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물은 토기와 벽돌로 이용해 축조되고 있다.

무덤은 모두 토광목곽 혹은 토광목관묘로 二槨一棺이 사용된 신성묘가 가장 특징적이며, 기타 무덤은 곽 혹은 관만 확인되고 있다. 규모는 신성묘가 연의 무덤유형 중 두 번째 유형인 중대형 무덤에 속하며, 나머지 무덤은 소형무덤에 해당된다. 일부 무덤에는 부장품 안치를 위한 벽감과 전상이 설치되어 있다. 장식은 대부분 단인양신직장이며, 두향은 북쪽을 향해 있다. 부장품은 무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규모가 큰 신성묘의 경우 100점에 이르며, 기타 무덤은 10여 점에 불과하다. 청동기·토기·칠기·목기 등 다양한 종류의 부장품이 매납되어 있다.

유적의 편년을 살펴보면, 서왕자묘·망수대묘·열료로묘·심광묘 모두 중원지역 연 무덤 출토유물과 비교해볼 때, 전국 중만기에 해당되며, 이 유적들은 진개의 동진 이후 연의 군현설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성묘의 경우 보고서와는 달리 그 연대가 전국 만기에서 한초에 해당되는데, 무덤의 위치와 축조방법, 출토유물이 중원의 전형적인 연 무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덤의 주인이 연의 관리보다는 연 멸망 이후 혹은 진한교체가 유이민 집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용호성지의 경우 성벽 축조방법이 관축이 아니라 자갈이 포함된 토석혼축이란 점, 성문이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고, 건축대지나 수공업 작업 공방이 없다는 점, 출토유물 역시 연계 유물과 더불어 토착계 유물이 공반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연나라 성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성곽은 연계 유이민 집단이 동요하 상류지역까지 이동해 와서 기존의 토착민들과 융합되는 과정에

서 축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대유적에서는 전국 연에서 한대에 걸쳐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중원계 유물과 더불어 토착계의 협사도 계통 토기가 공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적 역시 연 유이민 집단이 이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기존의 토착집단과 함께 생활했던 터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은 요하 평원지역에서 조사된 연 관련 고고학 자료의 부족과 부실이라는 한계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시도를 통해 중국 학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세부적 분석을 통해 중국 측과는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

- 배진영, 2009,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주).
- 송호정, 1999,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중, 2000,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의 위치」,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중, 2001,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 『한국고대사연구』 22, 한국고대사학회.
- 김남중, 2004, 「위만조선의 왕권과 지방통치체제」, 『한국고대사연구』 33, 한국고대사학회.
- 김정배, 1977,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史叢』 21·22, 고대사학회.
- 김정배, 1997,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김한규, 1980, 「위만조선관계 중국측사료에 대한 재검토」, 『논문집』 8, 신라대학교.
- 노태돈, 1998, 「위만조선의 정치구조-관명 분석을 중심으로」, 『산운사학』 8, 고려학술문화재단.
- 박선미, 2011, 「교역품의 양적 분석을 통한 위만조선의 완충교역 연구」, 『동양학』 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평양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동양학』 5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박시형, 1963, 「만 조선 왕조에 관하여」, 『력사과학』.
-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한국고대사학회.
-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송호정, 2007,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와 위만조선의 성장」, 『역사와 담론』 48, 호서사학회.
- 오강원, 2010, 「연나라 요동군과 동요하 유역 토착 집단의 독특한 교류 방식, 이용호 성지」, 『백산학보』 88호, 백산학회.
- 윤내현, 1985, 「위만조선의 재인식」, 『사학지』 19, 단국사학회.
- 이병도, 1976, 「위씨조선흥망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조법중, 2000, 「위만조선의 대한 전쟁과 강한제후국의 성격」, 『선사와 고대』 14, 한국고대학회.
- 조법중, 2000, 「위만조선의 붕괴시점과 왕검성·낙랑군의 위치」, 『한국사연구』 110,

한국사연구회.

- 조진선, 2011,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편년의 열쇠: 『朝陽 袁臺子-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편, 文物出版社), 『한국고고학보』 80, 한국고고학회.
- 조진선, 2012, 「燕下都 辛莊頭 30號墓의 年代와 性格」, 『한국고고학보』 84, 한국고고학회.
- 최몽룡, 1985, 「고대국가성장과 무역- 위만조선의 예」,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편.

〈국외〉

-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 西安地圖出版社.
-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下)』, 西安地圖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田野考古集粹』,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臺子』, 文物出版社.
-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主編, 2001, 『遼寧省志-文物志』, 遼寧人民出版社.
-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周向永·許超 著,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 陳平, 2006, 『燕文化』, 文物出版社.
- 鄒寶庫, 2012, 『遼陽考古紀略』, 遼寧民族出版社.
- 金殿士, 1959, 「沈陽市南市區發現戰國墓」, 『文物』 4期.
- 方天新, 2010, 「遼寧台安縣孫城子漢代城址調查」,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裴耀軍, 2010, 「遼北地區燕秦漢時期遺存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四平地區博物館·吉林大學考古專業, 1988, 「吉林省梨樹縣二龍湖古城址調查簡報」, 『考古』 6期.
- 王成生, 2010, 「從考古資料看西漢遼東等五郡治及都尉治的地望」,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近年來遼寧考古新收穫」, 『遼海文物學刊』 1期.
- 劉長江, 2010, 「沈陽宮后里遺址及相關發現」,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李慶發, 1984, 「遼陽市新城戰國墓」,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李曉鍾, 2007, 「沈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沈陽考古文集』 1, 科學出版社.

- 鄭君雷, 2001, 「戰國時期燕墓陶器的初步分析」, 『考古學報』3期.
- 鄭君雷, 2005, 「戰國燕墓的非燕文化因素及其歷史背景」, 『文物』3期.
- 周向永, 2010, 「遼北戰國漢時期多民族文化交匯的考古學考察－鐵嶺邱臺遺址例說」,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陳光, 1998, 「東周燕文化分期論(續完)」, 『北京文博』2.
- 鐵嶺市文管辦, 1996, 「遼寧鐵嶺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2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view of the Distinction of Yan Remains and
Its User Group in the Liaohe River Plains:
On the Relationship to Yan Immigrants

Lee Jongsu

In the early second century BCE, Wiman deposed King Jun and established Wiman Joseon(衛滿朝鮮) upon the power base of Chinese immigrants. Critical for grasping the culture of Wiman Joseon is understanding the material culture, in particular, the burial remains, of immigrants,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deposing the king of Gojoseon. Because Chinese immigrant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Yan state,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Yan(燕) remains in the plain area of Liaohe(遼河) in order so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al amalgamation that occurred.

Of 41 known areas of Yan remains, only 10 have been excavated. Six of the most significant remains for Wiman Joseon are located on the Liaohe plain: Yangpingcheng(襄平城), Xiwangzimu(徐往子墓), Wangshuidaimu(望水臺墓), Shenyang gugong dixia guchengzhi(沈陽故宮地下古城址), Renaolumu(熱鬧路墓), and Xinguangmu(新光墓). These remains were formed in the middle of China's Warring States Period(戰國時代). Jinkai was connected with the expansion of Liaodong(遼東). The period of Xinchengmu(新城墓) was relevant to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early Han Dynasty. From differences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construction methods at burial sites, we can deduce

that the body discovered in the tomb was not a Yan officer, but rather a leader of Chinese immigrants in the Qin Dynasty.

The Qiutaiyizhi(邱台遺址) and the Erlonghuchengzhi(二龍湖城址) in the northern Liaodong region are just as difficult to understand as the remains of Yan because the castle's construction method and arrangement clearly show the association of Zhungyuan and indigenous cultures. After Yan immigrants settled in the upper region of the Liaohe River, these remains were built in the process of bringing Yan and indigenous cultures together. This association of Yan and indigenous cultures is the product of the coexistence of the two cultures and the conflict between Chinese immigrants and indigenous groups.

Keywords

Plains area of Liaohe, Yan remains, Chinese immigrants, Wiman Joseon, Xinchengmu(新城墓), Qiutaiyizhi(邱台遺址), Erlonghuchengzhi(二龍湖城址), Cultural amalgamation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이청규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머리말

상당수 고대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衛滿朝鮮은 기원전 2세기 전 기간에 걸쳐 西北韓 또는 遼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왕이 등장하고 관료조직이 있으며, 王儉城으로 불리는 도시를 갖춘 국가 수준의 政治體로 추정되며, 漢나라에서 兵威財物을 수입하였음을 문헌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그동안 위만조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대사학에서 주도하여왔다. 그러한 위만조선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4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조진선, 2013, 「중국 동북지역의 靑銅器문화와 고조선」, 41~72쪽; 조범중 2013, 「고조선의 중심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97~118쪽; 박대재, 2013, 「고조선의 대 중관계와 遼東」, 119~144쪽; 이후석, 2013, 「遼東-西北韓지역의 細形銅劍문화와 위만조선」, 159~178쪽; 박경철, 2013, 「고조선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223~254쪽.

무엇보다도 王儉城 등의 중심도시 시설과 지배층의 무덤 등이 조사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위만조선이 위치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시공간적 범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생활터, 埋納遺構와 무덤시설이 조사 보고되었을 뿐이다.

위만조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던 고고학적 자료가 기원전 3~2세기에 遼東의 撫順 蓮花堡 유적과 西北韓의 寧邊 細竹里 유적을 표지로 한 蓮花堡-細竹里 유형이라고 하는 유적유물갯춤새다.²⁾

그러나 遼東-西北韓 지역에 동 유형의 갯춤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 유형은 이 지역에서 오히려 외래적인 燕의 요소가 많고, 토착적인 요소가 많은 별개의 유형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本溪 上堡 유적을 표지로 한 上堡유형이 바로 그것으로 燕나라계 鐵器·陶器와 함께 토착적인 靑銅器·土器가 포함되는 갯춤새다.³⁾

다양한 유형의 유물갯춤새가 위만조선 전후에 보급되었음에도 기종과 형식을 비롯하여, 공간적인 분포와 절대연대, 전개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리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이야 비로소 이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들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鐵器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제시되었는 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각각 조망하는 관점은 물론, 접근하는 방법에서 한·중·일 혹은 남북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⁴⁾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 연구성과를 토대로 이 지역의 鐵器갯춤새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위만조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여 위만조선이 어떻게 성립하였

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새날출판사, 139~143쪽; 송호정, 2007, 「細竹里-蓮花堡유형 문화와 衛滿朝鮮의 성장」, 『호서사학』 48, 1~34쪽.

3)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요령지역 연나라 유물공반유적의 제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4) 李南珪, 1999,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 철제무기의 유입과 보급-중국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한국고대사연구』 16, 59~88쪽.

고, 그 물질적 기반은 무엇이며, 주변지역과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그리고 멸망 후 그 주민과 문화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만조선이 기원전 2세기 초에 시작하여 2세기 말에 붕괴하였으므로, 기원전 3세기와 1세기대는 그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編年 자체에 연구자들 간에 진폭이 있고, 또한 각각 이전과 이후의 문화로서 그 원형과 전통의 측면에서 조망될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위만조선과 관련하여 논의할 시간적 범위를 기원전 3~1세기로 한다.

II. 시공간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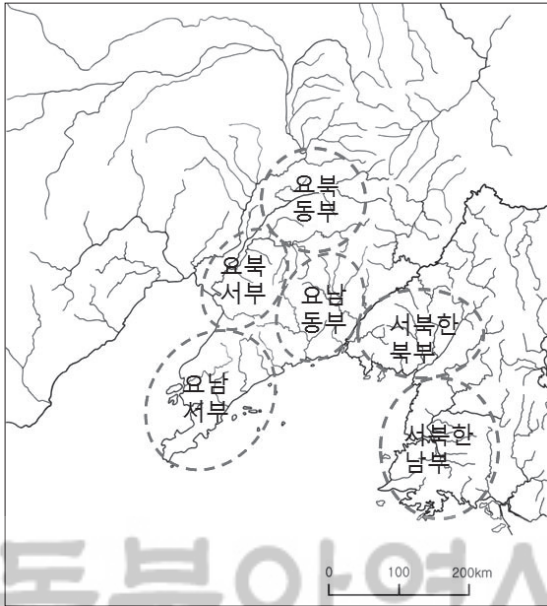
1_ 지역구분

초기철기문화와 관련하여 遼東과 西北韓의 지역구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요동을 千山山脈 서쪽의 저지대와 동쪽의 산록지대, 혹은 천산산맥 이서와 이동을 구분하고, 이서지역은 다시 遼河 이동과 遼東半島로 구분하고 있는 의견이 주목된다.⁵⁾

또 다른 연구자는 요동과 서북한 지역을 묶어 살피면서 鐵嶺과 撫順, 沈陽 북부 등의 遼寧 북부, 本溪와 丹東 전체를 묶어 遼寧 동부, 沈陽 남부·遼陽·鞍山을 포괄하는 遼寧 중부, 그리고 大連·營口·盤金 등을 遼寧 남부로 4대 구분하고, 鴨綠江 이남에서 재령강까지를 서북한으로 구분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⁶⁾

5) 이남규, 2011, 「遼東지역 초기철기의 성격과 한반도 유입 및 전개: 전국말-한초의 양상을 중심으로」, 240~250쪽.

6) 이광명, 2010, 『遼東-西北韓 초기철기시대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부경대학



〈그림 1〉 요동·서북한의 지역구분

서북한 북부의 경우 학자에 따라서는 遼南 동부와 같이 묶거나 아니면 따로 떼어 서북한 남부와 함께 묶기도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구분은 강이나 산맥 등의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인간의 문화 구성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은 역사 기록에도 나름대로의 정확이 알려져 있는 바, 이를 감안해서 지역구분을 재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요동은 서쪽으로 遼河를 건너 醫巫闾山을 경계로 한다. 遼河는 渤海灣으로 흘러드는데, 고대로부터 遼河와 渾河, 그리고 太子河가 하류에서 서로 근접하면서 너른 저지대를 형성한다. 그 동쪽으로 천산산맥이 동북·서남 방향으로 뻗어 있어 지형상 구분되는데, 遼河는 북쪽으로 올라가다 다시 상류는 서쪽으로 거슬러가면서 천산산맥과는 멀어진다.

그러나 渾河와 太子河는 동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상류는 천산산

맥의 산록지대로 들어가는바 자연지리로 보면 같은 강 유역이라 하더라도 천산산맥의 산록지대와 요하의 저지대는 구분된다. 각각 편의상 요동 북부의 서쪽지역 혹은 遼北 서부, 遼東 북부의 동쪽지역 혹은 遼北 동부지역이라고 칭하는데, 오늘날 행정구획으로 보면 遼北 서부에는 沈陽·遼陽·營口·鞍山·蓋州 지역, 그리고 遼北 동부는 鐵嶺·撫順·本溪가 포함된다.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전국 연대의 요양 徐王子, 新城洞 무덤과 2세기를 중심으로 한 요양 三道濠 등의 대규모 생활유적이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그리고 후자에는 기원전 3~2세기의 무순 蓮花堡와 기원전 2~1세기의 철령 丘臺로 대표되는 생활유적과 기원전 3세기대의 본계 上堡, 기원전 2~1세기대의 서풍 西岔溝로 대표되는 무덤유적이 있다.

한편 遼河 남부도 그 동쪽에 있는 천산산맥의 산록지대와 그 서쪽의 遼東 半島를 비롯한 해안 저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遼河 남부에 요동반도 남단에서 압록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너른 저지대와 해안도서가 발달하고 있다. 대체로 遼南 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庄河를 기준으로 그 서쪽으로 요동반도를 포함하여 요남 해안 서부지역과 부속도서는 요남 서부지역, 그리고 그 동쪽은 요남 동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남 동부지역은 천산산맥 산록지대가 계속 동쪽으로 연장되지만, 渾江의 상류를 그 동쪽의 경계로 삼도록 한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大連·普蘭店·長海·庄河가 요남 서부에 포함되고, 岫岩·鳳城·丹東·寬甸은 요남 동부에 해당된다.

요남 서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기원전 3~2세기의 대련 목양성의 생활유적, 기원전 2~1세기의 보란점 姜屯의 무덤유적이 있다. 그리고 요남 동부의 경우 기원전 2세기대의 봉성 劉家堡子와 수암 城南의 생활유적이 대표한다.

韓半島의 경우 臨津江 이북에서 압록강 이남 전 지역을 대체로 서북한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淸川江을 경계로 그 이북과 이남 양 지역 간의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상황이 다르다. 북한에서 일찍이 淸川江유역의 細竹里유적의 사례를 요동의 撫順 蓮花堡 사례와 묶어 蓮花堡-細竹里 유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러한 지역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 북쪽을 서북한 북부, 그 남쪽으로 大同江유역을 포함하여 載寧江유역에 이르는 지역을 서북한 남부로 삼는

다. 그 동쪽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狼林山脈을 경계로 하는데, 서북한 북부와 남부는 대체로 妙香山脈을 경계로 삼고자 한다.

서북한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전자의 경우 기원전 3세기의 영변 세죽리와 위원 용연동의 생활매납유적이 있다. 후자의 경우 기원전 3~2세기경의 봉산 송산리, 기원전 2~1세기의 평양 토성동 486호 무덤유적이 있으며, 기원전 1세기대의 평양 정백동과 강서 태성리 일대의 무덤군유적이 있다.

2_ 시기구분

그동안 요동과 서북한을 묶어 초기철기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시된 한·중 연구자들의 편년 안으로 우선 기원전 3세기대와 기원전 2세기대, 그리고 기원전 1세기대를 구분한 안이 확인된다.⁷⁾ 또 다른 연구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요동 지역의 鐵器를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전기, 기원전 2세기의 중기, 기원전 1세기의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합당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역사적 정황에 대응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편년안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와는 달리 이 지역에 중국 세력의 진출과정에 중점을 두고 제시된 편년안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기원전 3세기 중엽의 戰國晚期,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2세기 말의 秦과 西漢 전기, 그리고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후한 西漢 中後期로 3단계 구분한다.⁹⁾

한편 요동과 서북한을 별개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사실 자체에 주목하여 시기를 구분한 안이 있다. 우선 요동의 경우 무덤에 부장된 鐵器를 중심으로 기원전 3~2세기 전엽인 墳墓 1기, 기원전 2~1세기 전엽인 墳墓 2기,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전엽 이후 기원 1세기까지를 분묘 3기로 구분

7) 李南珪, 2011, 앞의 글, 240~250쪽.

8) 이광명, 2010, 앞의 책.

9) 白雲翔, 2013, 「燕地鐵器文化的起源與發展及其東漸」,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 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11~26쪽.

하였다. 그리고 취락을 중심으로 취락 1기는 기원전 3세기 전엽에서 후엽, 취락 2기는 기원전 2세기에서 후엽, 취락3기는 기원전 2세기 후엽에서 기원후 1세기 중엽으로 구분하였다.¹⁰⁾ 서북한은 요동과는 별도로 기원전 2세기대의 1기, 기원전 1세기대의 2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여러 의견을 보면, 요동과 서북한을 무대로 古朝鮮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맞추어 시기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실연대를 입증하는 고고학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서 鐵器와 관련하여 기원전 2세기 전후한 절대연대를 가름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것은 현지의 발굴 사례가 적어서도 그러하지만, 발굴되어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보고되더라도 유물갖춤새의 共伴關係나 층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년을 시행할 때 중요한 사항은 자료가 출토되는 고고학적 맥락과 형식적 접근 그 자체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사실은 유물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땅에 묻힌 시점이 제작 연대보다 일정 시간 늦다는 점이다. 묻힌 遺構가 무덤이라면 수십 년 동안 생전에 제작 사용되다가 부장된 것일 수 있어 같은 형식의 유물이라도 그 연대 차이는 수십 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물의 형식에 대한 편년으로 일정한 제작방식과 형태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단일 기종이 아닌 여러 기종을 포괄한 갖추새 수준의 편년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형식과 유형의 연대는 그 상한과 하한에서 1세기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출토되는 상황과 유적 혹은 유구의 성격에 따라서 실제 당대에 보급된 것 중 잔존하여 전하는 鐵器의 기종과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유적의 경우 사용하다가 용도 폐기되거나 분실 등으로 남아 전한다. 무덤유적의 경우 부장유물로 선정되거나, 葬送儀禮 중에 사용된 鐵器에 한정

10) 金想民,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初期鐵器文化の成立と展開』, 九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된다. 매납유적의 경우 미처 사용되지 않은 鐵器 중에서 보관 또는 은닉을 목적으로 묻은 것이어서 무덤은 물론 생활유적의 사례와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종의 유무에 대한 편년 또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요동-서북한의 철기문화에 대해서 시기구분을 한다는 것, 그것도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적어도 2분의 1세기를 단위로 細分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과 대응하여 고고학 자료의 변천을 살펴보면 그에 걸맞게 세분된 시기구분의 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할 경우 우선 절대연대의 기준자료를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절대연대의 시간 폭을 어떻게 추정할지가 문제가 된다.

철기와 공반되는 사례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鑄造年代를 확인할 수 있는 화폐가 있어 이를 절대연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화폐의 제작연대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재활용되는 경우도 고려하여, 대체로 몇 단계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실연대 추정의 주된 지표인 화폐의 연대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였다.¹¹⁾ 이들 화폐가 단독으로 출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鐵器·靑銅器와 공반되는 사례가 있어 편년에 큰 참고가 된다. 요동 지역 화폐유물에 대한 최근의 편년안에 따르면 크게 5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기원전 3세기 전반의 明刀錢 布錢이 출현한 시기, 2기는 一貨錢 출현기로 기원전 3세기 후반, 3기는 秦半兩 출현기로 기원전 3세기 말 2세기 초, 4기는 八銖半兩 출현기로 기원전 2세기 전반, 5기는 四銖半兩 출현기로 기원전 2세기 전반에서 2세기 말로 편년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대체로 2분의 1세기를 단위로 하여 구분하는 것은 당대의 동향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틀로써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테면 秦開의 古朝鮮으로의 東進 이전인 기원전 4세기 말과 동진 이후의 기원전 3세기 전반을 묶어 편년할 경우, 그리고 2세기 후반 樂浪郡 설치 이전과 기원전 1세기 전반 漢 郡縣 설치 이후를 묶을 경우가 바로

11) 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會.

〈표 1〉 遼東-西北韓지역의 기원전 3~1세기 단계구분

시기	절대연대(B.C.)	中國系 화폐의 보급(古澤義久, 2010)
1기	3세기 초~3세기 중반	明刀錢·布錢(1期)
2기	3세기 후반~2세기 초	明刀錢·布錢·一化錢·秦半兩(2~3期)
3기	2세기 전반	明刀錢·明化錢·八銖半兩錢(4期)
4기	2세기 후반	四銖半兩錢(5期)
5기	2세기 말~1세기 전반	五銖錢(5期 이후)

그러하다.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 구분을 시도하였는 바, 그것은 실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각기 다른 編年의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다소 무리한 편년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철기갖춤새의 변천과정의 틀을 구축하여, 장래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고학적 자료에 대하여 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역사적으로 대응시키는 작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편년적인 틀은 또한 단순히 요동뿐만 아니라, 서북한 북부는 물론 남부를 포괄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서북한 남부는 요동과 함께 後期古朝鮮과 위만 조선의 중심지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에 대해서 단계별로 同期化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북한 연구자들이 기원전 3~2세기대 양 지역의 문화를 동기화하여 蓮花堡-細竹里 類型을 주장하였지만,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여러 다른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대가 2세기에 걸쳐 있어서 역사적 설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5단계론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유적유물 갖춤새를 가설적이나마 소속시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철기의 종류와 제작 보급

1_ 철기의 器種 분류

기원전 3~1세기에 걸쳐 요동과 서북한에 걸쳐 확인되는 철기 전체를 아우른 분류안을 정리하고자 할 때, 중국 연구자들의 제안을 가장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이 생활과 매납유구, 그리고 무덤에서 다종다양하게 출토한 사례가 있는 요동지역의 자료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연구자¹²⁾의 분류안을 주로 참고하지만,工具的 경우 남한의 출토예를 토대로 한 한국 연구자의 분류안¹³⁾도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의 분류안에 따르면 용도별로 農器具·工具·武器 등의 鐵器群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철기군에는 여러 기종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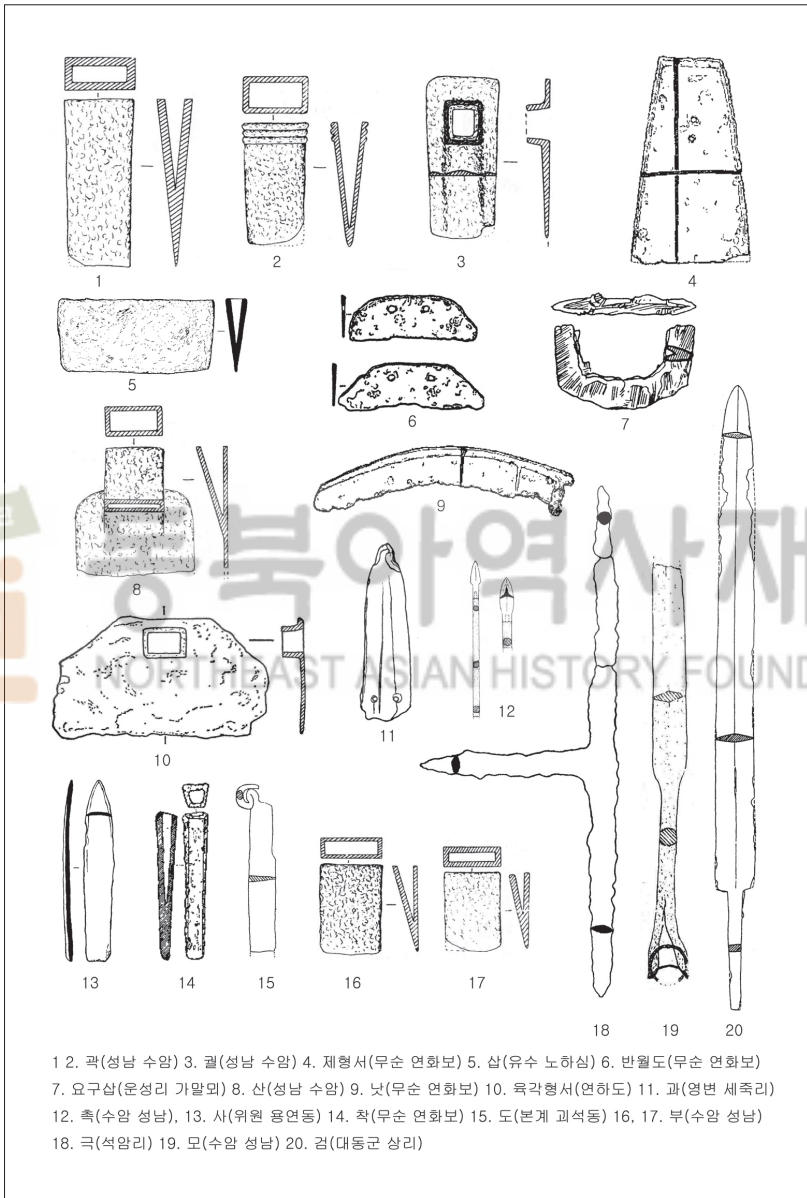
한반도의 경우 서북한 남부에서 기원전 1세기 이후에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종이 보급되지만, 그 이전에 몇몇 공구와 농기구에 한정하여서 발견된다. 농기구·공구·무기의 철기군은 위의 요동지역과 같지만, 각 용도 군에 포함

〈표 2〉 철기 기종의 분류

鐵器群	農器具									工具				武器					
	鍤	鍤	鍤	梯形鋤	六角形鋤	鍬	凹口鍤	쟁기	낫	半月刀	斧	鑿	鍤	刀	劍	鏃	戈	戟	鏃
器種																			

12) 白雲翔, 2005,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万欣, 2009, 「東北亞地區的戰國兩漢鐵工—以遼寧地區爲中心」, 『遼寧省博物館館刊』(4輯), 遼海出版社, 152~177쪽.

13) 金想民, 2012, 앞의 책.



〈그림 2〉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 철기의 종류

된 철기의 기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남북한 연구자의 분류안은 보완수준에서 고려가 된다.

이 글에서는 서북한과 요동 철기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서북한에 없는 요동의 사례를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農器具

농기구는 크게 땅을 일구거나 고르는 起耕具와 곡물을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收穫具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경구로 鑿·鍤·鏟·鋤·鍬 등이 있다. 鑿은 한반도에서는 쏘라고 부르는 것으로 횡단면 細長方形의 鑿部가 있다. 대체로 길이 12cm가 넘고 폭은 6~7cm 정도로서, 별재 木工具인 쏘가 길이 10cm 미만인 것과 차이가 난다. 평면 형태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인 장방형이 일반적으로, 공부와 날의 폭이 같은 형식, 날이 좁은 사다리꼴, 날이 넓은 형식으로 각각 구분된다.

一字鍤은 가로 폭은 13~17cm, 세로 높이는 4~6cm 정도로서 가로단면 細長方形, 세로단면 三角形이며, 평면형태로 역사다리꼴 혹은 세장방형이 있다. 凹口鍤은 날부분에 별도로 측면이 연장되어 평면 凹字形을 이루는 것이다.

鏟은 높이보다 폭이 넓은 가로 直刃의 날에 좁은 소켓이 달린 것으로, 몸체의 양쪽 상단에 어깨가 형성된 모양이다. 소켓은 횡단면 장방형 혹은 방형을 이룬다.

평면모양이 사다리꼴인 梯形鋤는 鋤板이라고도 불리는데, 板狀으로서 날 쪽이 넓고, 머리 폭이 좁다. 높이 18cm 내외고 폭은 6~11cm 정도로서 상부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 결박하게 되어 있다. 六角形鋤는 가로 20cm, 높이 10cm 정도의 장방형에 상면 양쪽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모양을 만든 것이다. 상반부 중심에 鋤板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방형 구멍이 있다.

鍬은 세로로 긴 사다리꼴로서 길이 22cm, 날 폭이 7cm 정도다. 鍬 몸체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장방형 쫘이 상부에 구성되어 있다. 쫘部 주위로는 돌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鑄造方式으로 제작된다.

다음 收穫具로 낫과 半月刀가 있다. 낫은 꼬리 쪽에서 등쪽과 날쪽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며 직선으로 나아가다 봉부에서 굽어지는 형식이다. 너비 4cm, 길이 24~26cm 내외로서, 주조와 단조제품 양자가 모두 있다. 半月刀의 경우 주조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반월형이나 일부 사다리꼴도 있다. 날 부분이 직선 혹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데 길이 13cm, 폭 4cm 내외다.

2) 工具

이를 대표하는 것은 斧·鑿·鉋·刀子다. 우선 쫘部가 있는 도끼는 鑄造와 鍛造製品이 있는데, 대체로 길이 10cm 미만의 소형이다. 길이 12cm 이상의 農器具 鋤과 구분하여 伐採道具 혹은 木製 加工具로 추정하고 있다.

鑿 또한 주로 木製 加工具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鑄造製品으로 긴 막대모양에 날이 달린 것으로, 길이 8~17cm, 너비 1~2cm 정도다. 소켓은 횡단면 방형, 원형, 사다리꼴로서 날보다 폭이 약간 넓거나 좁다.

鉋는 횡단면 초승달형 혹은 V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좌우변이 길게 평행선을 이룬다. 폭 2~3cm, 길이 10~15cm 정도다. 木簡에 쓴 墨書를 지울 때 사용하는 文房具 혹은 木工具로서 추정되며, 삭·과도로 불리기도 한다.

刀子は 칼끝에 고리가 달린 것으로 대체로 길이 20~30cm인데 주조와 단조제품이 있다. 萬能工具로서 護身用, 收穫具, 書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늦은 시기에 무기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3) 武器

殺傷用 무기로 劍·矛·戈·戟 등이 있다. 劍은 끝이 뾰족한 봉부와 양날의 몸체에 스페를 갖춘 것으로 횡단면이 볼록렌즈 혹은 마름모꼴을 이룬다. 劍身의 전체 길이가 70cm 이상은 長劍, 40~70cm는 中長劍, 길이 30cm 미만은

短劍으로 분류된다.¹⁴⁾ 검의 자루는 대부분 목제지만, 일부 청동제도 있다. 그러한 銅柄鐵劍에는 중장검과 단검이 모두 확인된다.

矛는 역시 뾰족한 鋒部에 양날이 있는 矛身을 갖춘 것으로 속이 빈 자루가 달려 있다. 모신의 횡단면이 마름모꼴 혹은 볼록렌즈 모양으로 평면은 長三角形을 이룬 것, 扁平 細長한 것, 월계수잎 모양을 이룬 것 등이 있다.

戈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中原系 銅戈 모양을 본딴 것으로 援이 길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遼寧式 銅戈를 본딴 것처럼 援이 짧은 것이다. 戟은 당초 戈와 劍 혹은 矛를 조합한 형태로서 각각 刺와 援이라는 부분으로 변형되었다.

IV. 각 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앞서 구분한 지역과 시기별로 확인된 초기철기의 출토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출토되는 유적은 크게 생활(성곽 포함), 埋納 그리고 무덤 유적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_ 遼北의 西部

생활유적으로 遼陽 三道濠, 鞍山 洋草場, 매납유적으로 台安 白城子가 보고된 바 있다.

遼陽 三道濠에서는 6기의 주거지, 布石大路, 7기의 벽돌가마, 우물터 11기가 확인되었다. 농기구로는 起耕具로 六角形鋤·鍤·斨, 工具로 環頭刀子·도끼, 그리고 무기로 화살촉이 수습되었다. 공반되는 벽돌과 瓦當의 형식으로

14) 白雲翔, 2005, 앞의 책.

〈표 3〉 각 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유적

		17(B.C. 3C전반) 고조선후기 후반	27(B.C. 3C후반) 고조선후기 말	37(B.C. 2C전반) 위만조선 전기	47(B.C. 2C후반) 위만조선 후기	57(B.C. 1C전반) 한군현 초기
요북서부	생활		鞍山 洋草場		遼陽 三道濠	遼陽 三道濠
	매납			台安 白城子		
	무덤	遼陽 徐王子墓 遼陽 望水臺墓	遼陽 新城洞			
요북동부	생활		撫順 蓮花堡	撫順 蓮花堡	鐵嶺 丘台	鐵嶺 丘台
	매납		鐵嶺 丘台	本溪 怪石洞		
	무덤		本溪 上堡 本溪 南芬 昌道 翟家村 本溪 劉家哨	本溪 朴堡	西豐 西岔溝	西豐 西岔溝 新賓 龍頭山 撫順 勞動公園
요남서부	생활		大連 牧羊城 大連 高麗寨	大連 牧羊城 錦州 大嶺村	大連 牧羊城 錦州 大嶺村	錦州 大嶺村
	매납		大連 南山裡			
	무덤	旅順 尹家村 7號? 長海 西家溝	旅順 樓上墓 大連 後元臺		大連 大礮街村 普蘭店 姜屯	大連 馬山/李家溝 大連 大礮街村 普蘭店 姜屯
요남동부	생활			鳳城 劉家堡子 岫岩 城南	鳳城 劉家堡子 岫岩 城南	
	매납		寬甸 雙山子			
	무덤	丹東 趙家堡	華甸西荒山屯			
서북한부	생활		영변 세죽리 박천 단산리			
	매납		위연 용연동			
서북한남부	생활				낙랑토성 어을동토성 소라리토성 가평 대성리	낙랑토성 어을동토성 소라리토성 가평 대성리
	무덤	신계 정봉리	함흥 이화동	봉산 송산리 배천 석산리	평양 토성동486	평양 정백동군/ 석암리군 강서 태성리군 은율 은성리군 대동 상리 남포 후산리 재령 부덕리 황주 금석리/ 순천리 은파 갈현리

보아 3~5기에 걸치는 前漢代의 기원전 200~25년 사이로 편년된다.¹⁵⁾

鞍山 洋草場에서는 일천여 매의 明刀錢과 함께 鎗·鋤·鑿·鎌·刀 등 다양한 종류의 철기가 출토하였으나,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¹⁶⁾ 河北城 興隆의 거푸집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실물자료의 일부인 鍤과 鋤 등 전형적인 鑄造 농기구가 鞍山博物館에 전시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다.¹⁷⁾ 그 상한 연대는 공반하는 明刀錢으로 보아 2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台安 白城子에서는 中原系 靑銅武器와 함께 철기가 출토하는데, 銅劍은 스페가 원통형으로 가운데 비었으며, 銅戈는 파편이어서 전체형식이 확실하지 않다. 靑銅匕首는 鑄造工人을 감독하는 관리를 뜻하는 銘文을 갖고 있다. 철기는 농기구로서 六角形鋤 1점, 鑿 3점과 함께 무기로서 길이 108cm의 長劍 1점이 확인된다. 청동무기의 형식으로 보아 2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長劍은 요동지역에서 가장 이른 사례가 된다.¹⁸⁾

2. 遼北 東部

생활유적으로 撫順 蓮花堡, 鐵嶺 邱台, 매납유적으로 本溪 怪石洞, 무덤 유적으로 本溪 上堡, 南芬, 昌圖 翟家村, 그리고 西豊 西岔溝, 新賓 龍頭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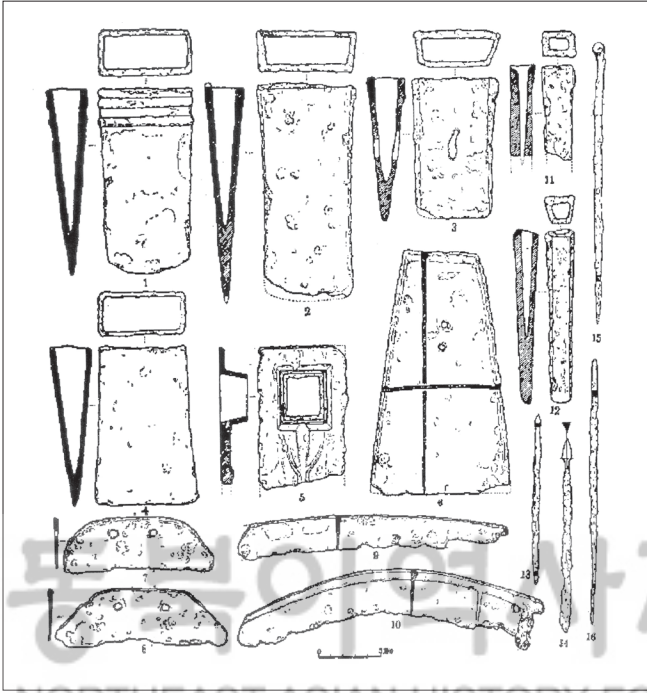
撫順 蓮花堡에서는 돌담기초를 비롯한 생활유구에서 철제농기구, 공구가 打捺무늬 壺·甕·罐과 四銖半兩錢 1점이 공반 출토하였다. 농기구에는 起耕具로 鑿·鋤·鋤, 收穫具로 半月刀·낫, 그리고 工具로 鑿, 무기로 鎌이 있다. 철기의 형식으로 보아 그 연대가 戰國 燕나라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15) 東北博物館, 1957, 「遼陽三道壕西漢村落遺址」, 『考古學報』 57-1期, 119~1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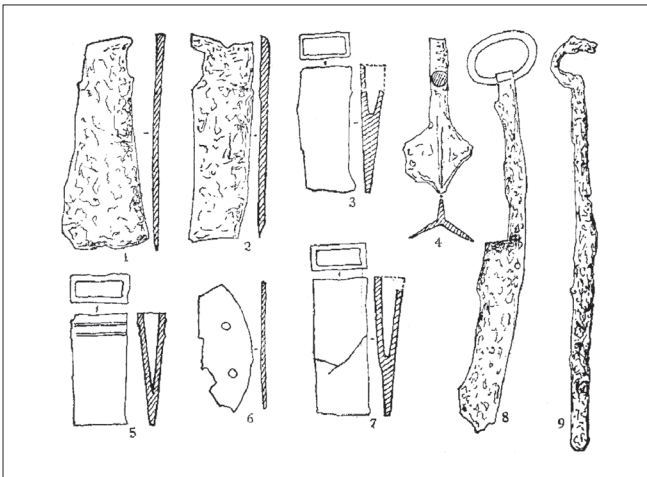
16) 黃展岳, 1957, 「近年出土戰國兩漢鐵器」, 『考古學報』 3期, 93쪽; 富品寶·路世輝, 2010, 「鞍山地區出土戰國鐵器的初步探論」, 『遼寧考古文集』 2期, 322~330쪽.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韓中鐵器資料集 I-중국동북지역출토 철기』, 75~78쪽.

18) 張喜榮, 1997, 「台安白城子戰國遺址出土器物簡介」, 『遼海文物學刊』 1期, 158쪽.



〈그림 3〉 무순 연화보 철기



〈그림 4〉 철령 구태 철기



있지만 西漢 文帝 시기(기원전 175~140)에 제작된 四銖半兩錢이 공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일정시점이 西漢 前期까지 내려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3기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鐵嶺 邱台에서는 수차례 발굴조사를 통하여 생활, 매납과 무덤 유구가 확인되었다. 정식보고된 것은 1993년의 트렌치조사 결과인 바, 농기구 중 起耕具로서 鑿 11점·鋤 2점·鏟 3점, 收穫具로서 半月刀 2점, 공구로서 刀子 등이 집자리, 무덤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공반관계는 확실하지 않다.¹⁹⁾ 동 유적에서는 1973년에 灰陶 단지에서 燕나라 布幣와 刀幣 15,123점을 비롯해서 衛·趙·秦의 화폐 半兩 등이 출토된 바 있다.²⁰⁾ 이로 보아 화폐와 반드시 공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철기갖춤새의 연대가 2기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 거주구역이 아닌 동굴인 本溪 怪石洞 유적에서 鑿·刀子와 함께 戈가 출토되었다.²¹⁾ 戈는 援이 길고, 날이 곡선을 이루며 內가 있는 형식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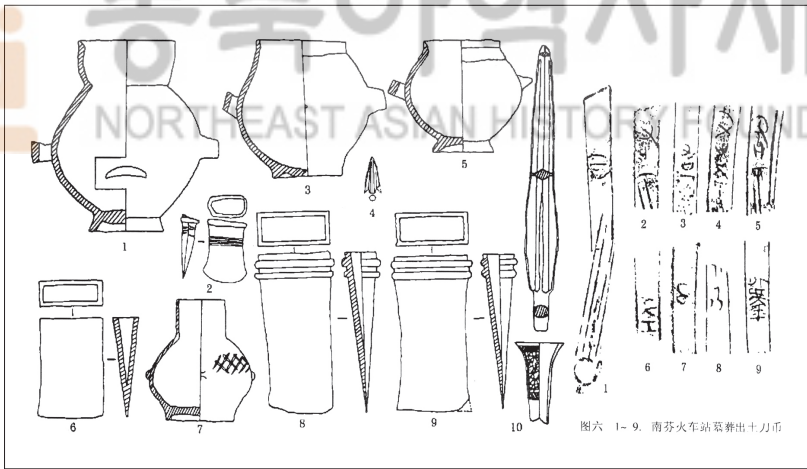


〈그림 5〉 본계 괴석동 철기

- 19)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丘家台遺址試掘簡報」, 『考古』 1996-2, 36~51쪽.
 20) 鐵嶺市博物館, 1992, 「遼寧鐵嶺丘家台發現窖藏錢幣」, 『考古』 1992-4, 303·310~314쪽.
 21) 苗麗英, 1997, 「本溪怪石洞發現青銅時代及漢代遺物」, 『遼海文物學刊』, 1997-1期,

체길이 30.7cm 정도다. 보고자는 戰國 말 西漢 초라 하고, 다른 연구자는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하는바, 대체로 3기 혹은 4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덤유적의 사례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本溪 南芬 火車站의 B墓에서 明刀錢 46점과 함께 釧 5점이 부장된 사실이 확인된다.²²⁾ 화폐로서 명도전만 공반된 사례로 보아 기원전 3세기 후반의 제2기 또는 그 이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本溪 上堡에서는 粘土帶土器와 灰色打捺紋壺, 그리고 細形銅劍과 함께 鑄造 鐵鑿이 부장되었다.²³⁾ 昌圖 翟家村 무덤에서는 中原系 桃氏劍, 土着系 細形銅劍·劍柄과 함께 鑄造鐵斧 5점이 공반출토되었다.²⁴⁾ 이들 사례는 中原系와 재지계의 토기·청동기의 형식으로 보아 대체로 2기로 추정되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3기로 추정하기도 한다.



图六 1-9. 南芬火车站葛葬出土刀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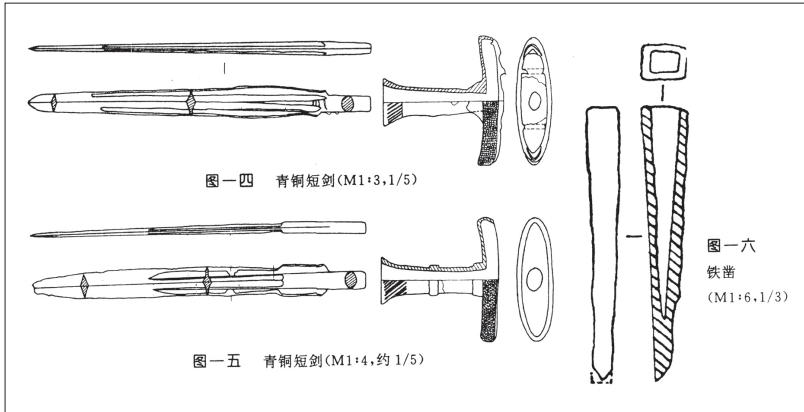
〈그림 6〉 본계 남분 철기

156~157쪽.

22) 梁志龍, 2003, 「遼寧本溪多年發現的石棺墓及基遺物」, 『北方文物』 2003-1, 12~13쪽.

23) 魏海波·梁志龍, 1998, 「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 『文物』 6, 18~30쪽.

24) 李予利, 1993, 「昌圖發現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 1993-1, 16~18쪽.



〈그림 7〉 본계 상보촌 청동기와 철기

西豊 西岔溝에서는 1956년에 63기의 무덤을 발굴 조사하였는데, 다량의 철기가 副葬되었다.²⁵⁾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기종은 무기로 劍·矛·刀를 비롯하여 공구로 刀子和 錘, 馬具로 재갈과 鑣轡 등이 있다. 정식보고되지 않은 채 鐵劍은 71점이 출토되었다고 전하는데, 柄部로 靑銅製와 木製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劍身の 길이가 60~80cm 정도의 中長劍으로 劍把頭飾이 雙鳥式과 圓柱式인 在地系統이고, 후자는 길이가 102cm의 長劍으로서 漢式系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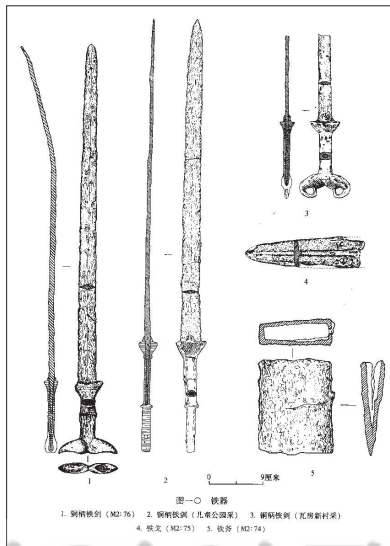
共伴되는 銅鏡은 蟠螭文鏡·草葉文鏡·星雲文鏡·日光鏡·四禽四螭文鏡 등으로 총 77점이 전하는데 그중 蟠螭文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화폐로는 一化錢 2점, 大半兩 2점, 半兩 18점이 전하는데, 화폐와 銅鏡으로 보아 漢 武帝에서 昭帝에 이르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에 이르는 4~5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新賓 龍頭山에서도 西豊 西岔溝와 마찬가지로 雙鳥形 劍把頭飾 銅柄鐵劍이 부장된 무덤이 조사되었다. 3기의 大石蓋墓 중 2호묘에서 다량의 재지계 유사점토대토기와 함께 전체길이 67.8cm 中長劍 형식의 銅柄鐵劍 1점, 등대

25)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 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9, 25~32쪽.



〈그림 8〉 西豐 西岔溝 出土 銅柄鐵劍
(遼寧省博物館)



〈그림 9〉 신빈 용두산 철기

가 있는 鐵戈 1점, 그리고 鐵斧 1점이 부장되었다.²⁶⁾ 銅柄鐵劍은 撫順 勞動公園, 瓦房村 등에서도 출토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대체로 5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⁷⁾

3_ 遼南 西部

이 지역의 성곽생활유적으로 旅順 牧羊城·錦州 大嶺屯·普蘭店 高麗寨, 매납유적으로 大連 南山裡, 무덤유적으로 旅順의 尹家村·樓上·大連의 大潘家村, 營城子和 普蘭店 後元臺, 新金 馬山貝墓, 大連의 營城子和 李家溝 貝墓 등이 있다.

牧羊城에서는 81×131m의 범위 내에서 長樂未央의 銘文, 雙鳥文 半瓦當

26) 肖景全, 2010, 「新賓旺清門鎮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期, 142~164쪽.

27) 肖景全, 2010, 위의 글, 154·159쪽.

등의 西漢代 유물과 함께 다량의 췌를 비롯하여 낫·刀子·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화폐로는 西漢代 이전의 명도전 14점을 비롯하여 一化錢·明化錢·半兩錢 등이 공반하므로 2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3~4기가 중심시기로 이해된다.²⁸⁾

錦州 大嶺屯의 경우 출토상황은 전하지 않으나, 鑿·斧·刀子 등의 철기가 보고되었다.²⁹⁾ 후대의 화폐로서 貨泉 2점도 있지만 공반출토된 명도전 20점으로 보아 그 중심연대는 2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普蘭店 高麗寨에서는³⁰⁾ 각종 회색도기와 銅矛·銅鏃 등의 靑銅器, 그리고 明刀錢·方足布·一化錢·半兩錢 등의 화폐와 함께 나오는 바, 대체로 제 2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로서 鑿·鏃·鋤 등의 農耕 起耕具, 鎌 등의 農耕 收穫具, 그리고 무기로서 劍이 출토되었다. 검은 황단면 렌즈형으로, 길이 40cm 정도로서 2기 이전에 속하는 이른 사례로서 주목된다.

大連 南山裡에서 인골과 함께 나온 대형 항아리에서 철기가 출토하였는 바, 보고자는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철기 자체는 부장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납된 것으로 보여진다.³¹⁾ 農耕 起耕具로 鑿과 함께 梯形鋤·鎛, 農耕 收穫具로 半月形刀가 확인되는 바, 갓춤새로 보아 역시 2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1기에 속한다고 추정되는 旅順 尹家村 7호묘에서 劍 혹은 鉞가 부장된 것으로 전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속하는 무덤으로 토착계의 細形銅劍과 銅斧와 함께 中原系 桃氏劍이 공반되는 長海 徐家溝의 사례가 있는데, 철기는 부장되지 않았다.

旅順 樓上墓는 앞선 시기의 琵琶形銅劍과 혼재해 있어 정확한 출토상황은 알 수 없으나, 3호묘에서 2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명도전과 함께 鐵製 낫 1점이

28)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29) 三宅俊成, 1933, 『大嶺屯城址: 漢及漢以前之遺蹟』.

30) 東亞考古學會, 1929, 『窰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 東方考古學總刊甲種 第1冊.

31) 東亞考古學會, 1931, 『南山裡—南滿洲老鐵山麓의 漢代墓』, 東方考古學總刊甲種 第3冊.

확인되었다.³²⁾ 大連 大潘家村 4호 목곽묘에서는 4기에 속하는 西漢代 陶器만 출토되었을 뿐 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무덤에 의해 중복 훼손되므로 3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호 목곽묘에서는 부장품으로 鑄造鐵斧 흔적이 확인되었다.

普蘭店 後元臺 무덤에서는 細形銅劍과 함께 中原系 銅戈와 青銅禮器가 공반하고, 鐵斧만 공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기 혹은 3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5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로서 新金 馬山貝墓의 鐵斧, 大連 營城子貝墓 23·33·42호묘의 鐵錘·環頭刀자의 부장사례가 있다. 그 밖에 26기가 조사된 大連 李家溝 貝墓 중 20호묘에서 철기가 부장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무덤은 前後室이 갖추어진 비교적 큰 무덤으로 다종다양한 토기·청동기, 그리고 宋敎信印 印章과 함께 검모양 철기 1점이 부장된 것이 확인된다.

앞서 貝墓와 마찬가지로 철기가 거의 부장되지 않지만 4~5기에 속하는 무덤이 상당수 조사되어 정식 보고서로 출간된 普蘭店 姜屯 유적이 있다.³³⁾ 총 154기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55기가 부장된 화폐와 거울을 통해서 그 실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후반인 4기에 17기, 기원전 1세기 전반인 5기에 38기의 목곽묘와 목관묘가 축조되었다. 부장된 유물은 대부분 陶器로 철기는 물론 청동기도 帶鉤와 銅錢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

4_ 遼南 東部

이 단계에 철기가 출토하는 성곽생활유적으로 鳳城 劉家堡子, 岫岩 城南의 사례가 대표적이고, 매납유적으로 寬甸 雙山子가 있지만 무덤유적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鳳城 劉家堡子에서는 조사된 10여 개의 시굴갱에서 농기구로 鏹·鏃, 궁구로 鏃·刀子, 무기로 矛와 鏃 등이 소량 수습되었다. 鐵矛는 길

32) 許明綱, 1960, 「旅順口區后牧城驛戰國墓清理」, 『考古』 1960-8期, 469-474쪽.

3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姜屯漢墓』(上)(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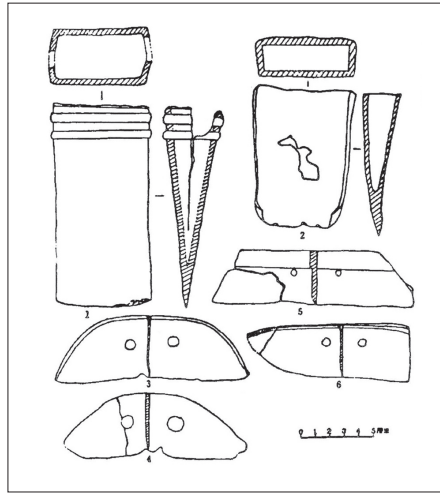
〈그림 10〉 수암 성남 철기

이 23cm이고 鋏部 끝이 팽창된 형식이다. 같은 구역 내에서 卷雲文 瓦當 다수를 포함한 漢代 기와가 수습된 건축기단이 발견되어, 보고자는 서한 早期인 제3기 혹은 제4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⁴⁾

岫岩 城南의 경우 4개의 試掘坑 중 T3에서 확인된 1개의 화덕자리에서 15점

34) 馮永謙·崔玉寬, 2010, 「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2), 遼寧省文物研究所.

의 철기가 집중 매립되어 있었다.³⁵⁾ 출토상태로 보아 매납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농경구 중 起耕具로서 鑿·鍤·鏟·鍬·凹口鍤·쟁기, 收穫具로서 낫, 공구로 斧, 무기로서 矛와 鏃이 공반되었다. 바로 인접한 灰坑의 陶器片이 그 형식으로 보아 戰國末期까지 올라가겠지만, 일시에 퇴적된 것으로 보아 제4기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추정하



〈그림 11〉 관전 쌍산자 철기

는 것이 무리 없어 보인다.³⁶⁾ 1점의 鐵矛는 鏃部 끝이 벌어진 것으로 矛身 횡단면 마름모꼴로 남은 길이 38cm로 추정된다.

寬甸 雙山子의 경우 동굴 안에서 가지런히 놓인 明刀錢 200여 점 아래에 鑿 2점, 半月刀 7점의 철제 농기구가 확인되었는데, 2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⁷⁾

무덤유적으로 1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丹東 趙家堡의 사례가 있어 銅劍·銅矛, 그리고 粗細文鏡이 무덤에 부장되고 있지만, 철기는 공반하지 않고 있다.³⁸⁾ 정확하게 요동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인접한 樺甸 西荒山屯의 무덤에서 銅劍·粗細文鏡과 함께 철기가 부장된 사실이 확인되어 참고가 된다.³⁹⁾ 이 유적에서 총 8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6기의 무덤

35) 鞍山市岫岩滿族博物館, 2009, 「遼寧岫岩城南遺址」, 『北方文物』 2009-2.

36) 金想民, 2012, 앞의 책.

37) 許玉林, 1980, 「遼寧寬甸發現戰國時期燕國的明刀錢和鐵農具」, 『文物資料叢刊』 3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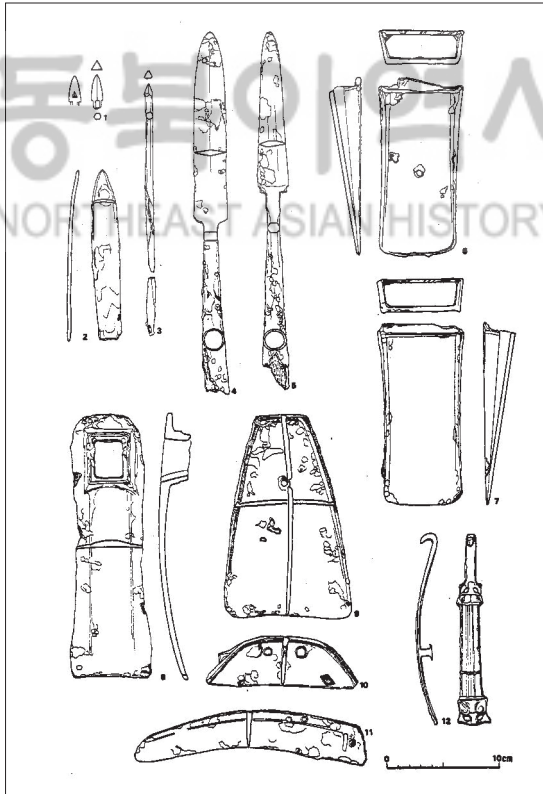
38)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84-9.

39)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1982-2, 141~152쪽.

에서 釧·鎌·刀 등의 철기가 확인되었다. 雙鳥形 劍把頭飾 銅劍은 1·3호, 그리고 T자형 劍把頭飾 銅劍은 1·2호에서 출토되었는바, 대체로 2기 전후로 추정된다.

5_ 西北韓 北部

이 지역에서 생활과 매납유적은 확인되지만 무덤은 아직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다. 생활유적으로 寧邊 細竹里·박천 단산리, 매납유적으로 위원 용연동이 있는데 明刀錢과 공반되는 철기갖춤새만 확인된다.



〈그림 12〉 위원 용연동 철기

우선 생활유적인 寧邊 細竹里에서는 5기의 집자리에서 다량의 토기와 함께 철기가 출토되었다. 같은 문화층에서 네모난 상자에 50점씩 묶여 2,000점을 매납한 명도전이 발견되어 그 연대를 2기 혹은 그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⁴⁰⁾ 농기구 중에 起耕具로서 鋤과 鍬, 收穫具로서 낫, 공구로서 斧와 刀子, 무기로서 戈가 확인되었다. 戈는 遼北 동부의 新賓 龍頭山의 사례가 있을 뿐 드문 예로서 주목된다.⁴¹⁾

박천 단산리에서도 여러 시대 문화층 중에서 한 층위에서 다량의 막새기와 · 평기와와 함께 공구로서 斧와 鑿, 무기로서 鏃이 출토되었다.⁴²⁾ 막새기와는 半圓形의 고사리무늬가 장식된 燕 계통이므로 이를 근거로 동 갖춤새가 2기 이전의 기원전 3세기대임이 확인된다.

위원 용연동에서 성격불명의 원형 적석시설에서 철기가 매납되었는데, 공반되는 화폐로서 명도전만 52점이 있어 1기 혹은 2기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⁴³⁾ 농기구 중에 기경구로서 鋤 2점, 鍬 1점, 六角形鋤 1점, 수확구로서 半月刀 1점, 낫 1점이 전한다. 공구로는 鉋 1점이 있으며, 무기로서 2점의 矛가 전한다. 이를 통해서 제1~2기에 燕의 농공구·무기 등의 각종 기종을 갖춘 철기갖춤새가 서북한 북부까지 전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器種 수준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1~2기는 물론 3기에도 출토사례가 많지 않은 矛가 공반한다는 사실이다. 鋒部가 船尾形을 이루고 身部の 횡단면이 볼록렌즈모양이며, 그 基部는 둔각을 이룬다. 자루는 횡단면을 보면 상부는 長方形으로 속이 짝 차 있고, 하부는 鑿部로서 圓形을 이루면서 가운데가 비어 있다.

4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2, 「영변 세죽리유적 발굴」, 『문화유산』 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 부여 진국편』, 동광출판사, 91~94쪽.

41) 尙景全, 2010, 앞의 글.

4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앞의 책,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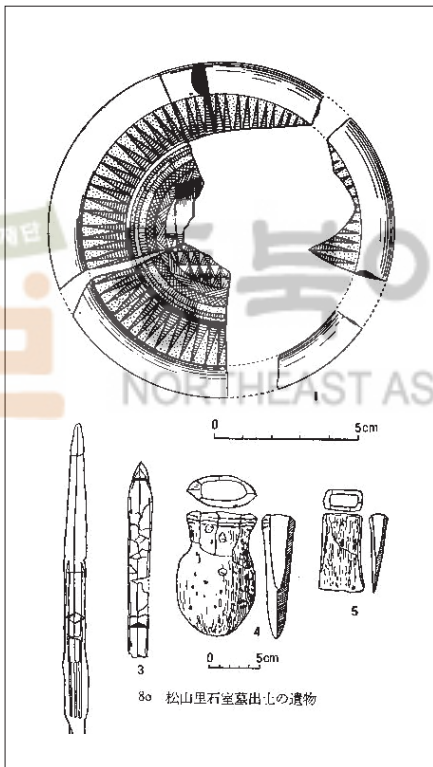
43)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朝鮮古文化綜鑑』 1.

6_ 西北韓 南部

이 지역에서는 철기가 출토하는 매납유적은 물론 생활유적의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토성유적으로 樂浪土城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 유적에서 농공구로 鍤·斧·刀 그리고 무기로 鏃 등이 출토되었는데, 공반관계와 출토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이른 것은 4기의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5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유적으로 이른 단계의 철기가 부장된 사례로 황해 봉산 송산리,⁴⁴⁾ 배천 석산리 유적의 사례가 있다.⁴⁵⁾ 둘 다 鐵斧만 부장된 것으로 전자는 劍·矛·斧·鏡 등, 후자는 劍·矛 등의 청동기와 공반되었다. 대체로 3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르면 2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서북한지역에서 漢式의 초기철기가 다량 부장되는 무덤유적의 조사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평양 토성동 486호 무덤에서는 雙鳥形 劍把頭飾 銅柄銅劍·銅戈와 함께 劍·刀·戈·弩機·鏃 등의 무기와 斧와 鑿



〈그림 13〉 봉산 송산리 청동기 철기

44) 황기덕, 1962,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슬피골 돌덧림무덤」, 『고고학자료집』 3.

45)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등 40여 점의 철기가 부장되어 주목된다.⁴⁶⁾ 劍은 中長劍으로 길이 68cm, 刀는 59cm 정도다.

평양 정백동,⁴⁷⁾ 석암리⁴⁸⁾ 강서 태성리,⁴⁹⁾ 운울 운성리에서는 다수의 무덤이 군을 이루며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대동 상리,⁵⁰⁾ 재령 부덕리,⁵¹⁾ 남포 후산리,⁵²⁾ 황주 금석리, 순천리, 은파 갈현리⁵³⁾ 등이 있다.

이들 무덤에 부장된 철기를 보면 농기구로 鋤·鎊·鎌, 공구로 鑿, 무기로 長劍과 短劍, 矛·戟·戈·鏃 등이 있다. 이들 철기와 함께 청동기로 土着系 細形銅劍·細形銅戈를 비롯하여 각종 차마구가 공반된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 북한의 연구자들은 제4기인 기원전 2세기대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 반하여⁵⁴⁾ 한중일의 연구자는 제5기인 기원전 1세기대로 보는 의견이 많다.⁵⁵⁾ 이는 한 균현 이전, 이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역사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덤에 부장되는 시점과 처음 보급 사용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제4기 말과 제5기 초는 절대연대상으로 10년 남짓 차이이므로, 그러한 연대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크게 보면 최근에 남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기원전 2세기설이 주장되는 토성동 486호 무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46) 윤광수, 1994, 「토성동 486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4.

47)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8, 『고고학자료집』 5; 사회과학원,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중심출판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중철기자료집 (III) - 한반도 북부지역의 초기철기』.

48) 백련행, 1965,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고고민속』 4.

4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58,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5.

50)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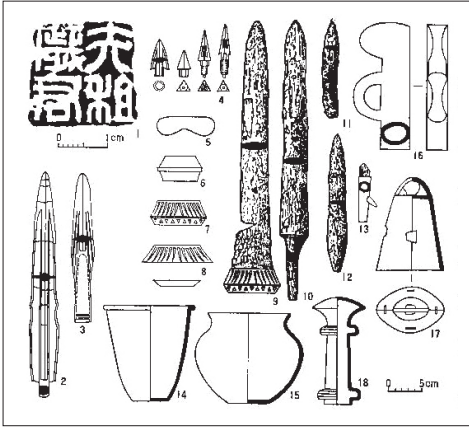
51) 리순진, 1961,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무덤」, 『문화유산』 6.

52) 리영, 2012, 「후산리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2-1, 31~33쪽.

53) 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9,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토광묘 유적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2.

54) 사회과학원, 2001, 앞의 책.

55) 이영훈, 1987, 『낙랑목곽분의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찬, 2006, 『낙랑군연구』, 사계절; 김삼민, 2012, 앞의 책; 高久建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王培新, 2007, 『樂浪文化 - 以墓葬爲中心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그림 14〉 평양 정백동 1호묘 철기



〈그림 15〉 대동 상리 철기

V. 철기문화의 단계별 변천과 그 역사적 배경

1_ 제1기(기원전 3세기 전반)

이 시기에 속한다고 단정할 만한 철기의 사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철기가 보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제1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대에 연의 문화가 요동에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遼南 서부의 旅順 牧羊城 지점과 尹家村 12호에서 발견되는 燕의 陶器 高杯가 바로 그것이다.⁵⁶⁾ 이를 신뢰한다면 北京 燕下都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는 戰國 中期의

56) 이후석, 2012, 「遼東반도 細形銅劍문화의 양상과 변천-윤가촌유형을 중심으로」, 『송실사학회』 28, 5~51쪽.

철기가 요동지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燕 계통의 鑄造鐵斧 혹은 鐵鑿이 일본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기원전 4세기 혹은 기원전 3세기 이전임을 인정한다면, 그 최초 생산지와 최종 소비지 중간에 위치한 유통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 지역에 기원전 3세기 전반 이전에는 동 기종의 철기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기록에 燕과 古朝鮮이 상호 경쟁하는 1단계와 燕이 東進하여 고조선 영역을 점유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1단계에 이미 연이 그 영향력을 동쪽으로 요동의 저지대까지 확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고조선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서지역을 지배하였거나 혹은 새로이 진출하였다는 의견도 있다.⁵⁷⁾ 어떤 의견을 따르던 간에 1단계에 일반 생업과 관련된 농공구의 간단한 기종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1기 초반에 소형 농공구가 일부 엘리트층이나 거점지역에 적은 양이나마 전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양 집단 간에 무력적 충돌이 아니고, 상호 경쟁하는 수준이라면 상호 위해를 할 수 있는 전쟁무기는 곤란하겠지만 비전투적인 일상생활 농공구는 일정수준까지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명도전 화폐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한 북부에 대량 확산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그 하한은 다음 2기까지 내려가겠지만 상한은 1기 2단계라고 추정되는 바 그 계기는 문헌기록에 알려진 秦開가 주도하는 연의 동진일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⁵⁸⁾ 명도전 화폐가 고조선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지배력이 미친 것이 분명한 한반도 서북한에서 화폐자료가 다수 출토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한편으로 지배영역의 변화 없이 국가 간의 폐쇄적인 경계를 사이에 유지

57)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期の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東方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67, 1~40쪽;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63~70쪽.

58) 송호정, 2007, 앞의 글, 1~34쪽.

한 채, 그렇게 많은 연나라 화폐가 유통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유통의 담당자로서 연나라 상인과 함께 지역특산물의 생산자로서 고조선계 집단이 있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 화폐의 공간적 범위는 연의 영향력이 미치지라도 고조선 주민 혹은 유이민의 활동이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연의 화폐가 그렇게 많이 유통되었다고 한다면 요동지역과 서북한 북부에서 연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교역의 주요 대상 품목 중에 철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燕山 이남의 燕下都, 興隆 등을 비롯한 여러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중에서도 농기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것은 土着集團이든 연의 세력이든 간에 새로 들어선 거점지에서 농업과 수공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기는 유통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바, 연의 중심지역에서도 철제무기가 일정수준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집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략적인 품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동의 전 지역과 서북한 북부에 걸쳐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이들 농기구가 확산되었을 것인데 이들 유적에서 확인되는 起耕具와 收穫具, 그리고 生産工具의 상당수는 2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식의 기종이 처음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기 후반 2단계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明刀錢 철기분포 구역인 서북한 북부-요동 전 지역에 걸쳐 劃一된 유통 시스템이 작동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시스템이 보다 강도 있게 작동되는 거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북한 북부와 요동 전 지역에 걸쳐 제어할 수 있는 단일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성장한 다수의 지역주체 간에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앞서 열거한 각 거점에 화폐와 철기 등의 재화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량의 中原系 위세품이 부장된 遼北 서부의 遼陽 新城洞, 徐王子 등의 지배층 무덤이 중국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단계의 것이라고 한다면,⁵⁹⁾ 연

59) 木啓文, 2009, 「遼陽新城戰國墓發現與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 115~121쪽.

의 동진 직후인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요동 북부의 저지대에 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거점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사적 정복을 통하여 새로 편입된 영역에 제대로 작동되는 지방행정조직을 조성할 경우 철기의 제작공방이 설치되었겠지만, 요동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시기에 속하는 무덤으로서 철기가 없이 土着系 靑銅器만 출토하는 사례로서 遼北 동부와 遼南지역에서는 細形銅劍을 비롯한 무기와 공구를 부장한 목관묘 혹은 토광묘가 이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遼北 동부지역에서는 本溪 劉家哨, 遼南지역 서부에서는 長海 西家溝, 遼南지역 동부에는 丹東 趙家堡의 사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燕의 철기와 화폐가 종전의 토착 청동기갓춤새를 전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외래계인 연나라 주조 철기를 기본갓춤새로 한 蓮花堡-細竹里 유형이 등장할 때 재지계 청동기를 기본갓춤새로 한 劉家哨-趙家堡 유형의 청동기 부장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 거점에 연의 철기 집단이 등장할 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재지 청동기 집단이 존속하는 것이다.

또한 遼寧式 細形銅劍과 함께 遼西式 銅戈가 공반출토하는 丹東 望家村의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 사례는 다음 기원전 3세기 후반인 2기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지만, 적어도 동 형식의 청동기갓춤새가 출현한 것은 이 단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서북한 남부에서는 이 시기에 속하는 철기는 물론 戰國系 청동기가 부장되는 무덤은 물론이거니와 명도전도 거의 보급되지 않는다. 철기와 화폐가 동반하여 거의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북한 북부와 대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제2기까지도 지속되는데, 서북한 북부의 이북과 이남은 그러한 과정과 배경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遼北 서부에서 서북한 북부에 이르는 지리적 공간에 명도전과 鑄造鐵器를 통하여 작용한 기제가 그 이남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2_ 제2기(기원전 3세기 후반 2세기 초)

이 시기는 기록으로 보아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연이 멸망 직전, 2단계는 秦漢 轉換期로서, 요동과 서북한지역에 연진한의 중원세력과 고조선의 지배방식과 그 경계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는 시기다. 1단계에는 앞선 시기에 구축되기 시작한 재화유통과 교역체계가 일부 변화가 있지만, 그 기본질서는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단계에는 이 지역에서 1단계까지 유지되었던 정치군사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의 유통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1단계부터 철기가 보급되는 공간적 범위가 앞선 시기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북 동부의 撫順 蓮花堡·鐵嶺 邱台, 요남 서부의 大連 高麗 寨, 서북한 북부의 寧邊 細竹里, 위원 용연동 등이 이 단계에 속하는 생활유적 사례로 이해된다. 燕의 瓦當이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本溪·철령 등의 사례를 통해서 지방행정조직은 아니더라도 이 단계에 속하는 燕文化의 거점이 요동 북부의 동쪽 산지에까지 파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요동과 서북한 북부에 보급된 기종은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1기에 보급된 농공구의 기종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급과정도 더욱 유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철기의 기종은 무기로서 矛와 戈가 있다. 矛는 서북한 북부의 용연동 출토사례가 있는데, 矛身의 횡단면이 短劍과 유사한 단면 렌즈형이고, 基部는 수평을 이룬다. 이러한 형식의 鐵矛는 燕下都의 사례가 있다. 鐵戈 또한 寧邊 細竹里에서 확인되는데 등대가 있는 형식이다. 이러한 戈의 속성은 연나라 銅戈에서는 드물고, 요서지역의 현지 집단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遼西式 혹은 遼寧式 銅戈에서 흔하게 보이는 속성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철기와 함께 명도전이 매납되는 유구 자체 대부분 이 시기 1단계 말

60) 이광명의 미발표논문.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납유구에 대해서는 은닉과 보관, 폐기 등의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정황이 불안하고 급박하여 운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위치 복귀를 예상하며 은닉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폐를 통용하였던 연이 진나라에게 기원전 3세기 말 멸망할 즈음에 화폐 보유집단이 危害를 피하여 피난하였다가 복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성된 유구라 할 수 있다.

명도전이 고조선에서 주조하였거나 통용한 화폐라고 한다면 은닉된 상태로 화폐가 남아 있는 것은 고조선의 체제가 붕괴되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현상이다. 고조선 체제의 붕괴에 대해서는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조선의 성립 혹은 기원전 2세기 말 한군현 설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명도전 매납유적의 실 연대를 고려할 때 전자가 더욱 가능성이 있는 바, 그렇다고 한다면 위만조선은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명도전의 통용을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지시킨 형국이 되어 인정하기가 어렵다.

명도전 매납유구가 遼寧省과 內蒙古, 西北韓 전 지역에서 확인되지만, 그 중에 특히 요동과 서북한 북부의 유적 수와 화폐 출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 지역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철기와 함께 화폐가 은닉된 사례는 용연동 유적이 대표적으로, 그 상한은 1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중심과 하한연대는 2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이 시기에 요동지역에 발견된 무덤으로서 첫 번째 外來系 유물만 부장된 무덤과 두 번째 外來系와 土着系 유물이 부장된 무덤이 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遼北 동부에 위치한 遼陽 新城洞 목곽묘가 있다. 부장유물은 순수하게 燕의 靑銅器와 陶器, 木器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청동기와 도기는 연의 계통으로서 戰國時代 中期에 해당되고, 목기는 초나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 보고자에 따르면 이 무덤은 앞선 1기에 속하나, 2기에 속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원전 3세기 후반 혼란기에 이주해 온 연·제·조의 유이민 엘리트 무덤일 수도 있는 것이다.⁶¹⁾

두 번째의 사례로 요북 동부지역에서 토착청동기와 함께 철기와 명도전 등 外來系 유물이 부장된 本溪 火車站, 桓仁 大甸子 유적이 있다. 鐵製工具 1~2 점과 토착청동기인 細形銅劍이 공반출토되는 本溪 上堡村도 그 연대의 상한으로 보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북한 남부에서는 이 시기에 속하는 철기출토 생활·매납유적은 물론 무덤유적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농공구조차도 전혀 유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유입되었지만 전하지 않거나, 무덤에 부장되는 의례가 다만 이 지역에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위원 용연동을 포함하여 서북한 북부에 이 단계에 보급된 철낫이 다음 단계이지만 완주 갈동 등지의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무덤에 출토되는 사례를 보아 더욱 그러하다. 무덤에 부장될 정도면 그 이전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서북한 남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다음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된 봉산 송산리 무덤에서 세문경과 공반된 주조철기의 실제 사용연대는 이 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인접한 함흥·이화동 무덤에서 細文鏡·細形銅劍·細形銅戈와 함께 鑄造鐵斧가 공반출토하는 사례로 보아,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철기를 공반하면서 청동기가 더욱 형식을 발전시켜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韓國式 細形銅戈의 제작 보급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細形銅戈가 기원전 3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많은 燕下都 辛庄頭 30호묘에서 출토되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_ 제3기(기원전 2세기 전반)

이 단계에 요동-서북한지역에 걸쳐 주목되는 사실은 그동안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서북한 남부를 포함하여 전 지역에 농기구와 공구의 보급이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요동 전 지역에서는 鐮·凹口鍬·六角形鋤 등을 포함해서 농공

61) 이종수, 2013, 앞의 글.

구의 전 기종이 보급된다. 요남 서부의 大連 牧羊城, 錦州 大鈴村을 비롯하여 요남 동부의 鳳城 柳家堡子, 岫岩 城南 유적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북한 남부의 경우는 斧·鑿·鉋 등 공구의 일부 기종만 제한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 鑄造鐵器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지만,⁶²⁾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기종은 앞서 본 것처럼 극히 한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鍛造 鐵製武器의 경우 이미 2기에 보급되기 시작한 矛·劍·戈가 이 단계에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遼北 서부의 台安 白城子와 遼北 동부의 本溪 怪石洞 등과 서북한 북부의 위원 용연동이 그 연대의 하한이 이 단계까지 내려온다면 이에 해당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북한 남부에 철 제무기가 전혀 보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북한 북부와 요동지역에 중원계 철제무기가 보급되는 상황과 달리, 遼北과 遼南의 동부, 그리고 서북한 남부에서 토착계 청동무기가 지속적으로 변형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북 동부지역의 경우 이른바 雙鳥形劍把頭飾 銅柄銅劍이 부장된 本溪 朴堡·通化 金廠鎮이 이에 속한다. 유사한 雙鳥形劍把頭飾의 合鑄式 銅柄銅劍은 集安 五道嶺溝門·樺甸 西荒山屯의 사례에서 보듯이 遼南 동부와 근접한 길림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앞선 2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한 남부의 경우 봉산 송산리, 배천 석산리 등지에서 鐵斧와 함께 공반되는 銅劍·銅戈도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만조선의 철기갓춤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당연한 전제는 그 지리적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이다. 기원전 195년에 衛滿이 이끄는 집단이 遼東外遼에서 빠져나와 溟水를 건너 이동하고, 古朝鮮 準王이 지키게 한 秦故空地 上下障, 그리고 기원전

62)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 鐵器の起源」, 『東アジア鐵器の系譜』, 雄山閣, 148~154쪽.

194년 衛滿이 정권을 장악한 고조선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의 문제다. 溟水의 위치에 대해서 淸川江·鴨綠江·渾河, 나아가 大凌河 說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위만조선의 영역은 각각 달라진다.⁶³⁾

淸川江說을 취한 경우 위만조선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로 서북한 남부의 무덤유적에서 細形銅劍·銅戈·銅鏡과 공반하는 철제농공구가 있을 뿐이다. 위만조선이 한에서 兵威財物을 전수받았다는 기록이 전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철제무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은 溟水 淸川江說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⁶⁴⁾

그렇다고 하여 실제 사용되는 철기가 이들 기종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장송의례상 선택된 기종으로 실제로 더 다양한 기종이 보급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앞서 연나라계 遼陽 新城洞 무덤이나 다음 단계의 한나라계 普蘭店 姜屯墓의 예처럼 무덤에 철기가 발견되지 않는 요북 서부지역에서 생활유적에 다량의 철기가 확인되는 사실이 참고가 된다. 따라서 서북한 남부에서 실생활 유적 사례가 조사될 경우 이 단계의 다종다양한 철기가 확인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한다.

鴨綠江說을 취한 경우 서북한 북부가 秦故空地 上下障에 대응되는 셈인데, 이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2기로 추정되는 용연동과 단산리·細竹里의 철기갖춤새가 이 단계까지 지속된다면 사정은 다르다.

渾河說을 취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거의 요동 전 지역의 고고학적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戰國 燕과 秦漢계통의 철제 농공구와 무

63) 리지린, 1962, 「고조선연구」,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이종욱, 1993, 『고조선사연구』, 일조각;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93~118쪽; 송호정, 1999,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 이남규, 2006, 「낙랑지역 한대 철제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0, 193~238쪽.

기를 내는 유적뿐만 아니라, 재지전통의 청동무기를 내는 유적 또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만조선은 각기 다른 물질기반을 갖는 정치체를 연맹하거나 통합하는 광역적이고 복잡한 수준의 국가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大凌河說에 따르면 渾河說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에 더해 요서지역의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만조선은 더욱 복잡하고도 매우 이질적인 물질문화 집단 다수를 포괄한 광역적 국가가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착청동기와 燕의 철기가 공반되는 本溪 上堡 무덤을 표지로 한 上堡類型의 갓춤새만을 기원전 2세기대 3기로 판단하고 이를 위만조선에 대응시킨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⁶⁵⁾ 그것은 흔히 이남 중에서도 공간적으로 보면 遼北 동부와 遼南, 그리고 서북한을 아우르는 지역에 대응되고 설명한다. 이 의견을 택할 경우 혼하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요북 서부지역이 제외되므로 그보다는 위만조선은 축소되고 단순화된 수준의 국가가 된다.

이처럼 북쪽 경계에 대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따라 위만조선을 요남지역과 서북한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물질기반에 토대로 한 복잡한 수준의 국가인지 서북한 남부에 한정된 보다 단순한 수준의 국가인지 달라진다.

위만조선은 국가 단계에 이르렀으나, 4~5세기 삼국시대 수준의 광대한 영역국가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역사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요동과 서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지리적 공간을 그 영역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準王의 고조선 변방에 있다가 그 중심을 점유하였다고 기록에 전하므로 그 중심 거점 또한 준왕의 조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원전 3세기대에 청천강을 경계로 명도전 등의 연나라 화폐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서북한 북부와 남부를 똑같이 동일한 성격의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대 고조선의 중심을 청천강 이남이라고 한다면 위만조선 또한 그 북쪽 영역은 요남 동서부 지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요남지역과 서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고고학적 문화 중에

65) 조진선, 2013, 앞의 글.

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를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조선 토착의 청동기를 토대로, 연 지배하에서 습득한 주조철기와 漢에서 받은 兵威財物로서의 단조 철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그 정확한 중심과 경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4_ 제4기(기원전 2세기 후반)

이 시기에 遼北 동서부, 遼南 동서부의 일정 거점에 대규모의 생활 혹은 성곽이 조성되어 농공구와 무기를 망라한 중원계 철기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적은 遼北과 遼南 전 지역에 걸쳐 이미 3기에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철기갖춤새의 종류와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이 단계일 것으로 판단된다.

요북의 대표적인 예가 다량의 농공구와 함께 소량의 무기가 확인된 遼陽三道濠, 鞍山 유적이다. 그중에 遼北 서부와 같이 이미 앞선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중원계 철기가 유입된 지역의 경우 농공구 일부를 비롯한 여러 기종은 직접 생산한 鐵素材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반된 유물이 확실하지 않아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遼陽의 太平溝와 牌路村의 철광유적 등이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요남의 경우 대련 목양성·금주 대령촌 등의 생활유적을 비롯하여 봉성 유가보자·岫岩 城南 유적이 이를 대표한다. 무덤유적으로 遼南 서부의 普蘭店 姜屯의 사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철기가 실생활에 널리 보급되었어도 무덤에 부장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만조선 초에 漢과의 경계인 溟水에 대해서 遼北 서부의 渾河로 추정하고 그것이 후반에 들어서서도 변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普蘭店 姜屯에서 확인되는 漢나라 계통의 묘지군 유적을 비롯하여 岫岩 城南 등의 중원계 철기를 내는 유적이 위만조선에 편입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위만조선이 중원계 물질문화와 인구집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동의하기에는 무덤의 양식은 물론 유물갖춤새가 지나치게 중원에 가깝다.

오히려 그러한 고고학적 문화의 존재 때문에 동 지역이 위만조선이 아닌 漢의 지배영역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무덤에 대해서 보고자는 漢武帝가 요동에 대규모로 이주시킨 주민집단의 무덤으로 중하위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만조선과 漢의 경계가 압록강 혹은 그 이남으로 내려보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遼北 동부와 서북한 서부를 중심으로 中原系의 鐵器 鍛造技術을 받아들이면서 지역 전통의 청동기 속성을 수용하는 철기의 사례가 확인된다. 나름대로 변형된 형식으로 제작된 철기 사례도 있는데, 그러한 철기가 확인되는 유적은 대부분 무덤으로 다음 5기에 그 사례가 더욱 늘어난다.

우선 遼北 동부지역에서는 西豊 西岔溝의 사례에서 보듯이 銅柄鐵劍이 널리 제작 보급되는 것은 다음 5기지만, 그 보급의 상한은 이 단계 4기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西岔溝의 雙鳥形 劍把頭飾 銅柄은 이미 요동 인근의 吉林 西荒山屯 무덤에 3기 이전에 등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단계에 유사한 雙鳥形 劍把頭飾 銅柄銅劍은 吉林의 永吉 烏拉街汪屯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西豊 西岔溝의 銅柄鐵劍에서 보이는 圓柱形 劍把頭飾의 銅柄銅劍 또한 吉林 舒蘭에서 출토한 바 있는데, 이 또한 4기 이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遼北의 동부에 재지적 전통이 강한 銅劍의 銅柄型式을 그 대로 수용한 西豊 西岔溝를 비롯하여 新賓 龍頭山, 撫順 등의 銅柄鐵劍의 상한은 적어도 제4기 말인 기원전 2세기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漢나라의 鍛造技法의 신기술을 받아들이지만 전통의 재질과 디자인 속성을 채택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漢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지역집단의 존재가 한에 복속되기 이전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遼北 동부는 烏桓·鮮卑 혹은 夫余 등 재지세력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⁶⁶⁾

서북한 북부와 남부에서는 이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토성과 생활유적이 있지만, 철기출토 사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들은 다량의 철기를 내는 서북한 남부의 평양 정백동·강서 태성리 등의 목곽묘를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중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바, 이에 따르면 이 단계에 속하는 무덤유적의 사례는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철제무기와 함께 雙鳥形 劍把頭飾의 銅柄銅劍과 細形銅戈가 출토하고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서북한 남부의 평양 토성동 486호 무덤의 사례가 주목된다.⁶⁷⁾ 이를 인정한다면, 한 균현 설치 이전에 다량의 철제무기가 서북한 남부에 보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설혹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다음 5기의 기원전 1세기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장된 銅柄銅劍과 細形銅戈는 그 이전 전통을 따른 재지형식이다.

서북한 남부에서 遼北 동부의 鐵製長劍과 다른 短劍이지만, 鐵造方式의 鐵劍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이 4기 말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판단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鐵製短劍이 부장되는 대구 월성동·팔달동 등의 무덤 유적에서 공반하는 삼각형단면점토대토기와 청동무기의 사례로 보아 기원전 2세기 말,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초로 추정되기 때문이다.⁶⁸⁾

東南韓지역의 鐵製短劍은 조합되는 劍柄 형식 등으로 보아 서북한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 말에 위만조선의 歷谿卿 南走 관계기사 혹은 위만조선 멸망 직후의 流移民 관계기사와 맞물리는바,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겠다.

66) 林雲, 2000, 「西岔溝型銅柄鐵劍と老河深, 彩麓墓地の族屬」, 『東夷世界の考古學』, 靑木書店; 이종수, 2007, 「西岔溝 古墳群의 性格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67) 정인성, 2013, 「위만조선의 철기문화」, 『백산학보』 96, 39~78쪽; 宮本一夫, 2002, 「東北アジアにおける觸角式銅劍的變遷」, 『清溪史學』 16·17合輯.

68) 임영희, 2011, 「영남지역 원삼국기 철검 환두도의 지역별 전개과정」, 『영남고고학』 59, 영남고고학회, 39~74쪽; 이동관, 2012, 「한반도남부 철기문화의 파동-초기 철기 원삼국기 철기의 계보와 확기」,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남부의 교류』, 영남고고학회 22회 학술발표회 요지, 77~98쪽;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_ 제5기(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전반)

정식으로 발굴되어 철기갖춤새가 제대로 밝혀진 사례는 드물지만, 요동과 서북한 전 지역에 이 단계에 해당하는 생활과 성곽 그리고 무덤 유적의 숫자가 급증한다.

생활유적으로 이미 전 단계부터 조성된 요북 서부의 요양 삼도호, 요북 동부의 철령 구태, 요남 서부의 금주 대령촌, 요남 동부의 鳳城 劉家堡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동 유적에서는 각종 농기구는 물론 무기가 다량 확인되고 있다. 봉성 유가보자의 경우 한대 遼東郡 武次縣의 所在地로 추정되고 있듯이 중국 연구자들이 한대의 현성으로 보고하고 있는 성곽유적 그 대부분이 이 단계에 속한다.

단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선 단계에 조성된 것이 틀림이 없는 서북한 남부의 낙랑과 어을동 토성 등에는 이 단계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가 크게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인접한 서남한 북부지역의 인천 운서동·가평 대성리를 비롯한 여러 생활유적에서 이 단계의 철기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무덤유적으로 특히 遼南 서부에서 大連과 普蘭店 일대에서 이 시기 漢代 무덤이 발굴조사되고 보고된 바 있다. 대련 마산, 이가구, 대반가촌과 普蘭店 姜屯이 그에 해당되는데, 철기의 부장사례는 드문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普蘭店 姜屯의 수십 기 무덤이 이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이 단계에 실생활 농공구는 물론 무기 등의 다종 다양한 철기가 보급되었음은 성곽과 생활유적의 정황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철기는 장송 의례에 따라 부장되지 않았을 뿐으로 같은 단계의 요북 동부와 서북한 남부의 사례와 대조가 된다.

遼北 동부에서는 西豊 西岔溝 등에서 철기가 다량 부장된 무덤군이 이 시기가 중심연대인 것은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철기가 부장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전 단계에는 많지 않았던 서북한 남부에서도 오

히려 철기를 부장하는 무덤의 사례가 급증하였다. 평양 정백동과 석암리, 강서 태성리, 그리고 황해 운성리, 갈현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두 지역의 무덤의 사례에서 공통되는 것은 우선 劍·刀·戈·戟 등의 漢式的 鍛造 鐵製武器와 각종 차마구가 전 단계부터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량 부장되는 것이다. 다만 遼北 동부에서는 전 단계 銅劍과 같은 형식의 銅柄을 연접한 銅柄鐵劍이 보급되는데 그치는 반면, 서북한 서부에서는 劍·矛·戈 등 전 단계부터 현지에서 제작된 청동기 기종이 지속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철기갓춤새의 대규모 보급은 한의 영향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계기를 거쳐 조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요동과 서북한 전 지역이 요동군과 낙랑군을 비롯한 한의 군현 영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지적한 철기의 대규모 보급은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두 군의 위치를 한반도 이외의 요동 또는 요서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철기의 漢化現象은 한군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요동지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漢계통의 다종 다양한 문물과 군현 관련 명문자료가 서북한 남부에 유입된 현상을 별도의 과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요북 동부와 서북한 서부에서 전 단계 銅劍의 劍柄과 부속금구가 그대로 전용된 鐵劍이 제작되는데, 전자에서는 長劍에 合鑄方式으로 조립되지만, 후자에서는 長劍이 아니라 短劍에 別鑄方式으로 조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체의 전통과 정체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재지 청동무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양 지역에 鐵劍 副葬墓가 대량 조성된 사실을 통하여 당연히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가 들어섰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병철검 등에서 확인되는 재지적 전통의 요소를 통해 전 단계에 이미 나름대로 발전한 정치체가 존속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나 요북 동부는 烏桓·鮮卑 혹은 夫余 등 재지세력이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서북한 남부는 전 단계의 위만조선 체제가 붕괴되고 조성

된 漢 郡縣 체제로 변경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⁶⁹⁾ 한 군현에 복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북한 지역에 전통적인 물질문화의 요소가 이어지고 있음을 철기의 형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기원전 2세기대 위만조선을 설명하는 고고학적 문화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철기갖춤새다. 이와 관련한 요동과 서북한의 기원전 3~1세기의 초기철기문화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5단계, 공간적으로 6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기인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요동에서 서북한 북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농기구와 공구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북한 남부에 철기가 보급되었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철기의 분포상황은 명도전 등의 燕나라 화폐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자료만을 보면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과 이북에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철기와 명도전의 요동과 서북한의 분포가 기원전 3세기 전반 燕나라 장수 秦蓋의 東進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동 유물갖춤새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때 燕과 고조선의 경계 滿番汗을 청천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滿番汗에 대하여 적어도 요남지역 이북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따른다면 철기와 명도전은 燕과 고조선 영역에 걸쳐 두루 분포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만한 경계는 물자의 유통을 가로막는 기능을 못하는 셈이다. 철기와 명도전의 분포구역을 고조선에 편입시켰을 경우 무엇보다도

69) 林雲, 2000, 앞의 글; 이종수, 2007, 앞의 글.

명도전이 고조선에서 제작되거나 통용되었다고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남북한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2기인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일부 거점지역에 농공구의 기종이 다량 보급되면서 아울러 劍·矛·戈 등의 무기가 명도전과 함께 보급된 사례가 확인된다. 서북한 남부에도 무기를 제외하고 농기구 혹은 공구가 보급되지만, 그 기종은 소수에 국한된다. 여전히 청천강을 경계로 한 철기와 명도전 분포의 차이가 확연한 셈이다. 그러한 명도전과 철기의 보급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대체로 燕의 멸망기일 가능성이 높다. 명도전이 연나라의 화폐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한 바, 압록강과 청천강 일대에 隱匿된 명도전 매납유적이 이 즈음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3기인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요동의 전 지역에 농공구는 물론 각종 무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서북한 남부에도 농기구와 공구의 일부 기종이 보급되는 사실이 무덤의 부장유물을 통해서 확인된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劍·矛 등의 무기도 소량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만조선의 영역에 적어도 요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경우 요동의 다량의 철기 출토유적이 이에 포함된다. 철기로 볼 때 요동이 그 중심, 서북한 남부가 주변인 셈이 된다.

한편으로 요남 동부와 서북한 남부의 경우 이 지역의 독특한 동검을 비롯하여 동과·동모 등의 청동기가 제작 보급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재지세력 등 다양한 물질문화가 동일한 정치체 내에 분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위만조선은 복잡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들 재지 청동기의 제작 집단만을 위만조선과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위만조선은 보다 단순한 국가체제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기인 기원전 2세기 후반에는 요동 서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순수 漢系의 물질문화와 철기유물이 보급되어 있다. 아울러 농공구를 비롯하여 劍·矛·戈 등의 철제무기가 요동은 물론 서북한에도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기에는 각각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鍛造方式으로 제작된 鐵劍의 경우 長劍은 요동, 短劍이 서북한에서 기원전 2세기 말에 제작에 착수되어 다음 단계에 널리 유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서북한 남부의 경우

중전의 청동무기가 그대로 제작 보급된다. 고대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재지전통의 청동기가 보급되는 요북 동부는 夫餘 혹은 烏桓, 그리고 서북한 남부는 위만조선 등 한나라와 구분되는 정치체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요동 남부를 중심으로 한 순수 漢系의 철기갖춤새의 분포지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다. 이 또한 위만조선의 영역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한의 군현에 편입되었다고 볼 것인가 검토되어야 한다.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를 요북지역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그 서쪽의 요서지역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지역의 순수 한나라계의 鍛造 철기와 함께 재지적인 청동기를 공유한 금속유물 갖춤새가 모두 위만조선에 속하는 셈이 된다.

제5기인 기원전 1세기 전반에 요동과 서북한 전 지역에 漢式 단조철기의 전 기종이 골고루 분포한다. 그러나 요북 동부와 서북한 남부는 각각의 청동기 전통의 제작기술과 융합된 철기가 보급된다. 이를테면 요북 동부에서는 雙鳥形 劍把頭飾의 銅柄 철제장검, 서북한 남부에서는 別鑄式의 銅柄銅劍이 제작 보급되는 지역성을 보여준다. 이제 단순히 농부뿐만 아니라 무기도 鍛造技法의 철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적어도 청동 劍柄을 장착한 요북 동부의 장검과 서북한 남부의 단검이 그러하다.

이러한 철기갖춤새의 대규모 보급은 漢의 영향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계기를 거쳐 조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요동과 서북한 전 지역이 遼東郡과 樂浪郡을 비롯한 한의 郡縣 영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지적한 철기의 대규모 보급은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또한 東南韓에 西北韓 남부형식의 철기가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 漢郡縣으로 대체된 위만조선에서 이주한 流移民과 관련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두 군의 위치를 한반도 이외의 요동 또는 요서라고 주장한다면 서북한 혹은 요동에 보급된 철기의 漢化現象은 한군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요동지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漢 계통의 다종 다양한 문물과 군현 관련 銘文 자료가 서북한 남부에 유입된 현상을 별도의 과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중철기자료집(III) - 한반도 북부지역의 초기철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韓中鐵器資料集(I) - 중국동북지역출토 철기』.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새날출판사.
- 송호정, 1999,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오영찬, 2006, 『낙랑군연구』, 세계절.
- 이광명, 2010, 『요동 - 서북한 초기철기시대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훈, 1987, 『낙랑목곽분의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중욱, 1993, 『고조선사연구』, 일조각.
-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 박경철, 2013, 「고조선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 박대재, 2013, 「고조선의 대중관계와 遼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송호정, 2007, 「세죽리 - 연화보유형 문화와 위만조선의 성장」, 『호서사학』 48.
-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요령지역 연나라 유물공반유적의 제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 李南珪, 1999,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 철제무기의 유입과 보급 - 중국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한국고대사연구』 16.
- 이남규, 2006, 「낙랑지역 한 대 철제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연구총서 20.
- 이남규, 2011, 「요동지역 초기철기의 성격과 한반도 유입 및 전개: 전국말 - 한초의 양상을 중심으로」.

- 이동관, 2012, 「한반도남부 철기문화의 파동-초기철기 원삼국기 철기의 계보와 확
기」,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남부의 교류』, 영남고고학회 22회 학술발표회 요지.
- 이중수, 2007, 「西岔溝 古墳群의 성격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 이후석, 2012, 「遼東반도 細形銅劍문화의 양상과 변천-윤기촌 유형을 중심으로」, 『승
실사학회』 28.
- 이후석, 2013, 「遼東-西北韓지역의 細形銅劍문화와 위만조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
구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
요지.
- 임영희, 2011, 「영남지역 원삼국기 철검 환두도의 지역별 전개과정」, 『영남고고학』 59,
영남고고학회.
- 정인성, 2013, 「위만조선의 철기문화」, 『백산학보』 96.
- 조법중, 2013, 「고조선의 중심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 조진선, 2013,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 〈북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회과학원,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중심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8, 『고고학자료집』 5.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 부여 진국편』, 동광
출판사.
- 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9,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동 토광묘 유적조
사보고」.
- 리순진, 1961,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무덤」, 『문화유산』 6.
- 리영, 2012, 「후산리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2-1.
- 리지린, 1962, 『고조선연구』.
- 백련행, 1965,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고고민속』 4.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58,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5.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2, 「녕변 세죽리유적 발굴」, 『문화유산』 6.
-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 윤광수, 1994, 「토성동 486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4.

- 황기덕, 1962,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미골 돌돌림무덤」, 『고고학자료집』 3.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노탕검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중국〉

- 万欣, 2009, 「東北亞地區的戰國兩漢鐵工－以遼寧地區爲中心」, 『遼寧省博物館館刊』 4輯, 遼海出版社.
- 木啓文, 2009, 「遼陽新城戰國墓發現與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 4輯, 遼海出版社.
- 苗麗英, 1997, 「本溪怪石洞發現青銅時代及漢代遺物」, 『遼海文物學刊』 1997-1期.
- 白雲翔, 2005,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 王培新, 2007, 『樂浪文化－以墓葬爲中心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姜屯漢墓』(上)(下).
-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
- 東北博物館, 1957, 「遼陽三道壕西漢村落遺址」, 『考古學報』 57-1期.
- 白雲翔, 2013, 「燕地鐵器文化的起源與發展及其東漸」,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富品寶·路世輝, 2010, 「鞍山地區出土戰國鐵器的初步探論」, 『遼寧考古文集』 2期.
-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9.
- 鞍山市岫岩滿族博物館, 2009, 「遼寧岫岩城南遺址」, 『北方文物』 2009-2.
- 梁志龍, 2003, 「遼寧本溪多年發現的石棺墓及基遺物」, 『北方文物』 2003-1.
- 魏海波·梁志龍, 1998, 「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 『文物』 6.
- 李予利, 1993, 「昌圖發現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 1993-1.
- 林雲, 2000, 「西岔溝型銅柄鐵劍と老河深, 彩麓基地の族屬」,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 張喜榮, 1997, 「台安白城子戰國遺址出土器物簡介」, 『遼海文物學刊』 1期.
-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丘家台遺址試掘簡報」, 『考古』 1996-2.
- 鐵嶺市博物館, 1992, 「遼寧鐵嶺丘家台發現窖藏錢幣」, 『考古』 1992-4.
- 肖景全, 2010, 「新賓旺清門鎮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期.
- 馮永謙·崔玉寬, 2010, 「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2), 遼寧省文物研究所.

- 許明綱, 1960, 「旅順口區后牧城驛戰國墓清里」, 『考古』1960-8期,
 許玉林, 1980, 「遼寧寬甸發現戰國時期燕國的明刀錢和鐵農具」, 『文物資料叢刊』3期,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84-9.
 黃展岳, 1957, 「近年出土戰國兩漢鐵器」, 『考古學報』3期.

〈일본〉

- 高久建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金想民,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初期鐵器文化の成立と展開』, 九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東亞考古學會, 1929, 『瓮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 東方考古學總刊甲種 第1冊.
 東亞考古學會, 1931, 『南山裡-南滿洲老鐵山麓の漢代墓』, 東方考古學總刊甲種 第3冊.
 藤田亮策·梅原未治, 1947, 『朝鮮古文化綜鑑』1.
 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64, 九州古文化研究會.
 宮本一夫, 2002, 「東北アジアにおける觸角式銅劍の變遷」, 『清溪史學』16·17合輯.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三宅俊成, 1933, 『大嶺屯城址: 漢及漢以前之遺蹟』.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期の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東方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67.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 鐵器の起源」, 『東アジア鐵器の系譜』, 雄山閣.

[ABSTRACT]

The Early Iron Cultures of Eastern Liaoning and
Northwestern Kore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Wiman Joseon State

Lee Chungkyu

The author presents and explains the iron tools which were related with Wiman Joseon in the second century BCE. The iron tools in eastern Liaoning and northwester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third century BCE to the first century BCE are classified and explained. These can be classified into five phases in temporal terms and six subareas in spatial terms.

The cast-iron farming and woodcutting tools were distributed from before the early third century BCE with Mingdu currencies in eastern Liaoning and in the northern part of northwestern Korea. In the southern part of northwestern Korea, those tools are supposed to have been distributed from the late third century BCE.

The forged iron tools, including daggers and spears, were distributed from the late third century BCE in eastern Liaoning and the northern part of northwestern Korea, but in the southern part of northwestern Korea from the early second century BCE. From the early first century BCE almost all iron tools were made and used in all regions. But in the southern part of northwestern Korea, traditional bronze tools were made and supplied together with iron tool assemblages until the early first century BCE.

Therefore, Wiman Joseon, which was located in eastern Liaoning or in northwestern Korea, is supposed to have used and made all types of iron tools, including weapons in different patterns.

There are many opinions regarding where Wiman Joseon was located, from the Liaoning region to present-day North Korea. Some insist that Wiman Joseon was located in northwestern Korea, but others insist that eastern Liaoning was the center of that area.

According to the former opinion, Wiman Joseon had simple patterns of iron tools assemblages. But according to the latter opinion, Wiman Joseon had several patterns of iron tool assemblages, which means a complex state society.



Keywords

Early Iron Culture, Wiman Joseon, iron tools, cast made iron tools, forged iron tools, Yan, Han, eastern Liaoning region, northwestern Kor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遼東~西北韓地域の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

-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

이후석 | 송실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戰國時代~前漢時期, 특히 기원전 4~2세기대 中國 東北地域에서 韓半島를 거쳐 일본 九州지역까지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청동기문화는 적석목관 묘를 포함하는 토광묘계 묘제, 세형동검을 비롯한 신종 청동무기, 점토대구연 토기 등의 유구·유물복합체를 공통으로 하는 문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 동북아시아의 물질문화는 '細形銅劍文化'라는 하나의 거시적인 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문화 변동 역시 주민집단 간의 교류 혹은 상호작용(interaction)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¹⁾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령지역과 한반도의 서부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성립하는 기원전 4세기경은 고조선이 연나라와 경쟁하며 각축을 벌이다가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李盛周, 2007,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계와 한반도의 문화변동」,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학연문화사.

중심지가 이동²⁾하는 때와 맞물린다. 또한 전국연계 철기문화가 파급되고 세형동검문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하는 기원전 3~2세기경은 위만 집단이 준왕 세력을 축출하고 전국계 유이민과 토착민을 아울러서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요령~북한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고조선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 무엇보다 기원전 3~2세기대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위만조선의 기층문화 혹은 위만조선 지배층의 물질문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⁴⁾ 다만 북한에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많은 유적 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세형동검문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하기 힘든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중국 측의 유적 조사 성과와 청동무기류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근 문화 개념과 내용들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⁵⁾ 특히 요동지역에 분포하는 세형동검문화 단계 고고 자료들에 대해서는 고조선과 관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서북한지역의 자료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시공간적 전개과정에서 여러 지역 유형으로 설정되듯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는 달리 일률적인 체계로서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는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韓國式 細形銅劍으로 대표

2)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3) 송호정,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40; 이청규,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4) 趙鎮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5) 이청규, 2004, 「철기시대 전기의 중국 동북과 한반도의 금속기문화-세형동검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동향』, 학연문화사;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遼寧式細形銅劍을 中心으로」, 『崇實史學』 21; 李厚錫, 2013, 「세형동검 단계 중국 동북지역의 동과와 동모-요령식 동과와 유엽형동모·세신형동모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87.

되는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는 달리 넓은 지역만큼이나 遼寧式 細形銅劍의 형식학적 특징을 비롯한 동반 유물군의 조합관계 역시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⁶⁾ 또한 그와 같은 배경에는 주민집단의 역사적 또는 문화적 성격 차이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관련성이 높은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 주목하려 한다. 특히 기원전 3세기대 전후의 요동반도와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 주목하여 유형·계통·편년 관계 등을 정리하고 서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와의 교류 또는 상호 관계를 추론하여 고조선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려 한다.

사실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는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요소와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 두 계통의 문화요소를 구별하고, 그것들이 전이·변형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고조선의 물질문화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에는 토착 세형동검문화 외에 燕秦漢 등의 중원계 물질문화와 匈奴로 대표되는 북방계 물질문화가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형동검문화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래계 물질자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양상을 일부나마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 요령지역의 세형동검과 그 문화를 한반도의 세형동검 및 세형동검문화와 구별하기 위해 마디와 어입이 있는 한반도의 세형동검들을 '韓國式 細形銅劍'이라 지칭하며, 이에 대비되는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들은 '遼寧式 細形銅劍'으로 명명한다(李厚錫, 2008). 요령식 세형동검은 최근에는 '중간형동검'(李清圭, 1993), '중세형동검'(吳江原, 2002), '초기세형동검'(朴淳發, 1993; 李清圭, 2000) 등으로도 불렸으나 최근에는 한국식 세형동검과 형식학적으로 구별되는 동시기의 지역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II. 자료의 분포와 시공간적 단위의 설정

1. 분포와 지역 구분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를 검토하기 전에 요령식 청동무기의 분포 양상과 관련하여 중국 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지역권을 설정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요령식 세형동검, 요령식 동과, 세형동모류(유엽형 동모, 세신형동모) 등의 요령식 청동무기에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며, 유적 분포 밀도와 유물 조합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요령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수계와 지형을 고려하여 세형동검문화 단계 유적들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려 한다.

I 지역(요서지역)은 노로아호산과 의무려산 사이의 대릉하와 소릉하의 주변을 포괄한다. 대릉하 중상류에 유적들이 밀집 분포하며, 토광묘가 주류이나 적석부가 마련된 것도 확인되고 있다. 세형동검과 요령식 동과가 출현하여 중원계(燕式) 청동무기·토기 등과 공반되는 예가 많다.

II 지역(요동 남단지역)은 요동반도 남부지역으로 해안 도서지역을 포괄한다. 천산산맥 남서쪽의 牧羊城 주변에서 유적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직인형의 세형동검과 외반구연 무문토기, 두형토기 등을 반출하는 積石木棺 墓形 분묘가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중원계 청동무기의 출토 빈도가 높고, 서북한지역의 명사리식토기나 화분형토기의 조형으로 추정되는 토기류도 확인된다.

III 지역(요동 서부지역)은 하요하의 양안 일대와 혼하-태자하 중하류의 천산산맥 이서지역 저지대를 포괄한다. 토착 분묘 유적의 분포 밀도가 낮은 대신 撫順 蓮花步나 鐵嶺 新臺子 邱邵 등의 생활유적이 확인되며, 遼陽 新城墓나 瀋陽 熱鬧路墓와 같은 전국연계 유물만이 반출되는 목곽묘도 확인된다. 세형동검은 요서지역의 것과 같이 검신 하부가 불룩한 형태이며,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부장되는 점이 특징이다. 漢代 遼東郡의 중심지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다.⁷⁾

Ⅳ지역(요동 동부지역)은 천산산맥 이동지역으로 혼강-압록강유역의 길림 남단지역과 서북한 북단지역이 일부 포함된다. 유적의 분포 밀도가 매우 높다. 적석식의 석관묘나 대석개묘에서 검신 하부가 단이 지며 등대 마디가 있는 세형동검이 반출되는 예가 많다. 요령식 동과와 세형동모류가 공반되며, 엽맥 문경·성광문경 등의 다뉴조세문경도 적지 않게 출토된다. 중원계 금속유물이나 토기 출토 예가 많고, 명도전 부장묘도 확인된다. 최근 雙鳥形劍柄의 동병철검과 철과 등이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

Ⅴ지역(길림 중서부지역)은 동요하와 휘발하, 그리고 송화강 중류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요동 북단지역이 일부 포함된다. 토광묘나 대석개묘에서 T字形劍柄과 조립되는 단이 진 세형동검 외에 雙鳥形劍柄과 연결되는 세형동검이나 동병철검이 출토된다. 세형동모류와 성광문경 같은 토착계 유물뿐만 아니라 중원식동검·주조철기 등의 중원계 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Ⅵ지역(서북한지역)은 청천강 중하류에서 한강 중하류에 걸친 서부지역으로 요령식 세형동검은 검신 하부가 단이 진 것(상보촌류)과 함께 직인형(윤가촌류)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요령식 세형동검과 한국식 세형동검이 공반된다든지 요령식 세형동검과 중원식동검이 함께 출토되는 예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남한지역의 전주 원장동 1호묘에서도 요령식 세형동검과 한국식 세형동검이 공반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요령식 청동무기와 관련 유적·유물의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지형과 수계를 고려하여 6개 소지역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세형동검문화 관련 유물들은 산둥지역 日照, 하북지역 燕下都 주변의 望都·涿州·高碑店,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접경지역인 阿城 上雷木屯, 연해주의 시니에 스갈리(姜仁旭·千羨幸, 2003)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세형동검문화의 교류나 변동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7)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도면〉 세영해감면화 단계 요령시 청동무기의 분포와 지역 구분

2_ 단계 설정과 시기 구분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토착계 청동유물들의 출현과 소멸, 중원계 유물의 조합 관계를 기준으로 5단계 4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요령식 세형동검, 요령식 동과, 세형동모류 등의 요령식 청동무기는 중원계 유물들과 함께 일정한 시공간성을 띠고 있으므로 자료 부족으로 인한 기원전 4~2세기대 요동~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과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단계(요서1기)는 요서지역에서 요령식 세형동검(우도구식)과 요령식 동과(우도구식)가 출현하고, 중원계 청동무기와 예기 등이 부장되는 시기다. 요동 지역에는 法庫 尙屯·海城 大屯·瓦房店 曲屯·旅順 官屯子(聖周墓) 등의 토광묘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세형동검에 가까워진 것이 확인되고 있다.

2단계(요동1기)는 요동지역에도 요령식 세형동검(양갑산식)과 요령식 동과(망강촌식)가 등장하며, 유엽형동모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전국연계 유물로는 두형토기만이 확인되며, 토착화된 장각두형토기가 널리 유행한다.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조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3단계(요동2기)는 요동지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세형동검(조가보자식·상보촌식·윤가촌식)과 다뉴동경(수조문경·엽맥문경 등)이 유행한다. 세형동검에 雙鳥形劍柄이 연결된 鳥形柄式銅劍이 제작되기 시작하며, 문양이 채용된 요령식 동과(쌍산자식)와 유엽형동모(조가보자식), 한국식 세형동모와 흡사한 무문식의 세신형동모(망성강자식)가 부장되는 시기다. 전국연계 유물로는 중원식 동검과 주조철부 등이 부장되며, 동경 역시 이미 수용된다. 명도전 부장묘가 조영되고, 서북한지역에 요령식 세형동검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4단계(요동3기)는 요령식 세형동검은 형식이 고정되고(상보촌식·신송리식), 鳥形柄式銅劍이 널리 유행한다. 요령식 동과는 잠시나마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엽형동모나 세신형동모는 주로 유문식만 남게 된다. 燕系 외에 三浦 또는 秦系 유물 부장이 확인되며, 전국연계 유물들은 서북한지역으로 파급된다. 서북한지역에서 합구식 옹관묘와 함께 명사리식토기와 화분형토기가

등장하며, 서남한지역까지 요령식 세형동검이 전해진다.

5단계(요동4기)는 요령식 세형동검은 특정 형식(상보촌식·금창진식)의 鳥形柄式銅劍만이 남게 되는 시기다. 이때는 쌍조형검병이 채용된 동병철검이 등장하여 크게 유행하며, 요령식 철과가 부장된다. 철과·철모 등의 무기류와 함께 燕·漢式의 중원계 거마구와 흉노계 거마구가 사용된다. 秦鏡이나 漢鏡의 부장도 확인된다. 이때는 한식 유물을 다량 부장하는 목곽묘가 본격적으로 조영된다.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전체 5단계 중 2~5단계에 해당되는 요동1~4기가 요동지역과 서북한지역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에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동2기와 4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와도 교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1〉 요령(요동)~서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시기 구분

단계	시기	절대연대 (기원전)	토착 청동무기 형식			중원(계) 공반유물
			세형동검	동과	동모	
1단계	요서1기	4C 초엽~ 4C 중엽	우도구식	우도구식		두형토기, 연식예기 등
2단계	요서2기 요동1기	4C 후엽~ 3C 초엽	우도구식 양갑산식 (윤가촌식)	산금구식 망강촌식 (무문)	유엽형 (무문)	두형토기
3단계	요동2기	3C 전엽~ 3C 후엽	윤가촌식 조가보식 상보촌식	쌍산자식 (유문)	유엽형 세신형 (무·유문)	연식타날토기 전국경, 명도전 청동무기, 철제농공구
4단계	요동3기	3C 후엽~ 2C 전엽	신송리식 상보촌식	?	유엽형 세신형 (유문)	연식타날토기 전국경, 진경 명도전, 반량전 청동무기, 철제농공구 (연식마구, 철제무기)
5단계	요동4기 (서북한 포함)	2C 중엽~ 1C 초엽	연주식검 동병철검	철과	철모	연식·한식타날토기 (전국계)진경·한경 반량전, 오수전 한·흉노계거마구, 철제농공구, 철제무기

III.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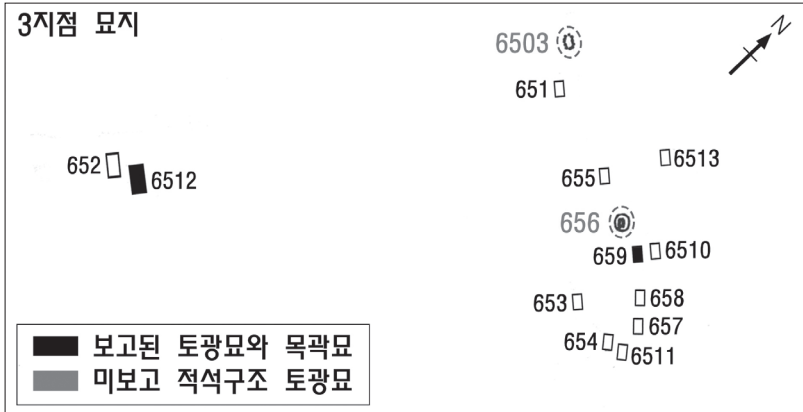
1_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성립 배경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요서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요동지역으로 파급, 정착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이는 세형동검이나 이와 공반되는 유물들의 종류와 형식에서 요서지역과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관련 양상들은 요동 서부지역에서는 심양 정가와자와 요양 양갑산, 요동 남단지역에서는 장해 상마석과 여순 윤가촌, 요동 동부지역에서는 단동 망강촌 등의 유적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정가와자유형의 주 분포지인 요양~심양 일대 무덤에는 비파형동검의 후기 형식(정가와자식)을 대신하여 요서지역에서 파급된 요령식 세형동검의 초기 형식(우도구-양갑산식)이 부장되며, 이와 공반되는 점토대토기는 요서지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형식이다. 이때에는 요서지역을 통해 전이된 두형토기도 확인된다. 또한 상마석의 토광묘군(M2·M4)에는 우도구-양갑산식 동검이나 외반구연 무문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며, 윤가촌의 적석목관묘형 분묘와 직인형의 세형동검(윤가촌식) 역시 요서지역에서 먼저 확인되는 형식이다. 망강촌 토광묘에서도 우도구-양갑산식 동검과 요서지역에서 비롯된 요령식 동과가 공반된다.

요령지역에서 세형동검이 등장할 무렵에는 요동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鄭家窪子類型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전국 중기에는 점토대토기발과 흑도장형호가 조합을 이루면서 부장되고,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조영된다. 또한 장각두형토기가 사용되는 등의 변화 양상들이 나타난다.⁸⁾ 이와 함께 이때에는 정가와자유형의 문화 요소들이 주변으로 파급되어 요동 동부지역(집안 이도외자)과 요동 남단지역(장해 상마석)은 물론이고 서북한지역(평양 신성동)까지 일정한

8) 경기도박물관, 2010, 『요령고대문물전』(2010년 해외교류 특별전 도록).



〈도면 2〉 요동 서부지역의 적석목관묘형 분묘(심양 정가와자)

관계망에 포함된다.

즉,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토착 문화 위에 요서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요동 서부지역으로 전이되어 성립되었으며, 정가와자유형의 교류망(Network)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다시 파급, 복합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정착해간 것으로 이해된다. 요동 서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전국연의 철기문화 파급 이후 거의 소멸되었으나 요동 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碧流河 이서지역을 중심으로,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大洋河 이동지역을 중심으로 각기 지역권을 형성하며 지속, 발전한다.⁹⁾

한반도와 관련하여 보면, 요동지역에서 요령식 세형동검과 함께 전해지는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주목된다. 적석목관묘형 분묘는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의 서부지역에서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어 세형동검문화 단계 신출 묘제의 등장이나 매장문화의 교류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본다.

9) 정가와자유형은 세형동검문화의 성립으로 인해 문화 내용에서 적석목관묘가 등장하고 청동무기가 발달하며, 전국연계 토기문화 요소가 일부 복합되는 등의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_ 요동반도의 세형동검문화와 윤가촌유형

1) 윤가촌유형의 설정

요동 남단지역(혹은 요동반도)의 세형동검문화는 旅順 尹家村 유적으로 대표되는 牧羊城 일대의 전국시대 유적과 그곳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積石木棺 墓形 묘제, 직인형의 細形銅劍, 외반구연의 把手附壺와 豆形土器 등의 유구·유물복합체로 대표된다. 또한 이러한 유구·유물복합체는 ‘尹家村類型’이란 하나의 지역단위 문화유형으로 설정 가능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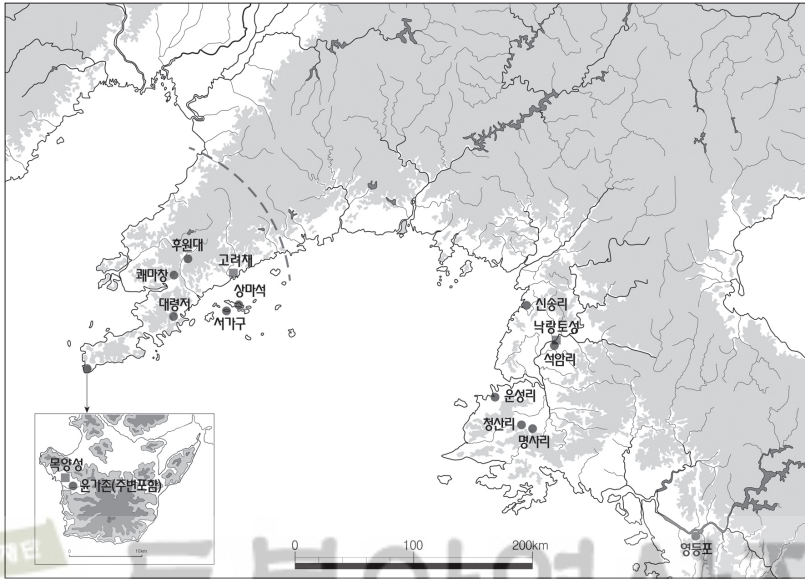
요동반도의 세형동검문화는 1928년과 1963~1964년에 조사된 윤가촌 일대의 유적으로 대표되며, 1970년대 이후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관련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적 입지와 묘제 혹은 분묘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의 양상에서 공통되는 특징이다.

먼저 세형동검문화 관련 유적들은 주로 강변 충적대지 혹은 둔덕 위에 입지하고 있고,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비파형동검 단계 유적이 주변 경관이 탁월한 구릉 능선이나 산기슭에 주로 입지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물론 비파형동검 단계에도 충적지의 완사면에 입지하는 유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입지 현상으로 보기에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분묘에는 積石木棺墓形 墳墓와 슴口式 甕棺墓가 있다. 적석목관묘형 분묘는 묘광 내에 목관을 안치하고 그 측면과 상면에 석재를 채워넣는 구조가 특징인데, 보고문에 흔히 石槨墓로 기술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묘제는 대개 積石木棺墓로 규정되고 있다.¹¹⁾ 요동지역에서는 심양 정가와자 유적에서 일부 확인되나 주로 대련지구에 분포한다. 또한 합구식 옹관묘는 무문토기와

10) 李厚錫, 2012, 「遼東半島 細形銅劍文化的 양상과 변천 - 尹家村類型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28.

11) 이청규, 2005, 앞의 글.



〈도면 3〉 윤가촌유형 관련 유적의 분포

승문타날토기가 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합구식 옹관묘는 전국~전한시기 燕과 濟의 영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요령지역의 것은 燕國의 요령 진출 이후 파급된 것으로 이해된다.¹²⁾ 무문토기가 옹관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는 것은 이미 토착주민집단에게 합구식 옹관묘가 수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출토유물 가운데는 세형동검과 외반구연 무문토기 및 두형토기가 주목된다. 요동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은 거의 예외없이 直刃形에 가까워진 細形銅劍인데, 유사 형태의 세형동검이 하북이나 요서지역, 그리고 서북한지역에서 일부 찾아지고 있어 ‘윤가촌류동검’으로 통칭된다. 외반구연 무문토기에는 중대형의 把手附壺와 外反口緣壺가 있다. 파수부호는 한반도의 초기철기시대 토기를 대표하는 이른바 明沙里式土器(壺)의 祖形에 해당되는

12) 정대영, 2009, 「중국 고대 옹관묘의 조사현황과 연구-戰國秦漢時期 華北·遼寧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대옹관』, 학연문화사.

기종이다. 豆形土器는 요하 이동지역에서 가장 널리 유행하는 보편 기종으로 燕式 陶豆 등도 보이지만 주로 장각두형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2) 윤가촌유형 유적의 검토

윤가촌유형의 유적에는 旅順 尹家村 외에 錦州 大嶺底, 普蘭店 快馬廠과 後元臺, 長海 上馬石과 徐家溝 등이 알려지고 있다. 대련지구, 특히 碧流河 이서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북으로는 瓦房店과 동으로는 庄河를 연결하는 선을 넘지 않고 있다.

윤가촌유형을 대표하는 윤가촌 유적은 요동반도 최남단의 서쪽 천변 충적 대지에 위치한다. 윤가촌의 북서쪽에 牧羊城이 위치하며, 현지 조사는 크게 1928년 일본 동아고고학회에서, 1963년과 1964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에서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윤가촌유형과 관련된 유구에는 윤가촌 2기 문화에 속한 수혈과 분묘, 그리고 시대불명으로 기술된 토광묘 3기 등이 포함된다.

윤가촌 2기문화에 속한 수혈유구는 1964년 3호 수혈(H3)과 11호 수혈(H11)이다. 출토유물에는 이중구연심발편과 중소형의 평저단경호, 중대형의 파수부호, 두형토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다만 H11 출토품 속에는 1기문화에 속한 토기편이 섞여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분묘 출토품과 동일한 구성을 나타낸다.

윤가촌 2기문화에 속한 분묘로는 1928년의 1호 石墓(이하 28M1)와 1963년 4호묘(이하 M4)와 1964년의 12호묘(이하 M12) 등이 있다. 28M1과 M12는 적석 구조의 토광묘로 積石木棺墓에 해당된다. M12에서는 세형동검, 이중구연심발, 평저소호, 외반구연호,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두형토기 중에는 전국연식 陶豆가 포함되어 있다. 28M1에서도 파수부호를 비롯하여 이중구연심발, 장경호, 두형토기, 완 등이 출토되어 M12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1928년 세형동검편이 수습된 官屯子河 주변 1개소, 1974년 중원식동검과 세형동검이 함께 수습된 윤가촌 서남쪽의 1개소도 비슷한 구조로 추정된다. M4는 파괴된 甕棺墓로 추정되었는데, 완과 소호편이 출토되었으며, 손가락뼈가 일부 남아

〈표 2〉 요동반도 세형동검문화(윤가촌유형) 유적·유물 일람표

순번	유적	유구	출토유물			비고
			무기류	위세·이기류	토기류	
1	여순 윤가촌 (牧羊城) 28M1	적석 목관묘			이중구연심발1, 장경호1, 파수부호1, 두3, 완1	1개체 파편2
	여순 윤가촌 (牧羊城) 28M3	옹관묘			무문토기대호1, 부1, 단경호1	3구 형치식
	여순 윤가촌 64M12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1	환형석기1	이중구연심발1, 장경소호1, 외반구연호1, 두3	戰國燕式 陶豆포함
	여순 윤가촌 63M4	옹관묘?			단형소호편1, 완1(옹관), 두편?	합구식, 손가락뼈
	여순 윤가촌 64H3	수혈			이중구연토기편1 등	1기토기 편 혼입
	여순 윤가촌 64H11	수혈		환형석기1 /석도편1 /원형골기1	이중구연토기편5, 평저단경호1, 파수부호1, 두3 등	동물뼈, 1기토기 편 혼입
	여순 윤가촌 官屯子河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1	?	?	
	여순 윤가촌 河北岸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1 중원식검1	?	?	
2	금주 대령저촌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1	?	?	
3	보란점 괘마창촌	매납	세형동검8			
4	보란점 후원대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편 '啓封'銘戈1 '○王'銘鉞1	銅盃1, 주조철부1/ 석관주160	타날문호(웅)3	銅盃 출토맥락 불분명함
5	장해 상마석 M2	토광묘	세형동검1			이입품?
	장해 상마석 M4	토광묘			장경소호1	
6	장해 서가구	적석 목관묘	세형동검1, 동병1,검초1, 중원식검1	/동부1, 동착1		火葬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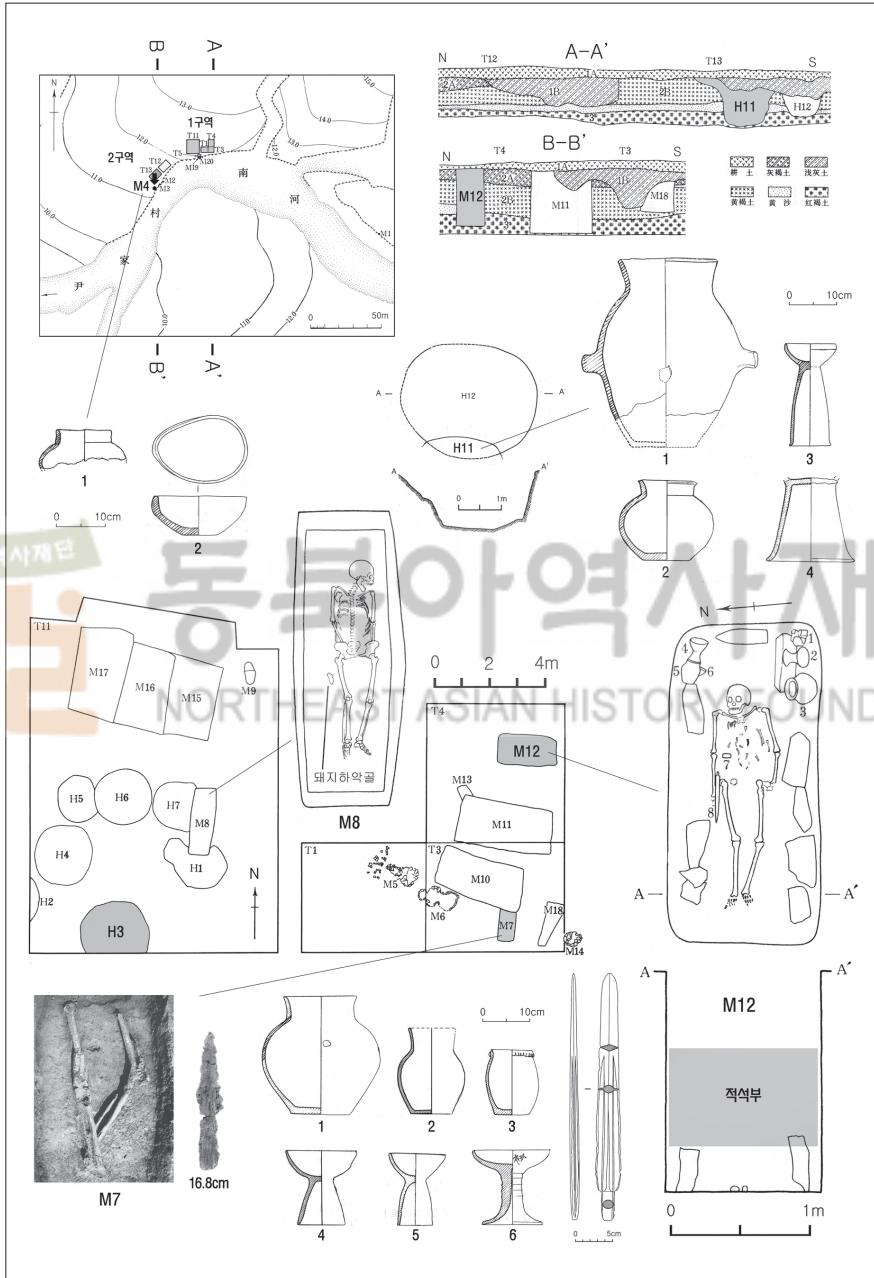
이 외에도 무덤 규모와 두향이 같아 동 시기로 추정되는 소형 토광묘 3기(M7·M8·M13) 역시 층위 관계에서 윤가촌유형에 속한 무덤으로 추정된다. 특히 M7에서는 鐵鉞 혹은 鐵劍片(長 16.8cm)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한편 1928년의 3호 甕棺墓(이하 28M3)는 대형의 無文土器壺와 燕式釜形土器, 그리고 漢式短頸壺가 조합된 것이어서 피장자를 토착주민으로 볼 수 있다. 소형 토광묘 3기와 28M3는 윤가촌 2기문화의 범위에는 벗어나나 피장자의 성격으로 보아 윤가촌유형에 포함된다.¹³⁾

한편 윤가촌 유적에서는 층위 및 유구 간의 중복관계를 통해 무덤의 주축 방향(두향)이 변화하는 양상 역시 확인된다. 즉, 동서방향(M12: 2기) → 남북방향(M7·M8·M13: 과도기) → 남북방향(M15·M16·M17: 3기) → 동서방향(M11·M12: 3기)의 순으로 바뀌는데, 특히 윤가촌 M11과 M12는 木槨墓일 가능성이 있어 묘제 역시 '적석목관묘(2기) → 목관묘(2·3기) → 목곽묘(3기)'의 변천 과정이 상정된다.

이와 같이 윤가촌 유적의 층위 관계와 주변 유적의 출토유물 양상을 비교하면 크게 3단계의 변화 과정이 상정된다. 대련 일대의 다른 유적들도 이와 같이 검토하면 단순히 윤가촌 M12와 같이 豆形土器만이 공반되는 단계, 윤가촌 河北岸이나 서가구 유적처럼 청동무기가 공반되는 단계, 윤가촌 28M3이나 후원대 유적처럼 秦漢代의 유물들이 추가되는 단계로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윤가촌유형을 통해 본 요동반도의 세형동검문화에는 토착적인 분묘 구조에 전국연계로 대표되는 중원문화 유물들이 처음부터 복합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윤가촌 유적의 주변에는 전국 만기 무렵으로 소급되는 牧羊城이 위치하고 있어 燕문화와 윤가촌유형은 일정기간 공존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자료로는 윤가촌유형을 고조선의 시공간적 정체성과 직접 관련짓는

13) 윤가촌 2기문화(戰國 中後期)와 3기문화(前漢文化)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大貫靜夫, 2007,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297쪽.



〈도면 4〉 여순 윤가촌 유적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

〈표 3〉 요동반도 세형동검문화의 변천과 분기

단계	내용	주요 유구	비고
윤가촌 M12 단계	상마석(M2/M4), 윤가촌(M4,M12,28M1,H11), 대령저, 쾌마창 등		요동1기
서가구 단계	윤가촌河 北岸, 윤가촌 M7, 서가구 등		요동2기
후원대 단계	윤가촌 28M3, 후원대		요동3기

것보다는 주변부의 문화 양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윤가촌유형의 묘제(적석목관묘형 분묘)

요동반도의 적석목관묘는 여순 윤가촌 M12로 대표된다. 윤가촌 M12는 묘광 규모가 대략 長 240cm, 幅 130cm, 深 170cm이다. 구조는 중소형의 깊은 묘광(170cm 내외) 안에 목관을 안치하고, 그 사이에 장대형의 석재(30~50cm)를 충전하여 목관을 고정하며, 그 과정에서 유물을 부장한다. 목관 상부에도 일정 높이만큼 석재를 쌓았는데 목관 바로 위는 석재 여러 개를 개석처럼 놓았으며, 그 위에는 다시 석재를 충전하여 넣는 구조다. 석재들로 묘광 안의 일정 높이(약 0.8~1.0m)만큼 채워 넣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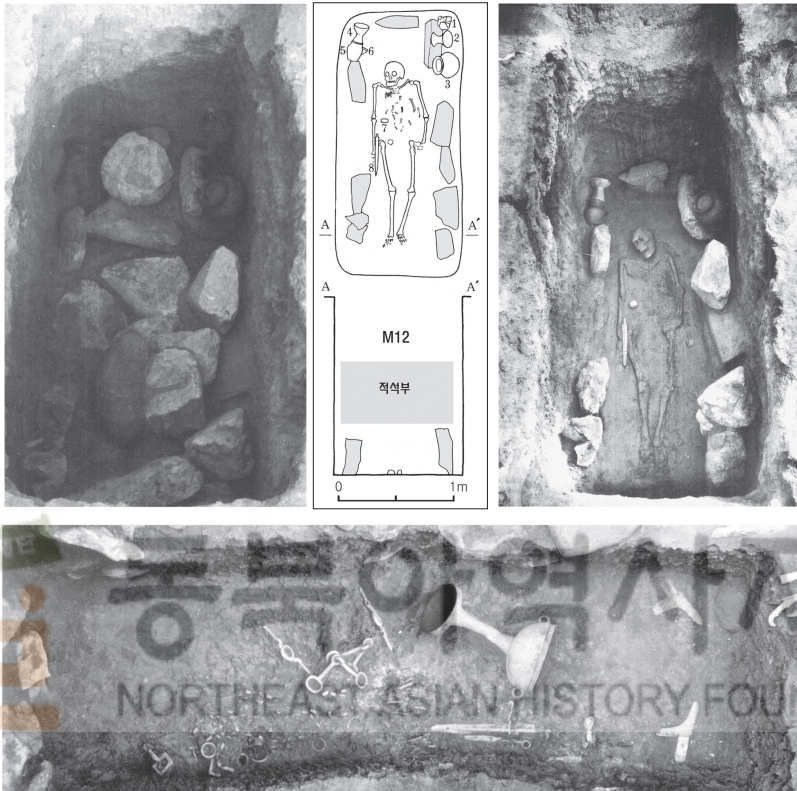
윤가촌 유적의 적석목관묘는 한때 목관과 묘광 사이만을 돌로 채운 圍石式 구조로 알려진 바 있어 ‘石槨墓’나 ‘圍石墓’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었으나¹⁴⁾ 묘광 상부의 일정 높이만큼 채워넣은 積石式 구조임에 틀림없어 목관의 존재를 고려하여 ‘積石木棺墓’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⁵⁾

요동반도 적석목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한때 夏家店上層文化 남산근유형 단계 석곽묘와 관련시켜 보았으나¹⁶⁾ 하가점상층문화는 늦더라도 춘추 후기

14) 이견무, 1990, 「초기철기시대 유적」,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박순발,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고찰」, 『考古美術史論』 3.

15) 李清圭, 2003, 「靑銅器와 儀禮 - 韓日間의 比較」, 『韓國文化思想大系』 4.

16) 李健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의 性格 - 成立背景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청



〈도면 5〉 요동반도 적석목관묘의 구조와 기원

(상: 여순 윤가촌 M12, 하: 건창 동대장자 M13)

에는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원으로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유적 입지, 분묘 구조, 출토유물 성격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요서지역의 전국시대 유적들이 주목된다.

요서지역의 建昌 東大杖子 유적과 朝陽 吳家杖子 유적은 천변 대지 혹은 하천 가까이의 낮은 둔덕 위에 입지하며, 묘광 상부에 적석부가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¹⁷⁾ 특히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적석 구조의 목곽묘(M13 등)와 목곽묘(M6·M14·M17 등)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윤가촌의 것과 거의 같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요서지역 무덤에서는 묘광 내의 積石 충전, 直刃形에 가까워진 동검 형태, 두형토기의 부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요소가 모두 확인되고 있어 윤가촌 유형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영향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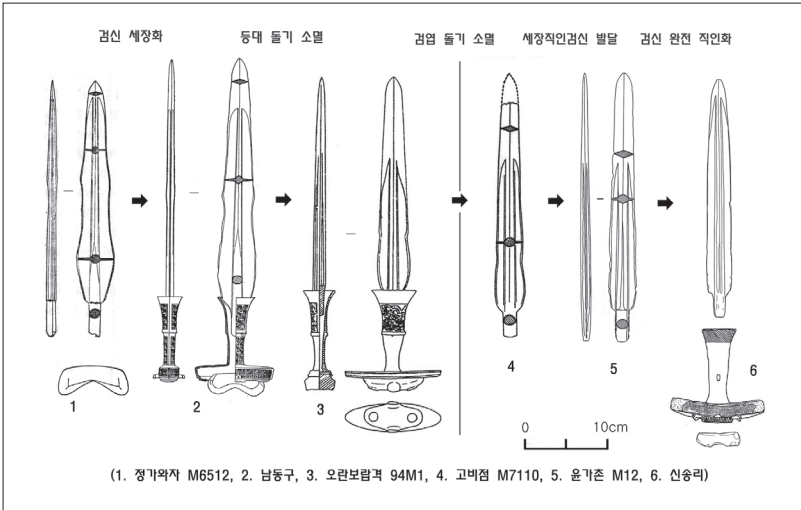
4) 윤가촌유형의 동검(윤가촌류 동검)

윤가촌유형의 동검은 직인형의 검신 형태가 가장 큰 특징으로 장해 상마석 M2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윤가촌류 동검’에 포함된다. 주로 요동 남단지역에서 확인되며, 鑄型 속성을 반영하는 검신 형태와 研磨 속성을 나타내는 등날 형태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장 전형적인 것은 ‘윤가촌식동검’으로 특징된다. 즉 윤가촌식동검은 검신 형태는 대체로 직인형에 가깝지만 하단 쪽이 약간 오목하게 만입되어 있고, 등대 기부에는 燕尾形의 세장한 등날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봉부가 길어 전체 길이에서 1/3 내외를 차지하는 것이 주류다.

윤가촌식동검은 주형 속성에 해당되는 검신 형태만을 고려하면 유사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하북지역과 요서지역, 그리고 서북한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어 그 성립과정과 변천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요서지역의 喀左 北山根 출토품과 하북지역의 新城 高碑店 M7110 출토품은 검신 형태가 동일하여 ‘고비점식동검’으로 명명되는 선행형식으로 볼 수 있다. 普蘭店 後元臺 출토품과 평원 신송리 출토품은 검신 형태가 완전한 직인형을 이루면서 봉부 길이가 다소 줄어드는 점이 특징으로 ‘신송리식동검’으로 명명되는 후행 형식에

17) 중국 학계에서는 토광묘의 상부 혹은 묘광 입구에 간단하게 돌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砌石墓라 부르기도 한다.

18) 요동반도의 특징적인 무덤으로 이해되는 ‘貝墓’가 발해만을 따라 요서지역에도 분포하는 점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면 6〉 윤가촌류 동검의 성립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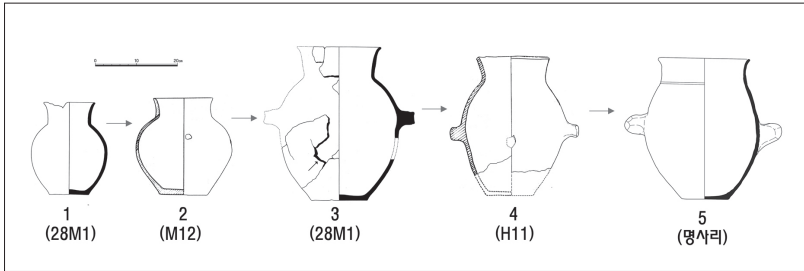
해당된다. 즉 윤가촌류 동검은 요서지역에서 처음 등장하여 요동 남단지역으로 전이되고, 다시 서북한지역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고비점식(요동1기) → 윤가촌식(요동1·2기) → 신승리식(요동3기)’으로 변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5) 윤가촌유형의 토기(윤가촌식토기와 두형토기)

윤가촌유형에서 확인되는 토기에는 외반구연의 파수부호, 평저소호, 완, 두형토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기종은 중대형의 파수부호로 ‘명사리식토기(호)’의 조형으로 이해된다. 다만 명사리식토기의 형태적인 특징은 이미 여순 윤가촌 유적에서 갖춰지고 있으므로 ‘윤가촌식토기’로 부를 수도 있다.

윤가촌식토기에는 뭉툭한 파수가 부착되어 있고, 원형에 가까운 구멍이 뚫려 있는 把手附壺가 가장 보편적인 기종이다. 윤가촌식토기의 성립과정은 외반구연호의 동체가 투공되고, 파수가 부착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중대형의 파수부호로 변천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윤가촌식토기는 동체가 다소나마 세장해지면서 경부와 복부 연결부위 꺾



〈도면 7〉 윤가촌식토기(호)의 성립과 변천

입도가 약화되고, 이 과정에서 파수가 부착되고, 투공의 위치가 다소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수는 처음에는 끝단이 뭉툭하게 처리되어 '柱狀'에 가까워진 형태이나 한반도에서는 '棒狀 → 舌形' 혹은 '牛角形'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豆形土器는 윤가촌유형에 전국연의 토기문화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한반도를 포함하여 遼河 以東의 각지에서 세형동검문화 단계에서 크게 유행하는 기종이다. 요서지역의 것은 단각식과 장각식이 모두 확인되나 요동지역의 것은 장각식이 주로 확인된다. 요동반도에서는 대각 폭이 넓은 '나팔두'가 유행하며, 그 외의 요동지역과 길림지역은 나팔두와 함께 대각 폭이 좁고 긴 '고병두'가 많다. 한반도의 것은 요동반도의 나팔두와 가장 비슷하다.

장각 두형토기의 파급 양상은 윤가촌의 燕式 陶豆를 통하여 파악된다. 윤가촌 M12 출토품 가운데 燕下都 郎井村 10호工房 출토품과 거의 같은 전국 중기 陶豆가 포함되어 있다.¹⁹⁾ 또한 윤가촌 H11 출토품 가운데 배신 외측으로 단이 진 유단식의 속성을 나타내는 두형토기는 燕下都 郎井村 10호工房에서 전국 중기부터 확인되며, 전국 후기에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윤가촌유형의 두형토기들은 기원전 4세기 후엽 이후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19)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墓葬について」, 『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6,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考古學研究室.

장각 두형토기는 요서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여 요동지역으로 파급되었는데, 다만 일상용과 부장용은 서로 사용 맥락이 다르므로 시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요서지역의 建昌 于道溝나 朝陽 袁臺子の 전국시대 무덤에서 燕式 陶豆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은 燕下都의 전국 중기 전후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요서지역의 두형토기는 늦더라도 기원전 4세기 전엽 이후에는 부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서지역의 두형토기는 하북지역에서 제작기술이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두형토기를 다수 부장하는 관습 역시 이때부터 나타난다. 요동지역에서는 윤가촌유형에서 두형토기를 비롯한 토기를 다수 부장하는 관습이 보이는데, 부장 위치 역시 받치 위주에서 머리 주변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요동지역의 장각 두형토기는 요서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에는 전국연계 금속유물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윤가촌유형의 燕式 陶豆 역시 연의 영역에서 바로 입수되었다기보다 요서지역을 매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3_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石棺墓나 大石蓋墓 같은 단순 석묘가 주된 묘제이며, 검신 하부가 단이 진 세형동검(상보촌류동검), 점토대토기 등의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정가와자유형의 黑陶 長頸壺가 繩文打捺短頸壺로 대체되고, 전국연계 유물에서 전한대의 유물이 복합되는 등의 시기와 지역에 따른 변화상이 확인되며, 전국 말~전한 초의 철기문화의 파급 이후에도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요동반도의 세형동검문화가 대련지구에 밀집되어 있고 문화 내용에서 강한 공통성이 확인되는 것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지리적인 측면이나 문화 양상으로 보아 천산산맥 일대의 본계-단동지구와 장백산맥 일대의 집안-통화지구로 지역권이 세분되며, 本溪 沙窩나 丹東 望江村 유적으로 대표되는 이른 단계(요동1~2기) 유적과 本溪 朴堡村과 集安 五道嶺溝門 유적으로 대표되는 늦은 단계(요동3~4기) 유적으로 대별된다. 다만 청동유물

의 구성이나 조합 관계에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고, 점토대토기문화의 분포권에 포괄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별도의 지역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고 살펴본다.²⁰⁾

1) 적석 시설 석관묘와 대석개묘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 관련 묘제로는 土壙墓도 보이지만 주로 石棺墓와 大石蓋墓가 확인되고 있다. 석관묘나 대석개묘는 묘광 주변 또는 입구에 積石 시설이 부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각기 積石石棺墓와 大石蓋積石墓로 불리기도 한다.

적석석관묘형 분묘들은 鳳城 三家子村 小陳家, 寬甸 四平街 등의 이른바 石堆 유적에 해당되며, 대석개적석묘의 경우 桓仁 馮家堡子 유적이나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일부 분묘에서 확인되어 있다. 적석부가 낮고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 혹은 얇은 수혈식인 점이 특징인데 요동 동부지역 세형동검문화의 특징적인 묘제라고 할 수 있다.

보고 자료가 적어 구체적인 구조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긴 하나 묘제의 출현 순서와 청동유물의 종류와 형식을 고려하면 묘제의 발달 과정은 '석관묘·대석개묘(요동1기) → 적석석관묘(요동2기) → 대석개적석묘(요동3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적석 구조의 석묘들은 고구려의 초기 적석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계보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²¹⁾ 최근에는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積石墓나 요동 동부지역의 積石石棺墓와의 문화적인 상관성보다는 通化 萬發撥子 유적 등의 대석개적석묘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초기 적석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集安 五道嶺溝門이

20) 요동 동부지역의 경우 기원전 3세기대에 해당되는 요동2기와 요동3기는 '상보촌유형'으로 설정 가능하다.

21)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나 渭原 龍淵洞 유적 역시 제사유구나 매납유구일 가능성도 있다.²²⁾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도령구문의 청동유물이나 용연동의 연식 철기들은 전한 중기까지 내려보기 곤란하다.

아무튼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 관련 묘제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석관묘를 매장주체부로 하여 이에 대형 개석이나 적석 시설이 부가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지상화된 매장주체부에 적석 구조가 정형화된 결과 적석묘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형동검문화는 桓仁 望江樓 분묘군과 같은 적석묘군이 조영되는 단계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보촌류 동검과 쌍조형 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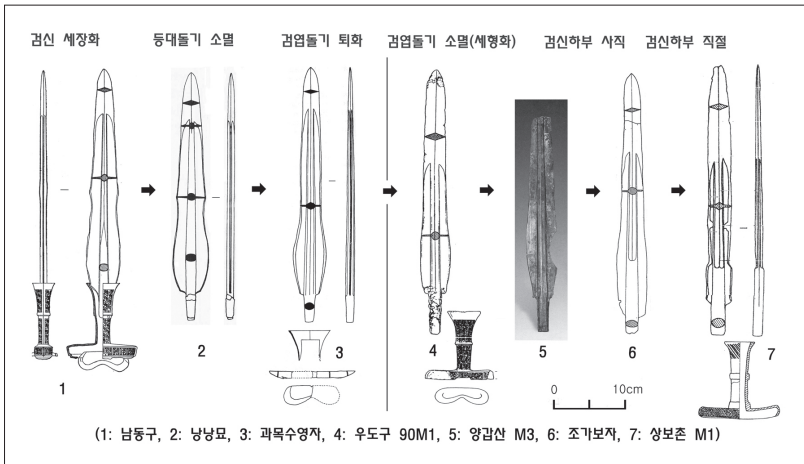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은 직인형의 ‘윤가촌류동검’과는 달리 검신 하부가 불룩 또는 단이 지는 점이 특징으로 ‘상보촌류동검’으로 일괄된다. 북한 학계에서 ‘불룩한’ 혹은 ‘턱이진’ 부류²³⁾라고 하는 것이거나 남한 학계에서 대청산-오도령구문식²⁴⁾이라 하는 것들 중에 한국식 세형동검에서 나타나는 등대 마디가 있는 것이 많아 상보촌류 동검은 등대 마디가 없는 길림지역 출토품과 다른 세부 분류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검신 하부의 형태를 고려하여 양감산식, 조가보자식, 상보촌식으로 3분하여 살펴본다.

양감산식은 검신 하부가 다소 곡선적으로 불룩한 것으로 遼陽 亮甲山과 같은 요동 서부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여, 本溪 南芬이나 上堡村과 같은 천산산맥 서쪽에만 분포한다. 다음으로 조가보자식은 검신 하부가 약간 단이 진 것으로 本溪 劉家哨, 鳳城 小陳家, 寬甸 趙家堡子 등의 천산산맥 주변에만 분포한다. 상보촌식은 검신 하부가 급격하게 턱이 진 것으로 本溪 上堡村과 朴堡村,

22)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23) 박진욱, 1987, 「초기좁은숫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1.

24) 이청규, 1993, 앞의 글.



〈도면 8〉 상보촌류 동검의 성립과 변천

岫巖 哨子河, 東溝 大房身 등의 천산산맥 일대 유적뿐만 아니라 集安 五道嶺 溝門, 長白 飛機嶺 등의 혼강-압록강 일대 유적에도 분포한다. 이와 같은 형식들은 서북한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한국식 세형동검과 공반된 예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보촌류동검 세부 형식들은 변천 과정에 따라 천산산맥 서쪽 혹은 그 일대에서 혼강유역이나 한반도로 분포지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 시·공간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은 ‘양감산식(요동1~2기) → 조가보자식(요동2기) → 상보촌식(요동2~3기)’으로 변천하며, 이 과정에서 요령식 동과나 세신형동모가 수반되고, 결국 서북한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동 동부지역에서 세형동검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청동검병이다. 청동검병에는 별주식의 T字形劍柄 외에 연주식의 雙鳥形劍柄이 주목된다.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쌍조형검병은 길림지역에서 ‘雙環頭式’ 병단을 특징으로 하는 阿城 上雷木屯 출토품을 시작으로 傳 중국 출토품(日本 慶應大學 所藏)과 永吉 烏拉街 汪屯 출토품이 각각 그다음 단계(요동2~3기)에 해당되는 자료다.²⁵⁾

이에 비해 요동 동부지역의 것은 좀 더 간략화된 '圓環頭式' 병단을 특징으로 한다. 검병 단부 형태와 검신 길이로 보면 本溪 朴堡村 출토품에서 通化 金廠鎮 출토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요동3기). 長白 干溝子 飛機嶺 출토품은 길림~요동지역 쌍환두식 동병동검의 늦은 형식으로 상보촌식 혹은 금창진식 검신이 연결되어 있다. 평양 토성동 M486 출토품에 선행하는 형식이다(요동3~4기).

한편 新賓 龍頭山 大石蓋墓(M2) 출토품은 변형 쌍조형검병에 철제장검이 연결된 銅柄鐵劍으로 鐵戈와 공반되어 주목된 바 있다. 대석개묘는 분묘 구조, 다인화장, 토기류의 다수 부장 양상 등이 '서황산둔식 대석개묘'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병철검에서 검병 중간에 마디 혹은 단이 지는 것은 西豐 西岔溝나 東豐 彩嵐屯 고분군의 조형병식철검보다 이른 속성으로 판단된다. 채랍둔 고분군에서는 쌍조형검병의 검신편이 출토된 바 있으므로 용두산 M2의 변형 쌍조형검병은 요동 동부지역에서 조형병식동검의 존속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과는 주척식 구조여서 요령식 동과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요령식 동과

요령식 동과는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 단계 유적에서 출토되며, 雙胡-短內-柱脊式의 대칭 구조, 깊은 혈구, 등대 연마 상태 등의 속성에서 중원식 동과와 특징을 달리하여 요서지역 토착집단이 처음 제작,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⁶⁾ 또한 이와 같은 특징들은 韓國式 銅戈와도 흡사하여 그 祖形으로 인정되고 있다.²⁷⁾

25) 雙鳥形劍柄에서 주로 채용되는 쌍환두식 모티프는 하북북부~내몽고동남부지역 유병식동검의 병단장식에서 먼저 확인된다. 다만 북방초원계의 유병식동검이 보통 一鑄式인 것에 비해 요동동부~길림지역의 것은 連鑄式인 점이 특징이다.

26) 李厚錫, 2008, 앞의 글.

27) 趙鎮先, 2009, 「韓國式銅戈의 登場背景과 辛庄頭 30號墓」, 『湖南考古學報』 32;

최근 보고 자료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요서지역에서는 建昌 東大杖子에서 3점, 建昌 于道溝에서 1점, 葫蘆島 傘金溝에서 2점, 喀左 梁家營子에서 1점이 각각 출토되었으며, 요동지역에서는 丹東 望江村과 寬甸 雙山子の 두 유적에서 1점씩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요령식 동과는 關舌(보조란) 유무에 따라 크게 우도구형과 쌍산자형의 2부류로 구별되며, 이 외에도 특이 형식으로 양가영자형이 있다. 우도구형과 양가영자형은 요서지역에, 쌍산자형은 요동지역에 각각 분포하며, 우도구형에서 쌍산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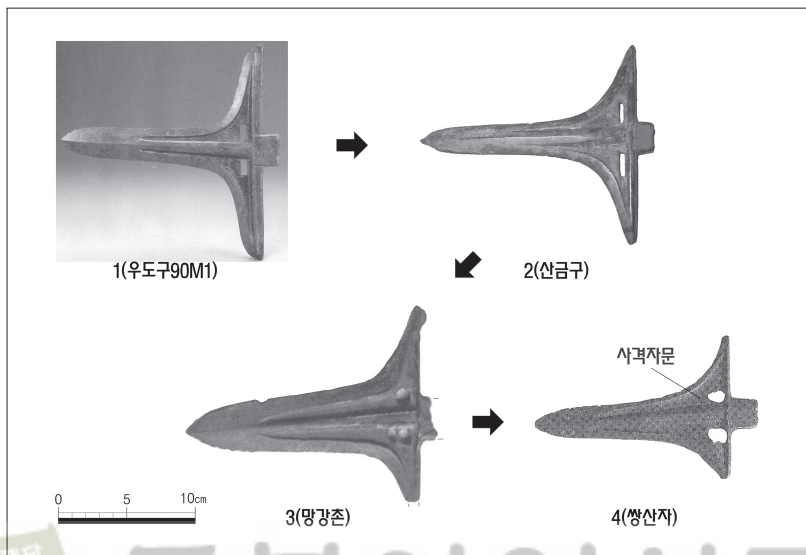
한편 요서지역의 우도구형 동과는 胡의 곡률, 關舌의 너비 등에 따라 세분된다. 호가 볼록하고 난설이 뚜렷한 '우도구식'과 호가 평직하고 난설이 퇴화한 '산금구식'으로 세분되며, 호와 난설이 퇴화되어 우도구식에서 산금구식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동지역의 쌍산자형 동과는 우도구형과 달리 胡의 하단부가 오목하고, 關舌이 사라지며, 천공 형태가 장방형을 탈피하여 부정형에 가까워진 점이 특징이다. 다만 망강촌 출토품은 無文銅戈이고, 쌍산자 출토품은 斜格子文이 주출되어 있는 有文銅戈라는 측면에서 무문식에서 유문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령식 동과의 변천과정은 결국 전체 길이에 비하여 너비가 줄어들어 세형화가 진척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요령식 동과는 요서지역에서 혈구가 있는 우도구형으로 등장하여(우도구식: 요서1기), 호와 난설이 퇴화되고(산금구식: 요서2기), 요동지역으로 파급되어 난설이 사라져서 쌍산자형으로 변화하며(망강촌식: 요동1기), 끝으로는 문양이 채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쌍산자식: 요동2기) 점차 쇠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식 동과의 출현과정은 요동 동부지역에서 무문식인 망강촌식과 유문식인 쌍산자식의 연대관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식 동과

李厚錫, 2013, 앞의 글; 後藤直, 2007, 「朝鮮半島の銅戈-燕下都辛莊頭30號墓出土銅戈の位置づけ」,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도면 9〉 요령식 동과의 변천

의 초기 형식은 무문동과라는 측면에서 쌍산자식보다는 망강촌식을 조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⁸⁾ 망강촌 출토품의 연대는 조가보자식에 선행하는 세형 동검과 소형 선형동부가 공반되어 늦더라도 기원전 300년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요령식 동과의 변천과정에서 한국식 동과의 출현 시기를 찾는다면 망강촌식에서 쌍산자식으로 변화하는 단계, 즉 기원전 3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식 동과에서 有文銅戈의 출현 계기 역시 유문식의 요령식 동과나 세형 동모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요령식 동과와 한국식 동과의 문양에서 사격자문이나 엽맥문과 같은 유사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식 동과의 출현 이후에도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은 청동무기에서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요동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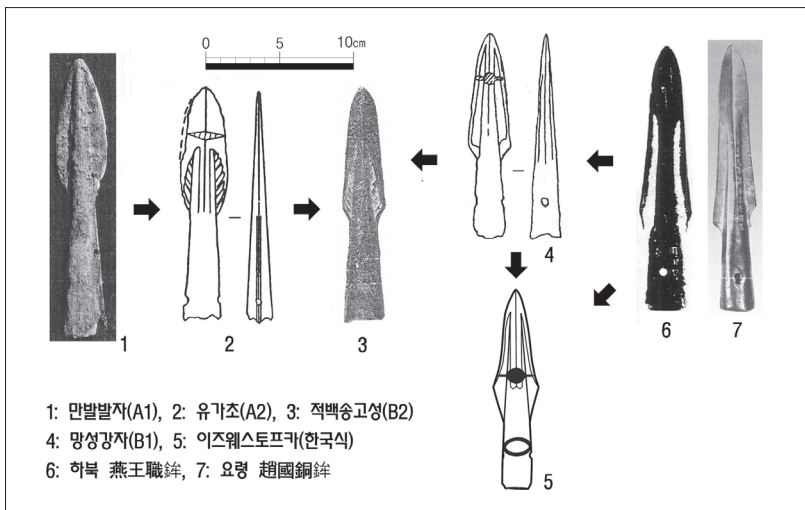
28) 李厚錫, 2013, 앞의 글.

4) 세형동모류(유엽형동모와 세신형동모)

세형동모류는 유엽형동모와 세신형동모로 대별되며,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모검문화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유물 중의 하나다. 요동 동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나 길림 남부지역과 연해주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되며, 한국식 동모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도 있어 주목된다.

세형동모류는 증원식 동모와는 달리 고정구멍이 공부 측면에 뚫려 있고, 고리와 장식이 없다. 또한 세형동모류는 전체 길이에 비해 공부 길이가 길어 대부분이 전체 길이의 1/2 내외지만 한국식 동모는 공부 길이가 짧아 대부분이 전체 길이의 1/4~1/3 정도에 불과하다.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모류는 현재까지 15개소 유적에서 19점이 확인되어 있다. 형태는 직인형에 가깝지만 약간 곡선적인 것과 직선적인 것, 그리고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柳葉形(A류)과 細身形(B류)으로 대별하고, 다시 문양 없는 無文式(1식)과 엽맥문이 주출되어 있는 有文式(2식)으로 분류된다.



<도면 10> 세형동모류의 변천과 기원

유엽형 무문식(A1)은 통화 소도령과 만발발자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길림 남부지역과 함께 연해주지역에도 분포하는 점이 특징이다. 엽맥문 청동기가 공반되기 이전, 즉 전국 후기 전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엽형 유문식(A2식)은 본계 유가초와 관전 사평가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요동 동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점이 특징이다. A2식은 조가보자식동검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늦더라도 전국 후기에는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신형 무문식(B1식)은 본계 망성강자와 길림 장사산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본적인 형태와 길이가 한반도의 세형동모와 흡사하여 주목된다. 한국식 동모의 초출형식이 공부 돌대가 없는 길이 20cm 미만의 소형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B1식 동모들과 같은 형태를 지닌 것은 燕國이나 趙國 銅鑄에서 일부 확인된다. 특히 '鄆王職'鑄는 燕 昭王代에 제작되었으며, 요령지역 출토 조국 동모로 전해지는 것이 여순박물관에 소장되어 그 등장 시기와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식 동모는 연식 동모 또는 B1식 동모를 조형으로 하여 연의 요동 진출 직후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신형 유문식(B2식)은 통화 오도령구문과 赤柏松古城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전반적인 형태가 더 세형화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으므로 가장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2식 동모가 가장 늦게 출현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한 초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모류는 세형동검과 함께 등장하여 전개과정에서 엽맥문이 채용되는 등의 유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한 초기까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형동모류의 출현 순서는 'A1식(요동1기) → A2식 · B1식(요동2기) → B2식(요동3기)'로 정리된다.

요동 동부지역 세형동모류의 기원과 등장과정을 고려할 때 한국식 동모는 세신형동모와 거의 동시기에 출현하여 늦더라도 전국 말기에는 한반도의 남부 지역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식 동모의 성립과정은 요동 동부지역 세형동모류와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요동2기).

5) 다뉴경과 엽맥문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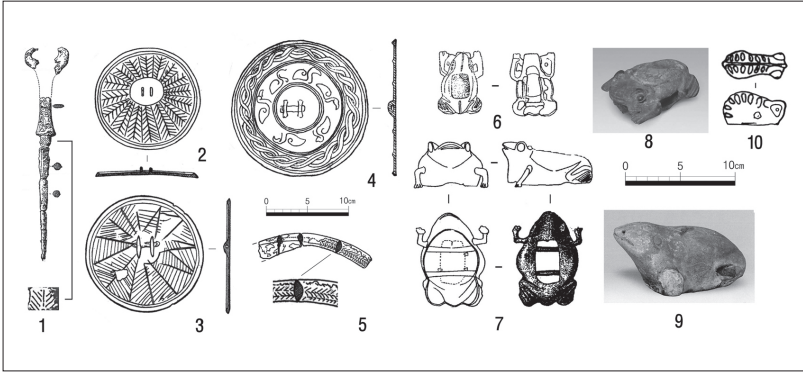
요동 동부지역에서 출토되는 多鈕鏡은 葉脈文鏡·水鳥文鏡·星(光)文鏡·素文鏡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며, 엽맥문 청동기의 경우 다뉴경 외에 鳥形柄式銅劍·銅鉞·靑銅刀子 등의 여러 기종에서 확인되고 있다. 엽맥문 모티브는 북방초원계 문화요소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요동 동부~길림 남부지역에서 지역화된 문양이다.

다만 다뉴경의 주연부가 돌기연을 이루거나 누가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은 戰國鏡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를테면 傳 심양 다뉴소문경과 통화 소도령의 다뉴성문경은 제형 또는 반구연에 가까운 돌기연을 지닌 것이어서 燕의 요동 진출 이전 이미 전국경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조선이 연에 문피 같은 특산품을 수출하였다면 연에서는 동경 등을 수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반도의 퇴화 형식 다뉴쇠문경이 보통 세형동검 이전 단계로 편년되고 있는 점도 참고된다.²⁹⁾ 다뉴성문경의 경우 서북한지역과의 교류 관계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문양 구성이나 제작기법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이미 출현 단계부터 형식이 분화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조문경과 동물형 장식품은 다뉴경의 시간성과 엽맥문 청동기의 출현 계기 혹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 자료다. 본계 유가초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엽맥문동모와도 공반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먼저 동물형 장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하북 북부지역 玉皇廟文化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요서지역에서 전국 초기 무렵 지역화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³⁰⁾ 다만 개구리형 장식품의 경우 능원 삼관전자의 것은 청동제품이고, 심양 정가와자의 것은 토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동지역에는 전국 중기 이후에야 출현하는

29) 이청규, 2009, 「한국 청동기와 다뉴경의 전개」,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국보 제 141호 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李陽洙, 2010, 「多鈕雷文鏡의 登場과 韓半島로의 波及」,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30) 강인욱, 2010, 「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로 동물장식의 유입 과정」, 『湖南考古學報』 36.



〈도면 11〉 엽맥문 청동기와 동물형 장식품

(1·5: 서황산둔 M1, 2: 조가보자, 3: 오도령구문, 4·10: 유가초, 6~8: 삼관전자, 9: 정가와자 3지점)

것을 알 수 있다.³¹⁾

수조문경은 3구식의 다뉴경으로 쌍뉴 형태는 다뉴경의 전통이며, 뉴의 중앙 배치와 돌기연은 전국계 동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구의 타래무늬는 산서~하북지역에서는 춘추 말~전국 초 무렵부터 동경이나 청동예기에서 확인되는 문양으로 하북 북부지역과 요서지역에서는 전국 중기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조문경과 동물형 장식품의 모티브는 전국 중기 이후 요동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가초의 세형동검들은 양감산식에 후행하는 조가보자식에 해당되는 형식이고, 엽맥문동모(A2식)가 유엽형동모(A1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 형식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부장 연대는 전국 중기까지 올려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엽맥문 청동기는 기원전 300년경 이후에야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엽맥문 청동기는 요하 이동지역에서 출현하였으며, 이는 연문화의 파급에 수반된 북방초원계 문화의 유입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요동지역에서 토착화된 것으로 비파형동검 단계와는 구별되는 요동 동부

31) 경기도박물관, 2010, 앞의 책.

지역 세형동검문화의 특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6) 승문타날토기와 명도전 부장묘의 문제

요동 동부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분묘에서 승문타날토기가 출토된 예는 희소하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들로 양상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연계 토기는 요동지역에서 세형동검과 함께 두형토기가 먼저 확인되며(요동1기), 이후 청동무기나 전국연계 철기와 함께 승문타날토기의 부장이 확인된다(요동2~3기).

本溪 上堡村 石棺墓에서는 점토대토기심발과 승문타날단경호가 공반되었는데, M1과 M2 출토품은 燕下都 출토품과 비슷하고, 錦西 小荒地古城 3기층(1단계) 출토품과 구연부의 형태와 타날 방식이 동일하여³²⁾ 전국 말기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M3 출토품의 경우 동체 상부를 물론질로 지워내는 기법은 전한 초기 한식 단경호와 비교된다. 역시 기원전 3세기 후반(요동2~3기)의 자료로 볼 수 있다.

桓仁 抽水洞 주거지와 수혈에서는 승문타날단경호와 두형토기편, 주조철부, 반월형철도, 철도자, 철촉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승문타날단경호는 한식 단경호로 추정되나, 明刀錢과 一貨錢, 그리고 布錢(安陽布)과 秦 半兩錢이 공반되는 양상으로 보아 기원전 3세기 후엽~기원전 2세기 전엽(요동3기)으로 편년된다.³³⁾ 그러므로 요동 동부지역에서 철제무기 일부는 이미 전한 초기 무렵부터 생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생활유적의 경우 승문타날토기류는 큰 시기 차이 없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寧邊 細竹里의 출토유물에는 전국연과 전한대의 문화요소가 섞여 있다. 이른바 고대문화층에 속해 있는 유물에는 다수의 승문타날토기편, 명도전과

32) 吉林大學校考古學系 等, 1997, 「遼寧錦西市邵集屯小荒地秦漢古城址試掘簡報」, 『考古學集刊』 11.

33) 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 64.

각종 철제농공구류, 삼익유공동축용범 등이 있다. 半兩錢이 출토되지 않아 상한 연대는 기원전 3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겠는데 鐵戈가 반출되어 하한 연대는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볼 수도 있다(요동3~4기). 그렇지만 앞서 新賓 龍頭山 大石蓋墓(M2) 출토품을 보더라도 철과는 요령식 동과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출현 시기는 다소나마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길림 중서부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金製耳飾과 銅柄鐵劍이 출토되었다는³⁴⁾ 桓仁 望江樓 積石墓群까지 고려하면 요동 동부지역의 주민집단은 玄菟郡이 설치되기 이전, 늦더라도 滄海郡의 置廢 무렵에는 漢과의 타협관계 속에서 철기문화를 적극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⁵⁾ 이 무렵에는 철제무기가 일정 생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요동4기).

한편 요동 동부지역에는 明刀錢 부장묘가 확인되고 있다. 本溪 南芬(M2)과 張家堡子, 桓仁 大甸子의 토착 무덤에서 철제농공구류 등이 공반되었는데, 특히 대전자에서는 명도전 200여매가 부장되어 주목된다. 전국시대 화폐를 부장하는 풍습은 중국 내륙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풍속인데, 이를테면 燕의 중심부나 齊의 영역인 산둥 동부지역에서 전한시기까지 화폐 부장의 풍속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³⁶⁾

요령지역에서 명도전의 부장묘는 요서지역의 조양 원대자 戊類 묘장(M35·M36)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명도전은 2~3매 정도만이 부장되어 있다. 이와 달리 남분이나 장가보자에는 20~46매 등 수십여매가 부장되고, 대전자에서는 200여매, 용연동에서는 400여매가 각각 부장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도전의 부장 수량이 시기에 따라 증가하며, 그 분포지가 요서에서 압록강 중상류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명도전의 부장 현상은 연의 중

34) 吳江原, 2012, 앞의 글.

35) 창해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도군이 처음 설치되었다고 하는 훈강-압록강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6) 야자와 타나유키[矢澤忠之], 2008, 「戰國貨幣로 본 秦漢時代 山東半島에 있어서의 戰國 習俗의 殘存」, 『역사교육논집』 41.

심지와 화폐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특히 요동 동부 지역에서 다량의 명도전을 부장한 피장자는 대외 교역을 주도했던 토착집단의 수장층일 가능성이 높다.

IV.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

1. 세형동검문화의 교류와 복합

1) 적석목관묘형 분묘의 확산과 한국식 세형동검문화

토광묘와 적석목관묘형 분묘는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에도 나타나는 특징적인 묘제다. 특히 적석목관묘형 분묘의 경우 요동지역에서는 심양 정가와자, 여순 윤가촌 등지에서 확인되나 요동반도 남부지역에서 밀집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의 것과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³⁷⁾ 한반도에서는 서북한지역과 서남한지역, 그리고 동남한지역에 널리 분포하나 세부 구조에서 차이점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를테면 정가와자 유적의 적석목관묘형 분묘들은 3지점의 묘지에서 토광묘와 함께 2기(M6503·M656)만이 확인되고 있다. M656에서는 석재 시설과 이단 묘광 시설이 남아 있고, M6503에서는 석곽 같은 적석 혹은 위석 시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즉 요동 서부지역의 적석목관묘형 분묘에서는 요서지역의 것과 같이 이단 묘광이 보이는데, 이는 청주 가경동, 화순 대곡리 등의 서남한 지역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³⁸⁾

37) 이청규, 2003, 앞의 글; 李厚錫, 2012, 앞의 글.

38)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 등의 세형동검문화 성립기의 분묘들은 보

한편 윤가촌 일대의 적석목관묘형 분묘들은 모두 단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인데, 목관과 묘광 사이뿐만 아니라 묘광 상부에도 돌이 충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윤가촌을 비롯한 요동 남단지역의 적석목관묘형 분묘에는 단이 없는 대신 뚜렷한 적석 시설이 보이는데, 이는 세형동검문화 후기 또는 초기철기 단계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에서 확인되는 적석목관묘형 분묘는 요서지역의 전국시대 분묘에서 먼저 확인되며, 전국 중기 무렵에는 요동 서부지역, 전국 후기에는 요동 남단지역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적석목관묘형 분묘들은 세부 구조가 다양하여 요동 서부지역의 것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요동 남단지역의 것과 연결되는 것도 있다. 특히 철기 등장 이전 단계에는 요동 서부지역과 철기 등장 이후 단계에는 요동 남단지역과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같은 분묘 구조 외에 토기류의 부장 관습에서 차별성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요동 남단지역 적석목관묘형 분묘에서는 두형토기를 비롯하여 다수의 토기류가 부장되는 점이 특징인데, 한반도에서는 철기 등장 이후 서북한지역과 동남한지역에서 두형토기 부장묘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요동 서부지역과 서남한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 부장묘는 확인되나 두형토기의 부장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이를 통해 보면 ‘요중지역(심양)–서북한지역–서남한지역’으로 연결되는 관계망과 ‘요동반도(대련)–서북한지역–동남한지역’으로 연결되는 교류망이 서로 구별되며, 여기에는 계보적·시기적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에서 확인되는 적석목관묘형 분묘들은 처음에는 정가와자유형의 영향으로 점토대토기를 부장하며 조영되기 시작하였으나(요동1~2기) 나중에는 윤가촌유형의 파급으로 두형토기를 추가 부장하며 목관

통 積石木棺墓로 이해되나(이청규, 2003, 앞의 글), 목관 사용을 부정하고 積石石棺墓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있다(朴辰一, 2005, 「기원전 3·2세기대 묘제 고찰」, 『國史館論叢』 106). 대부분의 분묘들은 이단 묘광 구조로 판단된다.



〈도면 12〉 서북한지역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의 분류와 출토유물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묘와 함께 더욱 확산되었다고 생각된다(요동3~4기).

서북한지역의 경우 신계 정봉리와 봉산 송산리 유적에서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확인된 바 있다. 토기를 부장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관계망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다만 정봉리의 동모에는 비파형동모의 퇴화 흔적이 남아 있긴 하나 세형동모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요동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과의 교류 관계가 설정된다(요동2기).³⁹⁾ 송산리의 동사, 장방형동부, 주조철부 등을 보면 요동반도와의 교류 관계가 상정된다(요동3기). 이와 달리 초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한국식 세형동검이 출토된 서흥 천곡리는 토착 석관묘의 구조를 나

39) 신계 정봉리 유적의 동모가 한국식 동모의 전형에서 벗어난 선행 형식이란 점을 고려하여 '정봉리식동모'로 설정하는 연구자도 있다(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149쪽). 다만 고원 미둔리 출토품과 달리 이즈웨스트프카 출토품은 한국식 동모의 초기 형식임이 분명하다.

타낸다(요동1~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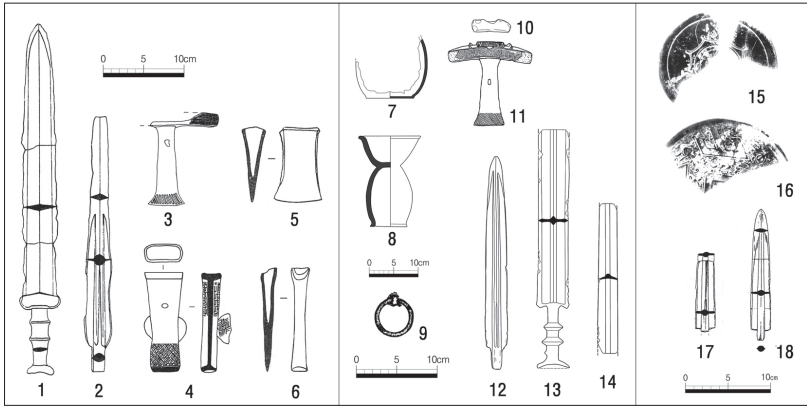
서북한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평양 일대에서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정은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식 세형동검 외에 다뉴세 문경이 출토된 대동 반천리, 한국식 동과나 동모를 기본으로 하는 배천 석산리와 함흥 이화동의 토광묘는 목관묘로 추정된다(요동3기). 고조선의 수장묘급 무덤으로 볼 수 있는 대형 무덤이나 厚葬墓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렇지만 북청 하세동리 토광묘에서 한국식 세형동검·동과·동모와 거여구(車軸頭)가 출토된 바 있어 서북한지역에도 그보다 높은 위계에 속한 분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윤가촌유형의 파급과 변이

요동 남단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즉 윤가촌유형의 서북한지역으로의 파급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합구식 옹관묘를 비롯하여 파수부호, 두형토기, 윤가촌류동검(신송리식동검), 장방형동부 등의 토착계 유물과 중원식동검, 동사 등과 같은 전국연계 혹은 중원계 유물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대형의 파수부호(윤가촌식토기)는 서북한지역에서 봉상파수부호(명사리식토기)로 정형화되면서 널리 파급된다. 신천 명사리뿐만 아니라 평양 낙랑토성과 은율 운성리토성(주거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서북한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두형토기 역시 윤가촌유형의 것은 한반도의 것과 같은 장각식의 나팔두로 유사성이 높고, 평원 신송리 유적에서 두형토기 부장묘가 확인된 바 있어 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가촌유형의 교류 혹은 서북한지역으로의 파급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송리식동검과 장방형동부, 그리고 중원식동검(桃氏劍)이다. 신송리식동검은 윤가촌식동검의 퇴화형식으로 평원 신송리를 비롯하여 평양 석산리, 신천 청산리, 서울 영등포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장해 서가구와 평원 신송리의 출토유물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윤가촌류의 직인형계 세형동검이란 점과 공반되는 T자형검병의 형태와 문양, 도씨검의 병부 형태에서 양자



〈도면 13〉 윤가촌유형의 파급 관련 자료
(1~6: 서가구, 7~14: 신송리, 15~18: 석암리)

간의 긴밀한 관계가 엿보인다.

방제품으로 추정되는 桃氏劍은 윤가촌유형의 장해 서가구뿐만 아니라 재령 고산리, 평원 신송리, 함평 초포리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요동반도-서북한-서남한’을 잇는 일정한 관계망이 상정된다. 동사와 주조철부의 경우에도 요동반도를 거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서북한지역에서 먼저 사용되어 서남한지역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 戰國鏡인 山字文鏡과 秦鏡으로 판단되는 素地連弧文鏡이 석암리 유적에서 공반되었는데, 전국 말~전한 초의 중원계 동경 유입 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이 외에도 위만조선의 토기문화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화분형토기가 윤가촌유형에 이어지는 전한 초기문화에서 확인되는 ‘變形燕式釜’ 또는 ‘遼東式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⁰⁾ 요동반도의 윤가촌유형은 주로 전국 말~전한 초(요동3기)에 전국연계 토기문화와 철기문화가 서북한지역으로 파급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0) 정인성, 2011, 「전국시대 燕의 확장과 고고학적 증거」,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제 49회, 영남문화재단연구원; 宮本一夫, 2012, 「樂浪花盆形土器の成立と展開」, 『第 23回 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交流會 予稿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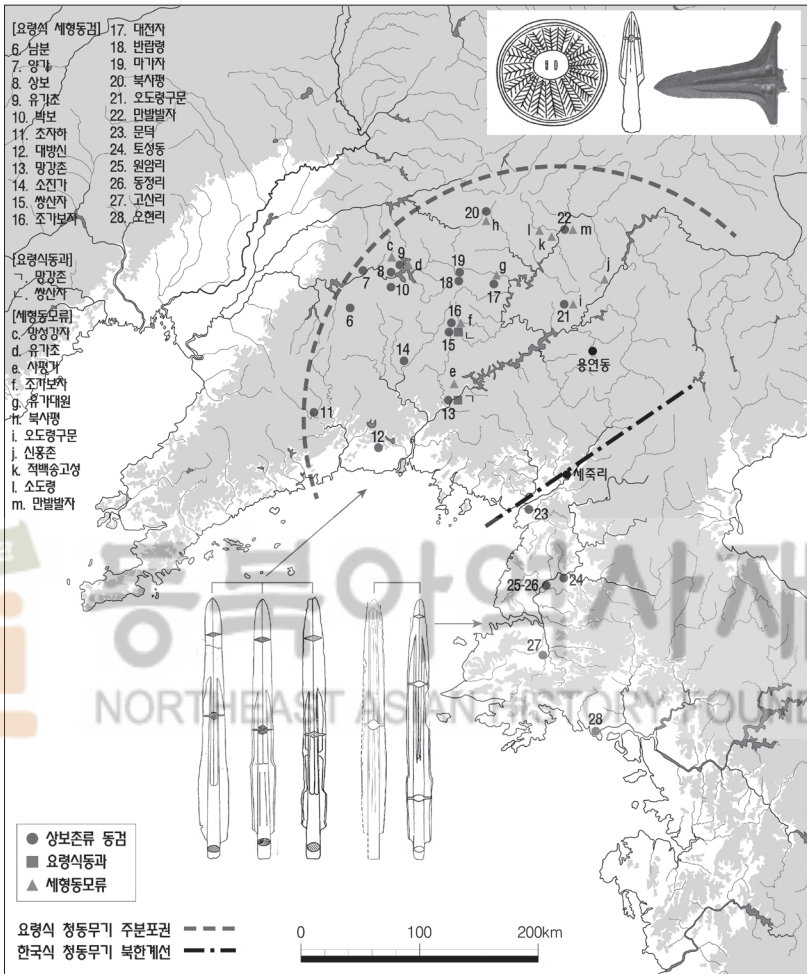
3) 요동 동부지역 요령식 청동무기의 확산과 의미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윤가촌유형과는 달리 일찍부터 서북한지역과 교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청동유물 기종 구성이나 형식들은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보촌류 동검, 요령식 동과와 한국식 동과, 세형동모류와 한국식 동모 등의 청동무기는 다뉴조세문경 등과 함께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의 고고문화가 매우 유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다.

요동 동부지역의 상보촌류 동검들은 검신 하부가 단이 지고, 한국식 세형동검과 같이 등대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와 같은 형식들은 서북한지역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재령 고산리와 평남 문덕, 평양 원암리와 동정리, 연안 오현리, 평양 토성동(M486) 등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연안 오현리 유적에서는 요령식 세형동검과 한국식 세형동검이 공반되어 두 지역 간에 문화 교류와 복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최근에는 전주 원장동 유적에서도 한국식 세형동검과 요령식 세형동검이 공반되어 주목되고 있다(요동2~3기).

한편 요동 동부지역의 요령식 동과와 세신형동모는 각각 한국식 동과와 한국식 동모의 직접적인 조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형식학적 유사성이 높다. 또한 전개과정에서 채용되는 문양, 이를테면 사격자문과 엽맥문은 서북한지역의 한국식 동과나 조세문경에도 표현되어 있어 역시 요령식 청동무기의 파급과 교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형동검문화 단계, 특히 기원전 3세기대의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한지역에는 청동무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청동유물의 구성이나 형식에서 적지 않은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북한지역에는 양 지역의 청동무기 제작집단을 통괄하는 상위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일부 속성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동일 정치체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역집단의 차이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말~전한 초에 서남한지역까지 요령식 세형동검이 파급되는 것은 서남한지역의 수장층이 서북한지역의



〈도면 14〉 요동 동부~서북한지역의 요령식 청동무기의 분포(요동2~3기)

지배층과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에 따르자면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요소가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당연하며, 천산산맥 일대까지 여러 속성을 공유하는 청동무기류와 다뉴동경이 분포하는 것도 상충되지 않는 문화 현상이다.

2_ 세형동검문화의 변동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위만조선이 서북한지역에 있었으며, 그 중심지가 낙랑토성이 위치하는 평양 일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물질자료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문화 양상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는 보통 서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속선상에서 살피거나(趙鎭先, 2005), 낙랑 초기 자료, 특히 기원전 1세기 전반대의 單葬木槨墓 출토 자료를 소급하여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鄭仁盛, 2013). 여기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부 쟁점 사항을 검토하여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에 대해 접근하려 한다.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로 보면 대략 요동3기는 위만조선 전기 단계(위만대)에 해당하고, 요동4기는 위만조선 후기 단계(우거대)에 해당된다.

1) 세형동검문화의 변동과 연식·한식 철기문화

세형동검문화는 요동3기 이후, 즉 위만조선 전기 이후 연식 철기문화와 전한 초의 물질문화를 수용하여 급속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 동부지역의 경우 세형동검은 쌍조형검병이 연결된 조형병식동검만이 잔존하며, 동병 철검 등이 사용되고 승문타날토기가 제작된다. 그렇지만 서북한지역의 평양 일대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한국식 세형동검문화 유적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양 석암리 출토로 전해지는 秦漢代의 증원식동검과 秦戈 혹은 燕式銅鏃 정도가 보이는데 공반유물이나 출토 맥락이 명확하지 않다.

기존 세형동검문화 전통이나 부여 합송리와 같은 주변 수장급묘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면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무기, 다뉴세문경 등의 재지계 유물과 증원식동검이나 동탁, 철제농공구류 등의 증원계 유물이 복합되어 있는 유형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위만조선의 지방이나 중간 지배층과 달리 최고 지배층은 그 이상으로 위세와 대외 교섭력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일부라도 부장되어 있어야만 문헌기록과도 상충되지 않게 된다.⁴¹⁾

이를테면 다뉴세문경과 함께 혹은 이를 배제하고 秦鏡이나 戰國系 漢鏡이 부장되며, 철제농공구에 燕下都 武陽臺 44호묘나 용연동 출토품과 같은 연식 철검·철모 등의 철제 무기류가 추가되고, 弩機·거마구와 같이 위세를 나타내는 유물들이 함께 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이미 동남한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대로 소급되는 철제단검·철모·철사 등의 철기 복합체가 존재하고,⁴²⁾ 연식 단경호나 화분형토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⁴³⁾ 화분형토기는 평양 남경 옹관묘나 은파 갈현리 목곽묘 출토품의 경우 축약 저부를 지닌 古式으로 낙랑 설치 이전으로 편년 가능하다.⁴⁴⁾ 최근에는 夫租 蕤君墓의 피장자를 蕤君 南閭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까지 제기된 상태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馬弩關이 폐지되는 기원전 82년 이후 철제무기의 유출이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철제장검이나 노기 같은 한의 전략무기가 서북한 지역에 거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은 일본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지만 마노관의 설치와 폐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匈奴 때문이며, 朝鮮과 동일한 사정에 처해 있던 南越의 사례에서 보면 전략무기의 대외 금수 조치는 한의 대외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⁴⁶⁾

廣東 廣州漢墓에서 南越王墓(기원전 122년경)와 기원전 2세기대의 관리 무덤에는 노기·철검·철모·철극 등의 한식 무기류의 부장이 현저한데, 특히 남월왕묘에는 다수의 한식 청동무기류·철제무기류·마구류와 함께 토착 청

41) 이청규, 2005, 앞의 글.

42) 김상민, 2012, 「한반도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 문화 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동관, 2013, 「韓半島南部 鐵器文化의 波動-初期鐵器·原三國期 鐵器의 系譜와 劃期」,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 제2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43) 정인성, 2011, 앞의 글.

44) 中村大介, 2009, 「粘土帶土器文化의 土器副葬 變化 및 國際關係」, 『湖西考古學』 21; 정인성, 2011,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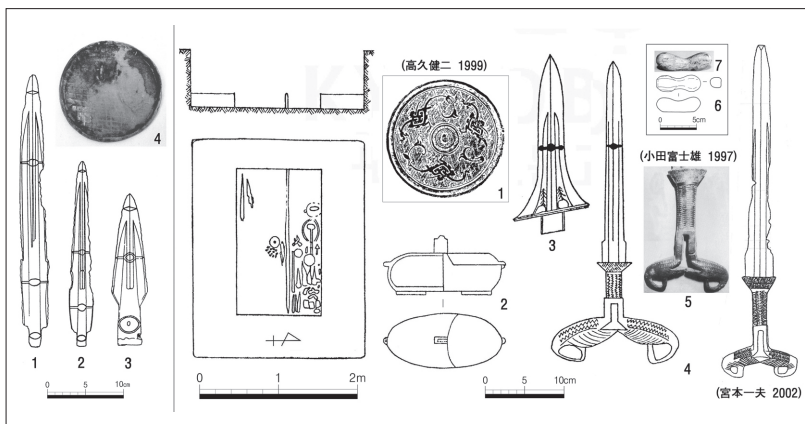
45) 秋山進午, 2008, 「夫租 蕤君墓 銀印」, 『高麗美術館研究紀要』 6; 中村大介, 2009, 위의 글.

46) 岡村秀典, 1999, 「漢帝國의 世界戰略과 武器輸出」, 『戰いの進化と國家の生成』, 東洋書林.

동유물들이 적지 않게 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雲南 石寨山 滇國墓地에서 역시 기원전 2세기 후반대의 무덤에는 재지적인 청동무기류와 함께 한경·노기·철검·마구 등의 한식 유물들이 공반되고 있다. 철제장검의 경우 검신 대부분은 한식인데 부속장식은 滇式이다. 이는 마치 서북한지역의 동병철검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동4기, 즉 위만조선 후기 단계에는 철제무기를 비롯한 한식 철기문화가 상당부분 유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낙랑 초기 목곽묘에서도 한국식 세형동검이나 철제단검이 연접된 동병철검의 형태로 지속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형동검문화의 전통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서북한지역에서 위만조선 최고 지배층의 무덤 후보를 찾아 보면 평양 토성동 486호묘, 석암리 목곽묘(1962), 대동군 상리 등이 있고, 비교 자료로 평양 정백동 1호묘(부조예군묘)와 은파 갈현리 화석동 목곽묘가 주목된다.

위만조선 최고 지배층의 분묘 후보로서 토성동 486호묘의 출토유물은 석암리나 상리 등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요령식 청동무기와 한국식 청동무기가 공반되며 한식 철제무기가 포함되어 있는 대신 거여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도면 15〉 세형동검문화의 교류와 변동 관련 자료

(左 1~3: 오현리, 4: 소아리 / 右 1: 上海博物館, 2~5: 토성동 M486, 6: 월성동 4호묘, 7: 부조예군묘)

특징이다. 한국식 세형동검 6점과 유문동과 1점, 동모 2점, 그리고 쌍조형검병과 상보촌식검신이 연접된 조형병식동검, 반리문경(혹은 細地文鏡) 등이 공반되는 양상은 다른 낙랑 분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형동검문화 전통으로 주목된다.

특히 조형병식동검의 쌍조형검병과 한국식 동과의 엽맥문은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요소다. 다만 조형병식동검은 장백 비기령의 것에 비해 약간 늦을 가능성이 있고, 검병 단부 형태와 장식이 길림이나 요동지역 출토품과 약간 달라 현지에서 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위만조선 후기 단계(요동4기)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반리문경은 上海博物館 소장품과 비슷한데,⁴⁷⁾ 秦鏡으로 추정된다.⁴⁸⁾ 최근 전국~한대 동경의 제작과 부장 시점에 대하여 큰 시차를 두기 어렵다는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⁴⁹⁾ 역시 100년 이상의 전세 기간을 둘 수 없다. 철제무기 중에 鐵戟이나 鐵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연하도의 철제무기도 중요한 자료이나⁵⁰⁾ 漢 武帝代로 편년하면 상충되지 않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보면 토성동 486호묘의 피장사는 대외교역을 관장하는 최고 지배층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성동 486호묘는 방형 목곽묘인 점이 특징인데, 단장목곽묘의 형식 중에 가장 일찍 등장하여 빨리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¹⁾ 그렇지만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혈합장 목곽묘인 정백동 37호묘(북곽)의 구조와 직접 비교하여 연대를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본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단장에서 합장으로 전환되는 하한 연대와 관련된 자료다. 이는 같은 방형 구조인 은파 갈현리 목곽묘가 기원전 100년경 전후로 편년되는 것으로도 방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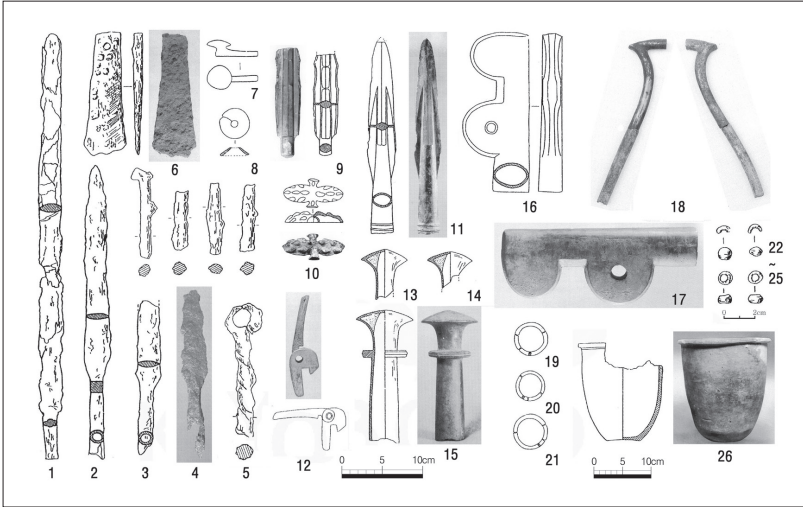
47) 高久健二, 1999, 「樂浪古墳出土의 銅鏡」, 『考古歷史學志』 16.

48) 岡村秀典, 2007, 「中國鏡からみた原三國時代の曆年代」, 『第19回 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交流會 予稿集』, 東アジア考古學會; 鄭仁盛, 2013, 「衛滿朝鮮의 鐵器文化」, 『白山學報』 96.

49) 岡村秀典, 2007, 위의 글.

50) 鄭仁盛, 2013, 앞의 글.

51) 高久健二, 1999, 앞의 글.



〈도면 16〉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관련 자료(은파 갈현리 화석동)

낙랑 초기로 편년되는 다른 분묘들과 비교하면 토성동과 같은 구조이며, 고식 화분형토기와 침형검파두식이 부장된 갈현리가 바로 다음이며, 상리, 부조예군묘, 석암리(1962)는 각기 그 뒤를 잇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거마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이른바 비한식계 거마구의 문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을자형동기와 권총형동기, 석암리식 마면과 상리식 프로펠러형 표비 등을 위만조선의 토착적인 거마구로 보고 비한식계 거마구로 이해하였으나⁵²⁾ 최근에는 전한 중기, 특히 낙랑 설치 이후의 한식 거마구로 주장되고 있다.⁵³⁾

52) 岡内三眞, 1979, 「朝鮮古代の馬車」, 『震檀學報』 46·47; 吳永贊, 2001, 「樂浪馬具考」, 『古代研究』 8.

53) 孫璐, 2012, 「韓半島 北部地域 車馬具의 登場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76.

서북한지역의 초기 거마구는 鑣轡와 이른바 非漢式系 거여구로 대표된다. 초기 거마구는 을자형동기, 삿갓형동기, 권총형동기 등의 청동거여구와 2연식함(2절함), 프로펠러상S자형 표비(이하 프로펠러형 표비), I자형 표비 등의 철제 마구류가 대표적인 기종이다. 낙랑 설치 직전 후의 것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평양 상리, 석암리(1962), 정백동 1호묘, 토성동 4호묘, 갈현리 화석동의 예가 있다. 이와 같은 거마구를 부장한 무덤들은 대개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나 그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낙랑군의 설치 이전으로 보는 입장⁵⁴⁾과 그 이후로 보는 입장⁵⁵⁾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거여구는 蓋弓帽(일산살꼭지)가 논쟁인데, 단장목곽묘에 실용품이 부장되며, 양산(車蓋)과 함께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한다. 다만 현재까지 최고 위계를 상징하는 금제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로 인식되어 왔던 傳 평양 석암리 출토품은 출토 맥락이 모호하고 형태가 특이하여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서북한지역의 평양에는 다양한 형태의 개궁모가 존재하였으며,⁵⁶⁾ 동북한지역의 수레굴대 장식방울(車軸頭鈴)이 출토된 북청 하세동리 토광묘가 전구 말~전한 초(요동3기)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하면 거여구의 출현시점은 늦더라도 낙랑 설치 이전임에 틀림없다.

을자형동기에 대해서는 흔히 쌍두마차(獨輦車)의 고삐걸개(掛繩鉤)로 추정되어 토착적인 거마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나,⁵⁷⁾ 수레를 끄는 방법(系駕法)이나 중원지역 거마구와 비교하면 외두마차(雙輦車)의 멩에(輓) 부속으로 볼 수 있다.⁵⁸⁾ 쌍원차는 漢代 이후 본격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북한지역의

54) 이상울, 2008, 「삼한시대 표비의 수용과 획기」, 『韓國上古史學報』 42; 張恩晶, 2012, 「匈奴係 鑣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아시아研究』 17-1.

55) 孫璐, 2012, 앞의 글.

56)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낙랑유물』.

57) 岡内三眞, 1979, 앞의 글.

58) 孫璐, 2012, 앞의 글. 고대의 馬車는 獨輦車와 雙輦車로 구별되며, 이는 수레채(輓/輓)의 수량 및 연결 방식과 관련된다. 독주차는 중앙부에 돌출된 한 개의 채 양쪽에서 두 마리 혹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이며, 쌍원차는 양쪽에 돌출된 두 개의 채 사이에서 한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가리킨다. 쌍원차의 수레채는 굵은 것

거마구는 非漢式이 아닌 한식 거마구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낙랑군의 영향을 받은 한식 거마구’⁵⁹⁾인지, ‘한식 거마구의 영향을 받은 위만조선 후기 혹은 낙랑 거마구’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동안에 비한식계 거여구로 인식되어온 을자형동기나 관상동기, 권총형동기 등은 쌍원차와 관련된 한식 거여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거여구의 출현시점을 낙랑 설치 이후라고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한편 서북한지역의 초기 마구는 2연식함과 프로펠러형·I자형 표비로 대표된다. 거여구와 달리 마구에서는 한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서북한지역의 특징적인 2연식 재갈과 프로펠러형 재갈머치는 최근 연구를 통해 ‘燕系 鑣轡’임이 밝혀졌다.⁶⁰⁾ 프로펠러형 재갈머치는 2연식 재갈과 세트를 이루는데, 2연식 재갈은 몸체 측면이 천공되어 있는 측면 2공식이 특징으로 연하도의 무양대 수습유물로 대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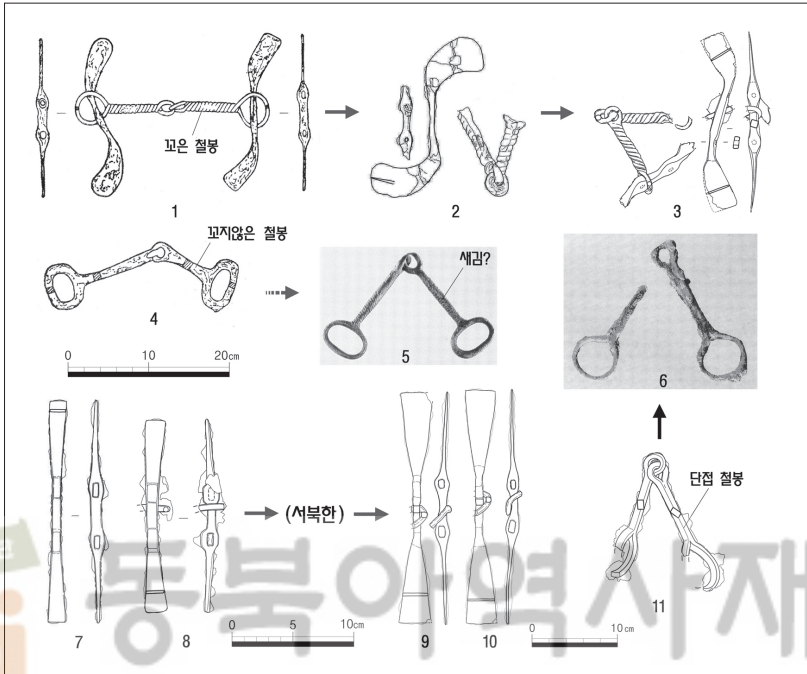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표비들은 전국 말~전한 초(요동3기)에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늦더라도 낙랑 설치 이전에는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북한지역에서는 상리 유적, 동남한지역에서는 성주 예산리 1호묘 출토품이 고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廣州漢墓나 石寨山 滇國墓地의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덤에서 한식 마구류가 부장되는 것을 보면 서북한지역에서 한식 거마구류의 출현 역시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I자형 재갈머치는 서북한지역에서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몽골 도르릭나르스에서 동일한 형태의 것이 확인된 바 있어 흉노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동남한지역에서 출토되며, 경주 화천리의 것이 가장 유사하다. 특히 도르릭나르스 5호묘에서는 I자형 재갈머치와 함께

(曲轡)에서 곧은 것(直轡)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수레체의 연결방식도 멍에대의 아래쪽에 연결되는 방식에서 멍에 받치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59) 孫璐, 2012, 앞의 글, 100쪽.

60) 李昌熙, 2007, 「嶺南地方으로의 鐵器文化 流入에 대한 再考－鑣轡를 중심으로」, 『考古廣場』 창간호; 이상울, 2008, 앞의 글.



〈도면 17〉 서북한지역의 연한계 마구와 흉노계 마구 및 비교 자료

(1·4: 연하도 무양대촌 수습, 2: 상리, 3: 성주 예산리 1호묘, 5, 토성동 4호묘, 6: 석암리(1962), 7: 몽골 도르리나르스 2호묘, 8·11: 몽골 도르리나르스 5호묘, 9·10: 경주 화천리 5호묘)

철봉을 꼬지 않고 단접하여 만든 2연식 재갈이 공반되어 '匈奴系 鑣轡'로 규정할 수 있다.⁶¹⁾ I자형 재갈머치와는 달리 단접식의 2연식 재갈은 석암리 목곽묘(1962)에서 확인된 바 있어 위만조선에도 흉노계 표비가 수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서북한지역의 초기 거여구가 한식으로 추정되는 것과 달리 초기 마구류는 燕漢系 표비와 匈奴系 표비가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북한지역에서의 출현 시기는 늦더라도 위만조선 후기 단계(요동4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상리 유적의 재갈은 세부 형태에서 예산리 1호묘의 것과 같은 단계에

61) 張恩晶, 2012, 앞의 글.

속할 가능성이 높아 부장연대가 낙랑 설치 직후일 가능성이 있다. 석암리(1962)의 것은 낙랑 설치 후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도르릭나르스 2호묘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반대의 方格規矩鏡과 공반되어 5호묘의 표비 역시 낙랑 설치 이전으로 올려보기 곤란하다. 그렇지만 흉노지역에서 이와 같은 표비가 전한대에 널리 사용되던 형식이고, 약간 변형된 화천리 5호묘 출토품이 기원전 1세기 후엽이란 점을 고려하면 흉노계 마구 자체는 낙랑 설치 전에 서북한 지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 맺음말

기존 연구에서 세형동검문화 단계 고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은 주로 서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청천강유역을 경계 삼아 그 이북의 이른바 세죽리-연화보유형은 연문화에 속했다가 고구려가 발흥하는 지역이며, 그 이남의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는 고조선의 영역을 반영하는 문화라는 설명 방식이다. 또한 燕의 요동 진출로 말미암아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는데, 이때 비파형동검이 한국식 세형동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요령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에서 바로 전국연계 철기 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어 중원문화에 대응하는 토착문화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요령지역에도 한국식 세형동검에 병행하는 지역 형식으로 요령식 세형동검이 분명 존재하였으며, 이는 비파형동검문화의 퇴행적인 요소 혹은 한국식 세형동검의 선행 형식이 될 수 없다.

요령지역에도 세형동검·동과·동모 등의 무기류와 다뉴경과 같은 관련 유물들로 구성되는 토착 세형동검문화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요동1기 전후 전국연과 경쟁하며 성장했던 고조선의 시공간적 문화 범위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장 진개의 요동 경략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면 요동2기 서북한지역에서 등장하는 신종 청동무기는 한국식 세형동검이 아니라 요령식 동과와 세신형동모가 전이되어 만들어진 한국식의 세형동과와 세형동모라고 할 수 있다.

요동2기에는 서북한지역과 요동 동부지역에는 유사 형식의 청동무기가 일정한 분포정형을 나타내며, 양 지역에 형태와 제작기법에서 유사성이 높은 청동유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제작집단을 통괄하는 상위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서북한지역과 요동 동부지역의 세형동검문화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후 기원전 3세기대의 고조선의 문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요동3기에는 요동반도의 윤가촌유형이 서북한지역으로 파급되어 직인형의 세형동검, 두형토기를 부장하는 적석목관묘, 파수부호를 사용하는 합구식 옹관묘가 등장한다. 방제된 중원식동검이 확산되는 관계망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齊가 위치했던 산둥반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관계망은 요동2기부터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遼東式釜에서 화분형토기가 성립하고, 한식 단경호가 전해지는 전파망도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세형동검문화의 변동과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형성과정에서 윤가촌유형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동4기에는 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서 토착적인 요소 외에 전국연계 계·한계·흉노계 등의 다양한 문화요소가 확인된다. 위만조선에는 전국연계 철기 제작기술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대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철검·철모·철과 등과 같은 철제무기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조형병식동검이나 동병철검으로 대표되는 토착 동검문화의 전통 역시 지속되는 것도 확인된다. 연계 또는 한계 거마구는 늦더라도 이때부터 제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에는 세형동검문화 요소에서 요령식 청동기보다는 한국식 청동기가 우세한데 이는 유이민계 위만 집단과 연합했던 토착 집단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주로 한국식 세형동검문화에 기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준왕 이전 서북한지역의 고조선은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전통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위만조선 최고 지배층은 철제무기와 거마구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권위를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계와 한계의 전통이 섞여 있었으며, 이후 흉노계 마구의 전통까지 수용하여 대외 교류의 정점을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 토성동 486호묘와 같은 일부 분묘에는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10, 『요령 고대 문물전』(특별전 도록).
- 미야자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선미, 2010,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 李健茂, 2003, 『韓國式銅劍文化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고학회 편, 2010, 『개정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 강인욱,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韓國古代史學報』 64.
- 高久健二, 1999, 「樂浪古墳出土의 銅鏡」, 『考古歷史學志』 16.
- 김상민, 2012, 「한반도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 문화 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孫璐, 2012, 「韓半島 北部地域 車馬具의 登場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76.
- 송호정,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40.
- 吳江原,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地域의 燕나라 遺物 공반 유적의 諸類型과 燕文化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 吳永贊, 2001, 「樂浪 馬具考」, 『古代研究』 8.
- 尹龍九, 1990,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 李南珪, 2006, 「한대 철제병기의 유입과 의미」, 『낙랑문화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이동관, 2013, 「韓半島南部 鐵器文化的 波動」,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 제2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이상울, 2008, 「삼한시대 표비의 수용과 획기」, 『韓國上古史學報』 42.
- 李盛周, 2007,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계와 한반도 문화변동」,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학연문화사.
- 李清圭,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 이청규,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 李清圭·金東一, 2013, 「靑銅劍柄의 初期鐵劍에 대하여」, 『亞細亞鑄造技術史學會 研究發表資料集』 7, 아시아鑄造技術史學會.
-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遼寧式細形銅劍을 中心으로」, 『崇實史學』 21.

- 李厚錫, 2013, 「세형동검 단계 중국 동북지역의 동과와 동모 - 요령식 동과와 유엽형동모 · 세신형동모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87.
- 李熙濬, 2011, 「한반도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 張恩晶, 2012, 「匈奴係 鑣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아시아研究』 17-1.
- 정인성, 2011, 「전국시대 燕의 확장과 고고학적 증거」,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제49회, 영남문화재단연구원.
- 鄭仁盛, 2013, 「衛滿朝鮮의 鐵器文化」, 『白山學報』 96.
- 趙鎮先, 2004, 『細形銅劍文化의 展開過程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趙鎮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 趙鎮先, 2013,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 『고조선 ·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단국대학교.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藏文物精華』, 科學出版社.
- 井中偉, 2006, 『先秦時期青銅戈·戟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陳平, 2006, 『燕文化』, 文物出版社.
-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 胡保華, 2011, 『中國北方出土先秦時期銅鉞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大貫靜夫 編,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考古學研究室.
- 岡内三眞, 1979, 「朝鮮古代の馬車」, 『震檀學報』 46 · 47.
- 岡村秀典, 1999, 「漢帝國の世界戦略と武器輸出」, 『戦いの進化と國家の生成』, 東洋書林.
- 岡村秀典, 2007, 「中國鏡からみた原三國時代の曆年代」, 『第19回 東アジア古代史 · 考古學研究交流會 子稿集』, 東アジア考古學會.
- 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 · 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 · 秦 · 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會.
- 宮本一夫, 1985, 「七國武器考 - 戈 · 戟 · 矛を中心にして」, 『古史春秋』 2.

- 小林青樹, 2008, 「東北アジアにおける銅戈の起源と年代 - 遼西式銅戈の成立と燕・朝鮮への影響」,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雄山閣.
- 小林青樹, 2011, 「細形銅矛の起源」, 『栃木史學』 25, 栃木短期大學史學會.
- 小田富士雄, 1997, 「一鑄式銅劍'覺書」, 『下關市立考古博物館研究紀要』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and Gojoseon in the
Liaodong Area and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Yi Whoseok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was distributed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Liaodong area.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belongs to the Dot Zone of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of the Liaoning style and the Korean style.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in the Liaodong area developed in the southern and eastern areas of the Qianshan Mountain Range(千山山脈). Since assemblage such as tombs and bronze arms revealed separate characteristics in time and space, it is possible that this area designates the regional culture of the Yinjiachun Complex(尹家村類型) and the Jimingcheng Complex(上堡村類型).

The Yinjiachun Complex revealed the aspects of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in the Liaodong Peninsula, and it wa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material culture of Wiman Joseon(衛滿朝鮮). The tombs with wooden coffin filled with stones(積石木棺墓), the tombs with cymbal-style jar coffins(合口式甕棺墓), the Yinjiachun-style Slender Bronze Daggers(尹家村類銅劍) and pottery(尹家村式土器), and mounted dishes called dou(豆) also were main cultural elements.

The Liaoning-type bronze arms identified for the Slender Bronze Daggers Phase in eastern Liaodong(belonging to the Jimingcheng

Complex)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Korean type of bronze arms. The Jimingcheng-style Slender Bronze Daggers(上堡村類銅劍), the Liaoning-type Bronze Halberd(遼寧式銅戈) and bronze spearheads(細形銅鏃類), and other objects identified for the Slender Bronze Daggers Phase were principal cultural elements.

Weapons that share various attributes are distributed throughout eastern Liaodong and the northwest Korean Peninsula. These weapons include the bronze dagger, the bronze halberd, and the bronze spearhead. As a result, we can know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in the third century BCE did not terminate at the Cheongcheon River(淸川江). It must be the culture of late Gojoseon(古朝鮮).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or of Wiman Joseon showed political authority by using iron weapons and chariot fittings and harnesses. In the material culture of Wiman Joseon, there are various culture elements, such as the Zhongyuan style of Yan China(燕) and Han China(漢), and the Xiongnu(匈奴) style, including the native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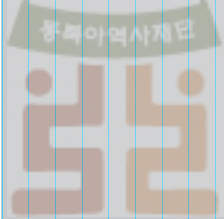
Liaodong area, Liaoning-type bronze dagger, Korean-type bronze dagger, Slender Bronze Daggers Culture, Yan, Han, Gojose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김재웅 | 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어문화사업단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해방과 함께 약 75만 명에 달한 재조선 일본인들은 패전국민의 지위로 전락했다. 그들 가운데 재북한 일본인 인구는 약 25만 명을 헤아렸다. 그들의 귀국은 해방직후부터 1947년 말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귀국전의 재북한 일본인들이 소련군·북한당국·조선인들로부터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처우를 받았는지 규명함과 함께 그들의 대응을 추적하고자 한다.¹⁾ 아울러 이 연구는 일본인 대부분이 귀국한 뒤에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북한의 산업재건을 지원한 일본인 기술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과제에도 주목하고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5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 1) 해방 후 재조선 일본인들의 위축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귀국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연식, 2012,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김경남, 2008, 9,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305~359쪽; 최영호, 2008, 9,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263~303쪽.

있다.

재북한 일본인 문제는 현실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향후 북일수교 교섭이 재개된다면 일본 측이 과거 북한의 일본인 억류와 사유재산 몰수문제를 협상범주에 포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현안인 재북일본인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관점 차이는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넘어 학문영역에까지 날카롭게 연장되고 있다. ‘일본인 고위관리 처벌’, ‘일본인 사유재산권 박탈’, ‘일본인 기술자 억류’ 등의 문제에 대해, 당대 조선인들이 일제유산의 극복을 모색한 탈식민 과제의 해결이란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당대 일본인들은 부르주아 국가 법의 형식논리에 기초하여 그러한 북한의 대응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필자는 해방직후 한반도에 잔류한 일본인들을 향해 분출된 조선인들의 반일감정과 그 기저에 놓인 민족주의가 모든 면에서 정당했다고 변론할 생각은 없다. 사실 당대의 식견 있는 조선인들조차 일본인 학대로까지 치달은 반일행위의 이면에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을 ‘민족 배외주의’의 징후라고 진단하기까지 했다. 그러한 반성을 겸허히 수용한 이 연구는 더 나아가 일본 측이 집착하고 있는 문제제기들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연 일본인들의 주장대로 해방 후 일본인 기술자 집단은 북한에 강제억류되었던 것일까?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몰수되었다는 점만이 진실의 전부일까? 그 두 가지 민감한 사안들은 북한당국과 재북일본인 양자 간 문제라기보다 소련 측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3자 간 이해관계를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일본 측의 논리가 이미 사실관계에 오류를 안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그간 재조선 일본인 문제는 재일조선인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재일 조선인 문제가 한국 근현대사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민족문제인 반면, 재조선 일본인 문제는 아무래도 일본 근현대사의 한 범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만일 그들의 역사가 공백으로 남는다면, 한국 현대사의 여러 중요국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곧 그들의 역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국

현대사도 온전히 복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북 일본인 문제는 우리 학계가 모든 것을 터놓고 논의하기에 불편한 감이 없지 않다. 재일 조선인 문제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 선 한국 측은 정당하게 일본의 과거를 비판할 수 있다. 반면 재북 일본인 문제만큼은 조선인 측도 가해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방직후 38이북지역 일본인들이 거의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당한 채 귀국한 사실, 38이북지역에 거주한 일본인 약 25만 명 중 3만 5천여 명이 전염병·굶주림·추위에 희생되었다는 점 등은 한국 현대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다. 일제시기 내내 조선인들은 피해자였으나, 해방과 함께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조선인들의 '민족 배타주의'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실은 일제유산 척결을 모색한 조선인들이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재조선 일본인 문제를 비롯한 일제유산·진일과 청산문제는 적정수준의 척결과 과도한 처단 사이에서 좀처럼 균형을 찾기 힘든 문제였다. 그러한 적정선이 과연 어느 지점에 놓일 수 있는가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 연구가 고민해야 할 몫이다.

II. 해방직후 소련군의 반일정책과 일본인 전직관리 척결

오랫동안 억제돼온 조선인들의 자치욕구가 해방과 함께 표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 결성된 조선인 자치기구들이 점차 와해되고 있던 일제 통치권력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조선인들의 통치권 접수는 일본인들이 독점해 온 제 기관들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38이북지역의 권력 인계 작업은 1945년 8월 19일부터 착수되었다.²⁾ 38이남과 달리 38이북지역에서 조선

2) 柳文華, 1949, 「解放後 四年間の 國內外 重要日誌」, 『北韓關係史料集(이하 史料

인들의 일제 권력기구 접수가 가능했던 결정적 요인은 소련군 주둔에 있었다. 소련군이 평남지역 일본군·경찰관의 무장해제와 무기접수를 공지한 8월 26일, 25군 사령관 치스짜코프대장은 “평남 일본 정부는 소멸한다. 모든 일본인 관리는 퇴관한다. 일본군은 모두 포로로 처우한다”는 요지의 포고문을 발표했다.³⁾ 그 무렵 함경남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포고문이 소련군 측으로부터 발표되었다. 함경남도 내 정권기관·금융재정기관·교통운수기관·통신기관·산업기관 등 일본인들이 소유해온 모든 기관과 자산을 조선인 자치조직 함경남도임시인민위원회에 위양한다는 요지의 포고문이었다.⁴⁾ 일본인들은 각지 인민위원회의 행정권 장악이 혁명의 이념으로서 민족해방을 이루려는 조선인들의 급진적 열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⁵⁾ 그러한 열망에 일본인들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일제 권력의 일소였다. 조선인들은 그것이 일제 권력기구의 접수와 아울러 기존 일본인 고위관리들의 체포·처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에 협력한 관리를 일컫는 이른바 ‘前職者’의 체포·처벌은 소련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소련군은 일본인들이 행사해온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긴 뒤, 일본인 행정관·사법관·경찰관의 체포에 착수했다.⁶⁾ 군인과 동급으로 간주된 경찰관·형무관과 함께 판검사 등의 사법관도 체포대상에 포함되었다. 1945년 9월 하순경 평안북도 사법관·경찰관 약 450명이 체포되어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38이북 전역에 걸쳐 체포된 전직 경찰간부 총 수가 약 1,800명에 달했다. 고위 행정관리들도 체포되었으나 체포대상자 직급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도지사·부윤·경찰부장·경찰부 산하 각 과장이 공통적으로 체포되었고, 지역에 따라 부장급·군수·과장급·세무서장·형무소장·신문사사장 등이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集』7, 572쪽.

3)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戦の記録』, 東京: 巖南堂書店, 184·185쪽.

4) 磯谷季次, 1980, 『朝鮮終戦記』, 東京: 未來社, 122쪽.

5)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92쪽.

6) 이하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186·190~192·198·199쪽 참조.

전직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반소행위 연루자, 소련 첩보원을 검거한 자, 흥남지역 해군 로켓연료 제조공장인 'NZ공장' 해체 책임자, 청진시 무선전신국 관계자 등도 체포돼 소련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조선인들이 검거의 표적으로 삼은 일본인 전직자들은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 탄압에 연루된 경찰관·사법관 등에 집중되었다. 이를테면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검찰소는 1945년 8월 말~9월 초에 걸쳐 고위 경찰간부와 지방법원 판검사 7명을 검거하였다.⁷⁾ 평안북도 정주군의 전직자 체포 대상범위는 훨씬 컸다. 1945년 9월 11일에 체포된 정주지역 검사·판사·군수·경찰서장·특고과장·읍장·국민학교장·보선구장·기관구장·세관리·경방단장 등 24명이 모두 민족해방운동 탄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들은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신의주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전직자 체포행위에 큰 불만을 품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디까지나 “관리로서 국가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일원이 전직자로 체포돼 탄원서를 제출한 한 일본인은 조선인 사법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우리들도 일찍이 공산주의 이상과 그것이 명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일본인들의 재판을 통해 범인이 되었고 오랜 형기를 받았다.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⁸⁾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그러한 대응이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보복을 의미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조선인 운동가들은 일제의 법이 공산주의자들을 반체제 사상범으로 규정했듯, 북한의 법은 전직자들을 조선인들의 정당한 국권회복운동을 방해한 정치범으로 규정했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법적 형식논리를 중시한 일본인들이 북한의 법과 사법제도가 지닌 빈틈을 골라내 전직자 체포행위의 보복적 성격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국경경찰관 전력이 드러나 ‘건국방해,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형기를 치른 한 일

7)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173·857쪽.

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862쪽.

본인의 경험이 그 전형적 사례였다.⁹⁾ 그는 일제 경찰관으로서 조선 독립운동가들과 교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교전행위에 독립운동가 살해혐의를 씌운 조선인 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제 사법관의 사형선고를 살인행위로 간주한 점,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30여 년 전의 일까지 처벌대상에 망라한 점 등도 일본인들에게 정당한 법적 조치라기보다 보복에 다름 아니라고 인식되었다.

조선 해방 후 전직자로서 형을 치른 다카하시 히데오[高橋英夫]는 자신에게 전달된 기소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피심자 高橋英夫에 대한 악질 전직사건. 평북 내무부장이란 중요 직을 역임하고 조선민족을 압박·착취한 일본인 악질 전직자이다. …… 右者が 위 직무로서 조선민족을 압박·착취한 일은 악질 전직에 해당하는 죄를 구성하고 ……”라는 기소장에 구체적 혐의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관·경찰관·형무관이 모두 악질 전직자 혐의’를 받았다는 점, 악질 전직자들이 ‘재직기간 중 조선인 사상가·혁명가를 탄압한 사람들’이라고 간주되었다는 점 등은 해방 후 징역형을 치른 다른 일본인 전직 관리들에게도 매우 부당해 보였다. 그러한 처벌의 법적 정당성에 의구심을 품은 일본인 전직자들은 ‘악질 전직자 규정’이 법령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막연한 외연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사실 일본인 전직자 처벌은 북한의 사법기구가 체계를 갖추기 전부터 시작된 데다, 정교한 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일제 식민통치의 단죄는 불가피한 과제였고, 당연히 그 표적은 전직 고위관리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전직자 처벌이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혐의에 의존하기보다, 해방직후 고조된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에 좌우됨에 따라 일본인들은 그를 보복행위로 인식하였다.

1945년 9월 중순경 아직 사법기관이 조직되지 않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민족반역자 군중재판도 판결이 격앙된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에 좌우된 사례

9) 이하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863~865쪽 참조.

였다.¹⁰⁾ 그 판결은 일본인 10명과 조선인 1명에 사형을 언도했다. 11월 초에 조직된 강원도 검찰소가 철원시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소련군의 명령에 따라 집행이 중지되었다. 조선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한 일본인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는 1945년 10월 중순경, 함경남도 내 일본인 철도기술자·하급관리·사무원 등 350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거된 사건을 비판했다.¹¹⁾ 그가 보기에 이 사건은 전직자 체포에 비하면, 어떠한 명분도 없는 조선인들의 과민반응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반일감정 분출은 그들 못지않은 소련군의 적극적 반일정책으로부터 추동되었다. 러일전쟁이 낳은 반일감정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소련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인 조선이 극동지역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진단했다.¹²⁾ 따라서 일제유체 척결에 열성을 보인 소련군은 조선인들의 반일감정 분출을 억제하기보다 반일선동을 주도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적극적 반일행위를 이끌어냈다. 해방 직전 대일전에 착수한 소련 비행기가 살포한 빠라는 “소련군은 조선 민족해방을 위해 진공한다. 조선인민은 각지에서 쫓기해 일본인을 살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¹³⁾ 심지어 해방 후 소련군 간부들은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재산이 모두 조선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가두연설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한편 조선인들의 반일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¹⁴⁾ 해방군 역할을 자처한 소련군의 반일정책은 25군 사령관이 발포한 명령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그 명령서는 “소련군은 약탈자들을 타도할 목적으로 북조선에 들어왔다. 소련 군대는 조선 영토의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목표와 함께, ‘일제잔재 척결’과 ‘반일 민주주의 단체 결

10) 江原道檢察所, 1946. 4. 22, 「北朝鮮 第二次 司法責任者會議 江原道 事業報告書」, 『史料集』 9, 10·11쪽.

11)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33쪽.

12) 전현수, 2002. 11,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집, 35쪽.

1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51쪽.

14)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216쪽.

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⁵⁾

'약탈자들을 타도'한다는 소련군의 목표는 전직 일본인 행정관·사법관·경찰관의 체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러한 활동은 중앙수준뿐만 아니라 지방수준에까지 연장되었다. 황해도 재령군의 경우 '현역 관계자와 경찰관리 약 60명'이 소련군에 검거되었다.¹⁶⁾ 전직 행정관·사법관·경찰관의 체포가 간부급에 집중된 반면, 군인들의 체포는 지위 고하에 국한되지 않았다. 치스짜코프 대장은 모든 일본군이 포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¹⁷⁾ 1945년 9월 하순부터 소련으로 이송되기 시작한 북한지역 일본군 규모가 68개 대대 약 66,000명에 달했다.¹⁸⁾ 38이남지역 일본군이 미군 진주 후 3개월 만에 무사히 본국으로 송환된 반면, 소련에 이송된 38이북지역 일본군은 시베리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1949년 1월 6일, 그들 가운데 3,182명의 조선인이 북한지역으로 귀국하였다.¹⁹⁾

소련군의 반일정책은 전직 관리와 군경의 체포에 그치지 않고 일제기관과 일본인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이미 토지개혁 이전인 1945년 12월에 일본인들의 공사유토지·임야·하천·소택(沼澤)·목장·여장·수리시설 등을 몰수하여 인민위원회나 농민단체에 관리를 위임하라는 지시가 소련군사령부로부터 시달되었다.²⁰⁾ 일제 관리들의 업무 처리방식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1946년 7월 각 도 보안부장회의에 참석한 소련군 장교 사구루진 대좌는 체벌·고문 따위의 '일제시기 방법을 조속히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²¹⁾

소련군의 반일정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일제시기부터 함

15) 柳文華, 1949, 앞의 글, 578쪽.

16) 黃海道 管内 裁判所·檢察所, 1946, 「情勢報告」, 『史料集』 9, 185쪽.

17)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84·185쪽.

1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199·200·202·349쪽.

19) 柳文華, 1949, 앞의 글, 792쪽.

20) 北朝鮮 農林局長 李舜根, 1945. 12, 「소련군사령부 명령에 의한 임시조치 시정요강」, 『史料集』 25, 58·59쪽.

21) 1946. 7, 「第二回 各道 保安部長 會議錄」, 『史料集』 9, 253쪽.

경북도 경성군에 거주해오다 1947년 초 월남한 32세의 러시아인 얀코프스키(Yankovskii, Янковский)와 그의 아내가 미첩보기구에 고백한 경험담은 소련군의 친일 전력자 체포열풍이 재조선 러시아인 사회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준다.²²⁾ 얀코프스키의 아버지는 러시아혁명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목마장을 경영한 백러시아계 끌락이었다. 그는 1922년의 박해를 피해 전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조선령인 함경북도로 이주한 뒤, 다른 백러시아인들과 함께 재조선 러시아인 사회를 이루어 사냥과 사냥객 숙박 등의 관광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해방직후 조선에 진주한 소련군이 부일전력을 지닌 얀코프스키의 아버지와 일제 해군부대에 복무했던 사촌을 체포하면서, 그의 가족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다. 부일전력이 없었던 그도 곧 소환되어 부친과 일제의 관계, 일제에 협력한 다른 백러시아인들의 활동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았다. 평양으로부터 소련 시민의 자격이 있는 백러시아계 이주민들의 명단이 내려왔으나 그의 가족은 빠져 있었다. 보안기구의 한 친구는 미군 점령지역으로 달아나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얀코프스키에게 귀띔해주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함경남도 고원군-평안남도 평양-황해도 사리원-황해도 학현을 경유한 기차여행에 나섰다. 이어 38선 월경밀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인 상인무리에 끼어 38선을 넘을 수 있었다.

소련군사령부의 반일정책은 불량한 기질을 지닌 소련 사병들의 잠재된 일탈욕구를 자극했다. 패전국민의 지위로 전락한 38이북지역 일본인 민간인들은 약탈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1945년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한 소련 군인들의 폭행·약탈은 이듬해 3월로 접어들어서야 진정세를 보였다.²³⁾ 병력이 기본소양을 갖춘 군인들로 교체됨과 함께, 헌병대가 일탈 군인들을 엄중히 처벌한 탓이었다. 그 무렵 소련 군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입힌 피해

22) 이하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1989,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1(1945. 12. 1~1947. 3. 31), pp. 476·477 참조.

23) 鎌田正二, 1970, 『北鮮の日本人苦難記-日室興南工場の最後』, 東京: 時事通信社, 91·96쪽.

중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소련 군인들의 관심을 피하고자 머리를 밀어 남장을 하고 다녔다.

여성에 집착한 소련 군인들의 불량한 행실은 일본인 어린이들의 놀이문화에 반영되었다. 그들의 놀이언어는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와 러시아어만으로 이루어졌다.²⁴⁾ 소련군 역할을 맡은 아이가 대뜸 “마담 있소? 돈 많이 있소!”라고 말하며 다가가자, 일본인 남자 역할을 맡은 아이가 “니에트(Нет, 아니오), 마담 없소!”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소련 군인 역의 아이가 일본인 여성 역할을 맡은 여자아이를 발견하더니, “마담 다바이(Давай, 내놔!)”라고 외치며 뒤쫓았다. 세 명이 영키어 쫓고 도망가고 가로막는 놀이가 반복되었다.

Ⅲ. 조선 내 반일정서의 분출과 일본인 차별

일본인들을 향한 반일정서의 표출과 적대행위에 관여한 이들은 소련군과 조선인 당국자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광범한 조선 민중들이 그들보다 먼저 반일감정을 드러내고 반일행위에 가담했다. 일본 천황의 종전 조칙이 발표된 해방 당일, 흥남 'NZ공장' 노역에 동원된 메이지전문 학생들이 공장 뒷산에 올라 분개하며 대책을 논의할 때, 원산상업학교 조선인 학생 징용자들은 목청껏 만세를 외쳤다.²⁵⁾ 흥남공장 일본인 여성 종업원들과 부속병원 간호원들이 방구석에 모여앉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 조선인 노동자들은 태극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소가야 스에지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인과 조선인의 지위가 뒤바뀌었음을 절감하였다. 그는 어느 조선인에게 부당행위를 한 뒤, 해방

24) 鎌田正二, 1970, 위의 책, 96·97쪽.

25) 鎌田正二, 1970, 위의 책, 35쪽.

후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한 일본인의 하소연을 들었다.²⁶⁾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그의 애원에 못 이겨, 이소가야 스에지는 조선인을 찾아가 대신 사죄하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뒤바뀐 처지는 노동임금과 배급량에도 반영되었다. 해방 전 흥남공업지구 일본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조선인들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1946년 2월 현재 상황이 역전되어 조선인들은 하루 평균수입이 6월에 지나지 않은 일본인들보다 두 배 많은 월 임금 360원을 받았다.²⁷⁾ 함경남도 검찰부 정보부장 이상복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하루 1인 당 2홉(合)의 식량을 배급받은 반면, 조선인들은 3홉(合) 5작(勺)을 배급받았다.²⁸⁾ 일본인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임금·배급 면의 민족차별에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인 차별은 일상의 삶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잔재 척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의미를 오해한 조선인 상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물품 판매를 거부했고, 조선인 어린이들은 일본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일삼았다.²⁹⁾ 해방직후 조선인 농가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야 했던 한 일본인 여성 간호원은 “야야! 일본놈들아! 패배한 4등 국민들아!”라는 고함과 함께 돌을 던지며 포위해오는 아이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직후 안재홍은 일본인들을 겨냥한 적대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방송연설을 통해 조선인들의 지중을 당부하였다. 일본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언어동정에 주의하여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재일 조선인들이 당하고 있는 수난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³⁰⁾ 그러나 안재홍의 연설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일

26)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저·김계일 역, 1988, 『우리 청춘의 조선』, 사계절, 238쪽.

27)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14~15쪽;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70쪽.

28) 磯谷季次, 1980, 위의 책, 189·190쪽.

2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771쪽;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125쪽.

30)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79·80쪽.

제와 일본인들을 향한 조선인들의 적대행위는 해방 전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각지각소에 적기를 내건 조선인들은 일본 군용 자동차와 우마차에 실린 적재품을 탈취하며 전투 방해활동에 가담했다.³¹⁾ 이어 해방 당일 밤 평양신사의 방화를 시작으로 각지의 신사·불안전이 파괴되었다. 평양신사를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소돔의 성’이라 묘사한 극작가 오영진은 그 방화사건을 가리켜 ‘일본제국의 灰爐인 동시에 새로운 고려의 첫 烽火’라고 평했다.³²⁾ 항일투쟁의 한 형태로 일제시기에 간혹 발생한 경찰서·학교 방화사건들과 달리, 신사의 방화는 해방 후에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사의 방화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결됨에 따라 조선인들의 반일행위가 통제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예고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제 일제통치의 상징이었던 억압기구들과 그 책임자들도 조선인들의 적대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상해 파견원으로 백범 김구 수사에 관여한 바 있는 하라타 다이로쿠(原田大六)와 쓰보다 반소(坪井盤松)가 저격된 사건은 일본인들 사이에 커다란 불안감을 조장했다.³³⁾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서울에 도착하자, 그들의 검거에 관여한 경무국 관계자들은 서둘러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사건·사고를 집계한 조선총독부의 통계는 조선인들의 분노 표출대상이 경찰기구와 경찰관들에 집중되었음을 드러낸다. 그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경찰관서 습격·점거·접수요구가 149건, 총기·탄약 탈취가 41건, 행정관청 습격·점거·파괴가 86건, 신사·불안전 방화·파괴가 136건, 일본인 경찰관 폭행·협박이 66건, 일반 일본인 폭행·협박이 80건에 달했다.³⁴⁾ 일본인들을 겨냥한 살상사건의 구체적 통계치는 살해 6명, 상해 8명, 구타폭행 21명 등이었다. 자살한 일본인은 25명에 달했다. 경찰관·학교장과 그들의 가족이 살상자의 다수를 점했다. 이는 일

31)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47쪽.

32) 吳泳鎭, 1952, 『하나의 證言』, 國民思想指導院, 23쪽.

3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670쪽.

34)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94·95쪽.

제시기에 조선인들의 원한을 산 일본인들이 바로 그들에 집중되었음을 드러낸다.

일제시기에 더 많은 학대와 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조선인들일수록 반일감정의 표출을 적극화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 징용자들은 과거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청을 비롯한 일제기관과 일본인들을 압박했다.³⁵⁾ 특히 부산지역에 반일감정이 고조된 까닭은 그곳이 조선인 징용자들의 귀한 집결지였기 때문이다. 반일정서를 악용해 범법행위를 일삼는 조선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인 주택을 겨냥한 강도행각과 ‘약탈’이 종종 ‘36년間に 걸친 일본의 조선인 착취’를 구실로 합리화되었다.³⁶⁾ 남하하는 일본인 피난민들은 그들을 노린 직업적 강도들의 횡포에 시달렸다.

일본인들은 그들을 향해 분출된 반일감정과 적대행위의 원인이 조선 민족주의의 대두에 있다고 보았다. 이소가야 스에지를 방문한 일본인 지인들은 각 기관의 요직을 점한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경향을 격하게 비판하고 나섰다.³⁷⁾ 38이북지역 정계를 주도한 좌익진영 운동가들마저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이 그들에게 의문이었다. 또한 일본인들은 조선 해방 후 조선인들의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오랜 기간 금지돼온 조선어 애국가가 불리는 광경을 목격했다.³⁸⁾ 일본인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조선 민족주의의 발산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 민족주의의 분출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민족 배외주의’를 향해 기울고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낳았다. 일제시기 자신들의 조선인 학대 전력을 떠올린 일본인들은 유사한 식으로 대응해오는 조선인들의 태도가 보복에 다름 아니라고 인식했다.

일본인들은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³⁹⁾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불법납치·살육·

35)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93·94쪽.

36)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162·385·386쪽.

37)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67쪽.

38)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84쪽.

39)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216쪽.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고 묘사했다. 재조선 일본인들의 그러한 불안과 위기의 식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심리상태가 아니었다. 1945년 10월 26일 서울에 나돈 "잔류 일본인들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격문은 '왜노소탕본부'라는 명의를 사용하였다. 물론 38이북지역에 잔류한 일본인들의 처지가 38이남지역 일본인들보다 훨씬 열악했다. 황해도 봉산군지역 일본인들의 동향을 주시해오던 지방당국은 1946년 2월 27일 현재 259명에 달한 일본인 인구가 한 달 사이 90명으로 줄어들었음을 포착하였다.⁴⁰⁾ 조선 내 배일사상 확산, 당국의 감시와 내사, 재산압수 조치 등에 따른 일본인들의 생활난 가중과 공포심 증대가 169명의 야반도주를 유발했다는 진단이 제기되었다.

함경남도 검찰부 정보부장 이상복은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비인간적 지배"에 반발한 우리 조선인들도 "무의식중에 일본인 전체를 민족적으로 확대한 파쇼적 오류를 범했다"고 고백하였다.⁴¹⁾ 그는 1945년 9월 14일 수만 명의 일본인들을 공설운동장에 모아놓고 잔류 희생자와 도일 희생자를 구분해 이유 없이 공포감을 조장한 점, 9월 15일 함흥역 앞에 운집한 3천여 명의 일본인 피난민들을 위협해 시외로 추방한 결과 많은 이들의 집단병사를 초래한 점, 9월 23일 일본인들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일률적으로 몰수한 뒤 그들을 거리로 내쫓은 점, 10월 초 일본인 경관·군인·군속의 검거에 나선 보안원들이 철도기술자·일반사무원들마저 불법적으로 검거한 점 등을 그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1953년 8월 1일 일본 정부가 국제연합 포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미귀환자 통계에 따르면, 호적상 1945년 8월 9일 이후 북한지역 사망자로 처리된 일본인 총 수가 무려 32,705명에 달했다.⁴²⁾ 1944년 현재 재북한 일본인 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했음에 비추어, 그들의 10% 이상이 귀환 전에 희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이 해방 후 남북 경제관계 단절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 38이북

40) 黃海道 管内 裁判所·檢察所, 1946, 앞의 글, 197쪽.

41)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89·190쪽.

42)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7·891·892쪽.

지역의 혹심한 겨울 추위,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전염병 만연 등에 희생되었다. 아울러 소련군과 조선인들의 부당한 처우도 그에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무렵 많은 일본인들이 남긴 피난기 형식의 회고록들은 “소련군과 조선 민족을 저주의 대상이자 불구대천의 원수”라 비난하며, 피난민들이 그들로부터 얼마나 잔혹한 처우를 받았는지 생생히 묘사하였다.⁴³⁾ 이상복의 자성에 따르면 일본인 전반을 겨냥한 ‘민족적 학대’는 일반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강압과 위협을 일삼은 보안원들과 배급차별을 결정한 인민위원회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전 조선인들이 연루된 합작품’이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무원칙한 파쇼적 배외주의’와 ‘무의미한 민족 배외주의에 농락’되었던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⁴⁴⁾

일본인 난민들의 수용소 생활을 조사해 보고서를 올린 함경남도 검찰소 정보부장 이상복은 그 참상을 ‘20세기의 비극’이라 표현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이민족에 대한 의식·무의식중의 파쇼적 오류(복수)’를 청산하지 않으면, 일제 잔재 척결과 일본인 문제 해결은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⁴⁵⁾ 그에 따르면 해방 이전의 ‘침략적 수탈자인 강도 일본제국주의’와 해방 이후의 ‘무장을 해제당한 패전국민’을 평가하는 잣대는 달라야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 타도가 전자에 대한 대응책이라면, 후자에 대한 대응책은 전쟁책임자·조선통치 책임자의 제거·단죄와 파시즘 잔재 척결을 통한 일반 일본인들의 민주주의적 재편에 집중되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선통치 책임자·일본군인·군속·경찰관·악질일본인 등을 단죄·척결하는 한편, 부당한 교육을 통해 일반 일본인들의 민주주의적 재편을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⁴⁶⁾

이상복의 관심은 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보복적 대응을 일삼은 조선인 책임자 처벌 제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민족 배외주의자”, “의식·무의식적 파시스트”,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식량배급량의 차별을 결정한 책임

43)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저·김계일 역, 1988, 앞의 책, 271쪽.

44)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89·190쪽.

45)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저·김계일 역, 1988, 앞의 책, 266쪽.

46)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89·190쪽.

자”, “피난민을 박해한 책임자”, “부평수용소의 시설준비와 식량배급을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못한 책임자” 등을 지목하였다.⁴⁷⁾ 이상복의 보고서와 제안은 그 간 일본인 문제에 무관심했던 북한 고위간부들과 각 기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 뒤 즉각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식량배급량이 하루 1인당 2홉에서 3홉으로 증가했고 의료설비가 개선되었으며 다량의 의류와 식량이 조달되었다.⁴⁸⁾

해방 후 재북한 일본인들의 참혹한 생활상은 남북 경제관계 단절에 따른 식량부족과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필품 부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불거진 38이북지역의 열악한 시대상·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인들의 생활도 몹시 궁핍했지만, 패전국민의 지위로 전락해 차별의 대상이 된 일본인들이 그들과 나누어야 했던 한정된 자원은 더욱 보잘것없었다. 소련군 측과 조선인 측의 뒤늦은 각성이 있었으나, 이미 수많은 일본인들의 희생이 따른 뒤였다. 이소가야 스에지가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양심적 공산주의자라고 평한 북조선공산당 함흥시당 소속의 이달진(李達進)은 그간 일본인 구제에 큰 관심과 성의를 보인 인물이었다. 귀국길에 오른 일본인들을 향한 연설을 통해 그는 인상적 인사말을 남겼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저지른 행위에도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서로 밝고 즐겁게 손을 맞잡고 나갑시다!”⁴⁹⁾

47)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저·김계일 역, 1988, 앞의 책, 266·267쪽.

48)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94쪽.

4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755쪽.

IV. 재북 일본인 사유재산권 제한정책

재북 일본인들의 고난을 더욱 악화한 요인은 당국의 재산몰수였다. 주택을 압수당한 그들은 일본으로 귀국하기까지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 집단 수용되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재북 일본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월남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기아·영양실조·전염병·추위 등에 희생되었다. 일본인 재산몰수는 해방직후부터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앙행정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이후 발표된 토지개혁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등은 그러한 조치를 체계화·공식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토지개혁법령은 “일본 국가·일본인·일본인 단체”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예외 없는 몰수를 규정하였다.

1942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119,421명의 일본인들이 소유한 조선 내 총 경작지 면적은 424,232정보에 달했다.⁵⁰⁾ 전 조선 경작지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였다. 조선 내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구조도 대부분의 경작지가 소수의 대지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50정보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 내 전체 일본인 경작지의 69%를, 1,000정보 이상을 소유한 극소수 일본인 대지주들이 조선 내 일본인 경작지의 42%를 점했다.⁵¹⁾ 300정보 이상과 1,000정보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 수는 조선인보다 많은 126명(조선인 지주 123명)과 44명(조선인 지주 8명)을 헤아렸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의 각종 특혜에 힘입어, 조선인 노동력만으로 황무지를 개간해 경지면적을 확장해갔다. 경지면적이 4,151정보에 달한 평안북도 불이농장(不二農場)이 그 전형적 사례에 속했다.⁵²⁾

50) 吳琪燮, 1949, 「北朝鮮 土地改革法令의 正當性」, 『史料集』 7, 364·365쪽.

51) 「北朝鮮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와 그 첫 成果」, 『史料集』 7, 1947. 7. 20, 387쪽; 최용달, 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토지개혁을 보장한다」, 『인민』 1949년 3월호(『史料集』 37, 755·756쪽).

52) 吳琪燮, 1949, 앞의 글, 367·368쪽.

일본인 토지의 몰수는 이미 토지개혁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경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 토지의 몰수와 처리방법을 제안한 임시적 성격의 시정요강이 발표되었다. 같은 달 16일 평안남도인민위원회는 '접수 일본인 토지 관리규칙'을 포고하였다.⁵³⁾ 그 규정은 일본인 회사와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국유화하여 인민위원회의 관리 아래 두는 한편, 중간소작권 폐기를 통해 기존 경작자가 경작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일본 국가·일본인 단체·일본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의 몰수를 규정한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100,500정보의 경작지가 몰수되었다.⁵⁴⁾ 38이북지역 전체 경작지 1,741,182정보의 약 5.8%에 달하는 규모이자, 토지개혁기에 몰수된 전체 경작지 1,008,178정보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였다. 임야·하천 등의 비경작지도 몰수대상이었다. 강원도 13개 군이 몰수한 일본인 소유의 전체 토지면적 146,489정보는 38이북지역 일본인 전 경작지 면적을 상회했다.⁵⁵⁾ 몰수된 강원도 내 일본인 과수원은 150개소에 달했다.

산업시설의 몰수도 조속히 이루어졌다. 함경남도 흥남 공장지구의 노동조합간부가 된 좌익계 운동가 임충석은 해방직후 8월 26일, 일본 측 공장대표 오이시 다케오[大石武夫]를 만나 흥남지구 공장들의 양도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냈다.⁵⁶⁾ 그를 비롯한 운동가들은 26일 심야부터 새벽에 걸쳐, 비료공장·금속공장·정련소·화학공장·본공공장·용흥공장 등을 접수했다. 곧 그러한 개별적 조치들을 승인하는 당국의 법적 절차가 따랐다. 평안남도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접수 일본인토지 관리규칙'은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은행과 회사의 국유화를 결정했다. 함경남도의 소련군당국도 도내 금융재정기관·교통운수·통신기관·산업기관 등을 비롯해 과거 일본인들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함경남

53) 北朝鮮 農林局長 李舜根, 1945. 12, 앞의 글, 58·59쪽; 柳文華, 1949, 앞의 글, 584쪽.

54) 북로당 중앙본부 농민부 부부장 김정일, 1949,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 후 농촌경리 발전과 금후의 전망」, 『근로자』, 1949. 6, 15(제11호), 20쪽.

55) 江原道檢察所, 1946. 4. 22, 앞의 글, 16·17쪽.

56)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10쪽.

도 임시인민위원회에 양도한다는 요지의 포고문을 발표했다.⁵⁷⁾

한편 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표는 토지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일본인들의 모든 산업시설이 몰수·국유화된 다음에 등장한 조치였다. “일본 국가와 일본인 사인·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인 일체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문화기관 등을 전부 무상 몰수하여 조선 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는 이 법령의 골자는 이미 완료된 조치를 재확인·공식화하는 선언의 성격을 띠었다.⁵⁸⁾ 그러나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그에 그치지 않고 ‘본 법령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김용범·이문환·이봉수·박병섭·안의근 등 5인의 접수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1946년 8월 2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인들의 전체 산업시설이 이미 국유화된 마당에 그러한 조치가 왜 필요했을까? 물론 몰수된 일본인들의 산업시설을 전국적으로 통제화하는 사업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임무는 산업시설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이었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인들의 산업시설을 전리품으로 간주한 소련 측은 그것들을 조선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중요산업국유화는 소련군이 전리품으로 간주한 일본인들의 산업시설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유상 매각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인들의 소유가 된 마지막 절차였다.

일본인 재산의 몰수범위는 일본 국가 소유의 산업시설·금융재정기관·교통운수시설과 흥남지구 공장단지 같은 주식회사 소유의 대규모 기업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질소비료공장 흥남본부장 오이시 다케오가 민간소유의 일본인 기업도 몰수대상인지 소련군 25군 사령관 치스짜코프 대장에게 문의했을

57) 柳文華, 1949, 앞의 글, 584쪽; 磯谷季次, 1980, 위의 책, 122쪽.

5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五八號, 1946. 8. 1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産業·交通·運輸·遞信·銀行 等の 國有化에 關한 決定」, 『史料集』 5, 177쪽;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五九號, 1946. 8. 10, 「第十二次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書」, 『史料集』 5, 178쪽.

때, 그는 강화회의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일단 몰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⁵⁹⁾ 조선인들도 일본인 민간기업의 몰수가 당연한 조치라고 보았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고혈을 뽑아 장만'한 자산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⁶⁰⁾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축적한 자산이 조선인 '착취'의 산물이라는 관점은 그들의 모든 사유재산에 적용되었다. 모든 일본인 소유지가 예외 없이 몰수되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강원도 장전군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한 달 남짓 지난 9월 26일, "동산·부동산에 관계없이 일본인 재산을 모두 접수한다"는 지시를 하달하였다.⁶¹⁾

일본인 사유재산 몰수는 장전군뿐만 아니라 38이북 전역에 걸쳐 단행되었다. 그 대표적 조치가 바로 주택의 몰수였다. 1945년 12월 8일까지 평양시 전체 일본인 가옥 5,254호 가운데 2,325호(44.3%), 1946년 4월까지 평남 진남포시 전체 일본인 가옥 1,386호 가운데 781호(56.3%)가 몰수되었다. 주택 몰수 조치 이후 평양·진남포·신의주·해주·사리원·원산·함흥·홍남 등 대도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특정지역 주택가에, 소도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특정건물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다.⁶²⁾ 토지·가옥 등의 부동산은 물론 동산도 몰수대상이었다. 상품·유가증권·미술공예품 등과 함께 값비싼 동산이 공출 형식으로 당국에 접수되었다. 함경남도 함흥지역 일본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그들이 몰수당한 사유물은 라디오 1,089점, 시계 553점, 자전거 224점, 도검류 545점, 전기콘로 64점, 가구류 3,726점 등에 달했다.⁶³⁾ 일본인들의 소지금과 은행 예금액은 인플레이션 방지를 이유로 압류되었다. 만주로부터 유입된 피난민들의 소지금이 통화팽창을 유발한데다 일본인들이 평양지역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이 약 2억 원이란 막대한 규모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안남

5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70쪽.

60) 김일권, 「國家財産을 保護하라- 고쳐야 할 가지가지의 破壞行爲」, 『史料集』 33, 8쪽.

61)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950쪽.

62)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224·231쪽.

63)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951~953쪽.

북도 각지 인민위원회는 일본인들이 소유한 현금의 은행 예치를 지시한 뒤, 매달 일정한도의 소액을 생활비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통화량의 조절을 꾀하였다.⁶⁴⁾

일본인 사유재산 몰수는 중앙정부 수립 이전부터 각 지방인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처분방식에 일정한 원칙을 결여하였다. 강원도 장전군당국은 몰수자산 가운데 가옥은 집 없는 노동자와 국가건설사업에 봉사한 이들에게, 토지는 농민에게 분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⁶⁵⁾ 종종 접수과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 물의를 빚었다. 함경남도 함흥시 보안서원과 공청원 40~50명이 일본인들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조사·접수하며 그것들을 사적으로 처분한 사건들이 그 전형적 사례에 속했다.⁶⁶⁾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은 사유재산의 사전 매각이었다. 그들의 소유물을 헐값에 구입하려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거주구역으로 몰려들었다. 해방 후의 혼란기를 틈타 일본인 소유의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이들도 있었다.⁶⁷⁾ 물론 그러한 행위는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될 자산을 가로챌 불법행위로 규정되었다.

한편 일본인 사유재산을 둘러싼 북한·일본·소련 간 이해관계 충돌은 매우 첨예한 문제였다. 조선인들은 그것을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고혈을 뽑아 장만'한 '착취'의 산물로 인식해 그 소유권을 정당화하였다. 반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이 '착취'를 통해 축적되었다는 조선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의 사유재산 몰수를 불법행위로 인식하였다.⁶⁸⁾ 사유물인 공장시설이 전후 배상대상으로 외국에 양도되더라도, 최소한 국가와 국가 간 논의를 통해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본인들 측 논리의 골자였다. 흥미롭게도 소련 측은 일본인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 내 일

64)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956·957쪽.

65)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950쪽.

66) 「第二回 各道 保安部長 會議錄」, 『史料集』 9, 1946. 7, 241쪽.

67) 李秉濟, 1947, 「産業發展에 對한 諸課業」, 『人民』 1947年 4月號(『史料集』 13, 329쪽).

68)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50쪽.

본인 자산이 모두 조선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전하며, 일본인 사유재산권 박탈에 추진력을 제공했다.⁶⁹⁾

그러나 소련군 측의 공언대로 일본인들의 자산이 북한당국에 무상으로 양도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자산을 전리품으로 간주한 소련 측은 그것을 북한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조치를 관철해갔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표된 직후인 1946년 10월 30일, 북한과 소련 간에 체결된 ‘일본 국가 소유였던 공장·기업소·수력발전소·은행 및 기타 대상들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이양하기로 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결정서’는 국유화된 일본 국가·일본인 소유의 자산들이 1945년 8월 15일 현재 가격으로 환산되어 북한 측에 매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소련군사령부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동북아역사재단 <표 1> 1946년 10월 말 소련이 북한에 매각한 중요 산업시설과 인프라의 종류·수량·가격

공장·기업소·시설 유형	수(개소)	가격(원)
중공업·기계공업 공장	81	1,382,761,000
광물·비광물 채취소	196	313,851,955
석탄탄광	47	225,669,425
연탄공장	23	13,629,245
경공업·식품품 공장	407	375,636,520
목재·목재가공 공장	77	36,197,531
어업가공 공장	73	67,254,301
철도와 하천·해운 수송수단		1,118,405,808
수력발전소·변전소·송전탑선		717,900,000
전신전화국과 통신망		179,011,576
미완성 수력발전소		295,000,000
총계		4,726,316,361

※ 출처: S. L. 지호빈스키 외, 1987, 『蘇聯과 北韓과의 關係-1945~1980(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國土統一院, 55~56쪽.

6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216쪽.

유상으로 양도한 공장·기업소 등 중요 산업시설과 인프라의 종류·수량·가격이 <표 1>에 나와 있다.

소련군 측이 북한에 매각한 일본인 자산은 국유화된 각종 인프라와 중요산업시설·금융재정기관·교통운수수단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몰수당한 모든 사유재산이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매각되었다. 대다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뒤 전국 각 면단위별로 조직된 조사위원회가 동산·부동산을 비롯해 이미 몰수된 일본인들의 사유재산을 조사·등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⁷⁰⁾ 그 조사위원회는 군위수사령부 대표 소련인 1명, 인민위원회 대표 조선인 1명, 북조선로동당 대표 조선인 1명, 세무기관 대표 조선인 1명, 러시아어 통역 조선인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 몰수된 일본인 사유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1945년 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한 자산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그들이 전국적으로 집계

<표 2> 1947년 10월경 소련이 북한에 매각한 일본인 사유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몰수된 일본인 사유재산 종류	수	가격(원)
주택·여관	33,247동	273,894,000
상업용건물·창고·차고·생산건물·학교·병원·목욕탕 기타	21,829동	370,996,000
수도·하수도		107,694,000
시설과 물자		168,900,000
가재도구		27,731,000
소(牛)	23,073두	31,985,000
관개시설	146개소	47,640,000
미완성 관개시설	39개소	43,733,000
총계		1,072,573,000

※ 출처: S. L. 찰스빈스키 외, 1987, 앞의 책, 62~63쪽.

70)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1989,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4(1948. 7. 17~1948. 11. 26), pp. 359~360.

한 통계가 <표 2>에 나와 있다.

<표 2>에 거론된 자산들은 1947년 10월 21일, 소련과 북한 간에 체결된 ‘귀환 일본인들이 북조선영토에 남겨놓은 재산을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양도하기로 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 대표자들의 결정서’에 근거하여 소련군 측으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매각되었다. 당시 일본인 사유재산 조사사업에 참여한 한 조사원이 미군첩보기구 G-2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쌀을 비롯한 곡물이 그 대가로 소련 측에 지불될 예정이었다.

1948년 4월경 남북협상 취재의 임무를 띠고 월북한 《조선중앙일보》 기자 온낙중은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타국의 이권에 초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조선인으로서 예의가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인정에 감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⁷¹⁾ 타국의 이권을 탐내지 않는 소련의 지원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38선 접경지역 경비를 지휘한 북한의 한 간부는 소련군의 철저한 계산정신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1948년 말 소련군이 2~4km 간격으로 설치된 38선 보초막 초소를 해체해 목재를 심고 철수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사과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두 조선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공언한 소련군이 조선의 목재로 만든 초소를 철거해갔다며 냉소를 보였다.⁷²⁾

V. 산업재건을 위한 일본인 기술자 재등용과 우대

해방직후 일본인 기술진과 노동자·사무원들은 조선인들이 장악한 공장에서 추방되었다. 황해도 해주항 부근의 조선시멘트·종방서선중공·조선화약은

71) 溫樂中, 1948, 『北朝鮮紀行』, 朝鮮中央日報出版部, 90쪽.

72)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선인, 273쪽.

1945년 8월 18일에, 조선화학순천공장으로 개명된 평안남도 일본화성공업순천공장은 8월 30일에 일본인 종업원 전원을 해고했다.⁷³⁾ 함경남도인민위원회가 접수한 흥남인민공장의 전신 일본질소비료흥남공장은 8월 26일 각 공장 출입문에 '일본인 종업원 입장금지'라는 공지를 내걸었다.

그러한 대응은 얼마 안 가 제 공장 내 기술인력 부족사태를 촉발했다. 사실 일제시기 조선의 공장운영은 거의 일본인 기술진에 의존해 오던 상황이었다. 1944년 현재 조선의 공업기술자 총 인원 8,476명 가운데 조선인의 비중은 19.3%(1,632명)에 지나지 않았다. 중요한 금속·화학공업의 경우 조선인 기술자의 점유율은 각각 11%(133명)와 11.2%(222명)까지 떨어졌다.⁷⁴⁾ 따라서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 원활한 공장운영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되었다. 그러나 공장을 일본인들에게 계속 맡기기보다 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조선인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인들의 재능과 기술을 새 국가건설에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해방직후의 사회분위기와 융화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운영에 적잖은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일본인 기술진 재발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현단계의 급선무는 조선 독립의 완수라는 수사에 매몰되었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는 조선인들이 공장을 접수해 일본인들을 내쫓았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할 뿐 현단계에서 공장 재개의 의의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⁷⁵⁾

그러나 급진론에 묻힌 현실론은 오래가지 않아 힘을 얻기 시작했다. 흥남 공장 조선인 측은 우수한 일본인 기술자들의 재기용이 생산력 향상에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누구보다 그에 주목한 인물은 소련군사령부 정치고문 발라사노프였다.⁷⁶⁾ 북한의 산업이 조선인들의 힘만으로 복구될 수 없다고 전제하

7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71·178·758·760쪽.

74) 김재용, 2014, 1,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0쪽.

75)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54쪽.

76) 이하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462·463·758·760·762~766·770쪽 참조.

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북한의 산업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의 논의의 핵심이었다. 흥남인민공장의 경우 노동조합 내 급진파가 제압되면서 현실론이 관철돼갔다. 1945년 11월 말 일본인 기술자 16명이 지배인 직속 조사기획부에 기용되었고, 이듬해 3월 말 약 1,200명의 일본인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다. 조선화학순천공장은 그보다 이른 9월 12일 소련군과 조선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일본인 기술자 12명을 발탁한데 이어, 10월 중순경 200여 명의 일본인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기술자 재등용정책이 공식화되었을 무렵,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국도 본격화되었다. 해방 당시 38이북지역 교통운수부문 기술자·노동자·사무원 총 54,064명 중 11,837명에 달한 일본인들은 1946년 9월 1일 현재 233명만을 남긴 채 이미 귀국을 마친 상태였다.⁷⁷⁾ 행정·관리·기술부문의 중요직을 독점해온 일본인 숙련기술자들의 대규모 유출과 그 대안으로서 기술·경험을 소유하지 못한 조선인 인력 투입은 철도교통을 비롯한 산업부문 운영에 심각한 난관을 불러왔다. 1946년 10월 현재 쉬띠꼬프는 38이북지역에 잔류한 일본인 기술자들이 약 1,200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⁷⁸⁾ 1947년 7월~1948년 2월까지 재북 일본인들이 쓴 편지들을 가로채 정보를 수집한 미군첩보기구 G-2는 북한지역에 잔류한 일본인 기술자 수를 552명으로 추정했다.⁷⁹⁾ 그들조차 1948년경까지 체류했음에 비추어 숙련기술력의 부족이 북한의 산업재건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1946년 중순경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인 기술자 문제에 관한 현실론은 급진론을 제압할 수 있었다. 1946년 8월 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는 일본인 기술진 유출에 따른 기술인

77) 1947,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조선의 정치경제 정세에 대하여)”, ЦАМО РФ, ф. 172, оп. 614631, д. 39, л. 35.

78) 전현수 편저, 2004, 『쉬띠꼬프일기(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9쪽.

79)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1989,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3(1948, 1, 10~1948, 7, 16), p. 202.

력 부족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 법령은 중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기술자는 조선인·일본인 등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기술이 요구되는 기관에 종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였다.⁸⁰⁾ 게다가 정당·사회단체처럼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은 그 법령에 따라 ‘소유한 기술의 종류’, ‘국적’, ‘복무기관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즉 각 국영기업이나 해방 이전의 소속 직장에 배치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 기술자들 절대다수가 조속한 귀국을 희망했다는 점에 있었다. 산업복구 과제에 직면한 북한당국의 일본인 기술자 잔류 설득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을 강제 역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칙적으로 일본인 기술자들의 귀국을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가능한 잔류하길 바란다는 북한당국과 소련군 측의 입장이 종종 표명되었으나, 핵심기술자들의 귀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1946년 말 함경남도 흥남공업지구를 관할한 소련군 장교 스쿠바 사령관이 잔류를 희망한 6명의 일본인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자들의 귀국을 허용했을 때, 공장 측 조선인 지배인은 그를 저지하고자 평양의 중앙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⁸¹⁾ 중앙당국은 병자와 기술능력이 미숙한 이들을 돌려보내되, 중요 기술자들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련군 측이 관심을 보여온 흥남 마그네슘공장의 중요 일본인 기술진 탈출 사건도 그들의 강제 잔류방침을 굳힌 한 동기가 되었다.⁸²⁾ 1946년 10월경 철도교통부문 운영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자, 북로당중앙상무위원회는 즉각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주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⁸³⁾ 북한당국과 일본인 귀국문제를 조율한 이소가야 스에지와 마쓰무라 기시오[松村義

8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六二號, 1946. 8. 7, 「技術者確保에 관한 決定書」, 『史料集』 5, 176쪽.

81)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398쪽.

82) 鎌田正二, 1970, 위의 책, 235쪽.

83) 북로당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1946. 10. 21, 「평양철도구 당단체의 당중앙본부 철도사업에 대한 결정서 실행정형에 대하여」, 『史料集』 30, 36쪽.

士明] 같은 운동가출신들은 기술자들의 귀국이 어렵게 되었음을 간파하자,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의 “경제건설에 기여할 수 없는” 일반 일본인들의 귀국을 요청하였다.⁸⁴⁾

한편 일본인 기술자들의 귀국을 제지한 북한의 노력은 강제적 기제에 의존한 것만은 아니었다. 1946년 10월 말 평안북도 수풍을 방문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은 일본인 기술자 대표들이 초대된 만찬장에서, 그들을 향한 민족적 차별을 없애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⁸⁵⁾ 그 이전에 포고된 산업국지령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도 각 국영기업 책임자들에게 ‘무익하고 편협한 민족적 감정을 일소’하여, 일본인 기술자들이 국영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할 여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⁸⁶⁾ 아울러 ‘일본인 기술자 불필요성’을 운위하는 태도는 그들의 ‘무단 이산’을 조장하는 원인이자 산업복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위 산업국지령의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조치는 일본인 기술자들에 대한 경제적 우대였다. 주택·급여의 제공과 식량·피복·침구 따위의 생활필수품 배급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선인들의 조건보다 훨씬 나은 수준으로 규정되었다. 게다가 발명·발견·고안·저술을 통한 기여도 산업국의 심사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도 그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최고조건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해방직후 조선인들이 점유한 고급주택을 다시 제공받았고, 조선인들과 달리 중단 없는 생활필수품 배급특혜와 면세혜택까지 누렸다.⁸⁷⁾ 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공민증이 발급되었다. 무엇보다 급여가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조선인 기술자 계장급이 1,500원, 광산장이 2,500원, 일반노동자·사무원

84)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75쪽.

85)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801쪽.

86)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産業局指令, 1946. 8. 17, 「技術者確保에 관한 決定書 施行에 관한 件」, 『史料集』 5, 178·179쪽.

87) 이하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404·408·409쪽;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794쪽 참조.

이 800~1,000원의 월급을 받을 때 일본인 기술자들은 매달 3,500~5,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의 월 급여 4,000원을 초과하는 액수였다. 1947년 7월 일본인들의 정식 귀국 이후 홍남시에 잔류한 일본인 기술자 수가 27명으로 급감하자, 그들의 월 최고 급여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뛰었다.

물질적 우대에 만족한 그들은 새로이 대두하고 있었던 문화현상인 감사문 발송에 동참하는 식으로 답례를 표했다. 재평양 일본인 기술자 일동은 1948년 5월 1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 앞으로 보낸 감사메시지를 통해, 민족적 차별 없이 그들을 우대하고 있는 당국의 처우에 감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⁸⁸⁾ 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우대를 선명히 부각하고자, 조선인 학교 폐쇄령에 이어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의 처지와 ‘제국주의 교육이 숙청’된 북한지역 일본인 학교에서 무상으로 ‘민주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들 자체들의 모습을 대비했다. 그 감사문은 “김일성 장군의 영도 아래 정치·경제·문화·산업 등 각 부문에 걸쳐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북조선”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일어서고” 있다는 찬사와 함께 끝을 맺었다.

일본인 기술자그룹에 대한 최고수준의 우대는 조선인 기술자·노동자들 사이에 적잖은 불만을 낳았다. 그러한 불만을 무마하고자 건국운동의 한 갈래인 산업재건에 일본인 기술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설득논리가 동원되었다.⁸⁹⁾ 일본인 기술자 우대조치가 조선인들의 불평을 조장했음을 포착한 미군 첩보기구 G-2는 그들이 고용돼 있는 산업이야말로 소련이 가장 중시한 산업이라고 비틀어 해석했으나, 일본인 기술자들의 역할이 북한 산업재건에 막대한 비중을 점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⁹⁰⁾

한편 일본인 기술자집단 내에 북한 산업재건의 지원방향을 둘러싼 상이한 입장이 각축했다. 이제 일본인들이 협소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적 태

88) 「平壤 在住 日本人들 金日成委員長에게 메시지」, 『史料集』 28, 1948. 6, 18·19쪽.

89)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404·408·409쪽.

90)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1989,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1(1945. 12, 1~1947. 3, 31), p. 227.

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무나카타 에이지[宗像英二]는 동포 기술자들이 북한의 국가건설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⁹¹⁾ 물론 그러한 구상은 일본인 기술자집단의 잔류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다. 반면 일본의 재건을 그들의 궁극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카구치 도쿠조[坂口徳藏]는 북한지역 산업복구 지원이 어디까지나 귀국 이전 그들의 생계유지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는 대다수 일본인 기술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공장의 재건과 운영에 헌신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소 가야 스에지는 특히 무나카타 에이지·곤 요시로[昆吉郎]·오시마 미키요시[大島幹義] 등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다.⁹²⁾

그들 외에 여러 일본인 기술자들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 이른바 ‘노동영웅’의 반열에 올랐다.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이 火入式을 거행한 황해제철소 제3용광로의 복구는 나가시마 고이치[中島小市]의 공헌에 힘입은 바 컸다.⁹³⁾ 활자주조기술 분야에서 38이북지역 최고의 평판을 얻고 있었던 스기야마 시게오[杉山繁男]는 운전기의 사용을 지도하며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구 기관지 『正路』의 발행에 큰 공로를 세웠다. 흥남인민공장 노동영웅이 된 가와무라 가즈오[河村一男]는 “위 사람은 유안공장에 중요한 볼·베어링을 고안·제작·사용하여 조선의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한다(금일봉 및 표창장)”고 적힌 상장을 받았다.⁹⁴⁾

일본인 기술자들을 산업재건에 활용한 북한의 유연한 정책은 기술교육과 기술자 양성부문에까지 적용되었다. 일본인 교사들의 지도 아래 일본어로 시행된 함경남도 흥남기술원양성소의 교육방식이 그 전형적 사례에 속했다.⁹⁵⁾ 기술교육과 함께 소장의 훈시와 교사들의 회의도 일본어에 의존했다. 조선인 소장 鄭濂守는 개소식 연설을 통해 “교사들은 일본인이지만 국적 차별을 받지

91)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140쪽.

92) 磯谷季次, 1980, 앞의 책, 182·183쪽.

9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805~808쪽.

9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797쪽.

95) 이하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254·255·257쪽 참조.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들을 정당한 교사로서 존경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독일어든 영어든 어느 나라 말이라도 상관없다”는 포용적 태도를 보였다. 1946년 9월 기술원양성소를 흡수해 발족한 흥남공업기술전문학교는 북로당측의 면접시험을 제외하면 입학시험을 모두 일본어로 시행했다. 문제의 출제와 채점도 일본인 교사들의 몫이었다. 귀국 당시 조선인 학생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은 그 학교의 교사 다카쿠사키 이타쓰[高草木伊達]은 “조선 건국의 관건이 산업발전에 달린 이상, 조선은 선진국의 기술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일본과 조선 간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인상적 인사말을 남겼다.

한편 1947년 9월에 설립된 흥남공업대학교의 창립안도 일본인 나리타 료이치[成田亮一]의 구상을 통해 완성되었다.⁹⁶⁾ 그는 북해도제국대학 강사와 일본마그네사이트 기사장을 역임한 기술자 출신이었다. 건축·광산·기계·전기·화학과로 구성된 흥남공대는 약 200명의 학생을 수용한 남녀공학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재건에 기여해온 일본인 기술자들의 입지는 1948년에 들어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양호한 급여와 배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본국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과 북한 정치정세로부터 심리적 불안을 느끼자 귀국을 절실히 희망하였다. 누구보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잔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아직까지도 일부 고집스런 조선인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일제 기술자들이 우수하다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하기까지 했다.⁹⁷⁾

그의 연설이 시행된 1949년 중순 무렵 이미 재북한 일본인 기술자들은 모진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취조와 체포가 평양시의 경우 1948년

96) 鎌田正二, 1970, 위의 책, 256쪽.

97) 「2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우리 당단체들의 과업」, 『근로자』 제9호, 1949, 5, 15, 10쪽.

1월 말부터, 함경남도 흥남시의 경우 같은 해 2월 말부터 본격화되었다.⁹⁸⁾ 1948년 2월 말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보안처장이 하부에 시달한 한 지시문 건은 일본인 기술자들에게 다친 시련의 배경을 잘 드러낸다. 그 지시문은 내무국 촉탁 ‘미나미타니’라는 일본인 기술자의 동태를 주시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⁹⁹⁾ 그는 북한지역 항공시설 조사 당시 각 비행장 현장조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항공시설과 비행기들을 관찰한 전력을 지닌 전문가였다. 따라서 내무당국은 그가 “북조선의 항공시설과 소련의 항공기술까지 외국에 탄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일본인 기술자들을 체포·수감하고 재판에 회부한 북한 측의 태도가 지나친 대응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산업·군사방면의 기밀정보를 누설할 수 있다는 소련군과 북한당국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남한을 경유해 귀국하고자 월남한 일본인 기술자들은 예외 없이 미첩보기구 G-2의 신문을 받았다. G-2가 격주로 발행한 대북 첩보 관련 문건 ‘북한정보 요약(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의 산업부문 핵심정보는 주로 경제부문 스파이들과 월남한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존하였다. 일본인 기술자들을 돌려보낼 경우 그들이 미첩보기구에 북한의 산업·군사부문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혹은 억측이 아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미공군의 정교한 북한 산업시설 폭격은 바로 그러한 고급정보의 입수·축적에 힘입은 바 컸다.

1948년 6월 초 함경남도 흥남시에 잔류한 일본인 전원에게 귀국 명령이 시달되었으나 일부 기술자들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다. 가마타 소우지(鎌田正二)에 따르면 평양에서 체포된 5명과 흥남에서 체포된 1명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소련으로 압송돼, 소련형법 제58조에 해당하는 반혁명 행위죄 판결을 받았다.¹⁰⁰⁾ “일본인 기술자들을 귀국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조선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들은 귀국 후 미국 CIC에 북조선의 실정을 보고

98)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410~413쪽.

99) 보안처장 박용삼, 1948, 2, 24, 「일본인 기술자에 관한 건」, 『史料集』 9, 438쪽.

100) 鎌田正二, 1970, 앞의 책, 410~413쪽.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곧 CIC에 첩보를 제공하는 스파이행위다”라는 논리에 따른 판결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나머지 기술자들도 스파이행위 혐의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 도중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들에게 큰 불행을 안겼다. 1950년 10월 이후 피난에 나선 수감자들 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¹⁰¹⁾ 미공군의 폭격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재북 일본인 기술자들의 희생을 둘러싼 사태의 전말은 북한이 점점 비타협적이고 경직된 체제가 되어갔음을 보여주는 징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한 북한의 경직화는 일제유산을 향한 극단적 거부감의 측면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북한의 계급정책에서도 급진적·비타협적 분위기가 조성돼갔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조선인들의 자치욕구가 해방과 함께 표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의 통치권 접수는 일본인들이 독점해온 제 기관들을 인수하고 일본인 고위관리들을 체포·처벌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 그것이 가능했던 38이북지역의 경우, 일본인들이 행사해온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긴 뒤 일본인 행정관·사법관·경찰관의 체포에 착수한 소련군의 지원에 힘입어 실현되었다.

일본인들을 향한 반일정서의 표출과 적대행위에 관여한 이들은 소련군과 조선인 당국자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내내 학대와 차별을 받은 광범한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반일행위에 가담했다. 해방 후 민족차별정책에 직면한 일본인들의 고난은 북한당국의 사유재산 몰수조치를 통해 가중되었다. 가

101)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924~926쪽.

옥을 압수당한 그들은 일본으로 귀국하기까지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 집단 수용되거나 위협을 무릅쓰고 월남을 감행하였다. 일본인 재산 몰수는 해방직후부터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구 수립 후 토지개혁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등의 발표와 함께 일률적이고 일사불란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직면한 생활난은 남북 경제관계 단절에 따른 식량 부족상태와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필품 부족상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불거진 38이북지역의 열악한 시대상·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인들의 생활형편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패전국민의 지위로 전락해 차별의 대상이 된 일본인들이 그들과 나누어야 했던 한정된 자산은 더욱 보잘것없었다. 소련군사령부와 북한당국의 뒤늦은 각성이 있었으나, 이미 많은 일본인들의 희생이 따른 뒤였다.

해방직후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사무원들은 조선인들이 장악한 공장시설로부터 추방되었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 원활한 공장운영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되었다. 그러나 공장을 일본인들에게 계속 맡기기보다 조선 독립의 상징으로서 조선인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일본인 기술자들의 재등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현단계의 급선무가 조선 혁명의 완수라는 급진론은 곧 현실론에 제압되었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귀국을 막고 공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목표 아래, 급여와 배급 면에서 최고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한편 일본인 기술자 집단 내에도 북한 산업건설의 지원방향을 둘러싼 상이한 입장이 각축했다. 이제 일본인들이 협소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한 인사들은 동포 기술자들이 북한의 국가건설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본의 재건을 그들의 궁극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인사들은 북한지역 산업복구 지원 과제가 귀국 이전 그들의 생계유지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후자가 대다수 일본인 기술자들이 지지한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공장재건과 운영에 현

신성을 보여, ‘노동영웅’ 반열에 오른 일본인 기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을 산업건설에 적극 활용한 북한의 유연한 정책은 기술교육과 기술자 양성 부문에까지 연장되었다.

미소 간 냉전구도의 발전에 따라 악화된 남북관계는 일제유산과 친일 전력자들을 향한 극단적 반감을 조장했다. 그들이 남한 극우세력이나 미국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남아 산업재건에 기여해온 일본인 기술자들이 1948년경부터 직면한 시련은 그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산업·군사 부문의 기밀을 미첩보기구에 누설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들은 귀국 전부터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아 투옥된 그들의 상당수가 한국전쟁 발발 후 미공군의 폭격에 희생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선인.
- 吳泳鎭, 1952, 『하나의 證言』, 國民思想指導院.
- 이연식, 2012,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 전현수 편저, 2004, 『쉬띠꼬프일기(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 S. L. 찰스빈스키 외, 1987, 『蘇聯과 北韓과의 關係 - 1945~1980(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國土統一院.
-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저·김계일 역, 1988, 『우리 청춘의 조선』, 사계절.
- 김경남, 2008. 9,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 김재웅, 2014. 1,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호, 2008. 9,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 鎌田正二, 1970, 『北鮮の日本人苦難記 - 日室興南工場の最後』, 東京: 時事通信社.
- 磯谷季次, 1980, 『朝鮮終戰記』, 東京: 未來社.
-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書店.

[ABSTRACT]

Socioeconomic Status of Japanese
and Policies towards Japanese Technicians
in North Korea(1945~1950)

Kim Jaewoong

Issues regarding Japanese in Korea have not received attention compared to issues relating to Koreans in Japan. That is one reason why issues concerning Japanese in Korea have been understood as a matter of Japanese modern-contemporary history, while the issue of Koreans in Japan has been clearly treated as a national problem of Korean modern-contemporary history. However, while preparing this article, I recognized that if the problem of Japanese in Korea is left in a vacuum, it will be a mistake to skip important situations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m.

The desire of Koreans for autonomy that had been suppress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started to spurt with liberation. Koreans dominated authority by taking over organizations which Japanese had monopolized. Also, Koreans arrested and punished high-ranking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North of the 38th parallel, autonomy could be realized due to the Soviet Union's military support. In fact, the Soviet military transferred the administrative power that Japanese had exercised to the People's Committee. Subsequently, they arrested Japanese civil service, justice, and police officials.

The authorities' actions to seize Japanese properties redoubled the

hardship of Japanese. Japanese whose houses were confiscated were accommodated in poor facilities until their return to Japan. The majority of them tried to escape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aking risks. Although seizing Japanese properties progressed automatically according to local situations, seizures reached legal procedur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nd Reform Act and the Nationalization of Important Industries Act after the construc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Japanese had to endure difficult lives. Of course, the lives of Koreans too were in crisis, but the lives of Japanese were worse. Japanese who fell to being people of a defeated nation had their properties confiscated and they began to receive discrimination. After many Japanese had suffered, Soviet military and Korean officials changed their policies against Japanese, and simultaneously earnestly propelled their return to Japa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Japanese technicians, laborers, and clerks were thrown out of factories now dominated by Koreans. It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manage those factories without Japanese technicians, but most Koreans argued that Koreans had to manage factories by themselves instead of entrusting management to Japanese, this as a symbol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s time passed, problems arose from managing factories. Accordingly, some people raised the opinion to re-hire Japanese technicians, but those opinions were buried under the strong narrative of “urgent business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is the fulfillment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However, the suppressed realism under radicalism was achieving power slowly. With this change, the re-hiring of Japanese technicians was begun.

In other aspects, even regarding Japanese technicians there were various opinions about North Korean industry construction. One side, which insisted that Japanese had to throw away narrow nationalism and have the attitude of internationalism, clearly expressed the opinion that Japanese technicians had not to save the technical support for North Korean nation-building. Meanwhile, the other side asserted reconstruction of Japan as their ultimate goal, which made their stance that support of the restoration of North Korean industry was just their means of living, and not an ultimate goal. The latter was the opinion of most Japanese technicians.

Japanese were still receiving good treatment in terms of wages and rations, but they eagerly hoped to return to Japan because they felt psychological anxiety for the disconnected situ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terms of politics. There is no doubt that North Korea's actions of arresting and using Japanese technicians were too much. However, North Korea's concern that Japanese technicians might reveal industrial and military secrets was also appropriate.

Keywords

North Korea, Japanese in North Korea, Japanese technicians, Japanese public properties, Japanese private property, North Korean industrial construc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

서영교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이 결정될 즈음이었다. 설연타의 사신이 당 조정에 도착했다. 당태종은 사신에게 설연타 진주가한에게 전하라며 말했다. “우리 부자가 고구려에 전쟁을 하러 갈 터이니 침입할 수 있다면 의당 빨리 와야 할 것이다.” 그러자 진주가한이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도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 침공에 참여할 것을 거듭 청했다. 태종은 그것을 정지하라고 답했다.¹⁾ 당태종은 집실사력에게 돌궐 병력을 주어 설연타에 대비케 하고 고구려로 향했다.

645년 5월 10일 당태종이 고구려 땅에 들어왔다. 개모성·요동성·백암성을 점령하고, 6월 20일 안시성 공략에 나섰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 고구려가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1) 『冊府元龜』 권989, 外臣部·備御第2, “又謂其使人曰, 語爾可汗我天子並東征高麗汝, 若能寇邊者但當來也, 可汗遣使致謝復請發兵發軍, 帝答以優詔而止其兵(及太宗拔遼東諸城破駐驛之陣降高延壽聲振戎狄而莫離支潛令粟靺鞨誑惑延陁啗以厚利延陁氣懼不敢動).”

15만에 달하는 군대를 보냈고, 22일 당태종은 고구려 육살 고연수 등이 이끄는 고구려 중앙군을 주필산에서 대파했다. 하지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9월 18일 군대를 돌렸다. 『全唐文』 권7, 班師詔를 보면 추위가 닥쳐 군사들을 생각하여 철수를 명한다고 하고 있다.²⁾

중국 최고의 명성을 누린 군주가 안시성 전투에 패하여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후대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전해졌다. 조선의 『성종실록』 22년 5월 30일 을사조³⁾를 보면 여진에 대한 북경을 반대하면서 올린 弘文館 副提學 金謙 등의 上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唐太宗은 武勇이 뛰어난 君主로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켰으며, 장수 李勣·李靖·薛萬徹·道宗·張亮·薛仁貴 같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에 여간하여 나오지 않는 인재인데, 이 같은 세력으로써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千鈞의 무게로써 새 알을 누르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安市란 한 조그만 城에 시달려 기세가 꺾여 패전하고 돌아가서 천하 後世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전쟁에서 안시성 전투 승리의 의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宣祖實錄』 선조 33년 2월 20일 갑오조를 보면⁴⁾ 경상병사 좌재우가 사직을 청하는 馳啓에서도 “安市城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안시성이 고구려를 구하였다는 평가였다.

안시성은 중국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당태종이(안시성주) 양만춘의 화살에 눈이 빠졌음은 모든 인사들의 전설이 되고, 시인의 吟詠에는 牧隱 李穡의 貞觀吟에 올라 이는 주머니 속의 물건

2) 『全唐文』 권7, 班師詔, “忽屬徼外霜嚴, 海濱寒沍. 念茲兆眾, 便命班師.”

3) 『成宗實錄』 成宗 22년 5월 30일 乙巳, “然唐太宗以英武之主, 舉天下之兵, 將帥如李勣, 李靖, 薛萬徹, 道宗, 張亮, 薛仁貴, 皆不世出之才, 以此征高句麗, 不啻如千鈞壓鳥卵, 然而困一安市小城, 挫衄而歸, 爲天下後世笑.”

4) 『宣祖實錄』 宣祖 33년 2월 20일 甲午, “安市能守, 高麗不亡.”

이라더니 눈이 화살에 떨어질 줄 뉘 알았으랴 하였고, 老稼齋 金昌翁의 千山詩에는 천추의 대담한 양만춘이 虬髯의 눈동자 쏘아 떨어뜨렸네 하였으며 그 밖에도 이런 시가 많다”라고 했다. 고구려에 승리를 안겨준 것은 안시성주 양만춘이었다. 그와 城民이 일치단결하여 성을 사수하였고, 그 저항으로 당군은 철수했다.

하지만 안시성 앞에서 철수한 당군의 행군로를 보면 철수의 이유가 안시성의 패전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645년 6월 23일 주필산에서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당태종에게 격파된 직후였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설연타의 진주가한에게 말갈 사신을 보내 연화하고자 했다. 진주가한이 病死하자 적자 발작이 이복형 예망을 죽이고 多彌可汗으로 즉위했다. 마침 당태종의 군대가 요동에 있어 이로 인하여 당의 변경을 쳐들어왔다. 당군은 서방으로 향했다. 당태종이 江夏王 道宗을 朔州에, 代州都督 薛萬徹와 左驍衛大將軍 阿史那社爾를 勝州에, 左武侯大將軍 薩孤吳仁을 靈州에 각각 파견하여 주둔하게 한 다음, 執失思力이 突厥을 이끌고 가서 塞下에 대기하게 했다. 설연타는 대비가 있음을 알고 곧 물러났다.⁵⁾

주지하다시피 태종의 사촌인 강화왕 도종은 안시성 앞에서 전투를 했다. 변장인 阿史那社爾도 주필산 전투에 참여했다.⁶⁾ 『舊唐書』 권199, 철륵전을 보면 요동성과 건안성 전투에 참가했던 張儉 그리고 백암성 전투에 참여했던 契苾何力도 설연타 공격에 참여했다. 당태종도 장안의 궁전으로 향하지 않고 并州(太原)로 곧장 가서 전쟁을 지휘한 듯하며, 이듬해에도 靈州로 집적 가서 전

5) 『新唐書』 권233, 回鶻傳, “高麗莫離支 令靺鞨以厚利啖夷男, 欲與連和, 夷男氣素索, 不發, 亦會病死, 帝爲祭於行. 始延陀請以庶子曳莽爲突利失可汗, 統東方, 嫡子拔灼爲肆葉護可汗, 統西方. 白道之役, 曳莽實爲之謀, 國人多怨. 及會葬, 曳莽亟還部, 拔灼分兵襲殺之, 自立爲頡利俱利失薛沙多彌可汗. 方是時, 王師猶在遼, 因即寇邊. 帝遣江夏王道宗屯朔州, 代州都督薛萬徹與左驍衛大將軍阿史那社爾屯勝州, 左武侯大將軍薩孤吳仁屯靈州, 執失思力與突厥倚角塞下, 虜知有備, 乃去.”

6) 『舊唐書』 권109, 阿史那社爾傳.

쟁을 독려했다.⁷⁾

위의 기록들을 검토했던 文一平和 金庠基는 645년 태종이 직접 지휘한 당의 대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교착되어 있을 무렵 고구려가 설연타에 공작을 단행하여 당에 반기를 들게 했다고 한다.⁸⁾ 한편 日野도 645년 고구려가 설연타와 손잡고 당을 견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보았다.⁹⁾

노태돈은 645년 당태종의 침공시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薛延陀에 사절을 보내 동맹을 맺고자 하였고, 그해 12월에 설연타는 당의 오르도스 지역의 河南과 하주를 공격하였다고 보았다. 안시성에서 패배하여 퇴각한 다음 해 당은 薛延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될 대고구려전에서 봉착할 수도 있는 후방에 대한 공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¹⁰⁾

최근 그는 이를 재론했다. 설연타의 내부 정변이 안시성에서 당군이 철수하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았다. 당이 주력군을 고구려에 파병함에 따라 그 심장부인 관중지역 방어가 허술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인 만큼 설연타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그런데 당태종의 위세에 압도되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진주가한이 9월에 죽자 작은 아들 拔灼이 서자인 형을 죽이고 사태를 수습한 뒤 새로 가한으로 즉위했고, 새 가한의 동향은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에서 전쟁은 교착된 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7) 『舊唐書』 권199, 철록전, “二十年, 太宗遣使江夏王道宗·左衛大將軍阿史那社爾爲瀚海道安撫大使 右領軍大將軍執失思力領突厥兵, 代州都督薛萬徹·營州都督張儉·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各統所部兵分道進. 太宗親幸靈州, 爲諸軍聲援. 旣而道宗渡, 遇延陀餘衆數萬來拒戰, 道宗擊破之, 斬首千餘級. 萬徹又與 紇相遇, 二將各遣使諭以綏懷之意, 其酋帥見使者, 皆頓 歡呼, 請入朝, 太宗至靈州, 其鐵勒諸部相繼至數千人, 仍請列爲州縣, 北荒悉平.”

8) 文一平, 1939, 「朝鮮人과 國際觀」, 『湖岩全集』 제1권, 朝鮮日報社出版部, 267쪽; 金庠基, 1939, 「淵蓋蘇文」, 『朝鮮名人傳』 제2권, 朝鮮日報社出版部, 30쪽; 李基東, 2004, 「隋·唐의 帝國主義와 新羅外交의 妙諦」, 『新羅文化』 24, 14쪽.

9) 日野開三郎, 1949, 12, 「粟末靺鞨의 對外關係—高句麗滅亡以前」, 『史淵』 42, 九州大學文學部, 1~78쪽; 日野開三郎, 1991,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162~163쪽.

10) 盧泰敦, 1989, 「高句麗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大同文化研究』 23;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40쪽.

설연타의 움직임마저 심상치 않아 9월 18일 당군은 전면 철수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설연타의 동향이 우려되어 신속한 철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¹⁾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은 645년 태종이 직접 지휘한 당의 대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교착되어 있을 무렵 고구려가 설연타에 공작을 단행하여 당에 반기를 들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연타가 당태종의 안시성 철군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추측에 머물고 말았다.

노태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資治通鑑』을 보면 645년 당군의 안시성 앞 철군이 9월이었고, 설연타의 당나라 하주지역에 대한 공격은 12월이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자치통감』의 편년으로 보았을 때 설연타의 당 북변 공격이 당군의 고구려 철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¹²⁾

근자에 淵蓋蘇文이 645년 8월에 靺鞨을 仲媒로 삼아 薛延陀汗國의 眞珠毗伽可汗 夷男(Inan)과 연합하여 당의 침공에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했지만 眞珠毗伽可汗이 당을 두려워하여 감히 행동에 나서지지 못함으로써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본 견해¹³⁾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다. 설연타가 당의 수도 북쪽 夏州를 침공한 것이 당태종이 고구려에서 철수하는 9월 18일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연개소문의 대설연타 공작의 성공여부가 드러나며, 645년 고구려의 대당전쟁의 승리에서 연개소문의 역할이 밝혀진다.

본고에서는 사료의 문맥에 나타나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당조정이 요동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사건들이 당태종에게 전달되어 기록화될 때 요동과의 거리상·시간상 간극이 존재한다.

11)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05~106쪽.

12) 노태돈, 2009, 위의 책, 105~106쪽.

13) 이재성, 2011, 「麗唐전쟁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이 점은 『자치통감』의 저자 司馬光에게도 혼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설연타 진주가한의 사망시점과 설연타의 개입시점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정관 19년(645) 8월 10일조와 12월 25일조의 『考異』에 자신의 편년과 상반된 사실을 전하는 (太宗)實錄과 高宗實錄의 사료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설연타의 개입 시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본문에서는 645년 설연타의 침공시점에 대해 『자치통감』의 저자 司馬光은 어떻게 편년을 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설연타 진주가한의 사망시점과 설연타의 개입시점에 대해 논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연타의 침공과 안시성 전투 소강의 연동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찍이 서양의 역사학자 에버하르트는 고구려가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돌궐계통의 유목민과 동맹을 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⁴⁾ 중국대륙에 통일제국이 등장한 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돌궐계 민족이었고, 중국과 적대적인 고구려는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역학상 구조에서 바라본 견해였다. 연개소문의 대설연타 공작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한다고 여겨진다.

II. 『資治通鑑』 貞觀 19년(645) 12월조의 분석

1084년 司馬光이 낙양에서 『자치통감』을 완성했다. 北宋 神宗의 지원 아래 기존의 기록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편년체의 역사서였다. 이 책에서 그는 설연타의 河南 침공을 정관 19년(645) 12월조에 일괄 기록하고 있다.

14) Wolfram Eberhard, [1950] 1960, *A History of China*, Routledge and Kegan Paul, p. 170.

12月, 7일(辛醜), 上이 중기가 나서, 사람이 운반하는 禦步輦을 타고 갔다. ① 14일(戊申), 并州에 도착하니, 太子가 上을 위해 중기를 빨았고, 輦을 부축하여 걸어서 며칠을 갔다. ② 辛亥(25일), 上이 병이 나아 백관이 경하였다. 上이 高麗를 정벌하러 갔다. 右領軍大將軍 執失思力을 시켜 突厥을 夏州之北에 주둔하게 하고, 薛延陀의 침공에 대비하게 했다. ③ 薛延陀 多彌可汗이 이미 즉위했고, 上이 요동 出征에서 未還했는데, 鮮婁타가 군대를 이끌고 河南을 약탈했다. 上이 左武候中郎將 長安의 田仁會와 思力の 병력을 합쳐 이를 공격하게 했다. 思力이 약하게 보여 거짓으로 후퇴를 하여 유인하니 鮮婁타가 깊이 들어왔다. 夏州之境에 이르러, 整陳하여서 이를 기다렸다. 薛延陀가 大敗하여 달아나니, 6백 리를 추격하였다가 磧北에 耀威하고 돌아왔다. ④ 多彌可汗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夏州를 노략질했다. 己未(645. 12. 25)에 禮部尚書 江夏王 道宗에게 명을 내려 朔 · 並 · 汾 · 箕 · 嵐 · 代 · 忻 · 蔚 · 雲 九州兵을 발하여 朔州를 지키게 하고, 右衛大將軍 代州都督 薛萬徹과 左驍衛大將軍 阿史那社爾는 勝 · 夏 · 銀 · 綏 · 丹 · 延 · 鄜 · 坊 · 石 · 隰 十州兵을 발하여 勝州를 지키게 하고, 勝州都督 宋君明과 左武候將軍 薛孤吳는 靈 · 原 · 寧 · 鹽 · 慶 五州兵을 발하여 靈州를 지키게 하고, 또 執失思力에게 명하여 靈 · 勝 二州 突厥兵을 발하게 하여, 道宗 等과 相應하게 하니 薛延陀가 塞下에 이르러, 備하고 있음을 알고 감히 진격하지 못했다.¹⁵⁾

위의 기록은 645년 12월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다. 내용

15)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十二月, 辛醜, 上病癰, 禦步輦而行. ①戊申(14일), 至并州, 太子爲上吮癰, 扶輦步從者數日. 辛亥(25일), 上疾瘳, 百官皆賀. ②上之征高麗也, 使右領軍大將軍執失思力將突厥屯夏州之北, 以備薛延陀. ③(9월 7일 직후) 薛延陀多彌可汗既立, 以上出征未還, 引兵寇河南, 上遣左武候中郎將長安田仁會與思力合兵擊之. 思力羸形僞退, 誘之深入, 及夏州之境, 整陳以待之. 薛延陀大敗, 追奔六百餘里, 耀威磧北而還. ④多彌復發兵寇夏州, 己未(645년 12월 25일), 敕禮部尚書江夏王道宗, 發朔 · 並 · 汾 · 箕 · 嵐 · 代 · 忻 · 蔚 · 雲九州兵鎮朔州, 右衛大將軍代州都督薛萬徹, 左驍衛大將軍阿史那社爾, 發勝 · 夏 · 銀 · 綏 · 丹 · 延 · 鄜 · 坊 · 石 · 隰十州兵鎮勝州, 勝州都督宋君明, 左武候將軍薛孤吳, 發靈 · 原 · 寧 · 鹽 · 慶五州兵鎮靈州, 又令執失思力發靈 · 勝二州突厥兵, 與道宗等相應. 薛延陀至塞下, 知有備, 不敢進.”

을 엄밀하게 검토해보았을 때 3개의 시점으로 분류된다. ① 당태종은 645년 12월 14일(戊申)에 당나라 并州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현재 太原으로 설연타와 멀지 않은 곳이다. 당태종은 이듬해 2월 2일까지 여기서 체류하면서 설연타와 전쟁을 독려했다. ②辛亥(25)일조, 태종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언급 뒤에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가 시작된다. 645년 봄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면서 집실사력을 시켜 돌궐을 거느리고 하주 북쪽에 주둔하여 장차 설연타에 대비하게 했다.

여기서 시기를 정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③이다. “薛延陀 多彌可汗이 이미 즉위했고, 上이 요동 出征에서 未還한 시기였다. 설연타가 군대를 이끌고 河南을 약탈했다”¹⁶⁾라고 하고 있다.

『자치통감』의 편년으로 보았을 때 설연타의 진주가한의 사망 후 장례식에서 그嫡子 발작이 이복형 예망을 죽이고 다미가한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이 9월 7일 하루 이틀 전에 안시성 앞에 주둔하고 있던 당태종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¹⁷⁾

사마광은 설연타의 새 가한이 즉위한 직후 당태종이 요동에서 벗어나지 않은 시점 사이에 그들의 침공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미가한 발작이 군대를 이끌고 하남을 약탈했다는 기록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태종이 진주가한의 죽음을 애도한 9월 7일조, 철수가 결정된 9월 18일조, 안시성에서 출발하여 遼東城에 도착한 9월 20일조, 요동성에서 遼水를 건너기 시작한 21일, 요택에서의 행군을 하는 사실을 전하는 10월 1일 朔조, 당태종이 營州에 도착한 10월 11일조,¹⁸⁾ 어느 곳에도 넣지 않았다. 사마광은 설연타의 1차 침공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12월 17일조에 당태종이 요동

16) 河南의 위치에 대해 司馬光은 “河南北河以南即朔方新秦之地”라고 주석을 달았다. 河南은 서쪽 감숙성에서 발원한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상하다 다시 동진하는 오르도스의 北河 이남의 朔方 新秦 지역을 말한다고 한다.

17)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9월, 壬申(7일)조, “九月, 壬申, 眞珠卒, 上爲之發哀. [...] 曳莽性躁擾, 輕用兵, 與拔灼不協. 眞珠卒, 來會喪. 旣葬, 曳莽恐拔灼圖己, 先還所部, 拔灼追襲殺之, 自立爲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

18) 『資治通鑑』 권198, 당기14 정관 19년 10월 11일조, “丙午, 至營州.”

에서 벗어나지 않은 시점에 설연타의 공격이 있었다고 애매하게 언급했다. 그것은 사마광이 설연타의 첫 침공의 구체적 시점을 잡는데 확신이 없어서 여지를 남겨놓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고, 결과와 그 전말을 일괄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사마광은 그 시점에 대해 현재의 우리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차선책으로 營州 도착 시점을 요동에서 벗어나 당나라로 들어온 시점으로 보고 그 이전에 설연타가 하남을 침공한 것으로 하자. ④에서 이야기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12월 17일(辛亥) 다미가한이 거둬 다시 군대를 일으켜 하주를 노략질했다(多彌復發兵寇夏州). 12월 기미일(25)에 강하왕 이도종 등을 보내 진수하게 하니 설연타가 대비한 것을 알고 감히 진군하지 못하였다.¹⁹⁾ 사마광의 언급을 근거로 삼아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645년 12월 17일(辛亥)
- ② 645년 봄
- ③ 645년 10월 11일(丙午)
- ④ 645년 12월 17일

『자치통감』에 의거했을 때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한 것이 645년 9월 7일이고, 설연타의 최초침범은 10월 11일 이전, 재침은 12월 17일(辛亥), 당군의 반격 준비가 완료된 것이 12월 25일(己未)이다.

다시 말하지만 ③에서 사마광은 설연타의 최초침공에 대한 편년을 “薛延陀多彌可汗이 이미 즉위했고, 上이 요동 出征에서 未還한 시기”라고 하면서 명

19) 『册府元龜』 권989, 外臣部·備御第2, “(貞觀 19年 645) 十二月(25일 新唐書, 資治通鑑)詔禮部尚書江夏王道宗發朔竝汾箕嵐代忻蔚雲九州兵馬鎮朔州, 又命守衛大將軍代州都督薛萬徹左驍衛大將軍阿史那杜宗等發勝夏寧綏丹延鄜坊石隰等十州兵馬鎮勝州, 又令勝州都督宋君明左武侯將軍薛孤吳仁等發靈原寧鹽慶等五州兵馬鎮靈州, 又令執失思力發靈勝三州突厥兵馬與道宗等相應虜至塞下知有備不敢進(又領軍人將軍執失思力 引兵伐延陀 虜其馳馬數千口).”;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12월 己未조.

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편년으로, 진주가한의 사망소식을 들은 당태종이 645년 9월 7일에 애도를 표한 것을 염두에 두면 그 이후가 되며 겨울에 해당된다. 재침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겨울 12월 17일이다.

여기서 初侵과 再侵의 시간적 간극이 너무 좁다. 풀이 나지 않은 겨울에 2회에 걸쳐 설연타가 대군을 움직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되지는 않는다. 한편 기록의 원형을 비교적 그대로 전하고 있는 『冊府元龜』는 설연타의 당나라 河南 침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 執失思力이 戰功이 있어 安國公에 봉해졌다. 요동을 征討함에 이르러 思力을 남겨 突闕을 統領하여 夏州의 북쪽에서 延陁를 방비하였다.

그 겨울에(其冬), 延陁가 兵十餘萬을 이끌고 河南에 쳐들어왔다. 思力이 약하게 보여 적을 점점 깊이 남쪽으로 유인하여 夏州之境에 이르렀다. 思力이 整陣하여 설연타를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멀리 6백여 리를 추격하여 延陁를 사로잡고 磧北에 耀威하고 돌아왔다.²⁰⁾

B: 田仁會는 左武侯中郎將이 되었는데, 貞觀 18年(644) 太宗이 요동 정벌에 나선 다음에 薛延陁 數萬騎가 河內를 抄掠하자 帝가 仁會와 執失思力에게 영을 내려 兵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擊破하게 했다. 북쪽으로 數百里를 추격했다. 延陁는 脫身하여 走免했다. 帝가 其功을 훌륭하게 여겨 璽書를 내려 慰勞했다.²¹⁾

C: (貞觀 19年, 645) 12月 詔를 내려 禮部尙書 江夏王 道宗은 朔拉汾 箕嵐代忻蔚雲九州兵馬를 發하여 朔州를 지키게 했다. 또 守衛大將軍 代州都督 薛萬徹과 左驍衛大將軍 阿史那杜宗 等에게 명을 내려 勝夏

20) 『冊府元龜』 권432, 將帥部·示弱조, “執失思力有戰功封安國公 及討遼東留 思力統領突闕 於夏州之北 捍御延陁 其冬, 延陁率兵十餘萬來寇河南 思力示羸弱 縱 賊深入漸引 南行至夏州之境 思力整陣擊之 迢奔六百餘里 擒延陁 耀威磧北而還.”

21) 『冊府元龜』 권358, 將帥部·立功11, “田仁會 爲左武侯中郎將 貞觀十八年 太宗征遼發後 薛延陁數萬騎抄掠河內 帝令仁會及執失思力率兵擊破之 逐北數百里 延陁脫身走免 帝嘉其功降璽書慰勞.”

寧綏丹延鄜坊石隰 等 10州 兵馬를 發하게 하여 勝州를 지키게 했다. 또 勝州都督 宋君明 左武侯將軍 薛孤 吳仁 等에게 영을 내려 靈原寧鹽慶 等 五州兵馬를 發하게 하여 靈州를 지키게 했다. 또 執失思力에게 영을 내려 靈勝 三州 突厥兵馬를 發하게 하여 道宗 等과 함께 相應하였다. 설연타(虜)가 塞下에 이르러 有備함을 알고 감히 나가지 못했다.²²⁾

위의 3개의 사건을 사마광이 어떻게 『자치통감』 貞觀 19년(645) 12월조에 일괄 기록했는지 살펴보자.

A기록에서는 설연타의 침공 시기를 645년 겨울(冬)로 명기하고 있다. ③의 645년 10월 11일(丙午)과 ④의 645년 12월 17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B기록에서는 설연타의 침공시기를 644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한 이후라고 명기하고 있다. ③, ④가 해당된다. C기록에서는 설연타가 침공해오자 645년 12월 당태종이 詔를 내려 江夏王 道宗, 薛萬徹, 阿史那杜宗, 宋君明, 薛孤, 吳仁, 執失思力이 반격하도록 했다. 이 기록은 고구려에서 철수한 당나라 군대가 설연타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하는 장면이며, ④의 645년 12월 17일(辛亥)에 해당된다.

A의 기록을 보면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하고 있을 때 집실사력은 돌궐 병력을 이끌고 설연타 침공에 대비하여 夏州의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다. 645년 겨울에 설연타가 병력 10만을 이끌고 河南을 침공하니 그것을 반격하여 격파하고 적북에서 시위하고 돌아왔다. 주지하다시피 겨울은 그해 9월부터 12월에 이르는 기간이다.

B의 기록을 보면 정관 18년(644)²³⁾ 태종이 요동 정벌을 나간 후에 설연타

22) 『冊府元龜』 권989, 外臣部·備御第2, “(貞觀 19年 645) 十二月詔禮部尚書江夏王道宗發朔竝汾箕嵐代忻蔚雲九州兵馬鎮朔州, 又命守衛大將軍代州都督薛萬徹左驍衛大將軍阿史那杜宗等發勝寧綏丹延鄜坊石隰等十州兵馬鎮勝州, 又令勝州都督宋君明左武侯將軍薛孤吳仁等發靈原寧鹽慶等五州兵馬鎮靈州, 又令執失思力發靈勝三州突厥兵馬與道宗等相應 虜至塞下知有備不敢進.”

23) 『舊唐書』 권3, 太宗紀下와 『資治通鑑』 卷198에는 정관 19년으로 나와 있다.

수만 기가 河內를 침공해왔다고 하고 있어 침공시기가 매우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태종의 명령으로 전인회와 집실사력이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북쪽 수백 리로 쫓아냈다고 한다.

『자치통감』 卷198을 보면 644년 11월 甲午일에 당나라 군대가 요동으로 행군이 시작되었다. 『舊唐書』 전인회전의 경우도 정관 18년(644)에 태종이 요동 정벌을 發한 후에 설연타 수만 기가 침공해왔다고 하고 있다. 다만 『자치통감』 정관 19년(645) 12월 辛亥주 주석에서 “田仁會傳作十八年亦誤也”라고 하여 정관 19년(645)의 오기라 하고 있다.

司馬光은 위의 A(645년 겨울)와 B(요동 침공 이후) 두 기록을 ③의 10월 11일(丙午) 직전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놓았다. 위의 정관 19년 12월조에서 “주상이 좌무후중랑장 長安(의) 전인회가 (하주에 와서) 하력과 함께 (병력을) 합쳐 (설연타를) 공격했다(上遣左武侯中郎將長安田仁會與思力合兵擊之)”라고 하여 그는 전인회와 집실사력의 병력결합을 명기하고 있다.

사마광은 설연타가 공격해오자 집실사력이 하주까지 시간을 끌면서 철수하였고, 그 기간에 장안에서 출발한 전인회가 하주에 도착해 전열을 재정비했을 것이며, 집실사력은 전인회와 힘을 합쳐 반격을 해 상황을 역전시켜 설연타 군을 6백 리 추격했다고 보았던 것 같다. A와 B 기록은 집실사력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A에서 집실사력만 등장한다. 또한 두 기록은 시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A는 645년 겨울이라 명기되어 있고, B는 644년 이후라 하고 있다. 또한 설연타의 병력규모에서도 차이가 있다. A는 10만 B는 數萬이라 한다. 설연타를 추격한 거리도 A는 600리라고 명기하고 있는 반면 B는 수백 리라고 하고 있다. 戰果도 차이가 난다. A는 설연타를 생포하였다고 하고, B는 설연타가 도망쳤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확인한 행군 거리의 차이가 감지된다. A는 설연타가 河南을 지나 夏州까지 침공해 들어왔지만 B는 하남에서 설연타가 요격당해 돌아갔다.

사마광은 두 기록을 일괄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설연타의 병력규모(10萬 : 數萬), B의 당군의 추격 거리(수백 리), 설연타의 생포의 여부(생포 : 도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A와 B 둘은 다른

시기의 다른 사건을 전하는 계통이 다른 기록일 가능성도 있으며, 설연타의 변경 침공이 2회에 걸쳐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관 19년 12월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마광이 A와 B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둘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설연타의 최초 침입 시점을 A의 645년 겨울(其冬)로 고정시켰다는 데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 설연타의 唐 夏州 침공 시점과 진주가한의 사망 시점

물론 사마광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치통감』 정관 19년(645) 12월 辛亥조의 『考異』를 보자.

考異曰, 高宗實錄云 會延陀死, 耀威磧北而還, 其意真珠爲延陀也.
按真珠憚太宗威靈, 不敢入寇, 又死在九月 而此云冬來寇, 必非真珠也.

해석은 이러하다. “『考異』에서 가로되, 「고종실록」에서 이르기를 延陀가 죽어서 (당군이) 磧北에 耀威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서 연타는 眞珠(가한)이다. 이를 살피건대 진주는 당태종의 위령을 꺼려서 감히 변경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645) 9월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며, 겨울에 來寇했다고 이르고 있으니, (「고종실록」에서 죽었다는 연타[진주]는) 필시 진주가 아니다.”

사마광도 설연타의 침공이 진주가한의 사망 시점 前인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진주가한의 사망 이전에 설연타의 침공이 있었다고 전하는 「고종실록」은 A기록(『冊府元龜』 卷432, 將帥部·示弱)과 사료충돌이 있어 그는 고민했던 것이다. 그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고종실록」의 사실을 부인했다. 첫째 진주가한은 당태종이 무서워 변경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둘째, 진주가한은 (645) 9월에 죽었다. 셋째, 겨울에 설연타

가 來寇했다. 원만한 검토를 위해 순서를 바꾸어 살펴보자.

1_ 645년 겨울에 설연타가 來寇했다

앞서 언급한 A기록을 보면 645년 겨울에 설연타가 來寇했다고 하고 있다.

A: 其冬, ① 延陁率兵十餘萬來寇河南 ② 思力示羸弱縱 賊深入漸引南行至夏州之境 ③ 思力整陣擊敗之 ④ 迢奔六百餘里 擒延陁 ⑤ 耀威磧北而還.

A에서 其冬(645년 겨울)에 ① 설연타 10만 대군 河南 침공, ② 思力の 河南에서 夏州까지 철수과정과 설연타의 추격과정, ③ 夏州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思力の 반격시작, ④ 思力の 6백 리 거리의 추격과정과 설연타군의 도주와 일부의 생포, ⑤ 磧北에서 耀威하고 귀환 등이 있었다고 한다. 9월에서 12월에 이르는 겨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A기록은 여러 사실들을 일괄적으로 기록했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기록할 때 마지막 부분의 결과가 기록 전체의 시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고구려의 전황을 전하는 『舊唐書』 卷199, 北狄 鐵勒전을 보면 645년 겨울에 모든 사건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① 十九年[各本原作十七年, 據本書 卷三《太宗紀》及卷一九九《高麗傳》·《通鑑》卷一九八改]. 謂其使人曰, 語爾可汗, 我父子東征高麗, 汝若能寇邊者, 但當來也. 夷男遣使致謝, 復請發兵助軍, 太宗答以優詔而止. ② 其冬, 太宗拔遼東諸城, ③ 破駐陣, ④ 而高麗莫離支潛令鞅鞞 ⑤ 夷男, 以厚利, 夷男氣 不敢動. ⑥ 俄而夷男卒, 太宗爲之舉哀.

위의 내용은 여섯 시기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자치통감』 편년월일을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관 19년(645)에 (태종이) 설연타의 使人에게 이르기를 너희 可汗에게

말하라, 우리父子가 고구려로 東征 가는데, 만일 너희가 변경을 약탈하려면 그때 하면 된다. 진주가한(夷男)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 원정에 助軍이 되기를 거듭 청했다. 太宗이 優詔로 답하여 정지시켰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석이 달려 있다. “各本原作에는 (정관) 17년(643)으로 되어 있는데, 本書(舊唐書) 권3, 太宗本紀와 권199, 高麗傳·『資治通鑑』 권198에서는 (정관 19년으로) 고쳤다.” 各本原作에는 태종이 설연타의 진주가한을 협박한 일은 643년(정관 17)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개정한 이유는 그것이 645년의 고구려 원정의 전치문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실이 후대의 사실과 연결되어 전치문장이 될 때 시점은 후대의 사실이 중심이 되는 사례이다. 이는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②에서 其冬, “太宗拔遼東諸城”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645년 겨울에 당태종이 요동의 여러 성을 뽑아냈다고 할 수 없다. 4월 25일 당태종이 李勣을 시켜 개모성을 함락시켰고, 5월 17일 요동성을, 6월 1일 백암성을 함락시켰다. 이하 ③④⑤도 마찬가지다. 『자치통감』을 기준으로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破駐陣: 6월 23일 당태종이 주필진에서 고연수 등의 고구려 중앙군 15만을 대파했다.

④ 而高麗莫離支潛令靺鞨: 6월 23일 직후 연개소문이 말갈인들을 설연타에 몰래 파견했다.

⑤ 惑夷男, 以厚利, 夷男氣不敢動: 연개소문이 보낸 말갈 사절이 설연타의 천막궁전에 도착했고 거대한 이익으로서 설연타의 진주가한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필자는 시공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7월 초반경 있었던 사실로 추측된다.

⑥ 俄而夷男卒, 太宗爲之舉哀: 설연타의 진주가한 이남이 갑자기 죽자 9월 7일 태종이 애도를 표했다.

위의 기록은 여름, 가을, 겨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其冬)은 죽은 진주가한 이남을 위해 황제가 애도를 표한 시점 ⑥(9월 7일)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A기록의 645년 其冬은 思力이 본거지로 돌아온 시점일 수도 있다. 설연타 10만 대군이 河南을 침공하자 思力이 河南에서 夏州까지 철수했고, 설연타가 이를 추격했다. 夏州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思力이 반격을 시작했고, 6백 리 거리를 추격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설연타군을 생포했고, 磧北에서 耀威하고 (645) 겨울에 가서야 귀환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설연타의 夏州 진공과 思力의 반격 등은 겨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어지는 검토에서 이를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2. 진주가한이 당을 침공하지 못했다

『冊府元龜』 권991, 外臣部·備御조에 진주가한이 645년에 당을 침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太宗 遼東을 정벌하러 가서 諸城을 破하고 駐驛之陣에서 高延壽의 항복을 받아 戎狄에게 聲振하는데 이르자 莫離支가 몰래 粟靺鞨을 시켜 延陁를 誑惑하여 厚利를 먹이려 했으나 延陁 氣懼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²⁴⁾

645년 6월 23일 주필산에서 패배한²⁵⁾ 직후 연개소문은 말갈인 사절을 설연타에 보냈다. 사절이 厚利로서 설연타의 진주가한을 유혹하였으나 그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舊唐書』 권199, 北狄 鐵勒전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司馬光은 진주가한이 살아 있을 때 설연타가 당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²⁶⁾

24) 『冊府元龜』 권991, 外臣部·備御조, “及太宗拔遼東 諸城破 駐驛之陣降高延壽 聲振戎狄而 莫離支潛令粟靺鞨 誑惑延陁 啗以厚利 延陁氣懼不敢動.”

25)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6월조, “己未(23일), 延壽·惠眞帥其眾三萬六千八百人請降, 入軍門, 膝行而前, 拜伏請命.”

26) 司馬光은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8월 丙午(10일)조에서 “고려는 주필산에서 패배하자 막리지(연개소문)는 말갈로 하여금(설연타의) 진주 가한에게 유세하여 많은 이익을 가지고 유혹하였지만 진주가한은 두려워 복종하면서 감히 움

필자는 설연타의 진주가한이 직접 당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종실록」에서 설연타의 침공 이후에 죽은 延拖는 진주가한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마광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新唐書』 권123, 諸夷蕃將 집실사력전을 보자.

執失思力, 突厥酋長也. …… 及討遼東, 詔思力屯金山道, 領突厥扞薛延陀. 延陀兵十萬寇河南, 思力示羸, 不與確, 賊深入至夏州, 乃整陣擊敗之, 追躡六百里. 會毘伽可汗死, 耀兵磧北而歸.

위의 기록은 「고종실록」이 전하는 바와 같이 진주가한 사망 이전에 설연타가 당을 침공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 요동 토벌에 이르러 집실사력에게 황제가 詔를 내려 금산도에 주둔하여 돌궐을 지휘하여 설연타를 대비하도록 했다. 설연타의 10만 기병이 하남을 침공하자 집실사력은 약하게 보여 적이 하주까지 들어오게 했다. 집실사력은 이내 진을 정비하여 설연타를 패배시키고 6백 리를 추격했다. 그런데 설연타의 (眞珠)毗伽可汗²⁷⁾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했다고 한다. 설연타의 침공이 먼저이고 진주가한의 죽음이 나중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新唐書』 전인회전을 보자.

太宗이 遼東을 정벌하러 가자, 薛延陀가 數萬騎로서 河內를 엄습했다. 仁會와 執失思力에게 명하여 兵을 이끌고 가서 擊敗하게 했다.²⁸⁾

태종이 요동을 정벌하러 간 후에 설연타가 수만 기병으로 河南(河內)을 공

격하지 않았다(及高麗敗於駐驂山, 莫離支使靺鞨說眞珠, 啖以厚利, 眞珠懼服不敢動)라고 하고 있다.

27) 『舊唐書』 권199, 철록전, “貞觀二年, 葉護可汗死, 其國大亂, 乙失鉢之孫曰夷男, 率其部落七萬餘家附於突厥. 遇 利之政衰, 夷男率其徒屬反攻 利, 大破之. 於是 利部諸姓多叛 利, 歸於夷男, 共推爲主, 夷男不敢當. 時太宗方圖 利, 遣遊擊將軍喬師望從間道齎冊書拜夷男爲眞珠毗伽可汗, 賜以鼓纛, 夷男大喜, 遣使貢方物, 復建牙於大漠之北鬱督軍山下.”

28) 『新唐書』 권210, 전인회전, “田仁會…太宗征遼東, 而薛延陀以數萬騎掩河內, 詔仁會與執失思力率兵擊敗之.”

격했다. 당의 주력이 동북방 고구려에 집중되자 설연타가 그 틈을 이용해 당을 공격했다. 그 침공의 주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3_ 진주가한은 645년 9월에 죽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 정관 19년(645) 9월 壬申(7일)조에 “眞珠卒, 上爲之發哀”라고 하고 있다. 이는 『册府元龜』 권963, 外臣部·封册조의 다음 기록과 부합한다.

정관 19년(645) 9월 설연타 眞珠毗伽可汗이 죽어 황제가 營左에 設祭하고 애도를 표했다.²⁹⁾

645년 9월에 진주가한이 죽어 황제가 애도했다. 단순히 보면 9월이 진주가한 사망 시점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보면 ‘9월’은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을 수식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정확히 말해 ‘9월’은 황제가 진주가한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시점을 수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주가한의 죽음은 몽골리아에서 안시성 앞 당태종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사건 발생지와 거리가 존재할 때 기록은 보고된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도 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 권198, 정관 19년(645) 8월 10일조 『考異』에 진주가한의 사망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충돌되는 다음의 기록을 비판했다.

考異曰 實錄上謂近臣曰 以我量之延陀其死矣 聞者莫能測 按太宗雖明安能料薛延陀之死 今不取.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考異』에서 가로되, (太宗)實錄에서 상(태종)

29) 『册府元龜』 권963, 外臣部·封册조, “十九年九月薛延陁眞珠毗伽可汗卒帝設祭於營左爲發哀.”

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연타(진주가한) 그의 죽음을 헤아리고 있다.’ 들던 자가 능히 알아듣지 못했다. 살피건대 태종이 비록 설연타(진주가한)의 죽음을 밝히고 있지만 어찌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다고 하겠는가? 지금 취하지 않는다.”

8월 10일경 태종이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직감일까. 당태종은 司馬光이 접했던 北宋 神宗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역대 중국의 어느 황제보다 북방 유목민들에 대해 정통했다. 당태종이 가장 의식한 제3국은 설연타였고, 무엇보다 연개소문이 진주가한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당태종은 알고 있었다. 당태종은 진주가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장본인이기도 했다. 『자치통감』 권197, 정관 17년 윤6월 10일조를 보자.

계필하력이 말씀을 올렸다. 설연타와 더불어 결혼할 수 없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였는데 어찌 天子가 되어 食言을 할 수 있겠는가? 신은 폐하께서 갑자기 혼인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遷延시키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신이 들건대 옛부터 親迎之禮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남(진주가한)에게 친영하라고 조칙을 내리면 경사에까지 못 온다 하더라도 靈州까지는 응당 와야 할 것이지만, 그는 (생포될까 두려워) 감히 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남(진주가한)은 성질이 사나워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부하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될 것이니, 1~2년도 못되어 病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爭立하게 되니 (우리는) 앞서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³⁰⁾

642년 철륵의 別部 계필 部民들이 초원의 강자 설연타를 추종하려고 하자. 태종의 지시를 받은 계필하력은 이들을 설득하러 갔다. 하지만 그는 설연

30) 『資治通鑑』 권197, 정관 17년 윤6월 10일조, “何力對曰 臣非欲陛下遽絕之也, 願且遷延其事. 臣聞古有親迎之禮, 若敕夷男使親迎, 雖不至京師, 亦應至靈州; 彼必不敢來, 則絕之有名矣. 夷男性剛戾, 既不成昏, 其下復攜貳, 不過一二年必病死, 二爭立, 則可以坐制之矣! 上從之.”

타에 넘겨졌고, 진주가한 앞에서 자신의 귀를 잘라 당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절개를 보였다.³¹⁾ 태종이 진주가한에게 新興公主를 시집보낸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그는 풀려났다.³²⁾

태종이 약속을 이행하려는데 계필하력이 적극 반대했다. 진주가한은 당이 약속한 공주를 요구했으나 계필하력의 건의를 받아들인 당태종은 친영지례를 빌미로 설연타 진주가한과의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³³⁾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발생할 이후의 결과를 계필하력이 예측했다는 점이다. “이남(진주가한)은 성질이 사나워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부하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될 것이니, 1~2년도 못 되어 病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爭立하게 되니 (우리는) 앞서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 태종대에 북방 초원 유목세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정보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의 아래에 유목민 출신 명장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목민의 습성과 내부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계필하력의 외교정책상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설연타와의 파혼 결정의 결과는 거의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新唐書』 卷233, 回鶻傳에서 “연개소문이 회유했지만 夷男(진주가한)이

31) 『資治通鑑』 권196, 정관 16년 10월 14일조, “其徒執之詣薛延陀, 置眞珠牙帳前. 何力箕踞, 拔佩刀東向大呼曰, 豈有唐烈士而受屈虜庭, 天地日月, 願知我心. 因割左耳以誓. 眞珠欲殺之, 其妻諫而止.”

32) 『舊唐書』 권109, 계필하력전; 『資治通鑑』 권196, 정관 16년 10월 14일조, “會有使者自薛延陀來, 具言其狀, 上爲之下泣, 謂左右曰, 何力果如何. 卽命兵部侍郎崔敦禮持節諭薛延陀, 以新興公主妻之, 以求何力. 何力由是得還, 拜右驍衛大將軍.”

33) 당태종 자신도 설연타와 혼인약속을 지키라는 신하들의 주청을 물리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資治通鑑』 권197, 정관 17년 윤6월조를 보자. “今以女妻之, 彼自恃大國之婿, 雜姓誰敢不服! 戎狄人面獸心, 一旦微不得意, 必反噬爲害. 今吾絕其昏, 殺其禮, 雜姓知我棄之, 不日將瓜剖之矣, 卿曹第志之.” 당이 설연타와 혼인을 맺으면 초원의 여러 유목부족들에 대한 진주가한의 위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혼약을 끊어 당태종 자신이 진주가한을 포기했다는 것을 여러 유목민 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설연타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다.

34)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참조.

IV. 안시성 전투의 小康과 당군의 철수

643년 설연타의 諸部는 파혼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관련기록을 보자.

설연타의 진주가한이 그의 조카인 돌리 設을 시켜 (그가 당 조정에) 와서 폐물을 바치고 말 5만 필, 소와 낙타 1만 두, 양 10만 마리를 헌납하였다.³⁶⁾

황상이 사자를 (설연타에) 세 번 보내어 그들이 헌납한 여러 가지 가축을 받았다. 설연타에는 원래 창고와 마구간이 없었는데, 진주가한이 여러 部에서 징발하여 거두어들여 가지고 왕복 1만 리를 가는데 사막을 지나면서 물과 풀이 없어서 소모되어 죽은 것이 곧 반이 되었고 기한을 놓치고 오지 못하였다. 의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빙례를 치르는 제물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들과 통혼한다면 장차 戎狄이 중원에 있는 나라를 가볍게 생각하니, 황상은 마침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의 혼인을 끊는다고 하고, (진주가한의 친영지례를 받기 위해 태종이 친히-필자) 靈州로 가는 것도 중지하고 세 번 보낸 사절도 뒤쫓아서 돌아오게 하였다.³⁷⁾

당태종이 진주가한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진주가한은 조카를 시켜 당태종에게 혼인의 폐물과 설연타의 諸部에서 징발한 말 5만 필 · 소와 낙타 1만두 · 양 10만 마리를 보냈다. 설연타 諸部가 여기에 응한 것은 당황실과 혼인이 성사되면, 공주가 지참해올 물자를 진주가한이 재분배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혼사는 파기되었고, 많은 가축을 잃었다.

36) 『資治通鑑』 권197, 정관 17년 윤6월 丁巳조, “薛延陀眞珠可汗使其侄突利設來納幣, 獻馬五萬匹, 牛·橐駝萬頭, 羊十萬口.”

37) 『資治通鑑』 권197, 정관 17년 윤6월 丁巳조, “上發使三道, 受其所獻雜畜. 薛延陀先天庫廩, 眞珠調斂諸部, 往返萬里, 道涉沙磧, 無水草, 耗死將半, 失期不至. 議者或以爲聘財未備而與爲昏, 將使戎狄輕中國, 上乃下詔絕其昏, 停幸靈州, 追還三使.”

厚利를 주겠다고 제안한 연개소문 사절의 등장에 설연타 諸部가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 당군의 공격에 밀리고 있던 고구려의 절박함만큼이나 厚利의 규모가 거대했을 것이다. 연개소문도 앞서 파혼으로 발생한 설연타의 제부의 손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다시 넓은 사사로움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혼인할 것을 허락하셨는데 西로는 吐蕃에게 알리고, 북으로는 (阿史那)思摩에게 알아 듣게 했으며, 나라 안의 어린아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문에 나가서서 그들(설연타)이 현납한 식사를 받으시고 여러 신하들과 사방에서 온 夷狄들이 연회를 하면서 종일토록 즐겼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여 한 명의 딸을 아끼시지 않으신다고 말하니, 무릇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은덕을 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물러나려는 뜻이 생기고 고쳐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신은 국가를 위하여 이러한 명성 있는 소문을 애석하게 여기는데, 돌아본 것이 아주 적지만 잃는 것은 특별히 많으며, 혐의하는 틈이 이미 생기면 변경에 걱정거리가 만들어집니다.³⁸⁾

저수량은 당태종이 파혼을 하려 하자 그것을 만류했다. 혼인 약속은 나라 안의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황제가 축제의 공간인 장안의 북문에서 대규모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황제가 약속한 혼인과 그것의 무산은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저수량은 당과 설연타의 틈이 벌어져 변방의 걱정거리가 될 것을 걱정했다. 645년 연개소문의 대설연타 공작은 그 틈을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진주가한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病死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연개소문이 보낸 사절이 도착했을 당시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가능성이 높다. 진

38) 『資治通鑑』 권197, 정관 17년 윤6월조, “薛延陀本一俟斤, 陛下蕩平沙塞, 萬裏蕭條, 餘寇奔波, 須有酋長, 璽書鼓蠡, 立爲可汗。比者複降鴻私, 許其姻媾, 西告吐蕃, 北諭思摩, 中國童幼, 靡不知之。禦幸北門, 受其獻食, 群臣四夷, 宴樂終日。鹹言陛下欲安百姓, 不愛一女, 凡在含生, 孰不懷德。今一朝生進退之意, 有改悔之心, 臣爲國家惜茲聲聽; 所顧甚少, 所失殊多, 嫌隙旣生, 必構邊患。”

주가한은 직접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병력의 상당부분은 그의 두 아들 발작과 예망이 장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사신이 아들들과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에게 고구려 사신이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정관 19년(645) 9월 壬申(7일)조를 보자.

曳莽은 성이 躁擾하여, 가볍게 군사를 사용하여(輕用兵), (嫡子인) 拔灼과 협조하지 아니(不協)하였다.³⁹⁾

司馬光은 이 기록을 645년 9월 7일조에 넣었다. 初라고 시작되는 기록으로 진주가한이 죽은 후 장례식장에서 拔灼이 曳莽을 습살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이전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다. 예망은 성격이 급하여 가볍게 군사를 사용하기도 했고, 예망과 발작은 군대를 움직이는데도 不協했던 것 같다.

그들도 아버지가 설연타의 諸部에게 입힌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고, 고구려 사신이 아버지에게 제시한 厚利를 전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칸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형제는 ‘厚利’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제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을 당태종이 조의를 표한 9월 7일 이전으로 놓고 『新唐書』 卷123, 諸夷蕃將 집실사력전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보자.

① 태종이 요동 토벌에 이르러 황제가 思力에게 명하여 金山道에 주둔하게 하고, 突厥을 거느리고 薛延陀를 막게 했다. ② 설연타의 10만 대군이 河南에 쳐들어왔고 사력이 그들을 夏州까지 깊이 유인했다. ③ 전열을 재정비한 思力の 반격을 했고 설연타를 패배시켰다. ④ 도망가는 설연타를 600리나 추격했다. 설연타의 진주비가가한이 죽어서, ⑤ 磧北에서 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①에서 ④까지는 8월 그달을 포함한 이전으로 볼 수 있고, ⑤는 9월 7일 직전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河南에서 夏州까지의 진퇴는 600리를

39)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 9월 壬申(7일)조, “曳莽性躁擾, 輕用兵, 與拔灼不協.”

왕복한 1,200리이고, 약 500km 이상의 이동 거리를 상정할 수 있다. 설연타군이 남하한 夏州는 지금의 내몽고와 섬서의 경계 지역의 平夏, 陝西省 靖邊縣 북쪽 白城子로 榆林과 延安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서 설연타의 중심지 몽골리아에서 河南까지 행군거리는 제외한 것이다.

기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병은 만사가 능통한 것은 아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기병의 하루 정상 이동 거리는 26km였다고 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행군할 수 있는 거리다. 그 이상 이동하면 다음 날 행군에 지장을 초래한다. 개인당 말을 세 마리 정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먹여야 하는 입이 늘어나 시간이 소요되고, 기동성 향상에 상대적인 도움은 될지라도 절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싱싱한 말을 골라 별동대를 편성하면 기동력은 빨라진다. 하지만 그것도 장기적인 작전은 쉽지 않다. 하루에 60km를 갈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 말은 3일 정도를 휴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의 야간 행군은 쉽지 않다.

설연타가 본거지에서 河南을 침공하는 과정과 그곳에서 夏州까지의 진격, 그리고 집실사력의 반격을 받아 다시 하주에서 철수해서 하남을 거쳐 북상하는 전 과정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500km 정도의 진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의 시간을 계산하면 그러하다. 10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그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高宗실록』과 『新唐書』 卷123, 집실사력전에는 진주가한이 사망하여 설연타와 싸우던 당군이 철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설연타군은 가을 7월부터 당변경을 공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록에서 집실사력은 夏州까지 남하한 설연타군에 반격을 가했고, 도주하는 설연타 군대를 추격하다가 진주가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적북에서 시위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사망소식은 설연타가 먼저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주에서 설연타 군대는 집실사력에게 밀려 도주했다기보다는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서둘러 철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가한의 장례식 후 새로운 칸을 결정해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철수하는 설연타군을 집실사력이 추격했고, 그러다 그는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전하는 8월 10일조의 「(太宗)實錄」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안시성에 대한 당태종의 본격적인 공략이 지체된 것도 설연타 군대의 夏州 침공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치통감』 권198, 정관 19년 6월 20일 조에서 8월 10일조까지를 보자.

6月 丙辰(20일)에 안시성에 도착하여 군사를 내어 보내어 그곳을 ‘공격’하였다.

丁巳(21일) 고려 북부육살 延壽와 惠眞이 고려와 말갈 15만을 인솔하여 안시성을 구원하였다.

己未(23일) 延壽와 惠眞이 帥와 其眾 3만 6千 8백인과 함께 항복을 청하고 군문으로 와 기어서 앞에 이르러 엎드려 명을 청하였다.

7月 辛未(5일), 황상이 營을 安市城 東嶺으로 옮겼다.

己卯(13일), 詔로 標識를 戰死者의 屍에 달았다. 군대가 돌아갈 때를 기다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했다.

戊子(22일), 高延壽를 鴻臚卿으로 삼고, 高惠眞을 司農卿으로 삼았다 …….

8月 甲辰(8일), 候騎가 莫離支의 諜者 高竹離를 사로잡아, 묶어 軍門에 데리고 왔다.

丙午(10일), 營을 安市城 南으로 옮겼다 …….

위의 기록을 보면 6월 20일 당군은 안시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날 고구려 구원군이 다가오면서 그것은 중단되었다. 그런데 6월 23일 주필산 전투가 끝나고 군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이동시킨 7월 5일까지 당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며, 7월 내내 아무런 전투 기록이 없다. 8월 10일 안시성 남쪽으로 진영을 옮겼지만 전투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어지는 9월 7일조에 안시성 전투기록을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 “8월 군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옮기고 李勣이 安市를 공격했다”라고 하고 있어,⁴⁰⁾ 8월 10일 직후 동쪽으로 군영을 옮긴

이후에야 안시성에 대한 공격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월 23일에서 8월 10일 직후까지 40일 이상의 소강이 보인다.

7월에 설연타가 오르도스의 夏州를 공격하던 상황은 안시성 앞에 주둔하고 있던 당태종 군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고, 8월 10일 진주가한이 죽고 설연타의 군대가 하주에서 초원으로 철수한 것이 확인된 직후 안시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오르도스에서 설연타와의 전투와 요동에서의 전쟁이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두 전선의 연동이 상정된다.⁴¹⁾

소강은 안시성 성민들뿐만 아니라 고구려군 전체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 8월 당군의 안시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있었지만 성은 바로 함락되지 않았고, 새로운 결정을 위해 어전회의가 열렸다.⁴²⁾ 안시성을 건너뛰어 오골성을 공격하여 뺏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직공하지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황제도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태종의 처남인 장손무기가 반대했고, 안시성에 대한 재공략이 결정되었다.

황제가 이를 따르려고 하는데 홀로 長孫無忌가 말했다. 천자가 친히

40) 『舊唐書』 권199, 고려전, “八月, 移營安市城東, 李勣遂攻安市.”; 645년 6월 23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안시성 앞에서 전투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은 김용만이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김용만은 이를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당군은 (6월 23일) 1차 주필산 전투 이후 무려 50일간이나 주필산 일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이 진군하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 지원군 본진이 당군을 이곳에 몰아넣고 포위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라 하겠다.” 김용만, 2003, 『새로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155~156쪽.

41) 『新唐書』 권220, 고려전을 보면, 645년 遼東 전선에서 河北省 保定에 위치한 定州까지 驛을 통해 당태종이 태자 이치에게 소식을 전달했다고 한다. 定州에서 太原을 거쳐 長安에 이르는 길은 중요한 간선으로 驛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설연타가 오르도스 남쪽 夏州(平夏)까지 남하한 소식과 집실사력의 반격을 받아 철수한 소식은 太原에서 定州를 경유하여 요동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2) 요동성은 7일, 백암성은 4~5일 만에 함락되었는데 안시성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함락되지 않자 어전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회의 내용은 『자치통감』 권 198, 정관 19년 9월 7일조에 있는데, 初로 시작되고 있어 앞서 8월 안시성을 본격적으로 공략한 후의 사실로 보인다.

정벌을 나왔으니 제장이 온 경우와 달라서 위험을 타고서 요행을 바랄 수 없다. 지금 건안성과 신성에 있는 오랑캐 무리(고구려군)가 10만인데 만약 오골성으로 향한다면 모두가 우리의 뒤를 밟아올 것이다.⁴³⁾

평양을 향해 직공하자는 견해에 대한 장손무기의 반대 ‘이유’가 주목된다. 당시 건안성과 신성에 고구려 병력 10만이 있다는 것이다. 신라·백제의 전체 가용병력을 뛰어넘는 규모다. 본래부터 두 성에 그 정도의 병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월부터 당군의 공격을 받은 바 있었던 두 성은 40일 이상의 소강기를 가지면서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가령 주필산 전투에 투입된 고구려 병력 15만 가운데 일부는 戰死했고 포로가 된 자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흩어져 그곳을 떠났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신성과 건안성의 보충 병력으로 재활용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안시성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설연타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牙帳으로 돌아온 진주가한의 두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葬事가 끝나자 적자인 발작은 이복형제 예망을 襲殺하고 그 部衆을 손에 넣은 뒤 多彌可汗으로 즉위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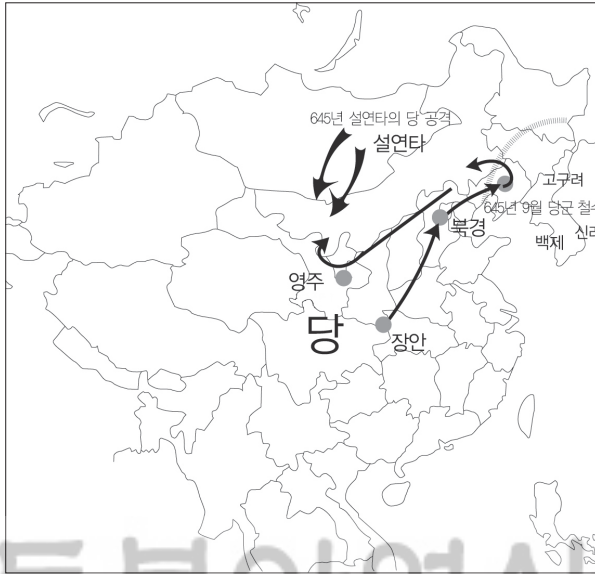
유목사회의 내분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들의 내분은 유목제국을 파멸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야망에 찬 유능한 새 지도자가 배태되는 산고이기도 했다. 내분은 유목국가를 분열 와해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강화·팽창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다.⁴⁵⁾

결과는 당태종에게 의외였을 수도 있다. 정변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진주가

43)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 9월 7일조, “上將從之, 獨長孫無忌以爲 天子親征, 異於諸將, 不可乘危徼幸. 今建安·新城之虜, 眾猶十萬, 若向烏骨, 皆躡吾後, 不如先破安市, 取建安, 然後長驅而進, 此萬全之策也. 上乃止.”

44)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9월 7일조, “任申 …眞珠卒, 來會喪. 旣葬, 曳莽恐拔灼圖己, 先還所部, 拔灼追襲殺之, 自立爲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

45) J. Fletcher, 1986, “The Mongols: Ec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6-1, Harvard-Yenching Institute, Cambridge Massachusetts, pp. 11~50(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61쪽에서 재인용).



〈그림 2〉 645~646년 당태종 행군로(서영교,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44쪽 그림)

한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렇게 신속하게 제거하고 部衆을 장악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당태종이 바라던 것은 이복형제 간의 장기적인 내란상태였다.

앞서 당태종은 진주가한의 서자인 曳莽을 突利失可汗으로, 적자인 拔灼을 四葉護可汗으로 책봉하여 각각 동방과 서방을 통할하게 했다.⁴⁶⁾ 당은 설연타의 가한이 사망하기 전부터 그의 두 아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조장하여 설연타를 약화시키려고 했다.⁴⁷⁾

당태종은 9월 7일에 가서 설연타의 진주가한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

46)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9월조, “九月, 壬申, 眞珠卒, 上爲之發哀. 初, 眞珠請以其庶長子曳莽爲突利失可汗, 居東方, 統雜種; 嫡子拔灼爲肆葉護可汗, 居西方, 統薛延陀 詔許之, 皆以禮冊命.”

47)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62쪽.

리고 9월 18일에 안시성 앞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⁴⁸⁾ 당태종이 조의를 표한 것은,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구려의 厚利 제안에도 진주가한이 움직이지 않아 의리를 지켰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당을 침공하여 그 의리를 저버린 그 이들은 징벌의 대상이었다.

10월 11일 당태종은 요서의 營州에 도착했다. 앞서 안시성에서 철수한 강하왕 도중, 阿史那社爾, 張儉 그리고 契苾何力이 설연타 공격에 대비해 서북으로 투입되었다. 당태종도 장안의 궁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營州에서 并州(太原)로 곧장 이동했다.⁴⁹⁾ 그는 그곳에서 12월 14일부터 이듬해 2월 2일까지 체류하면서 설연타와의 전쟁을 독려했다.

645년 6월 23일 당태종은 안시성 앞 주필산에서 고구려 중앙군 15만을 대파했다. 연개소문에게 선택의 여지는 크게 줄었다. 당시의 전세로 보아 시간이 흐르면서 요동에 있는 여러 성들이 당군에게 차례로 함락될 것이 분명했다. 상황의 반전이 필요했다.

연개소문에게 당의 강력한 몽골리아의 지배자 설연타를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설연타가 당에 반기를 든다면 고구려에서 당군은 물러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동에서 당군의 움직임을 지체시킬 수 있었다. 연개소문은 설연타의 진주가한을 매수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불확실했다. 그런 만큼 설연타 진주가한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는 막대했을

48)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9월 18일조, “癸未, 敕班師.”

49) 『資治通鑑』 권198, 정관 19년(645) 12월 14일조, “戊申, 至并州.”

것이다. 당시 설연타는 어려운 상태였다.

643년 당태종은 진주가한에게 자신의 딸 신흥공주를 주기로 한 혼인약속을 파기했다. 막대한 예물을 충당한 설연타의 제 부족들은 파혼으로 큰 손해를 보았고, 진주가한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645년 厚利를 주겠다는 연개소문 사절의 등장에 설연타의 제 부족이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었을가.

그러나 진주가한은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또 그는 파혼의 여파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대는 그의 두 아들 발작과 예망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었다. 고구려 사신이 그들과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들도 아버지가 설연타의 諸部에게 입힌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고, 고구려 사신의 제안은 아버지가 설연타 제 부족에게 잃은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을 수도 있다.

『자치통감』 정관 19년(645) 12월 辛亥조 『考異』의 「고종실록」과 『신당서』 집실사력전에 따르면 진주가한이 사망하기 이전에 설연타가 군대를 움직인 것으로 나온다. 두 기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7월에 설연타가 당의 河州를 침범했고 이어 夏州까지 남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설연타 군대는 夏州에서 집실사력의 반격을 받고 후퇴한다. 추격하던 집실사력은 진주가한의 사망소식을 듣고 적북에서 시위하고 돌아온다.

물론 사망소식을 먼저 접한 것은 집실사력이 아니라 설연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연타는 夏州에서 속히 본거지로 돌아가야 했고, 집실사력이 이를 추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집실사력은 설연타 군대의 철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치통감』 권198, 정관 19년(645) 8월 10일조 『考異』의 「(태종)실록」은 당태종이 설연타 진주가한의 죽음을 헤아리고 있었다고 한다.

8월에 가서야 안시성에 대한 당군의 공격이 본격화된다. 7월에 설연타가 夏州까지 남하한 상황은 요동 주둔 당태종 군대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치통감』을 보면 6월 23일 주필산 전투가 끝나고 군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이동시킨 7월 5일까지 당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며, 7월 내내 아무런 전투 기록이 없다. 『구당서』 고려전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8월 어느 시점에 당군이 안시성 동쪽으로 진영을 옮기면서 李勣은 안시성 공격을 시작한다.

오르도스와 요동의 두 전선은 서로 연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이로 인한 설연타의 당 夏州 침공은 고당전쟁의 소강기를 도래하게 했다. 상당기간의 소강은 안시성과 고구려 군대 전체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성과 건안성은 병력 총 10만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안시성은 당의 집중적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은 가운데 설연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진주가한 장례식에서 적자인 발작이 이복형인 예망을 급습하여 살해했고, 단숨에 설연타의 전체 부중을 장악하고 가한으로 즉위했다. 설연타의 정변은 장기적인 내전으로 가지 않았다.

새 가한이 즉위하면서 그들의 재침 가능성은 상승했다. 당태종은 9월 7일 진주가한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안시성 앞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10월 11일 당태종은 營州에 도착했고, 李道宗·阿史那社爾·張儉·契苾何力 등을 내몽골지역으로 투입하였다. 이어 당태종은 營州에서 并州(太原)로 곧장 이동했다. 그는 그곳에서 12월 14일부터 이듬해 2월 2일까지 체류하면서 설연타 토벌전쟁을 독려했다.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의 성공으로 전선이 고구려의 안시성에서 몽골리아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성종실록』·『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冊府元龜』

김용만, 2003, 『새로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徐榮教, 2006, 『羅唐戰爭史 研究 -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日野開三郎, 1991,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Eberhard, Wolfram, [1950] 1960, *A History of China*, Routledge and Kegan Paul.

金庠基, 1939, 「淵蓋蘇文」, 『朝鮮名人傳』 제2권, 朝鮮日報社出版部.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盧泰敦, 1989, 「高句麗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大同文化研究』 23.

文一平, 1939, 「朝鮮人과 國際觀」, 『湖岩全集』 제1권, 朝鮮日報社出版部.

徐榮教, 2003,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內陸아시아 靺鞨- 안시성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李基東, 2004, 「隋·唐의 帝國主義와 新羅外交의 妙諦」, 『新羅文化』 24.

이재성, 2011, 「麗唐전쟁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日野開三郎, 1949. 12, 「粟末靺鞨의 對外關係 - 高句麗滅亡以前」, 『史淵』 42, 九州大學 文學部.

Fletcher, J., 1986, "The Mongols: Ec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6-1, Harvard-Yenching Institute, Cambridge Massachusetts.

[ABSTRACT]

Yeon Gaesomun(淵蓋蘇文) Who Dealt with
Xue Yantuo(薛延陀) Khan and Emperor Taizhong of Tang
China(唐太宗) and Defeat in the War in Koguryo in 645

Seo Youngkyo

In 645 war broke out between Koguryo and Tang China. That year, Tang annihilated the Koguryo army of 150,000 at Mt. Jupil. Then the Koguryo ruler Yeon Gaesomun sent an envoy to Mongolia, where Xue Yantuo wa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 Koguryo envoy promised the Khan great profits. The Khan's state of health worsened. However, his son had a military force. Koguryo must bribe his son. In the seventh month of 645, the Khan's army invaded Tang China. However, due to the death of the Khan, the army withdrew from Ordos China.

In the Koguryo-Tang war there was a lull from late in the sixth month to early in the eighth month in 645. During this period, Koguryo had time to reorganize its military. In the eighth month China attacked the Koguryo army but Ansi Castle(安市城) did not fall. At the funeral, a coup occurred, with the winner taking charge of seizing Xue Yantuo. In the ninth month Taizhong heard the information regarding Koguryo. He withdrew from Koguryo because the new ruler of Mongolia would invade China again. Yeon Gaesomun led diplomacy that succeeded in Mongolia and the Chinese army withdrew from Koguryo.

Keywords

Sima Guang, Yeon Gaesomun, Taizhong, Xue Yantuo, Emperor
Kaozhong *shilu*, Ansi Castl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情勢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이정빈 | 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세기 후반 요서지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국제정세의 변화를 민감히 반영하였는데,¹⁾ 그 일부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속하였다.²⁾ 그러므로 6세기 후반 요서지역의 정세는 고구려의 대외관계·대외정책 수립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³⁾ 특히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에서는 수의 증원지

※ 투고일: 2014년 2월 25일,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26일

- 1)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58~59쪽.
- 2) 이에 대한 최근의 자세한 논의로 李成制,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 羅」, 『大邱史學』 113 참조.
- 3)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요서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대외정책을 다룬 연구로 다음이 대표적이다. 日野開三郎, 1950, 「隋唐に歸屬せる粟末靺鞨人突地稽一黨」, 『史淵』 45; 日野開三郎, 1991, 『東洋史學論集 15-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局;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金善昱, 1984, 「高

역 통일과 그에 따른 요서지역의 정세변화를 주목하였다. 그런데 수의 중원지역 통일은 北周(557~581)의 국가체제 정비와 대외정책부터 그 기반이 마련되었고,⁴⁾ 이미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요서지역의 정세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여겨지는데,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高寶寧⁵⁾ 세력의 동향이 주목된다.⁶⁾ 고보령 세력은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돌궐과 연합하였고 북주·수와 대립하였다. 따라서 고보령 세력은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이 동맹관계였다고 파악하였다. 고구려와 고보령이 연합해 북주·수와 대립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隸

句麗의 隋唐關係研究－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26; 菊池英夫, 1992, 「隋朝の對高句麗戰爭の發端について」,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16; 韓昇, 1995,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編集委員會 編, 『堀敏一先生古稀紀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王小甫, 1997, 「隋初與高句麗及東北諸族關係試探－以高寶寧據營州爲中心」, 『國學研究』 4, 北京大學出版社; 王小甫 主編, 2003,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김호 역, 『성당시대와 동북아정국』, 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번역 34; 李成制, 2000,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 90; 李成制,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이재성, 2005,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衝突」, 『북방사논총』 5; 김진한, 2007,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요해지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김진한,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4)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로 辛聖坤, 1998, 「北周 武帝의 集權的 體制改革과 그 性格」, 『中國學報』 39; 丁載勳, 1999, 「西魏·北周時期(534~581)의 對外政策」, 『中國學報』 42; 菅沼愛語, 2013, 「西魏·北周의 對外政策と中國再統一へのプロセス」, 『史窓』 70 참조.
- 5) 高寶寧은 『北齊書』 등에서 高保寧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高寶寧이라 한다. 이에 사료의 원문과 번역은 그대로 두지만, 본문에서는 高寶寧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 6) 韓昇, 1995, 앞의 글, 354~358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1~53쪽; 趙娟, 2011, 「從高寶寧事件看隋初與高句麗的關係」, 『陝西社會科學論叢』 2011-5.

山戰鬪였다. 이를 보면 고구려의 平原王이 북주의 武帝와 전투하였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570년대 후반 고구려는 북주와 교섭하였고, 580년대 중반까지 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⁷⁾ 이를 보면 과연 고구려와 북주가 대립관계였는지 의문이다.

한편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돌궐이 우호관계였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는 고구려와 북주·수의 대립구도를 전제한 것으로, 이로써 고구려·돌궐·고보령 세력 對 북주·수의 대립구도가 상정되었다. 하지만 고구려와 돌궐의 우호관계는 사료적인 실증이 아니라 정황논리에 입각한 설명이었다. 관련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는다면 그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이산전투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해석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이 무렵 요서지역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북주·수 그리고 돌궐의 관계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II.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이산전투의 재검토

이산전투는 다음의 사료에 전한다.

7) 金善昱, 1984, 「高句麗의 隋唐關係 研究－朝貢記事의 檢討를 中心으로」, 『論文集』 11-2,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4~5쪽; 여호규, 2002,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대수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6, 5쪽.

A. 이때 後周의 武帝가 군대를 내어 遼東을 征伐하였다. [平原]王이 군대를 거느리고 肄山⁸⁾의 들판에서 맞서 싸웠다. 溫達은 先鋒이 되었는데, 힘써 싸워 수십여 級을 베었다. 諸軍이 승세를 타고 奮擊하여 [後周의 군대를] 크게 이겼다.⁹⁾ (『三國史記』 卷45, 列傳5 溫達)

위 사료는 『삼국사기』 溫達傳의 일부다. 온달전의 전반부는 설화적 색채가 강하지만, 위 사료를 포함한 후반부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위 사료에서 고구려의 平原王(재위 559~590)이 ‘後周 武帝의 遼東 정벌’에 맞서 肄山의 들판에서 전투하였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위 사료에서 후주는 북주로 이해된다.¹¹⁾ 그런데 북주의 武帝(재위 560~578)가 고구려를 공격한 사실은 위 사료에만 나온다. 다른 사서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고구려와 북주는 영역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무제의 재위기 요서지역에는 고보령 세력이 웅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평원왕과 북주 무제가 고보령 세력을 배제한 채, 직접 전투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570년대 후반 요서지역의 정세를 고려할 때 위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삼국사기』 온달전의 이산전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위 사료에 보이는 ‘후주 무제의 요동 정벌’을 북주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으로 이해하였다.¹²⁾ 그리고 고구려가 고보령 세

8) 正德本을 비롯한 현존 『三國史記』 판본의 대부분에는 拜山으로 되어 있지만, 誠庵本에는 肄山으로 나온다. 誠庵本을 존중해 肄山으로 표기한다.

9) “時後周武帝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肄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

10) 李基白, 1967, 「溫達傳의 검토－高句麗 貴族社會의 身分秩序에 대한 瞥見」, 『白山學報』 3;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04~109쪽.

11) 李基白, 1996, 「溫達傳의 검토－高句麗 貴族社會의 身分秩序에 대한 瞥見」, 위의 책, 107쪽.

12) 韓昇, 1995, 앞의 글, 355~356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2003, 앞의 책, 46~47쪽; 金鎮漢, 2010, 앞의 글, 122~124쪽; 趙娟, 2011, 앞의 글; 鄭媛朱,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24~126쪽.

력과 연합해 북주의 무제와 전투하였다고 보고, 이것이 이산전투였다고 설명하였다.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이 반복주 동맹관계였다고 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중시되었다.

B. 宣政 元年(578) 5월 己丑(23日)에 武帝가 군대를 거느리고 北伐하였다. 柱國 原公姬願·東平公 宇文神舉 등으로 군대를 이끌고 다섯 방면(五道)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였다¹³⁾(『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위 사료는 578년 5월 23일 북주의 무제가 돌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지시한 사실을 전한다. 당시 고보령 세력의 동향은 다음의 사료에 자세하다.

C-1. ① 北周의 군대가 장차 [北齊의] 鄴城에 이르자 幽州行臺 潘子晃은 黃龍城의 군사를 요청하였다. 高保寧은 정예병과 함께 契丹·靺鞨의 萬餘 기병을 거느리고 가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北平에 이르러 潘子晃이 이미 薊城을 떠났고, 또한 鄴都를 지킬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歸營하였다. 北周의 武帝가 사신을 보내 [高保寧을] 招慰하였지만 [高保寧은] 勅書를 받지 않았다. ② [北齊의] 范陽王 高紹義는 突厥 中에 있었는데, [高保寧이] 表를 올려 帝位에 오르길 勸誘하였다. 范陽王 [高紹義는] 高保寧을 丞相으로 삼았다. ③ 盧昌期가 范陽城에 웅거하고 군사를 일으키자, 高保寧은 高紹義를 引導하고 夷夏兵 數萬騎를 모아 와 그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高保寧이 潞河에 이르자 北周의 將帥 宇文神舉가 이미 范陽城을 함락시킨 것을 알고 黃龍城으로 돌아와 웅거하며 끝내 北周에 臣屬하지 않았다¹⁴⁾(『北齊書』 卷

한편 박경철은 北周가 陳을 견제하기 위해 그와 통교한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보았다. 박경철,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154~155쪽.

13) “帝總戎北伐 遣柱國原公姬願·東平公宇文神舉等率軍五道俱入.”

14) “周師將至鄴 幽州行臺潘子晃徵黃龍兵 保寧率驍銳并契丹·靺鞨萬餘騎將赴求至北平 知子晃已發薊 又聞鄴都不守 便歸營 周帝遣使招慰 不受勅書 范陽王紹義在突厥中 上表勸進 范陽署保寧爲丞相 及盧昌期據范陽城起兵 保寧引紹義 集夷夏兵數萬騎來救之 至潞河 知周將宇文神舉已屠范陽 還據黃龍 竟不臣周.”

41, 列傳33 高保寧).

C-2. 太建 10年(578) 閏6月 辛巳(16日). 北齊의 范陽王 高紹義는 北周의 高祖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도움으로 생각하였다. 幽州人 盧昌期가 군사를 일으켜 范陽城에 웅거하며 紹義를 맞이하고자 하였다. 高紹義는 突厥兵을 데리고 그(盧昌期)를 향하여 갔다. 周에서는 柱國 東平公 宇文神舉를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盧昌期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高紹義는 幽州總管이 出兵하여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빈틈을 타서 薊城을 습격하고자 하였다. 宇文神舉가 大將軍 宇文愨을 보내 4,000人을 거느리고 그(薊城)를 구원하도록 하였는데, 절반이 高紹義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 宇文神舉가 范陽城을 이기고 盧昌期를 사로잡았다. 高紹義는 그 소식을 듣고, 素衣로 舉哀하며 突厥로 돌아갔다. 高寶寧은 夷夏의 數萬騎를 거느리고 范陽城을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潞水에 이르러 盧昌期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和龍城으로 돌아와 웅거하였다¹⁵⁾(『資治通鑑』卷173, 陳紀7).

위 사료는 북제의 멸망 이후 고보령 세력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사료 C-1-㉠처럼 고보령은 北齊(550~577)가 북주로부터 공격받자 구원병을 파견하고자 하였고, 577년 2월 북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북주 무제의 칙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¹⁶⁾ 그리고 사료 C-1-㉡에 보이듯 577년 12월¹⁷⁾ 북제왕실의 高紹義를 황제로 추대하고 북제의 부흥을 도모하였다고 한다. 고보령은 反북주

15) “齊范陽王紹義聞周高祖殂 以爲得天助 幽州人盧昌期 起兵據范陽 迎紹義 紹義引突厥兵赴之 周遣柱國東平公神舉將兵討昌期 紹義聞幽州總管出兵在外 欲乘虛襲薊 神舉遣大將軍宇文愨將四千人救之 半爲紹義所殺 會神舉克范陽擒昌期 紹義聞之 素衣舉哀 還入突厥 高寶寧帥夷夏數萬騎救范陽 至潞水 聞昌期死 還據和龍.”

16) 北齊의 멸망 직후 高寶寧과 東雍州行臺 傅伏만이 北周에 저항을 지속하였다고 하는데, 『資治通鑑』卷173, 陳紀7 宣帝 太建 9年(577) 2月, “凡齊人在北者 悉以隸之 於是齊之行臺·州·鎮 唯東雍州行臺傅伏·營州刺史高寶寧不下 其餘皆入於周 凡得州五十·郡一百六十二·縣三百八十八·戶三百三萬二千五百.” 傅伏은 곧 北周에 투항하였다. 『資治通鑑』卷173, 陳紀7 宣帝 太建 9年(577) 3月 壬午(9日).

17) 날짜는 『資治通鑑』卷173, 陳紀7 宣帝 太建 9年(577) 12月 戊辰(30日) 참조.

의 북제계 세력이었던 것이다.

북제의 부흥을 위한 고보령 세력의 활동은 사료 C-1-㉔과 사료 B-2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다. 578년 6월 고보령은 북주 무제의 사후 盧昌期가 范陽城(河北省 涿州市)을 점거하자 그에 호응하기 위해 고소와의 함께 남하하였다 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료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사료 C-1-㉔에서 밑줄 친 문장을 보면 고보령이 고소와의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사료 C-2를 보면 고소위가 돌궐로부터 돌궐병을 이끌고 薊城(北京市) 공략을 시도한 반면, 고보령은 和龍城(黃龍城, 遼寧省 朝陽市)에서 병력을 이끌고 왔으며 潞水(北運河)에서 회군하였다. 이렇듯 사료 C-2를 통해 보건대 고보령과 고소위는 거점과 세력기반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고소위는 북제가 멸망하자 휘하의 병력과 북방 변경지대의 북제인을 이끌고 돌궐의 他鉢可汗(재위 572~581)에게 망명하였다.¹⁸⁾ 그리고 사료 C-1-㉕처럼 그는 고보령이 북제의 황제로 추대하였을 때에도 돌궐에 있었다. 고소위는 돌궐의 지원을 기반으로 북제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해 고보령은 영주 즉 화룡성을 중심으로 한 요서지역에 웅거하고 있었다. 그는 ‘정예병과 함께 契丹·靺鞨의 萬餘 기병’(사료 C-1-㉖)을 이끌었다고 하고, 또한 ‘夷夏兵 數萬騎’(사료 C-1-㉗·C-2)를 이끌었다고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군사력은 고보령이 영주자사로 부임한 이후 형성한 것이었다. 고보령은 사실상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고보령이 고소위를 황제로 추대하고 그와 함께 북제의 부흥을 도모한 만큼, 고보령 세력은 고소위를 지원한 돌궐과 동맹관계였다. 6세기 중반 돌궐은 북주와 북제의 대립구도 속에서 상당한 안정을 구가하였다.¹⁹⁾ 그러다 북주

18) 『資治通鑑』 卷173, 陳紀7 宣帝 太建 9年(577) 2月.

19) 다음의 사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隋書』 卷84, 列傳49 北狄 突厥. “時佗鉢控弦數十萬 中國憚之 周·齊爭結姻好 傾府藏以事之 佗鉢益驕 每謂其下曰 我在南兩兒常孝順 何患貧也.” 이와 같은 突厥의 군사적 우위와 北周·北齊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관련하여 H. Ecsedy, 1968, “Trade-and-War Relation between the Turks and China in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Acta Orientalia*, 21-2 참조.



〈지도 1〉 57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가 백제를 병합하자 이를 경계하였다. 돌궐의 타발가한은 고소의 망명을 수용하였고, 577년 12월 고소의 · 고보령 세력의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²⁰⁾ 그리고 578년 4월 백주의 幽州를 공략했다.²¹⁾

이처럼 고보령 세력은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며 돌궐과 함께 백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료 B처럼 583년 5월 백제의 무제는 돌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백제의 무제는 다섯 방면으로 나누어 진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백제의 진격로 중 한 곳이 고보령 세력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때 백제와 고보령 세력의 전쟁이 있었고,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에 지원군을 파병하였으며, 그와 백제의 전투가 이산전투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20) 『資治通鑑』 卷173, 陳紀7 宣帝 太建 9年(577) 12月 戊辰(30日), “高寶寧自黃龍上表勸進於高紹義 紹義遂稱皇帝 改元武平 以寶寧爲丞相 突厥佗鉢可汗舉兵助之.”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丁載勳,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72~76쪽; 平田陽一郎, 2004, 「突厥他鉢可汗と高紹義亡命政權」, 『東洋學報』 86-2, 20~25쪽 참조.

21) 『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宣政 元年(578) 4月 庚申(23日), “突厥入寇幽州 殺掠吏民 議將討之.”; 『資治通鑑』 卷173, 陳紀7 宣帝 太建 10年(578) 4月 庚申(23日).

그러나 북주 무제의 돌궐 공격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578년 5월 27일 무제는 發病하여 雲陽宮(陝西省 涇陽縣 서북)에 머물렀고,²²⁾ 30일 모든 전쟁계획을 중단하였다.²³⁾ 그리고 6월 1일 장안으로 귀환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²⁴⁾ 북주 무제의 고보령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는 고보령이 노창기의 범양성 점검에 호응하기 위해 ‘夷夏兵 數萬騎’를 거느리고 갔다고 한 사실(사료 C-1-㉠·C-2)에 주목하였다. 고보령이 이끈 ‘夷夏兵 數萬騎’ 중에 고구려의 군대 혹은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속한 말갈병·거란병이 포함되었고, 이것이 이산전투였다고 설명한 것이다.²⁵⁾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료 C-1-㉠·C-2는 북주의 무제가 사망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고보령 세력의 남진으로 ‘북주 무제의 요동정벌’과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더욱이 이때 고보령은 노창기의 붕기가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였다. 북주와 고보령 세력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없었던 셈이다.

이상과 같이 고보령은 북제의 부흥을 위해 고소의 세력·돌궐과 연합하였고, 북주를 공략하고자 하였다. 북주도 고보령 세력을 공격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570년대 후반 북주와 고보령 세력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산전투를 북주와 고보령 세력·고구려 연합군의 전투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관계를 재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宣政 元年(578) 5월 癸巳(27日), “帝不豫止于雲陽宮.”

23) 『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宣政 元年(578) 5월 丙申(30日), “詔停諸軍事.”

24) 『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宣政 元年(578) 5월 6월 丁酉(1日), “帝疾甚還京 其夜崩於乘輿.”

25) 韓昇, 1995, 앞의 글, 355~356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7쪽; 金鎮漢, 2010, 앞의 글, 122~124쪽; 趙娟, 2011, 앞의 글; 鄭媛朱, 2013, 앞의 글, 126쪽.

Ⅲ. 고구려-고보령 세력의 대립과 요서지역의 동향

1_ 고구려-고보령 세력의 대립과 요서지역의 세 종족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은 과연 동맹관계였을까. 먼저 사료가 참고된다.

- D-1. ㉠ 高保寧은 代人이다. 그 내력을 알지 못한다. 武平(570~576) 말엽에 營州刺史가 되어 黃龍을 鎮戍했다. ㉡ 夷夏가 그의 위엄과 신망을 귀중히 생각했다.²⁶⁾(『北齊書』 卷41, 列傳33 高保寧).
- D-2. ㉠ 이때 高寶寧은 齊氏(北齊 王室)의 먼 친척이었는데, 사람됨이 사납고 교활하며 속셈이 있어서 北齊(550~577)에 있으며 黃龍을 오래도록 鎮戍하고 있었다. ㉡ 北齊가 멸망하자 北周(577~581)의 武帝가 營州刺史에 임명하였는데, 華夷의 마음을 깊이 얻었다.²⁷⁾(『隋書』 卷39, 列傳4 陰壽).

위 사료는 고보령의 영주자사 취임과 활동을 전하고 있다. 사료 D-1-㉠을 보면 고보령은 武平(570~576) 말엽, 대략 570년대 중반에 북제의 영주자사로 부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료 D-2-㉡에서처럼 북주로부터 영주자사를 제수받았다고 한다. 북주는 북제를 병합한 이후 고보령의 지위와 현실적 세력을 인정해주며 그를 포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서』 帝紀의 기록이 주목된다.²⁸⁾ 이를 보면 고보령은 고소의를 황제로 추대하고 북제의 부흥을 표방한 577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북주에 이반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보령이 애초에 북주로 투항하였다가 태

26) “高保寧 代人也 不知其所從來 武平末爲營州刺史 鎮黃龍 夷夏重其威信.”

27) “時有高寶寧者 齊氏之疏屬也 爲人桀黠 有籌算 在齊久鎮黃龍 及齊滅 周武帝拜爲營州刺史 甚得華夷之心.”

28) 『周書』 卷6, 帝紀6 武帝下 建德 6年(577) 12月, “是月 北營州刺史高寶寧據州反.”

도를 바꿔 이반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었다.²⁹⁾ 그러나 사료 C-1-①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고보령은 북제의 멸망 직후 북주 무제가 보낸 칙서를 받지 않았다. 고보령 세력은 처음부터 북주로의 편입을 거부하였던 것이다.³⁰⁾

다만 고보령의 이반이 577년 12월로 나온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그가 북주와 정면으로 대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록 북주로부터의 편입은 거부하고 있었지만, 고보령의 대외적인 직함은 북주의 영주자사였던 것이다. 반드시 이 무렵이 아니라고 해도, 고구려의 입장에서 그를 북주의 영주자사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서 사료 A가 온달의 武功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고, 당대의 기록이기보다 후대의 전승에 기반한 것이란 점이 주의된다. 그리고 보면 사료 A에 보이는 북주 무제는 평원왕대 중원 방면에서의 공격과 온달의 출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윤색된 것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삼국사기』 온달전의 ‘후주 무제’는 고보령 세력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³¹⁾ 즉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이산전투는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은 왜 대립하였을까.

29)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6쪽. 王小甫는 高寶寧이 이반을 결심한 배후에는 고구려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577년 고구려는 北周로부터 遼東王이란 책봉호를 받았는데(『周書』卷49, 列傳40 異域上 高麗, “建德六年(577) 湯又遣使來貢 高祖拜湯爲上開府儀同·大將軍·遼東郡·開國公·遼東王.”), 이는 南北朝의 諸國이 高麗王으로 책봉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데 주목한 것이다. 실제 遼東王이란 고구려의 국왕을 內諸侯로 여긴 것으로, 北周의 대외적 정치이념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北周의 일반적 관념으로 현실의 국제관계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여호규, 2006, 「책봉호 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40~41쪽).

30) 高寶寧이 北周 武帝의 회유를 뿌리치고 北齊의 부흥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北周의 武帝가 ‘胡漢一體의 世界統一’과 아울러 황제 중심의 집권적 국가 체제 정비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辛聖坤, 1998 앞의 글; 丁載勳, 1999 앞의 글, 301~303쪽)을 참고해보면, 北周의 武帝는 北齊에 대한 병합이 마무리되자 곧 高寶寧 세력을 제어하고자 하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것이 高寶寧이 北齊의 부흥을 도모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31) 여호규, 2002, 앞의 글, 23쪽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夷夏가 고보령의 '위엄과 신망을 귀중히 생각했다'고 한 사실(D-1-㉔)이나, 고보령이 '華夷의 마음을 깊이 얻었다'고 한 사실(D-2-㉔)이 주목된다. 그리고 사료 C-1-㉔과 C-2에서 고보령이 '夷夏兵 數萬騎'를 이끌고 갔다고 한 사실이 관심을 끈다. 夷夏란 夷狄과 華夏 즉 夷人和 漢人を 의미한다. 이러한 夷夏兵의 구성은 사료 C-1-㉔에 보이는 '정예병과 契丹·靺鞨의 萬餘 기병'과 통한다.³²⁾ 그리고 여기서의 정예병은 북제 출신의 병력으로 거란·말갈의 기병은 요서지역 제 종족의 병력으로 해석된다. 고보령은 영주자사로 취임한 이후 북제인만 아니라 요서지역 제 종족의 지지를 얻었고, 그 군사력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가 북주나 돌궐에 상대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요서지역 제 종족의 지지로 가능했다고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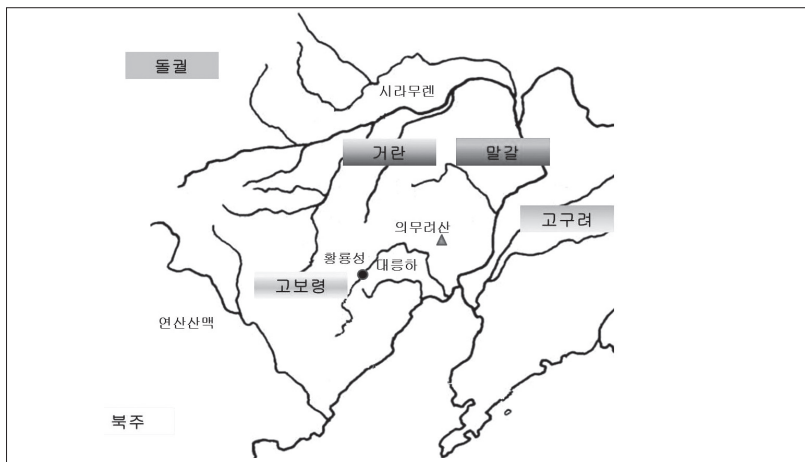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고보령의 세력형성은 그의 출신과 무관치 않다고 여겨진다. 고보령은 代人(D-1-㉔) 혹은 북제 왕실의 먼 친척(D-2-㉔)이었다고 한다. 북제 왕실은 이른바 渤海 高氏로 代北 懷朔鎮(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包頭市 북쪽)에서 가문을 발전시켰고, 북제의 주요 귀족은 회삭진을 비롯한 六鎮 출신의 鮮卑系로 선비화정책을 추진하였다.³³⁾ 이를 참고해보면 고보령이 북제 왕실과 얼마나 밀접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선비계 귀족(代人)이었다고 생각된다.³⁴⁾ 그러므로 그는 夷人에 대한 통치에 익숙하였고, 이에 요서지역 제 종족을 포섭함으로써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5세기 이후 고구려도 요서지역 제 종족의 일부를 세력범위에 두고 있었다. 이에 고보령의 세력형성이 고구려의 지원 내지 원조로 가능했다고 본

32) 韓昇, 1995, 앞의 글, 355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3쪽.

33) 朴漢濟, 1998,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胡漢葛藤과 二重構造」, 서울대학교 東洋史研究室 편, 『分裂과 統合－中國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30~145쪽.

34) 한편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9~50쪽에서는 高寶寧이 고구려 이주민의 후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高寶寧의 가문이 北齊 그리고 그 이전 北魏의 귀족으로 장기간 활동하였다고 보면,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도 2〉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동향

견해가 있었다.³⁵⁾ 반대로 고구려의 세력범위가 거란·말갈을 포괄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견해도 있었다.³⁶⁾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는 모두 5~6세기 요서지역의 제 종족의 동향을 단순화시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5~6세기 요서지역은 고구려만 아니라 북조의 諸國과 유연·돌궐의 세력이 교차했다. 그리고 요서지역의 제 종족은 諸部마다 정치·군사적 입장에 차이가 있었으며, 諸部の 동향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다.³⁷⁾ 그러므로 고보령 휘하의 거란·말갈이 반드시 고구려의 신속집단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보령이 거란과 말갈 즉 요서지역 제 종족의 지지를 얻은 것이 고구려와 무관하진 않았을 것이다.

고보령이 요서지역 제 종족을 포섭함으로써 세력을 형성하였고, 만여 명

35) 韓昇, 1995, 앞의 글, 356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5쪽.

36) 呂淨植, 2002, 「『北齊書』高保寧傳另釋」, 『古籍整理研究學刊』 2012-6期, 89~90쪽.

37) 이정빈, 2014,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 91, 168~170쪽.

이상의 병사를 동원할 만큼 그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서방 변경지대의 동요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고보령의 세력확장은 고구려의 세력범위를 잠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고보령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고 짐작된다. 고보령의 입장에서도 세력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의 갈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정된다. 즉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은 요서지역 제 종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577년 10월까지 고보령은 북주와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의 대외적인 직함은 북주의 영주자사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입장에서 고보령 세력은 북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고보령은 북제 출신만 아니라 요서지역 제 종족을 포섭해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에 서방 변경지대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요서지역 제 종족을 두고 고보령 세력과 갈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국사기』 온달전의 이산전투는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2_ 고보령 세력의 동향과 수-돌궐 전쟁

사료 C에서 살펴본 것처럼 578년 6월 북제부흥을 위한 고보령과 고소의의 남진은 실패하였다. 이에 고보령은 화룡성으로, 고소의는 돌궐로 귀환하였다. 이후 고보령 세력의 활동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1. [수의] 高祖가 [北周의] 丞相이 되었는데, [高寶寧이] 마침내 契丹·靺鞨과 연결하여 군대를 일으켜 이반하였다. 高祖는 中原에 변란이 많았으므로 미처 나아가 토벌할 여유가 없었고, 편지를 보내 그를 깨우치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³⁸⁾(『隋書』 卷39, 列傳4 陰壽).

38) “高祖爲丞相 遂連結契丹·靺鞨舉兵反 高祖以中原多故 未遑進討 以書喻之而不得.”

E-2. 開皇 元年(581)에 이르러 攝圖可汗(沙鉢略可汗, 581~587)이 말하였다. “나는 北周 왕실의 친척이다. 지금 隋公이 自立하여 제어할 수 없으니, 다시 어찌 可賀敦(千金公主)을 볼 면목이 있겠소?” 이로부터 高寶寧과 함께 臨渝鎮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諸面の 部落과 함께 南侵을 모의하였다. 高祖가 새롭게 즉위하자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長城을 수축하고, 군사를 징발해 北境에 주둔하도록 하였으며, 陰壽에게 명하여 幽州를 진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虞慶則에게 [명하여] 并州를 진수하도록 하고, 군사 수만으로써 그(돌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³⁹⁾(『隋書』 卷51, 列傳15 長孫晟).

E-3. 太建 14年(582) 5月 己未(16日), 高寶寧은 突厥을 이끌고 隋의 平州를 침략하였다. 突厥은 다섯 可汗의 弓手(控弦) 40만을 모두 징발해 長城에 침입하였다⁴⁰⁾(『資治通鑑』 卷175, 陳紀9 宣帝).

위 사료는 578년 이후 고보령 세력의 동향을 전해주고 있다. 먼저 사료 E-1을 보면 수의 고조 즉 楊堅은 북주의 丞相으로 재직하며 고보령에게 편지를 보내 회유하였다고 한다. 양견은 580년 5월 북주의 左大丞相에 임명되었다.⁴¹⁾ 그러므로 고조가 고보령에게 편지를 보내 회유한 것은 580년 5월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북주는 579년 2월부터 돌궐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고소옥의 송환을 요구하였다.⁴²⁾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580년 6월 돌궐로

39) “至開皇元年(581) 攝圖曰 我周家親也 今隋公自立而不能制 復何面目見可賀敦乎 因與高寶寧攻陷臨渝鎮 約諸面部落謀共南侵 高祖新立 由是大懼 修築長城 發兵屯北境 命陰壽鎮幽州 虞慶則鎮并州 屯兵數萬人以爲之備.”

40) “高寶寧引突厥寇隋平州 突厥悉發五可汗控弦之士四十萬 入長城.”

41) 『隋書』 卷1, 帝紀1 高祖上 大象 2年(580) 5月 庚戌(26日), “周帝拜高祖假黃鉞·左大丞相 百官總已而聽焉.”

42) 『周書』 卷7, 帝紀7 宣帝 大象 元年(579) 2月, “以趙王招女爲千金公主 嫁於突厥.”; 『周書』 卷50, 異域下 突厥, “大象元年(579) 他鉢復請和親 帝册趙王招女爲千金公主 以嫁之 并遣執紹義送關 他鉢不奉詔 仍寇并州.” 위 사료에서는 突厥이 먼저 北周에 和親을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北周가 突厥에 千金公主를 보

부터 고소의의를 인도받았다.⁴³⁾ 이를 보면 579~580년 무렵 북주에서는 돌궐과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고보령 세력에 대해서도 회유책을 사용하였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위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고보령은 북주의 회유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고보령은 주변의 제 세력에게서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사료 E-2에 보이는 것처럼 581년 고보령 세력은 다시 돌궐과 연합하였다. 581년 2월 양견이 즉위하면서 북주에서 수로 왕조가 교체되었고, 같은 해 돌궐에서는 타발라가한의 사후 沙鉢略可汗(재위 581~587)이 대가한의 지위를 계승하였다.⁴⁴⁾ 그런데 이때 수는 북주처럼 돌궐을 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료 E-2처럼 사발라가한은 북주에서 수도의 왕조교체를 문제 삼고 있었다.⁴⁵⁾ 그는 북주 출신 千金公主의 남편이란 대외적 명분도 있었다. 마침내 사발라가한은 고보령 세력과 함께 수를 공격하였다.⁴⁶⁾

사료 E-2를 보면 581년 고보령 세력과 돌궐은 북주의 臨渝鎮을 함락시켰다고 한다. 임유진은 지금의 河北省 撫寧縣에 위치한 長城 동단의 군사기지로, 요서지역에서 중원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다.⁴⁷⁾ 그러므로 수의 입장에서 임유진의 함락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중원지역의 북부가 돌궐

내면서 高紹義의 송환을 요청하였고, 突厥이 高紹義에 대한 송환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 北周의 북방 변경지대를 공격한 사실로 보면, 오히려 北周가 突厥에 和親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43) 『北齊書』 卷20, 列傳4 范陽王 高紹義; 『資治通鑑』 卷174, 陳紀8 宣帝 12年(580) 6월, “周遣汝南公神慶·司衛上士長孫晟 送千金公主於突厥 晟幼之曾孫也 又遣建威侯賀若誼 賂佗鉢可汗 且說之以求高紹義 佗鉢僞與紹義獵於南境 使誼執之 誼敦之弟也.”; 『資治通鑑』 卷174, 陳紀8 宣帝 12年(580) 秋7月 甲申(1日), “紹義至長安 徙之蜀久之 病死於蜀.”
- 44) 『隋書』 卷84, 列傳49 北狄 突厥, “沙鉢畧勇而得衆 北夷皆歸附之 及高祖受禪 待之甚薄 北夷大怨.”
- 4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方曉, 1986, 「千金公主與突厥」, 『西北民族學院學報』 1986-3期, 64~65쪽 참조.
- 46) 北周·隋 왕조교체와 突厥의 동향에 대해서는 平田陽一郎, 2009, 「周隋革命と突厥情勢」, 『唐代史研究』 12 참조.
- 47)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심호섭·이남일·이정빈 譯, 2013, 「수·당 두 왕조의 고구려 원정의 지리」, 『韓國古代史探究』 14, 287~288쪽.

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 문제는 長城을 수축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유주지역 즉 지금의 北京 일대에 주둔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사료 E-3에 보이듯 583년에도 고보령 세력은 돌궐과 함께 수의 平州 즉 지금의 河北城 盧龍縣 일대를 공격하였다. 이 사료에 기술된 것처럼 이 전쟁에서 돌궐의 사발략가한은 4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를 공격하였다. 40만이란 병력규모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돌궐은 거의 숲 병력을 동원해 전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⁴⁸⁾ 그런 만큼 고보령 세력도 수의 공격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81년 임유진 공격을 염두에 두면, 고보령 세력은 주로 요서지역에서 중원지역의 동북방면으로의 공략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돌궐의 대규모 공세에 수는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583년 4월 수는 돌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와 함께 고보령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였다.⁴⁹⁾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F. [高寶寧은 隋 開皇(581~600)에 다시 突厥을 끌어들이어 北平을 공격해 포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隋 文帝는] 陰壽로 하여금 步騎 수만을 거느리고 盧龍塞를 나가 그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高寶寧은 突厥에 구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衛王爽 등 諸將은 자주 北征하였으므로 突厥은 [高寶寧을] 구원할 수 없었다. 高寶寧은 [黃龍]城을 포기하고 磧北으로 달아나 黃龍의 諸縣은 모두 평정되었다. 陰壽가 군대를 돌이키며 開府 成道昂을 남겨 이곳[黃龍城]을 鎮戍하도록 하였다. 高寶寧은 그 아들 高僧伽를 보내 輕騎를 거느리고 城下를 약탈하고 떠나도록 했고, 마침내 契丹·韃靼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공격하였다. 成道昂은 苦戰하길 여러 날로 [결국] 이에 퇴각했다. 陰壽는 이를 걱정하고, 이에 高寶寧에게 거금을 주었고, 다시 사람을 보내 그가 신임하는 자인 趙世模·王威 등을 몰래 이간질하였다. 한 달 남짓 지나서 趙世模이 그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

48) 가령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隋書』 卷84, 列傳49 北狄 突厥에서는 “由是悉衆爲寇 控弦之士四十萬”이라고 하였다.

49) 『資治通鑑』 卷175, 陳紀9 長城公 至德 元年(583) 4月.

었다. 高寶寧은 다시 契丹으로 달아나 그 휘하의 趙修羅에게 피살되었으니 北邊이 마침내 안정되었다.⁵⁰⁾(『隋書』卷39, 列傳4 陰壽).

위 사료는 583년 수-돌궐 전쟁과 고보령 세력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위 사료처럼 수의 공격에 돌궐은 연패를 거듭했다. 후술하겠지만, 581년 타발가한의 사후 돌궐에서는 대가한의 후계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치열한 내분이 전개되었다. 사발략가한이 대가한으로 추대되었지만, 다른 대가한 계승 후보자들이 그에 반발하였고 또한 수에서 이를 조장하면서,⁵¹⁾ 사발략가한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위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수의 북진에 고보령 세력은 돌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보령은 화룡성을 포기하고 거란지역으로 달아났다.

이후 고보령은 거란·말갈의 도움을 받아 화룡성을 회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보령의 재기 시도는 곧 좌절되었고,⁵²⁾ 마침내 수에 완전히 제압되었다. 그 결과 화룡성 즉 요서지역의 서부에는 수가 등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570년대 후반 고소의를 중심으로 한 복제부흥운동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고보령 세력은 요서지역에 계속 옹거하였다. 581년 돌궐 사발략가한과 연합하였으며, 그와 함께 남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583년 수-돌궐 전쟁에서 돌궐이 패하며 고보령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움직임은 어떠한이었을까. 현재로서 이 무렵 고구려의 동향을 전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

50) “開皇初 又引突厥攻圍北平 至是 令壽率步騎數萬 出盧龍塞以討之 寶寧求救於突厥 時衛王爽等諸將數道北征 突厥不能援 寶寧棄城奔于磧北 黃龍諸縣悉平 壽班師 留開府成道昂鎮之 寶寧遣其子僧伽率輕騎掠城下而去 尋引契丹·靺鞨之衆來攻 道昂苦戰連日乃退 壽患之 於是重購寶寧 又遣人陰間其所親任者趙世模·王威等 月餘 世模率其衆降 寶寧復走契丹 爲其麾下趙修羅所殺 北邊遂安.”

51) 이는 長孫晟의 책략이었다고 한다. 『隋書』卷51, 列傳15 長孫晟 및 『資治通鑑』卷170, 陳紀9 高宗下 開皇 太建 13年(581) 12月.

52) 다음이 주목된다. 『隋書』卷1, 帝紀1 高祖上 開皇 3年(583) 夏4月 庚辰(13日), “行軍總管陰壽破高寶寧於黃龍.”; 『隋書』卷1, 帝紀1 高祖上 開皇 3年(583) 5月 戊申(11日), “幽州總管陰壽卒.” 高寶寧 세력을 진압한 것은 陰壽였다고 하는데, 陰壽는 5월 11일 사망하였다. 이로 보아 高寶寧 세력의再起 시도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좌절되었다고 파악된다.

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상기해보면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재구성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IV. 고구려와 돌궐·북주·수의 관계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어떠하였을까. 먼저 고구려와 북주·돌궐의 관계가 궁금하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570년대 후반 이후 고구려와 북주·수를 대립관계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이 무렵부터 고구려와 돌궐이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추정하였다.⁵³⁾ 고구려가 북주·수의 성장과 동북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경계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570년대 후반 고구려는 고보령 세력과 대립하였고, 고보령 세력은 북주와 대립하였으며 돌궐과 동맹관계였다. 이로 보아 고구려와 북주 그리고 돌궐의 관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577년 고구려는 북주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다고 한다.⁵⁴⁾ 이러한 고구려의 對북주 교섭은 북주의 수립 이후 처음 사료에 보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를 단순히 형식적인 외교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북주가 북제를 병합하고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하자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고구려의 적극적인 외교행위였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때 고구려는 백제와 함께 자국의 伎樂을 바쳤다고 전한다.⁵⁵⁾ 고

53) 韓昇, 1995, 앞의 글, 354~358쪽; 王小甫, 主編, 2003, 앞의 책; 김호 역, 앞의 책, 45~47쪽; 金鎮漢, 2010, 앞의 글, 125쪽.

54) 『周書』 卷49, 列傳40 異域上 高麗, “建德六年(577) 湯又遣使來貢 高祖拜湯爲上開府儀同·大將軍·遼東郡開國公·遼東王.”

55) 『舊唐書』 卷29, 志9 音樂2, “宋世有高麗·百濟伎樂 魏平馮跋 亦得之而未具 周

대 동아시아에서 樂은 禮的 질서를 상징하였고, 국제관계에서 伎樂의 進獻은 복속의례의 일종이었다.⁵⁶⁾ 물론 고구려와 북주의 조공책봉관계나 伎樂의 進獻이 현실적인 주종관계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고구려가 북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일면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북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데에는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가 참고된다.

- G. 天子가 震怒해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 또한 그의 渠帥는 그 수가 무릇 다섯인데, 형제가 우위를 다투었고, 父叔이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였다. 밖에서 보기에는 彌縫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心腹이 어그러졌다. ㉡ [突厥은] 대대로 暴虐하였고 家法은 殘忍하였으니, 東夷의 諸國이 모두 사적인 원수로 여겼고, 西戎의 羣長이 모두 원망을 품었으며, 突厥의 북쪽 契丹의 무리는 이를 갈며 늘 그 기회를 엿봤다. ㉢ 達頭可汗이 이전에 酒泉을 공격하였는데, 그 후에 于闐·波斯·挹怛의 삼국이 일시에 곧 이반하였다. 沙鉢略可汗이 周槃城 부근에 도달하였는데, 그 部內의 薄孤東紇羅가 갑자기 또한 이반하였다. 往年에 利稽察이 고구려와 靺鞨에게 크게 격파되었다. 娑毗設이 또한 紇支可汗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돌궐의 주변은] 그와 이웃하기보다 모두 죽어 없어지길 바랐다. [...] ㉣ 저 땅(突厥)에 재앙이 발생한 것이 헛수로 장차 一紀였다. [...]”⁵⁷⁾ (『隋書』 卷84, 列傳49 北狄 突厥).

위 사료는 583년 4월 돌궐에 대한 공격을 명한 수 文帝(재위 581~604)의

師滅齊 二國獻其樂.”

- 56) 한홍섭, 200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 책세상, 74~81쪽; 주은화, 2005, 「樂을 통해 본 신라인의 복속·통합 관념 - 가야금과 현금의 정치적 상징」, 『韓國古代史研究』 38, 174~178쪽.
- 57) “天子震怒下詔曰 [...] 且彼渠帥 其數凡五 昆季爭長 父叔相猜 外示彌縫 內乖心腹 世行暴虐 家法殘忍 東夷諸國 盡挾私讐 西戎羣長 皆有宿怨 突厥之北 契丹之徒 切齒磨牙 常伺其便 達頭前攻酒泉 其後于闐·波斯·挹怛三國一時即叛 沙鉢略近趣周槃 其部內薄孤東紇羅尋亦翻動 往年利稽察大爲高麗·靺鞨所破 娑毗設又爲紇支可汗所殺 與其爲鄰 皆願誅剿 [...] 彼地咎徵祆作 年將一紀 [...]”

조서 중 일부다.⁵⁸⁾ 먼저 사료 G-㉔에서 밑줄 친 문장, 즉 고구려와 말갈이 돌궐의 柶稽察을 대파하였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계찰은 고대 투르크어 ‘이길 샤드(Igil shad)’의 음사로 추정되는데, 샤드는 제2관등의 군사령관(典兵官: 設·殺·煞·察)으로 그 직위는 가한의 家系(阿史那氏)에 한해 수여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⁵⁹⁾ 이로 미루어보아 고구려·말갈과 이계찰의 충돌은 상당한 규모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위 사료는 고구려와 돌궐의 대립구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 때 위 사료에서 往年의 시점이 궁금하다. 550년대 중반 돌궐의 요서지역 진출 무렵으로 본 견해가 있었고,⁶⁰⁾ 581~582년 무렵으로 본 견해가 있었는데,⁶¹⁾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서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사료에서 고구려·말갈과 이계찰의 충돌은 사료 G-㉔에 보이는데, 이는 사료 G-㉔ 즉 돌궐이 東夷·西戎·北契丹의 제 세력과 갈등하였음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의 하나로, 수가 돌궐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 측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무렵 돌궐과 주변 세력의 정세를 보면 사료 G-㉔은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돌궐과 주변 세력의 갈등은 언제 발생하였을까.

58) 동일한 내용을 축약한 詔書가 『資治通鑑』 卷175, 陳紀9 長城公 至德 元年(583) 4月 壬申(5日)에 전한다.

59) 護雅夫, 1967, 「突厥の國家と社會」,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1, 東京山川出版社, 39쪽; 盧泰敦, 1999,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앞의 책, 429쪽; 이재성, 2005, 앞의 글, 129~130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8 周書·隋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86쪽 주138.

60) 日野開三郎, 1949, 「粟末靺鞨の對外關係」, 『史淵』 41~43; 日野開三郎, 1991, 앞의 책, 150쪽; 임기환, 2006, 앞의 글, 59쪽; 임기환, 2012,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삼국의 대외정책」, 앞의 책, 150쪽. 한편 노태돈, 1999,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앞의 책, 429쪽에서는 비교적 폭넓게 6세기 중반 이후로 보았고, 金鎮漢, 2010, 앞의 글, 120쪽에서는 563~577년 사이로 파악하였다.

61) 이재성, 2005, 앞의 글, 129쪽.

먼저 사료 G-㉔을 보면 돌궐지역에서 재앙이 발생한 지 12년(一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수서』 돌궐전을 비롯한 중국 측의 사서를 보면, 중원의 왕조가 돌궐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은 572년 타발가한의 즉위 이후였다고 설명한다.⁶²⁾ 이로 보아 583년 수 문제가 말한 ‘돌궐의 재앙’은 타발가한의 즉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료 G-㉕이 주목된다. 이를 보면 돌궐과 주변 세력의 갈등은 5명의 渠帥 즉 可汗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5가한은 583년 사발랴가한 재위대의 주요 가한으로,⁶³⁾ 이들은 타발가한 재위시대가한 계승 후보자였다. 그런데 타발가한은 형제상속을 통해 대가한에 즉위했고, 이로 인해 후계문제를 두고 내분의 소지가 있었다.⁶⁴⁾ 유목국가의 군주권은 물자의 분배권을 통해 확보되었고, 따라서 군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역이나 약탈과 같은 대외적인 성과가 요구되었다고 한다.⁶⁵⁾ 이를 고려해보면 타발가한 재위 무렵 5가한 내지 그의 지지세력은 대외적인 성과를 과시해 차기 군주로서의 적격자임을 내세우고자 하였는데,⁶⁶⁾ 이러한 경쟁이 주변 세력과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고 해석된다.

사료 G-㉖에 보이는 여러 갈등의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하여 우선 達頭可汗의 酒泉(甘肅省 酒泉郡) 공격이 주목된다. 달두가한은 576년에 가한의 직위를 계승하였다.⁶⁷⁾ 그러므로 달두가한이 주천을 공격한 것은 570년대 후반 이

62) 『隋書』卷84, 列傳49 北狄 突厥; 『資治通鑑』卷171, 陳紀5 宣帝 太建 4年(572) 12月.

63) 沙鉢略可汗, 第二可汗, 達頭可汗, 阿波可汗, 貪汗可汗을 가리킨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앞의 책, 285쪽 주129).

64) 토마스 바펠드 지음·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282~288쪽.

65) 金浩東, 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서울大學校 東洋史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知識産業社, 277~278쪽.

66) 유목국가의 군주권 계승에 관해서는 朴漢濟, 1988, 「北魏王權과 胡漢體制」,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140~141쪽 및 주 1·2 참조.

67) 토마스 바펠드 지음·윤영인 옮김, 2009, 앞의 책, 282~23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앞의 책, 285쪽 주133.

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발략가한에게서 薄孤東紇羅가 이반한 사실이 관심을 끈다. 이는 周槃(甘肅省 慶陽縣) 부근에서 사발략가한과 수의 達奚長儒가 전투할 무렵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582년 12월의 일로 확인된다.⁶⁸⁾

이처럼 달두가한과 사발략가한의 사례를 통해 보건대 G-㉔에 보이는 돌궐과 주변 세력의 갈등은 타발가한의 재위 후반에서 그의 사후 얼마간의 일로 파악된다. 즉 고구려·말갈과 이계찰은 대략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에 충돌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는 돌궐과 대립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와 돌궐이 대립관계였다면, 이 무렵 고구려가 북주를 적대시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고구려는 북주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북주를 통해 돌궐을 견제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주 역시 돌궐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고구려와의 우호관계가 필요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와 북주의 우호관계는 수 왕조의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양국의 사신왕래를 통해 보건대 고구려는 적어도 580년대 중반까지 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이해된다.⁶⁹⁾

이상과 같이 볼 때 580년대 전반 수-돌궐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를 지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580년대 전반까지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돌궐 전쟁에서 고구려가 고보령 세력을 견제하였을 가능성도 떠오른다. 요컨대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북주·수 對 돌궐-고보령 세력의 대립구도가 상정되는 것이다.

68) 『資治通鑑』 卷175, 陳紀9 宣帝 太建 14年(582) 12月 乙酉(16日).

69) 金善昱, 1984, 앞의 글, 4~5쪽; 여호규, 2006, 앞의 글, 5쪽.

V. 맺음말

『삼국사기』 온달전에는 이산전투가 나온다. 이산전투는 ‘후주 무제의 요동 정벌’에 맞서 고구려의 평원왕이 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후주는 북주로 파악되는데, 고구려와 북주의 영역은 마주한 적이 없었다. 양국 사이에는 요서지역에 고보령 세력이 자리하였다. 이에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산전투를 북주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에 고구려가 참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이 반복주 동맹관계였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북주·수 對 돌궐-고보령 세력의 대립구도를 상정하였다.

실제 고보령은 북제의 부흥을 위해 고소의 세력·돌궐과 연합하였고, 북주를 공략하고자 하였다. 북주의 무제도 고보령 세력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70년대 후반 북주와 고보령 세력 간에 대규모 무력충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산전투를 북주 무제와 고보령 세력·고구려 연합군의 전투였다고 본 기존의 설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고보령은 북제 출신만 아니라 요서지역 제 종족을 포섭해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에 서방 변경지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요서지역 제 종족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이 대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산전투가 고구려와 고보령 세력의 대립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570년대 후반 고소의를 중심으로 한 북제부흥운동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고보령 세력은 요서지역에 계속 옹거하였다. 581년 고보령은 돌궐의 사발략가한과 연합하였고, 그와 함께 남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583년 수-돌궐 전쟁에서 돌궐이 패하며 결국 고보령 세력은 몰락하였다.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는 돌궐과 대립하였다. 그리고 북주·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북주·수를 통해 돌궐을 견제

하고자 하였고, 북주·수 역시 돌궐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고구려와의 우호관계를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580년대 전반 수-돌궐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를 지지하였고, 고보령 세력과의 대립을 이어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북주·수 對 돌궐-고보령 세력의 대립구도를 제시하였다.

583년 고보령 세력은 수의 공격을 받고 몰락하였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두고 수와 마주하였다. 이제 고구려와 수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580년대 중반 이후 양국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金鎮漢, 2010,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 서울大學校 東洋史研究室 編, 1989, 『講座 中國史 II-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知識産業社.
- 서울大學校 東洋史研究室 編, 1998, 『分裂과 統合-中國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王小甫 主編, 2003,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이성재,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 한홍섭, 200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 책세상.
- 日野開三郎, 1991, 『東洋史學論集 15-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局.
- 編集委員會 編, 1995, 『堀敏一先生古稀紀念中國古代의 國家と民衆』, 汲古書院.
- 護雅夫, 1967,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1, 東京山川出版社.
- 토마스 바필드 지음·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菅沼愛語, 2013, 「西魏·北周의 對外政策と中國再統一へのプロセス」, 『史窓』 70.
- 菊池英夫, 1992, 「隋朝의 對高句麗戰爭의 發端について」,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16.
- 金善昱, 1984,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26.
- 金善昱, 1984, 「高句麗의 隋唐關係 研究-朝貢記事의 檢討를 中心으로」, 『論文集』 11-2,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박경철,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 方曉, 1986, 「千金公主與突厥」, 『西北民族學院學報』 1986-3期.
- 辛聖坤, 1998, 「北周 武帝의 集權的 體制改革과 그 性格」, 『中國學報』 39.
- 呂淨植, 2002, 『北齊書』高保寧傳另釋」, 『古籍整理研究學刊』 2012-6期.
-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대 수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6.

- 여호규, 2006, 「책봉호 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李成制, 2000,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擊」, 『震檀學報』 90.
- 李成制,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大邱史學』 113.
- 이재성, 2005,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衝突」, 『북방사논총』 5.
- 이정빈, 2014,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 91.
- 鄭媛朱,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丁載勳, 1999, 「西魏·北周時期(534~581)의 對外政策」, 『中國學報』 42.
- 丁載勳,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 趙娟, 2011, 「從高寶寧事件看隋初與高句麗的關係」, 『陝西社會科學論叢』 2011-5.
- 주은화, 2005, 「樂을 통해 본 신라인의 복속·통합 관념 - 가야금과 현금의 정치적 상징」, 『韓國古代史研究』 38.
- 平田陽一郎, 2004, 「突闕他鉢可汗と高紹義亡命政權」, 『東洋學報』 86-2.
- 松井等, 심호섭·이남일·이정빈 譯, 2013, 「수·당 두 왕조의 고구려 원정의 지리」, 『韓國古代史探究』 14.
- Ecsedy, H., 1968, "Trade-and-War Relation between the Turks and China in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Acta Orientalia*, 21-2.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aoxi
and Koguryo's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late 570s and the early 580s

Lee Jeongbin

This paper investigates Koguryo's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late 570s and the early 580s, and focuses o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surrounding the Liaoxi region.

The existing literature bases analysis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on the assumed confrontation between Koguryo on the one hand and Northern Zhou(北周) and Sui(隋) on the other. It has suggested that Koguryo and Gaobaoning(高寶寧) were allies, since Gaobaoning had been in conflict with Northern Zhou and Sui. The Yisan(肄山) battle as documented in *Samguk sagi*(三國史記) is important evidence in support of the Koguryo and Gaobaoning alliance thesis. The Yisan battle occurred between Koguryo and Northern Zhou, and since previous studies have contended that the battle was a manifestation of hostility between Northern Zhou and Gaobaoning, scholars have thought that Koguryo fought against Northern Zhou as an ally of Gaobaoning. However, this paper finds no evidence of a large-scale military conflict between Northern Zhou and Gaobaoning in the late 570s, thus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regarding the Yisan battle.

In the tenth month of 577 Gaobaoning began to advocate the revival

of Northern Qi(北齊) and to confront Northern Zhou. Between the second month and the tenth month of that year, Gaobaoning avoided direct confrontation with Northern Zhou. Its official title was, in fact, Yingzhou Regional Commandery Office(營州刺史) of Northern Zhou. From Koguryo's perspective, there were plausi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Gaobaoning was part of Northern Zhou. Gaobaoning expanded its sphere of influence by winning the support of ethnic groups, and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most likely threatened the stability of the western border for Koguryo. All suggest a possibility of hostility and confrontation between Koguryo and Gaobaoning over Northern Ch'i in the Liaoxi reg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Yisan battle was a reflection of this confrontation that existed in the late 570s.

Despite the failure of the Northern Qi movement led by Gao Shaoyi(高紹義) in the late 570s, Gaobaoning continued the Northern Qi revival movement in the Liaoxi region. In 581, Gaobaoning made an alliance with the Turks' Spara Khagan(沙鉢略可汗), and attempted to advance south together. Koguryo then was in conflict with the Turks, while the relationship with Northern Zhou and Sui was friendly. Koguryo sought to contain the Turks with Northern Zhou and Sui, while Northern Zhou and Sui similarly needed friendly Koguryo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ir conflict with the Turks. Accordingly, it is likely that Koguryo tried to control Gaobaoning in the Liaoxi area during the early 580s. However, as Sui defeated the Turks in 583, Gaobaoning began to crumble, too. Koguryo now faced Sui over the Liaoxi, and no longer was a strategic alliance likely to continue: the Liaoxi presented new potential sources for tensions.

Keywords

Liaoxi region, Yisan(隼山) battle, Gaobaoning(高寶寧), Sui-Turks W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허재영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이 연구는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일본어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요인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문 용어로서 ‘근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는 ‘근대’는 ‘계몽사상’이 주를 이룬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중국의 문물·사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던 시기였으며, ‘조사시찰단’, ‘영선사’ 파견 이후 다양한 정치 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교육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학제 도입과 근대 지식 발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 계몽기의 지식 유통에 필요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가운데 외국어, 특히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권력이 형성되어갔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사상 형성의 수단이다. 이 점에서 언어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언어 철학, 문학 비평,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인 마르(Nikolaj Jakovlevic Marr)는 ‘계급어’에 관심을 기울였고(이에 대해서는 밀카 이비츠 저·김방한 역, 1988, 107쪽 참고), 바흐친(Bakhtin, Mikhail Mikhailovich)은 러시아 형식주의 문예 이론을 발전시켜 기호학적 차원에서 언어 이데올로기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도 ‘언어 접촉’에 따른 ‘언어 선택, 언어 교체, 언어 권리’ 등의 문제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언어와 권력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어 권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언어 철학, 문학 비평, 정치학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허재영(2013)에서는 언어 권력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 91편을 분석한 뒤, 각 분야의 연구 경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분야마다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대상과 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문학 분야의 경우 특정 작가의 언어 사용이나 작중 인물의 언어가 권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정치학에서는 권력 언어의 생성과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비해 언어학에서는 ‘언어 권력’을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담화 상황에 나타나는 권력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 권력 연구는 ‘언어 선택(둘 이상의 언어 또는 변이형 가운데 특정한 화자가 특정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언어 교체(특정 언어가 더 이상 모어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둘 이상의 언어가 접촉하는 현상을 전제로 한다. 달리 말해 언어 접촉 과정에서 두 개의 언어가 혼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두 개의 언어 가운데 특정 언어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 언어 공동체 내부에서 외국어의 영향력은 외적 요인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영어 프리미엄 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미경(2011)에서는 이에 대해 “영어 헤게모니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강압이나 법적인 규제는

없으나, 영어를 하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영어에 얽매이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라고 말한다. 이는 특정 언어가 차별화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차별화는 특정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갖는 '의사소통 능력' 또는 '지식 수용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어 권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시점은 근대 계몽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과 중국, 서구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급증하였고,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 지식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식 학제가 도입되는 과정과 갑오개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어 권력 형성의 핵심 요인은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력 증대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정치, 경제,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어 교육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강점 이후 '일본어 보급'의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일제 강점기의 중심 언어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근대 계몽기의 일본어 권력의 형성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둔다. 김미경(20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어 권력이나 헤게모니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언어 권력이 법률이나 제도처럼 명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언어 권력 연구는 담화 상황이나 언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언어에 대한 태도를 설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의 일본어 권력에 관한 연구는 담화 분석법이나 설문 조사법을 사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史料에 나타난 언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880년대 이후 근대적 지식 유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사시찰단 보고서인 조준영의 『문부성 소할 목록』, 김윤식·어운중·윤치호 등의 개인 일기류, 《한성순보》·《한성주보》·《독립신문》·《미일신문》·《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류, 《친목회 회보》·《대조선독립협회 회보》 등을 비롯한 학회보 등을 조사하여 근대의 어문 교육 실태 및 지식 유통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한다. 이들 자료는 한글 파일과 엑셀로 정리하고, 그 가운데 일본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근대 계몽기를 ‘학제 도입 이전(1880~1894)’, ‘학제 도입기(1885~1905)’, ‘통감시대(1906~1910)’의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근대 지식 유통 상황, 외국어 교육 실태, 유학생 문제 등을 기술함으로써 일본어 헤게모니가 형성되고 그것이 새로운 일본어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처럼 근대 계몽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국어 교육사를 연구한 박봉배(1987), 윤여탁 외(2006)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항’과 ‘갑오개혁’, ‘통감부 설치’ 등에 따라 일본어의 영향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II. 근대 계몽기의 지식 유통과 외국어 교육

1_ 학제 도입 이전의 지식 유통과 외국어 교육

한국사에서 1880년대는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 문물과 접촉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개항 이전부터 서양 선교사가 渡來하고 중국을 경유한 한역 기독교 서적이 유입¹⁾되기도 하였지만,

1) 이광린, 1994, 『개화기 연구』, 일조각. 이에 따르면 한역 기독교 서적은 18세기 말부

18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서구와의 통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조선 정부는 1881년 4월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1881년 9월에는 중국에 ‘영선사’를 파견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에 본격적인 근대 지식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지식의 유입은 당시 조선의 어문 문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번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광린(1994)에서 논의한 한역 기독교 서적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문자생활은 漢文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한 ‘번역’의 개념은 한문 번역을 의미했다.²⁾ 그러나 한문을 대체할 만한 국문의 발달이나 보급(國文普及)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을 경유한 서구 지식이 급증하고, 외교·통상에서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문 번역은 지식 수용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식 외국어 교육이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외국어 교육은 해외 유학생과 국내에 도입된 근대식 학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해외 유학생은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에 포함된 유학생의 예가 있다.³⁾ 조사 시찰단은 12명의 朝使, 27명의 隨員, 10명의 通事, 13명의

터 중국에 파견되었던 사절과 수행원,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 2) 《한성순보》, 1883. 10. 30. ‘旬報序’에서는 “風氣가 점차 열리고 智巧도 날로 발전하여 船舶이 전 세계를 누비고, 電線이 서양까지 연락되었으며 公法을 제정하여 국교를 수립하고 항만·포구를 축조하여 서로 교역하므로 南北極 熱帶·寒帶 할 것 없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으며 事變과 物類가 온갖 형태로 나타나고 車服·器用에서도 그 기교가 일만 가지니 世務에 마음을 둔 사람이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外報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內事까지 기재하여 國中에 알리는 동시에 列國에도 頒布하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하락)”(번역문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1983)의 번역본을 사용하였음)이라고 순보 발행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번역’은 《한성순보》에 수록된 모든 기사가 한문이었던지,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송병기, 1988, 「개화기 일본 유학생 파견과 실태」, 『동양학』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49~272쪽. 이 논문에서는 조사 시찰단에 포함된 ‘유길준·윤치호·유정

下人, 2명의 일본인 통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수행원 가운데는 ‘유길준·윤치호’ 등이 있었다. 이들은 이 시기부터 개화를 위한 외국어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이들이 외국어와 접촉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다.

(1) 유길준과 윤치호의 외국어 접촉

- ㉠. 聖上 御極^{ᄃᆞᆫ}신 十八年 辛巳 春에 余가 東으로 日本에 遊^{ᄃᆞᆫ}야 其 人民의 勤勵^{ᄃᆞᆫ} 習俗과 事物의 繁殖^{ᄃᆞᆫ} 景象을 見^{ᄃᆞᆫ}힘이 [...] 越明年 癸未에 外務郎官의 選을 被^{ᄃᆞᆫ}야 允可^{ᄃᆞᆫ}신 聖恩을 猥添^{ᄃᆞᆫ}호니 感激 自勵^{ᄃᆞᆫ}야 欲報^{ᄃᆞᆫ}는 志는 益堅^{ᄃᆞᆫ}나 年紀의 未長^{ᄃᆞᆫ}함과 學識의 未達^{ᄃᆞᆫ} 함으로 敢히 其職을 辭^{ᄃᆞᆫ}고 日東에 見聞의 記^{ᄃᆞᆫ} 바를 編輯^{ᄃᆞᆫ}다가 其藁가 人의 袖去^{ᄃᆞᆫ}함을 被^{ᄃᆞᆫ}야 烏有^{ᄃᆞᆫ}를 化^{ᄃᆞᆫ}지라. 嗟嗟^{ᄃᆞᆫ}함을 不勝^{ᄃᆞᆫ} 더니 於是에 合衆國 全權使가 來聘^{ᄃᆞᆫ}이 我邦이 報聘^{ᄃᆞᆫ}는 禮를 議^{ᄃᆞᆫ}야 文武 才德의 兼備^{ᄃᆞᆫ} 材를 求^{ᄃᆞᆫ}실 閔公이 是選에 實膺^{ᄃᆞᆫ}고 余는 公의 行을 是從^{ᄃᆞᆫ}야 萬里의 行을 作^{ᄃᆞᆫ}니 [...] 是를 懼^{ᄃᆞᆫ}며 是를 戒^{ᄃᆞᆫ}야 言行을 自慎^{ᄃᆞᆫ}며 志氣를 自強^{ᄃᆞᆫ}야 勤勉^{ᄃᆞᆫ}는 意를 加^{ᄃᆞᆫ}고 修進^{ᄃᆞᆫ}는 工을 期^{ᄃᆞᆫ}실 其國의 事物을 欲知^{ᄃᆞᆫ}에 其文字를 不解^{ᄃᆞᆫ}함이 不可^{ᄃᆞᆫ}고 其文字를 欲解^{ᄃᆞᆫ}에 其言語를 不學^{ᄃᆞᆫ}면 不得^{ᄃᆞᆫ}디니 此는 累載의 肄習을 從^{ᄃᆞᆫ}야 其功을 獲奏^{ᄃᆞᆫ}는 者오. [...] (이한섭 편저, 2000, 『俞吉濬 西遊見聞』, ‘序’, 박이정).
- ㉡. 1883. 9. 18. 목: [...] 이날 들으니 穆씨(穆麟德, 뮐렌도르프)가 金씨(협판교섭통상사무 金晩植)에게 말하기를, “阿須頓(아스톤, 일본 나가사키 주재 영국영사, 통상조약 체결차 내한)이 英文을 韓文으로 번역하려 한다는데 그가 만약 우리에게 다시 말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韓譯이 필요 없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金씨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전날 일찍이 조선글을 배우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므로, 조선글을 읽지 못한다고 대답하

수·김량한’은 처음부터 유학 목적으로 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길준은 일본에 도착한 지 14일 만에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학하고, 윤치호는 동인사에 입학하였다. 물론 이들 유학생이 처음부터 유학 목적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수행원으로 갔다가 유학생으로 남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로부터 재일 유학이 시작되었음은 틀림없다.

겠다.”고 하였다. (우스운 일이다. 제 나라 문자를 읽지 못하면서 능히 外務衙門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책망해야 할 일이다.) [...] (윤치호 저·송병기 역, 1975, 『尹致昊 日記』, 탐구당). 1884.10.26. 맑음, 삼가다. 13일. 토: [...] 근일 여론들은, “능히 日人으로 하여금 싸우게 할 수 있는 자는 미국 공사요, 또 능히 日人으로 하여금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자도 미국 공사이다. 그런데 능히 미국 공사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講和하게 할 수 있는 자는 尹致昊다.”라고 하였다. [...] (윤치호 저·송병기 역, 1975, 위의 책).⁴⁾

유길준은 1881년 조사 시찰단의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으며, 1883년에는 보빙사 민영익과 함께 미국으로 가 유학을 하였다. (1-ㄱ)은 미국 유학생할 중 경험한 ‘언어·문자 학습’의 필요성을 서술한 대목이다. (1-ㄴ)은 윤치호가 일본에서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한 경험을 서술한 일기다. 그의 영어 학습은 일본어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후에 영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어로 일기를 쓰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1-ㄴ)의 언어 의식인데, 당시 정부의 외무 관계자들은 ‘국문’과 ‘영어’ 어느 것에도 능숙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서조차도 ‘英文’은 ‘韓譯’하지 않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26일자의 일기에서 ‘미국 공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치호’라는 표현은 그 시기 윤치호가 영어 통역을 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⁵⁾

이처럼 근대 계몽기에는 근대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갔던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시기는 서구와의 교류나 지식 도입에 필요한 어학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4) 윤치호는 1883년 1월 1일부터 1887년 11월 24일까지는 한문, 1887년 11월 25일부터 1889년 12월 7일까지는 국문, 미국 유학 중이던 1889년 12월 7일부터는 영문으로 일기를 썼다.

5) 차상찬, 「내가 본 윤치호 선생」, 『해성』 1931년 4월호, 106~111쪽.

(2) [...] ○ 指余及從事·官并曰 此三君將住津局 習用官話爲好. 答聰明衰鈍 恐不能易學. ○ 問泰西諸國 皆能漢語 比諸國中最易學. 答謹當留意學習矣. ○ 問貴國能解日本語否. 答亦有學習者 苦無精熟者耳. ○ 問貴國公私文字 用何文, 答純用國文. ○ 問無國書乎, 答有之, 惟婦女常賤用之. ○ 問日本國書, 亦解麼. 答此亦有精通者. ○ 問天津紫行林, 各國所會, 將與各國人相從否. 答小邦姑不與各國相通, 恐難往來. ○ 曰不必相從, 泰西人, 專欲探知他國事, 朝鮮人雖不相通, 彼亦不以爲怪. ○ 卜問, 學徒中欲擇聰明者, 習各國語學, 雖不相通, 亦有可學之道否. ○ 中堂答, 本局設語學局, 少年聽悟學習者甚多, 不患無師也. [...] (金允植, 『陰晴史』, 1881년 12월 초1일).⁶⁾

이 장면은 1881년 12월 영선사로 중국에 갔던 김윤식이 변길운과 함께 이 흥장을 면담하며 나눈 대화로, 중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고자 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이 자료에서는 ‘당시 (중국과 다른) 조선의 국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조선의 문자는 부녀자나 상민·천민이 사용하여 공용 문자가 아닌다는 점’, ‘태서인과의 교류를 위해 어학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시기 김윤식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어학 문제보다 ‘器機 도입의 중요성’을 더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태서 각국 언어에 대한 학습보다는 ‘기기 학습’을 더 중시하였고, 서구의 지식은 중국인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⁷⁾

다음으로 1880년대의 학교 설립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0년대의 외국어 학습은 외교 통상과 서구의 기술 문명 수용의 필요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근대식 학제와 서양 학문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유형의 학교가 신설되면서 외국인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통역관·기술자·관

6) 金允植, 『陰晴史』上, 高宗十八年 辛未 十二月初一日.

7) 金允植, 『陰晴史』高宗二十年 四月條; 《漢城旬報》1883년 10월 1일 제1호 ‘內國記事’. 이 두 자료를 참고하면 1883년 5월 설치된 기기창의 전습반 교사가 중국인 馬建常의 지도를 받은 텐진 공장 기술자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 양성 또는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 등을 목표로 10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만규(1947)·이광린(1969)·이종국(1991)·김경미(2009) 등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이 시기 설립된 학교로는 ‘동문학(1882)·기기창 기술 전습반(1883)·원산학사(1883)·부산학교(1884)·배재학당(1886)·육영공원(1886)·언더우드 학당(1886, 후에 경신학교)·경학원(1887)·연무공원(1887)·이화학당(1886)’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기창 기술 전습반은 정규 학교가 아니었으며, 부산학교는 일본인이 부산 지역의 자국 거주민을 위해 만든 학교다. 이들 학교는 성균관 한학 교육을 목표로 한 경학원과 무관 양성을 목표로 한 연무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어’ 또는 ‘일본어’ 등의 ‘外國語’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⁸⁾

그 가운데 ‘동문학’이나 ‘육영공원’의 외국어 교육은 일차적으로 ‘정부 관료’로서 외교 사무를 관장할 사람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외국어 교육의 정책 관련 자료

㉑. 一. 統理衙門之設 專以講求時務參酌變通事 有中外古今之別機 有本末次第之宜 無欲速而見小利 無畏難而恤浮言 凡利國利民之政一一謀定後 動應請分設四司以專責成 更仿照燕京設立同文學教育人才俾收實用竝請 [...]

一. 設同文學, 掌培植人才, 非學校不出, 非考試不尊, 宜擇聰俊子弟, 自滿十五歲者, 肄業其中先學外國語文 次及政治理財之道, 各以其性之所近力之所優 分科考取以備任 使倘有好學深思之士 無論在官去官 雖年逾既壯 亦不阻其往肄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서울대 규장각 도서번호 15323·15324; 국사편찬위

8) 국사편찬위원회, 2012,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문화원. ‘동문학’은 ‘通事變通’을 목표로 한 학교이며, ‘원산학사’는 덕원 유지뿐만 아니라 영국인 세무사 魏來德의 出捐과 ‘學事節目’의 『瀛志』, 『聯邦志』, 『日本外國語學』, 『大學預備門』 등의 교재명이 등장하는 점을 통해,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육영공원’의 경우도 ‘각국 언어’가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育英公院謄錄 參考), ‘경신학교’와 ‘이화학당’에도 ‘영어’ 관련 교과목이 있었다.

원회, 2011, 『한국 근대사 기초 자료집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

- ㄴ. 內務部草記: 同日內務府草記現今各國交際語學最係急務另設公院 擇其少年聰敏者以教育語學(***)監察全袁默交涉衙門主事李璵 本府主事加差下并令察任何如. (《漢城周報》, 1886. 8. 23, 제 25호).
- ㄷ. 論外交擇其任: [···] 若任外交者致疎昧則外國人必曰 朝鮮人平皆疎昧豈不大可愧哉 查海外諸國并稱內修外交無間輕重 以外交衙門置之於大臣之首與財務衙門一體視之 故冢宰若不兼任財務必兼外交云 且於登傭庶僚也 必有試方之制 [···] 若外交衙門則*地等各國地理政治風俗物產以至今古之和戰通商之利弊臨機應變也 達時進退也 與夫外國文字言語氣不俱試而并驗苟不通之者竟斥而不用云 惟我國新屬外交創設衙門謬*士民莫皆其** [···] (《漢城周報》, 1886. 10. 4, 제31호).

(3-ㄱ)은 동문학 설치가 통상 교섭 사무를 위한 ‘通事’ 양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시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ㄴ)은 각국과의 교제상 어학 교육이 긴급함을 제시한 자료이며, (3-ㄷ)은 외교관의 자질에서 외국어의 문자와 언어가 필수임을 강조한 논설이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볼 때,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의 외국어 교육은 근본적으로 ‘통상 교역’이나 ‘외교 사무’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었으며, 특히 정부 차원의 교육 기관에서는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 관리 양성’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재학당·경신학교·이화학당’ 등의 영어 교육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나, 당시의 교과 구성을 고려할 때 초보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1880년대의 외국어 교육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학제 도입이 이루어지기 전 공교육 차원에서 통상 실무 관료 양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배재학당·경신학교·이화학당’과 같이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서구에 대한 기초 교양의 차원에서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학제 도입기 일본어의 권력화 과정

갑오개혁 이후 정부에서는 학부 관제를 개편하고, 1895년 7월 19일에는 ‘소학 교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이른바 근대식 학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봉배(1987)·윤여탁 외(2006) 등에서 비교적 상세히 고찰된 바 있다. 이 시기의 외국어 교과는 ‘소학교 고등과’(소학교령 제9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時宜로 加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소학교의 외국어 교육

- ㉠. 第九條 小學校 高等科의 教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本國地理 本國歷史 外國地理 外國歷史 理科 圖畫 體操로 하고 女兒를 爲하야 裁縫을 加함. 時宜로 外國語 一科를 加하며 또 外國地理 外國歷史 圖畫 一課 或 數科를 除하믈 得함. -小學校令 第九條.
- ㉡. 第十二條 教科에 外國語를 可함은 將來 生活上에 其 知識의 緊要를 認함이라 近易한 單語 短句 談話 文法 作文을 授하고 外國語로써 簡易한 會話 及 通信 等を 解케 함이 可함. 外國語를 授함이 尙상 其 發音과 文法에 注意하고 正確한 國語를 用하야 意解케 함을 要함. -小學校 校則 大綱 第十二條.

(4)의 규정과 같이 학제 도입 이후 ‘외국어 교육’은 소학 고등과부터 시작되었으며, ‘생활상 지식의 긴요함’에 따라 ‘단어·단구·담화·문법·작문’을 가르쳐 ‘회화와 통신’을 이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중학교의 경우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1899년 9월 7일 공포된 ‘중학교 규칙’ 제2관 학과 급정도의 제1조에서 “中學校 尋常科의 學科는 倫理 讀書 作文 歷史地誌 算術 經濟 博物 物理 化學 圖畫 外國語 體操로 定함이라”라고 규정한 것이 전부여서 구체적인 뜻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학교 고등과의 연장선에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서 소학교령과 중학교령의 실시는 외국어 교육이 교과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1895년 5월 20일 ‘외국어학교 관제’(칙령 제88호)의公布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이 관제에서 외국어학교는 ‘諸外國의 語學을 교수하는 곳(제1조)’으로 ‘외국어의 종류는 時宜에 따라 학부대신이 정하도록(제2조)’ 하였다. 또한 ‘교관과 부교관에 외국인을 雇用할 수 있도록(제11조)’ 하였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인이 이 학교의 교원으로 고용되었다. 이때의 외국어학교는 한 개의 학교지만, 개별 어학(일어·영어·법어·덕어·한어·아어 6개)에 따라 敷地 및 교원, 운영 방식을 달리 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어·한어(중국어)는 3년,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독일어는 5년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외국어학교는 ‘한문’·‘본국 역사’·‘지리’를 포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외국어학교의 학생 수 증감 현상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5) 외국어학교 학생 수

- ㉠. 거년 십일월에 학부에 보고한 각 학교 학생 수: 스범학교 본과 학생 삼십명이고 영어과 학생 스십명이고 부속 소학교 학생 구십구명, 슈하동 소학교 학생 구십삼명, 공동 소학교 학생 구십구명, 진성 소학교 학생 구십명, 미동 소학교 학생 팔십칠명, 양스동 소학교 학생 스십명, 양현동 소학교 학생 스십륙명, 안동 소학교 학생 오십칠명, 영어학교 학생 일백십명, 일어학교 학생 팔십륙명, 법어학교 학생 구십이명, 아어학교 학생 칠십구명, 한어학교 학생 스십명, 인천부 일어학교 학생 스십오명, 한성부 소학교 학생 칠십스명, 도합 일천일백팔십칠명, 이외에 전주부와 평양부와 대구부에 설립한 학교들이 있스되 그 학생 수는 미상이더라. (『협성회 회보』, 1898. 1. 8).
- ㉡. 작일 학부에서 각 어학교 학생 스십여명을 시로 모집하야 시취하였는데 영 법 두 학교에는 원입하는 자가 슈십여 명이고 덕어학교에는 학생 명도 업섯는데 덕어학교는 이왕 있는 것이 불과 오류명이라더라. (《대국신문(帝國新聞)》, 1901. 1. 3).

(5-7)을 보면, 이 시기 학부에 보고된 학생 수는 총 1,187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어학교 생도가 452명이다. 이들의 분포는 ‘영어(110)·프랑스 어(92)·일본어(86)·러시아 어(79)·한어(40)’의 순서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범학교 외국어과를 포함할 경우 일본어는 131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외국어 가운데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5-1)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외국어학교의 경우 ‘영어, 프랑스 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그 밖의 언어에 대한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국어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해당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저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는 ‘영어’를,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쳤으므로,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학교’가 이 시기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96~1902년까지 『협성회 회보』·《미일신문》·《독립신문》·《태국신문》에 소개한 ‘외국어학교’ 관련 기사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⁹⁾ 이 시기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로 ‘한성학당·경성학당·한성의숙·운수회사 일어학교·한양학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외국어학교 관련 자료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 외국어 교육은 ‘영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어학교 관제’에 따라 ‘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갑오개혁 직후인 189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관비 유학생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유학생 파견은 1895~1896년에 걸쳐 약 200명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은 있지만 유학생 파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학생 파견 실태와 관련하여 1896~1905년 사이의

9) 이 연구를 위해 『협성회 회보』, 《미일신문》, 《독립신문》, 《태국신문》 영인본을 대상으로 1896~1902년 사이의 외국어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조사한 결과 137편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77편은 ‘외국어학교 관제’ 및 ‘사립 외국어학교’와 관련된 자료인데, 이들 자료를 설립 형태 및 언어권별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일본어 관련 학교 관련 자료가 28편, 영어 관련 자료가 14편으로 나타난다.

《독립신문》·《미일신보》·《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기사 및 논설류에서 찾은 유학 관련 자료 50종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 留學地는 대부분 일본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유학 정책은 김기주(1993)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 목적에 부합되는 시책의 하나”로 “친일파 관료에 의해 선발되었으며 신분상 상당히 유력한 가문 출신자들이 위주가 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유학생의 급증 또한 일본어 세력의 증대에 영향을 주었다.

3_ 통감시대 일본어의 권력화 과정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교육은 일제의 학정 잠식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 시기는 1905년 3월 1일 학부 관제를 개편하고, 1906년 8월 21일 보통학교령·고등학교령을 공포하고, 1906년 8월 27일 외국어학교령을 공포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모든 교육 제도에 도입하게 되었다.¹⁰⁾ 특히 보통학교에서 ‘일어’를 ‘국어’와 ‘한문’과 마찬가지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일본어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시기 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통감시대 각급 학교의 교과목

- ㄱ. 보통학교령(1906, 8. 1): 普通學校의 教科目은 修身과 國語와 漢文과 日語와 算術과 地理歷史와 理科와 圖畫와 體操로 하고 女子에는 手藝를 可함이라. 時宜에 依호야 唱歌와 手工과 農業과 商業中에 一科目 或 幾科目을 可함을 得함이라. (普通學校令 第六條).
- ㄴ. 고등학교령(1906, 8. 1): 高等學校의 本科 學科目은 修身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制 經濟 圖畫 音樂 體操로 호되 但 法制經濟 及 音樂은 關호도 得함이라. 豫科 及 補

10) 허재영, 2010, 『통감시대 어문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경진. 이 책에서는 통감시대의 관제, 사범학교, 보통학교, 고등학교, 고등여학교, 사립학교 등의 법령과 《대한매일신보》 소재 교육 정책 및 교과서 관련 논설을 정리하였다.

習科의 學科目은 本科에 準^ㄴ야 學校長이 定^ㄴ야 學部大臣의 認可를 受^ㄴ함이라. (高等學校令 施行規則 第四條).

- ㉔. 고등여학교령(1908. 4. 2): 高等女學校 本科의 學科目은 修身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算術 理科 圖畫 家事 手藝 音樂 體操로 ㄴ 但 手藝 中에 刺繡 編物 繰絲 囊物 造花 及 割烹의 一科目 或 數科目을 隨意科目으로 ㄴ고 外國語(日語를 除^ㄴ함) 及 教育大要를 隨意科目으로 ㄴ야 豫科로 ㄴ야 加^ㄴ함을 得^ㄴ함. 豫科의 學科目은 修身 國語 日語 算術 理科 圖畫 手藝 音樂 及 體操로 ㄴ. 技藝 傳授科의 學科目은 修身 國語 算術 裁縫 刺繡 編物 組絲 囊物 造花 及 割烹의 一科 或 數科目으로 ㄴ 但 日語 及 家事를 隨意科目으로 ㄴ야 加^ㄴ함을 得^ㄴ함. (高等女學校令 施行規則 第四條).
- ㉕. 고등학교령 개정(1909. 7. 5): 高等學校의 學科目은 修身, 國語及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及化學, 實業, 圖畫, 體操, 法制經濟, 音樂으로 ㄴ되 前項 外에 隨意科目으로 外國語를 加^ㄴ함도 得^ㄴ함. 但 外國語는 英語, 法語, 德語, 漢語의 一箇 國語로 ㄴ함 [...] 公立 又は 私立 高等學校 補習科의 學科目은 本科에 準^ㄴ야 學校長이 定^ㄴ고 學部大臣의 認可를 受^ㄴ함이 可^ㄴ함. (高等學校令 施行規則 第四條).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급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필수 과목으로 두고, ‘외국어’는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1908년 이후에는 고등학교와 고등여학교에 외국어를 수의과목으로 두었는데, 이때 외국어는 일본어를 제외한 ‘영어·법어·독어·한어’였다. 이는 통감시대 일본어의 지위가 국어와 대등해졌으며,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어학교령’을 개정하여(1906. 8. 27) ‘관립’뿐만 아니라 ‘공립’과 ‘사립’ 외국어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외국어학교는 가르치는 언어를 기준으로 학교명을 정하였다. 이 개정령에서는 외국어학교의 설립 목적을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으로 규정하고, 학교 형태를 ‘관립·공립·사립’의 세 종류로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의 외국어학교에서 ‘러시아 어’ 학교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통감부(1910)에서 작성한 『韓國施政年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7) 外國語學校

明治二十八年發布ノ外國語學校官制ニ依レハ外國語學校ハ一校內ニ數箇國語ヲ教授スルカ如キモ實際ニ於テハ日語, 漢語, 英語, 法語, 德語, 俄語六箇國ノ各語學各別ニ敷地校舍ヲ有シ職員ハ勿論, 經濟モ亦各別ニ分立シ, 俄語學校ハ日露戰役中閉校シ學制改正當時ニ於テハ他ノ五校並立シタリ學則ニ於テハ何レモ修業年限ヲ規程スルモ生後ハ一通リノ通譯ニ差支ナキニ至レハ退學スルヲ常トシ成規ノ學科ヲ履ミ卒業ヲ完了スルモノ殆ント稀ナ右官立外國語學校ノ外, 京城ニ日本海外教育會ノ設置ニ係ル京城學堂アリシモ明治三十九年ノ初, 韓國政府ニ寄附シ爾來學部管理ノ下ニ之ヲ第二日語學校ト稱セリ其他仁川ニ官立日語學校ノ支校アリ又平壤ニモ日本人ノ經營ニ係ル日語學校アリタリ. [...] 右學制ノ改革ト同時ニ當分各語學校箇箇ノ存立ヲ認メ官立日語學校, 官立英語學校, 官立法語學校, 官立德語學校, 官立漢語學校ノ五校ニ分チ官立日語學校ハ京城內ニ二校ヲ存スルノ不得策ナルヲ認メ之ヲ合併シテ一校トナスト同時ニ日語學校ニ限リ一學年二學級ノ編成ニ改正シ又仁川ノ官立日語學校支校ハ之ヲ獨立セシメテ官立仁川日語學校トシ明治四十年ニ至リ平壤日語學校ヲモ官立ニ移シ官立平壤日語學校ト稱ス此等各學校從來ノ設備モ亦見ルニ足ルモノナキヲ以テ相當費用ヲ以テ以テ増築, 修繕及諸般設備ヲ加ヘタリ.

(7)에 따르면 러일전쟁 중 ‘아어학교’가 폐교되고, ‘영어·법어·독어·한어·일어학교’를 병립하도록 하였는데, 1907년에는 ‘일본해외교육회’에서 설립한 ‘경성학당’을 ‘제2일어학교’로 운영하였다. 이 시기 일어학교로는 이들 학교 외에 인천의 일어학교 支校, 평양의 사립 일어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1908년에는 평양의 일어학교를 관립으로 바꾸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교사를 증축하고 제반 설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통감시대 외국어 교육이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일본어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어학교에 대한 당시의 학부 예산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05년 12월 15일에 편성된 ‘광무 10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의 학부 예산(1906년용)에서는 ‘일어학교’에

7,170환, ‘인천 일어학교 지교’에 3,442환, ‘영어학교’에 10,242환, ‘법어학교’에 6,948환, ‘한어학교’에 3,255환, ‘덕어학교’에 5,978환을 편성하였고, 일어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성학당’에 150환, ‘부산 일어학교’에 1,400환을 편성하였다.¹¹⁾ 이는 이 시기 외국어 교육에서 일본어 교육을 목표로 한 학교의 지원이 영어학교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1908년 더 심해졌는데, 이때의 예산 항목은 ‘일어학교’가 포함된 ‘외국어학교’에 26,240환인데 비해, 순수 일어만을 목표로 한 ‘인천 일어학교’ 6344환, ‘평양 일어학교’ 5,409환을 배정하였다.¹²⁾ 이는 통감시대 일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의미한다. 이처럼 통감시대에는 ‘아어학교’의 폐교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학교의 일어 교육 실시, 또는 일어 속성과 실시 등을 통해 일본어의 세력이 급증하였다.

(8) 외국어학교의 일어 교육 강화

- ㄱ. 再昨日에 私立 興化學校에서 開學을 ㅎ앗는디 曾往 教授 ㅎ던 學校에 法律學과 經濟學은 停止 ㅎ고 英語, 日語 兩科만 特別 注意 ㅎ야 教授 ㅎ는디 今月부터 月謝金을 磨鍊 ㅎ야 每學員에게 新貨 二十五錢式 依例 收入 ㅎ다더라. (《萬歲報》, 1906. 9. 12).
- ㄴ. 德校日語: 德語學校 總教師 佛耶安 氏는 一般 學徒가 日語 講習 ㅎ을 贊成 ㅎ는 故로 該校內에 日語科를 設寘 ㅎ고 一週間에 數時間式 教授 ㅎ다더라. (《皇城新聞》, 1908. 4. 3).
- ㄷ. 語學速成: 學部에서 官立語學校 速成科規則을 日間 頒布 ㅎ다는 디 ㅎ 速成科 學徒는 五拾名이오 科目은 日語오 年限은 週年인 대 授業料 五十圓을 每月 五日 以內로 納 ㅎ기로 定 ㅎ앗다더라. (《大韓每日申報》, 1908. 5. 12).
- ㄹ. 官人日語: 近日 洪運杓 시 家의서 日語 夜學校를 設 ㅎ고 教師는 尼部 主事 金光赫 시인디 甲班 學徒는 尼閣 法制課장 洪運杓 시

11) “광무 10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 좌개 공포 사안”, 《구한국 관보》, 광무 9년(1905) 12월 15일.

12) “융희 2년도 세입 세출 총 예산과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구한국 관보》, 융희 원년(1907) 12월 20일.

오 乙班 學徒는 尼部 書記官 宋之憲 시오 丙班 學徒는 學徒는 秘書官 金思重 시뿐시오 月謝金은 每朔 壹人의 五圓式이라더라.
 (《大韓每日申報》, 1908. 5. 30).

(8)의 기사는 이 시기 일본어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8-ㄱ) 1906년 사립학교에서 ‘법률·경제’ 대신 ‘영어·일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사이며, (8-ㄴ)은 관립 덕어학교에서 일어과를 설치하고, 수시간씩 교수한다는 내용이다. (8-ㄷ)은 일어의 경우 속성과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뿐만 아니라 (8-ㄹ)처럼 일본어를 목표로 한 야학 설립도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데, 1906년 전후에 활발했던 야학은 김형목(2001)·허재영(2012)에서 밝힌 것처럼 ‘국문 야학’이나 ‘노동 야학’을 목표로 할지라도 교과목에 ‘일어’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¹³⁾ 이러한 흐름에서 간혹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으나, 관·공·사립 일어학교의 증가 현상과는 견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통감시대의 재일 유학생 급증도 일본어의 세력이 증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김기주(199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재일 유학생의 다수는 私費 유학생이었다. 이는 이 시기 ‘유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9) 嗚呼라 十年 以前 留學生의 地位를 回顧호건디 其 悲境이 何多호던가. 留學生이라 일稱호면 朝廷에서는 蛇蝎갓치 視호며 頑固輩는 夷狄으로 斥호고 父兄은 棄子라 嫉視호고 甚至 奸細 小人輩가 政府黨의 意를 迎合호랴고 還國호는 留學生를 革命黨 一員이라고 [...] 拾年之間에 時局이 如何히 變遷호앗던지 蛇蝎이 變호야 神明이 되며 夷狄이 變호야 聖賢이 되고 棄子가 奇男이 되며 異類가 親目되야 全國內 人心의 留學生 歡迎호미 風前의 草라.

13) 허재영, 2012, 앞의 책에서는 1906년 전후의 야학이 강습소 형태로 운영된 경우가 많은데, 주요 교육 내용이 ‘일어’, ‘법학’, ‘사범’ 등과 같은 전문 분야를 목표로 한 경우가 많았음을 밝힌 바 있다.

[...] 聽^ㄴ라 諸君아. 或 留學 卒業에 名譽를 藉^ㄴ야 社會上에 出入^ㄴ며 欺僞나 甘行^ㄴ고 或 外人을 依賴^ㄴ야 自己의 勢力이나 誇張^ㄴ며 或 庸學을 自恃^ㄴ고 萬丈氣騰^ㄴ야 先輩를 非笑^ㄴ고 儕流를 傲視^ㄴ며 或 大官을 諂媚(첨미)^ㄴ야 仕宦이나 圖得^ㄴ며 或 牧民之官을 任^ㄴ면 民膏나 剝割(박탈)^ㄴ며 或 劉伶 阮籍의 舊件을 招呼^ㄴ야 千金不換의 好光陰을 壺裡乾坤(호리진곤)에 坐送^ㄴ며 或 左妻右妾에 高枕晏眠^ㄴ야 昇平故代의 惡慣이나 甘襲^ㄴ고 其 蘊抱를 問^ㄴ면 外語幾句의 通辯과 法律 幾卷의 管窺에 不過^ㄴ며 其 事業을 觀^ㄴ면 一二卷 新籍의 譯出과 一二處 學校의 設立도 無有^ㄴ고 或 有之하더티도 彼則 語句가 模糊^ㄴ며 文法이 冗難(용난)^ㄴ야 可觀^ㄴ을 必 少^ㄴ고 此則 熱心이 不入^ㄴ며 教科가 不完^ㄴ야 沙上建屋과 同^ㄴ대 乃某平居의 言論 思想을 觀^ㄴ진던 自己는 或 英 法 德 美 日本 俄羅斯人으로 此國을 傍觀^ㄴ는 者인 듯시 祖國 歷史나 一冷評^ㄴ야 曰 如此 萎靡^ㄴ 國에서 何事를 可爲^ㄴ 하리오 하며 自己는 或 韋口孫 俾斯麥 加富爾瑪志尼 同等으로 不幸히 此國에 生^ㄴ야 무삼 功業 못^ㄴ는 듯시 祖國 人種이^ㄴ 冷嘲^ㄴ야 曰 如此 頑迷^ㄴ 人과 何業을 共建^ㄴ 하리오 ^ㄴ고 洋裝 日帽로 昂然 獨行^ㄴ而已라. 然故로 一般인의 批評에^ㄴ 曰 留學生者는 不過 是 青年子弟를 驅^ㄴ야 外國人의 心腸을 換어케 喚다 ^ㄴ니 斯言이 雖過나 留學生된 諸君의 競競三思^ㄴ 處이나라. (《大韓每日申報》, 1908. 1. 10).

이 논설은 유학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십년 전에는 유학생을 ‘蛇蝎’이나 ‘夷狄’, ‘棄子’로 취급하던 시대에서 ‘진국 내 인심이 환영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이 논설은 유학생들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外語幾句의 通辯’이나 ‘법률 幾卷의 管窺’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어기구’로 표현한 유학생들의 ‘일본어 사용 능력’이다. 이 논설에서는 일부 인사의 유학 과시 현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유학생에 대한 일반인의 선망 의식은 또 다른 일본어 권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처럼 1906년 이후 1910년에 이르는 시기는 급속히 일어 교육이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Ⅲ. 소통 능력과 일본어의 권력화

1_ 어학의 본질과 소통 능력의 권력화

근대 계몽기 일본어 권력 형성의 주된 요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러일전쟁과 통감부 설치 등은 한국의 외교·교육·행정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영향이 급증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점은 1895년의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교육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교과와 위상이 급격히 상승되고,¹⁴⁾ 일본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과 한국어로서 일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증한 데¹⁵⁾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어 권력은 언어의 본질인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어학’은 ‘특정 언어를 공부하는 일’이자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로 인식되었다. 유길준(189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14) 박봉배, 1987, 『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윤여탁 외, 2005,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허재영, 2010, 앞의 책 등에서는 근대 계몽기 어문 정책과 학제 변화, 일본어 교과와 위상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2.2.~2.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갑오개혁기의 ‘소학교 교칙 대강’에서 ‘時宜로 加하는 ‘외국어’에서, 통감시대 ‘보통학교령’의 ‘국어’, ‘한문’과 대등한 ‘일본어’가 규정되었듯이, 학제 변화 과정에서 일제의 영향력에 따라 일본어 교과와 위상이 달라졌다.
- 15) 김민수·고영근·하동호 편, 1977, 『역대 한국어 문법 체계』, 탑출판사에는 10여종의 한국어 교재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야마다 간토[山田寛人],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獎勵政策』, 東京: 不二出版에서 이 시기 한국어 교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1880~1910년까지 발행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서는 모두 72종이다. 이 가운데 1894년에 발행된 것이 17종, 1904년에 발행된 것이 12종으로, 이들 학습서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도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시기 일본어의 세력 확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0) 유길준(1892)의 ‘언어학’

言語學: 此學은 他邦 言語를 學習 ㅎ는 事를 謂함이나 天下 各國의 言語와 文字가 不一 ㅎ야 人生의 交際 ㅎ는 大道에 一條 不便 ㅎ 欠典 이라. 然 ㅎ 故로 仕宦 ㅎ는 者가 此工이 無 ㅎ면 其職에 或窘 ㅎ고 商賈 ㅎ는 者가 此工이 無 ㅎ 則 其業을 獲遂 ㅎ기 甚難 ㅎ며 學者의 知識에 도 關係가 不淺 ㅎ니 四海가 一家 又치 相通 ㅎ는 世界에 生 ㅎ야 此學을 不修 ㅎ면 其 情義를 何道로 相通 ㅎ며 才技를 何道로 相勸 ㅎ며 又 他諸般事理를 何道로 以 ㅎ야 其 相違 ㅎ는 方便을 立 ㅎ리오. 然호디 此에 不止 ㅎ고 人生의 學業에 重要 ㅎ 關係가 有 ㅎ니 各國의 言語를 比較 ㅎ야 其 根本의 異同을 考究 ㅎ이라. (俞吉濬, 1895, 『西遊見聞』 제13편).

(10)에 나타난 것처럼, 언어학 또는 어학이라는 용어는 ‘언어 학습’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 점에서 ‘어학’은 곧 ‘외국어 학습’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근대 계몽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시점은 갑오개혁 직후부터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는데, 영어의 경우 《독립신문》 영문판¹⁶⁾이나 윤치호의 영문 일기가 등장하고, 일본어의 경우 각종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교과목으로 두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갑오개혁 이후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의 필요성¹⁷⁾도 일본어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소학교(통감시대의 보통학교), 중학교, 관립 외국어학교 등의 제도적인 학교뿐만 아니라 속성과나 야학과 등에서도 외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통역’이나 ‘번역’을 위해 습득한 어학 능력이 권

16) 《독립신문》 영문판은 당시 한국에 존재했던 유일한 영자 신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광린, 1994, 앞의 책 ‘서재필의 사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17) 야마다 간토, 2004, 앞의 책의 전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1894년과 1905년에 집중적으로 발행된 교재들은 대부분 ‘회화’, ‘獨習’, ‘速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05년 경성학당 일어잡지사에서 발행한 『독습일어잡지』도 잡지명 그대로 ‘독습’을 강조한다. 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이 일상생활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11) 의사소통과 어학

7. 通譯: (前略) 夫通譯은 至難한 事라. 法律學을 不知호는 者는 法律界語를 不解호며 經濟學을 不知호면 經濟界語를 不解호며 其他 各 學問의 言語에 對호야 皆然호니 故로 學問이 俱備호는 者 | 아니면 上等社會 言語를 未解處가 許多하리니 況 重大호 國際上 談辨乎아. 昔에 通譯을 賤執事로 認定호얏더니 今에 世界 大開호야 外交 頻煩호니 此時를 當호야 外國語學이 甚이 必要하며 外國語 學生은 諸般 學問을 兼備치 아니면 不可호니라. [...] 法相의 滔滔호 說明¹⁸⁾을 逐條揭載치 못호거니와 其時 出席員 古谷 秘書官 同校 出身者 國分 秘書官, 川上, 鹽用 兩 通譯官 諸氏 中에 또호는 此 問題로 演說이 有호얏는디 記者는 此 問題에 對호야 一論을 更加호노라. 我國이 外國과 通商 三十年에 發達호는 事가 毫無호고 但 語學은 可謂 極發達이라 奚도 可호는 然호는 其中에 普通 學問이 有호는 者 | 凡幾人인고. [...] 此와 如히 普通 學問도 無호는 者의게 經濟 法律上 談話가 엇지 其 腦髓에 入호리오. 然則 通譯의 資格은 學問 有餘호는 者로 擇호미 可호니 否則 國際上에 遺憾이 不少호리라 호노라. (“논설”, 《萬歲報》, 1907. 6. 22).

8. 探偵과 通譯의 行悖: [...] 至于近日호야 世界萬國에 未호는 極凶 極惡호는 種類가 許多 產出호니 卽 外人의 探偵된 者와 通譯의 行悖호는 者가 是로다 噫라 彼輩도 皆韓天을 履호고 韓衣를 衣호고 韓食을 食호는 者라. [...] 乃者 爾輩가 頭角이 稍長호고 言語를 能通호리 人類가 되지 못호고 梟경 蛇蝎이 되야 外人의 若干 金錢을 貪得호야 其身을 賣하고 其力을 盡호야 無辜호는 同族을 誣陷호고 殺害호므로써 生活을 作호면서 壹毫도 羞愧가 無하고 反히 揚揚自得호야 其威를 肆하고 其惡을 逞(逞)호니 爾輩를 產

18) 이 글은 이 시기 법부대신이었던 조중응이 일본 동경 외국어학교 한어과 동창 간친회에서 행한 연설을 소개하며 그것을 비판하고자 한 글이다. 이 시기 조중응은 ‘동아개진교육회’라는 단체의 수장을 맡아 친일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일자 논설에서는 일진회 수장인 이완용, 이토히로부미의 후원으로 대동학회를 확장한 신기선과 함께 ‘일본의 삼대 忠奴’라고 비판한 바 있다.

育 ㅎ야 同胞에게 流毒 ㅎ는 것을 大悔 ㅎ야 爾의 享祀를 餉受 ㅎ 理
 가 無 ㅎ며 爾의 子孫도 必然 滅種의 禍를 不免 ㅎ리리다.[...] 《大
 韓每日申報》, 1908. 10. 8).

(11-ㄱ)에서 범부대신 趙重應은 어학(외국어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외교
 상의 ‘통역’에 있으며,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비록 기자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보통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11-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 ‘통역 능력(소통 능력)’을 소유한 통
 역인들이 외인(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誣陷하고 살해하는 생활을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사회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소통 능력의 권력화

- ㄱ. 恨不學日語: 宮內府에서 試驗 ㅎ는디 落榜 ㅎ는 人들이 冤屈 ㅎ다 呼
 訴 ㅎ 則 宮內府에서 日語로 試驗 ㅎ야 復職 ㅎ게 ㅎ깃노라 ㅎ는
 셜 該人들이 日語도 通知 못 ㅎ는지라. 自嘆 ㅎ되 日語를 早學 ㅎ
 지 못 ㅎ 것이 恨이라더라. 《萬歲報》, 1906. 8. 12).
- ㄴ. 韓語講習: 學部에서 韓語 講習所를 設施 ㅎ는 規則은 第一條로
 至十條로 ㅎ고 會長 一人은 該部 次官으로 幹事 一人은 事務官
 으로 講師 二人은 該部 視學官 李晚圭 主事 李完應 兩氏오 講習
 料는 一人 一個月 十一圓이오 該會에 關 ㅎ 費用은 講習料 及 寄
 附金으로 支辨 ㅎ고 該會 學部 所屬 日本人을 爲 ㅎ야 韓語 韓文
 을 講習 ㅎ야 執務上에 便益을 圖 ㅎ는 目的이더라. 《雜報》, 《大韓
 每日申報》, 1907. 10. 9).

(12)의 두 자료는 통감시대에 이르러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12-ㄱ)은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음
 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여주며, (12-ㄴ)은 식민 통치를 위해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12-ㄴ)에 등장하는
 ‘이완응’은 일제 강점기 경성부에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일본인에게 한국

어를 보급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통감시대 이후에는 일본어 구사 능력이 사회 권력의 주요인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이 시기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어학 열풍이 일게 되었다. 다음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13) 통감시대 어학(외국어 학습) 경향

- ㄱ. 近來 韓國에 壹種 學問이 突然히 進歩하야 學校를 設하는 者가 此를 第一課程으로 認하며 學校에 入는 者가 此를 第壹 工夫로 務하야 至於 乳兒牧豎라도 殆 皆 浸沈得知하니 語學이 卽是 羅다. [...] 彼外國人의 語學을 學함은 自國의 文明을 發展키 爲하야 學하며 他國의 文明을 輸入키 爲하야 學하며 民族의 權利를 扶興키 爲하야 學하나니 故로 小學校에 在하야는 自國의 國語와 自國의 國文으로 其腦髓를 養하며 其 思想을 培하야 國家 精神과 民族主義로 表準을 作하야 壹言壹動이라도 此 範圍에 不出케 하 後에 中學校 以上 程度에 進하야 於是乎 其 研究하 目的을 隨하야 外國語를 始學하나니 法律을 學코즈 하는 者는 羅馬語를 學하고, 文學을 學코즈 하는 者는 埃及어를 學하고, 醫學 軍政을 學코자 하는 者는 獨逸어를 學하고, 歌曲을 學코즈 하는 者는 伊太利어를 學하고, 歐美交際를 目的으로 하는 者는 法어를 學하고, 美洲通商을 目的으로 하는 者는 西班牙어를 學하고, 歐亞通商을 目的으로 하는 者는 英吉利어를 學하나니 此皆 其目的을 達하는 方法 手段을 準備함에 不過하거늘, 今此 韓國人은 官公 私立 教育界에서 頭髮이 未燥하 兒童을 驅하야 日어만 學케 하야 彼 自國어도 盡能치 못하 兒童들이 外國어 外國文을 學하니 試問 今대 其目的이 何인가 抑又 目的은 姑舍하고 其弊害가 如何하깃는가. [...] (長吁生, 1909, 3, 3, “語學을 論함”, 《大韓每日申報》).
- ㄴ. 挽近 韓國에 日語學의 潮勢가 愈愈히 高하야 日語學校가 星又치 羅하며 日語學者가 林又치 起하니 吁라 盛하도다. 如斯히 日語學校가 多하며 日語學者가 多함이 果然 文明의 輸入을 爲함이며 國家의 發展을 圖함인가 萬綠叢中에 一點 紅又치 一二의 正義의 日語學校 日語學者가 無함은 아니나 大概 一言으로 蔽하거던 日 奴隸學校이며 日 奴隸學者니라. [...] 我가 日語를 勉하야 旅館 僮女가 來去客의 意를 迎하하디시 今일에 甲國人이 來하거던 甲國

語를學고乙國人이來호거던乙國語를學하야浸浸然奴隸學에醉호리오此實痛恥호바니라.[...]故로一方으로外交의術을鍊호며一方으로外交의道를勉호며世界的男兒의活動을試호며世界的國民의價値를現호여야始可호지라然호데此外交에第一必要不可缺의資料는卽外國語니果然志를外交에尙호는者不可不外國語를學호지어늘只今語學界를睹호건디此外交에無關係호日語만爲主호畧이오英德美法清露等各國語에는留意호는者ㅣ殆히無호니此ㅣ엇지可惜지 아니호가[...]
然이나近頃語學界消息을聞호즉日語學校에入學호는者는屋瓦又치多호고英德法清等各語學교에는入學호는者가無하야春草滿廷의嘆을發케호다호니惜哉라.(論說, “語學界의趨勢”, 《大韓每日申報》, 1910. 4. 10).

(13-ㄱ, ㄴ)은 강점 직전의 일본어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세계 공용어로 일컬어지는 ‘영어’보다도 ‘일어’의 세력이 더 강했으며, 이는 통감시대부터 본격화된 식민 지배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3-ㄱ)은 이 시기 어학이 근대화된 서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학 교육부터 일본어만을 가르쳐 그 피해가 극심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13-ㄴ)에서도 일본어 중심의 획일적인 어학 교육이 노예학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2_ 일본어 권력 형성의 요인

언어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의 관계에 관해 연구해온 대부분의 사회언어학자들은 제국주의가 단순히 정치·경제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이병혁(1993)에서는 제국주의가 “문화 요소들, 보다 정확하게는 그 근간을 이루는 언어적 요소들에 관한 중요성, 즉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 이론과 민족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제 강점기 식민화 과정에서의 ‘언어 침식’ 현상을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장 칼베를 비롯한 프랑스 사회언어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¹⁹⁾ ‘조센진’과

같은 경멸적 명명이 이루어지거나 일제 강점하에서의 식민 행정과 교육에 의해 수직적인 언어 침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근대 한국사회에서 일본어 권력이 형성된 시점은 일제 강점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계몽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갑오개혁과 통감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어 세력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일본어의 위상 변화는 ‘인접 국가의 언어[개항 이전] → 다양한 외국어(영어·불어·독어·한어·러시아어와 대등한 지위)[학제 개혁 이전~갑오개혁 이후] → 모어인 국어와 대등한 자격의 대표적인 외국어[통감시대] → 식민 조선의 국가어[일제 강점기]’로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위상 변화는 근대 일본의 국민어²⁰⁾로 성장한 일본어와 제국주의화한 일본의 어문 정책, 근대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의 역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일본어가 국민어로 성장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어 보급 정책’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어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등장하는 국민과 언어 의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태린(2012)에 따르면,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가 “각각의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언어가 있고, 각각의 국민에게는 국민어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르더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종족 또는 국민과 언어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훔볼트·콩디악 등의 철학자뿐만 아니라 보아스·사피어·위프 등의 문화 인류학자들도 공유하는 이론이다. 이 점에서 근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국민이 공유하는 언어의식이 형성되고, 그 국가가 제국주의화하면서 제국주의 언어가 출현한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일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근대화 초기 일본

19) 이병혁 편저, 1993, 『언어사회학 서설』, 까치.

20) 조태린, 2012, 「식민지 시기 전후, 근대 국어 의식의 형성에 대하여」, 고영진 외,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소명출판. 이에 따르면 국민어라는 용어는 언어와 국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1960년대 사회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언어와 종족이나 민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민이 공유하는 언어 의식을 지칭한다. 국가와 국민을 바탕으로 한 국민어의 형성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에서도 ‘일본어’가 ‘국민어’로 변화하는 과정은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점은 1870년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제기한 ‘영어 채용론’도 마찬가지다.²¹⁾ 이연숙(1996)에서는 이 시기 모리의 ‘영어 채용론’이 일본어와 중국어가 무질서하게 혼합되어 있는 ‘일본의 언어’ 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어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바바 다쓰이[馬場辰猪]의 『An Elementary of Grammar of the Japanese Language』,²²⁾ 마에지마 하소카[前島密]의 『興國文廢漢字議』를 비롯한 國字改良運動, 간다 다카하라[神田孝平],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 등의 ‘언문일치 운동’ 등을 거치면서 근대 국민어로서 성장해갔다.

이처럼 근대화된 일본에서 형성된 국민어 의식은 ‘일본어 = 일본 정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어 보급’이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어 보급 정책은 ‘대일본 해외교육회’에서 ‘경성학당’을 설립한 것처럼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 일본어를 보급하거나 한국의 학정을 잠식하여 일본인 교원을 고용하거나 일본문교과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³⁾ 한용수(2002)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인 교사 고용은 1891년부터 나타났는데, 이때에는 일본인을 외국어 학교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1899년 중학교령 공포 이후에는 중학교에도 일본인이 고용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공립 소학교까지 일본인 교사가

21) 이연숙, 1996, 고영진·임경화 역, 2006, 『국어어는 사상』, 소명출판. 이 책에 따르면 모리의 영어 채용론은 미국 변리공사의 직책에 있었던 모리 아리노리가 예일 대학의 휘트니에게 보낸 편지와 1873년 영문으로 간행된 『일본의 교육』 ‘서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모리의 영어 채용론에 대해 일부 논자들이 ‘서구 숭배가 지나친 나머지 일본어 폐지, 영어 채용론’을 설파한 것으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어의 통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즉 한자·한자어·한문에 지배당한 일본어는 결코 자립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2) 이 책은 통칭 『일본어 문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1873년 런던의 Trübner & Co에서 출판되었다.

23) 허재영, 2010, 앞의 책.

고용되었다.²⁴⁾ 이러한 경향은 통감시대 이후 더 강화되었는데,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당시 통감이 보통학교에 부임한 일본인 교사를 대상으로 ‘훈유(訓諭)’를 하고,²⁵⁾ 학부대신이 일본문으로 通牒²⁶⁾을 보낼 정도로 일본어의 학정 잠식이 뚜렷해졌다. 일본어 보급 정책은 1910년 강점 직후부터는 ‘일본어 보급’이 최우선 교육 방침²⁷⁾이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내내 가장 중요한 식민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으로 근대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의 역할이 점증하면서, 일본어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 이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문 대신 일본어가 서구의 지식과 문명을 수입하는 ‘경유어’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근대 계몽기의 각종 유학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시대별 차이²⁸⁾는 있겠지만 관비 유학생 제도의 도입과 재일 유학생의 급증²⁹⁾ 이후 일본은 근대 지식의 ‘경유지’로 인식되거나 ‘일본 = 근대’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24) “잡보”, 《데국신문》, 1900. 8. 23; “잡보”, 《데국신문》, 1900. 9. 1.

25) “잡보”, 《만세보(萬歲報)》, 1907. 4. 21.

26)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8. 5. 8.

27) “잡보”, 《매일신보》, 1910. 10. 13. 이 기사를 참고하면 1910년 10월 동경 제국 교육회 조선 교육부 주사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선 교육 방침’의 제2항에서는 “日本語の普及으로써 急務를 作호야 此에 全力을 注호지니 此를 實行함은 左와 如호” 이라고 밝히고, 초등교육부터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어 교습 학교를 보조하며, 사범학교에서 일본어에 숙달한 교원을 양성하고, 각종 학교와 전문학교에서도 일본문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일본어를 관용어로 삼고, 일본문으로 작성된 가정서류를 보급할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28) 개항 직후 서구 지식은 ‘일본’보다 ‘중국’이 중시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재일 유학생’이 급증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관비 유학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구 지식도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29) 한시준, 1985, 『한말 일본 유학생에 대한 일고찰』, 정음문화사; 강대민, 1986, 「한말 일본 유학생들의 애국 계몽사상」, 『경성대학교 논문집』 7, 경성대학교, 283~300쪽; 김기주, 1993, 『한말 재일 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일본 유학생 관련 연구 성과는 비교적 다양하게 축적되어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일본 유학생 단체의 계몽 운동이나 항일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 경유지로서의 일본

자 十년 이력으로 국너 상하가 국가의 문명이 신학문에 있는 줄을 찌닫고 청년 자태를 외국에 파송하야 공부하는 자 十수百인에 너리지 안이하나 다 구미 열국은 길이 멀고 학문이 어렵고 지경이 맞지 못하도 하야 한 번 가 류학하기를 힘쓰지 안이하고 다만 일본은 부주가 갖고 글이 갖고 인종이 곱으로 학문을 성취하기 쉽다 하야 학문을 토론하는 자 언필칭 일본을 말하고 학문을 비우고져 하는 자 동하면 문득 일본을 향하니 이것이 사세와 정형에 그럴 뜻하나 그 가운데 크게 불가한 리티가 잇스니 일본은 四十년니 신진한 나라이라. 오날 정티 법률 상업 공업 군계를 다 구미 열국을 취법하얏스나 아직 완전하도 할 수 업고 기타 던티 고유한 풍속 습관 종교는 아직 미기한 명도에 처한 자 불가수라. 비하건디 그림을 아모리 잘 그려도 본형만 갖지 못하고 그림자가 아모리 분명하여도 원례만 갖지 못하느니 일본은 오날 정법이 자국력사의 던티한 연혁이 안이오 다만 구미 열국을 의지하야 모범한 것이나 그림과 그림자를 면치 못홀지라. 엇지 구미 열국과 갖지 완전 무결하도 하리오. [...] (論說, “我青年可遊學歐美”, 《共立新報》, 1908. 7. 8).

(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 계몽기 대부분의 유학생은 일본을 택하였다. 일부 유학생들은 일본을 경유하여 서구로 유학을 간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본에서 서구의 지식을 공부하였다. 이 점에서 일본은 그 자체가 유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서구로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은 일본의 근대식 교육 정착 과정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 가타기리 요시오 외 지음·이건상 옮김(20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개항 이후 1879년 교육령이 반포되기까지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며, 그 영향은 1886년 학교령(제국대학령·사범학교령·소학교령·중학교령) 공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 특히 서양식 교육 제도의 도입과 함께 다수의 외국인이 고용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영국인과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³⁰⁾ 이러한 배경

30) 가타기리 요시오 외 지음·이건상 옮김, 2011, 『일본교육의 역사』, 논형. 이 책에서는 메이지시대(1868~1912) 대강 3천~4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일본에 왔고, 그

에서 제일 한국인 유학생들도 일본에서 서구의 지식을 배우거나 일본을 거쳐 미국과 유럽으로 다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근대 계몽기 영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이 근대화 또는 제국주의화에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 영어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따라 영어로서의 일본어의 지위는 지배 언어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³¹⁾ 이는 통감시대 해외 유학의 대부분이 일본 유학생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요인에 따라 근대 계몽기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어 제국주의에 따른 헤게모니³³⁾가 형성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어 헤게모니는 새로운 일본어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그 과정은 이병혁(1988)에서 소개한 루이 장 칼베의 식민주의 언어 동화 단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일어 권력은 정치·행정·법률의 차원에서 강화된 면이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가운데 전문 교육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만도 169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독일인 63명, 영국인 38명, 미국인 34명, 프랑스인 23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도 영어는 중요한 언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3일자 습준생이라는 명의의 “국어국문독립론”이라는 논설에서는 이 시기 어문 현상을 “今則 韓國 數千年 習用 漢文 以外에 通行 最多 英 文이며 關係 最密 日 文이며 其他 德 文, 法 文, 俄 文 等을 壹 壺 輸入 ㅎ앗는디”라고 비판하였다.

- 31) 정인섭, 1933. 12. 12~12. 22, “영어 교육계에 고함”, 《매일신보》. 이 글을 통해볼 때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의 특성상 이 시기 영어 교육은 일본인 영어 교육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은 조선에서의 일본식 영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 32) “논설”, 《공립신보》 1908. 7. 8 참고.
- 33) 김미경, 2011,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어의 힘』, 소명출판. 이 책에서는 “영어 헤게모니란 영어에 주어진 특혜와 권력 때문에 시민들이 영어에 매달리게 만드는 습은 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 헤게모니가 생성되는 이유는 “영어 능력이 차별적으로 우대되고, 영어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때문인데, 그 결과 “영어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제치고 지배 언어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 계몽기 일본어 헤게모니는 일본어 능력이 우대되고, 일본어를 못하면 차별받는다는 의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어 권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5) 행정, 법률에서의 일어 권력

- ㄱ. 日語有等: 韓國 官吏 中 日語를 能通호는 者는 日本 官吏와 如히 手當金을 磨鍊호기로 內閣에서 會議호야 統監府에 同議를 表호 았다는 事는 時報와 如호거니와 該案을 統監府에서 承認호야 度 支部에서 豫算外로 支出호는다는디 日語 程度를 三等에 分호야 一等에 十圓이오 二等에 八圓이오 三等에 六圓으로 定호 았다더라. (《大韓每日申報》, 1908. 5. 10).
- ㄴ. 日人多數: 各 裁判所에 配置호 通譯官補를 本月 三十日에 法部에서 試取호는다는데 其中에도 日人이 多數호 터이라더라. (《大韓每日申報》, 1908. 5. 19).
- ㄷ. [...] 大抵 司法은 獨立 不寄호야 法律을 解釋호며 法律을 掌握호야 重大호 責任을 擔負호미 國家의 勸力을 行使호며 錯雜호 事件을 剖決호야 人民의 生命 財産을 與奪호는 重要호 官員이다. [...] 嗚呼라 裁判所가 아니오 外交官廳인가. 司法官이 아니오 通譯官인가. 民刑事를 裁判키 爲호미 아니라 外人 交際를 爲호인 가. 엇지호야 日語호는 人이 區裁判所에 滿座케 되는가. 嗚呼라 三百餘 區裁判所에 '와다시 아니다'호는 司法官이 爛漫호면 裁判 制度가 足히 發展될까. '곧넛지와, 곰방와'호는 判檢事가 喧譁호면 法律 適用이 足히 完全호실. [...] (『論說』, 《大韓每日申報》, 1908. 12. 4).

(15)는 관리와 법률 분야에서 일어 권력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15-ㄱ)과 같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관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15-ㄴ)처럼 일본인을 통역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 언어의 세력을 짐작하게 한다. (15-ㄷ)은 구재판소 300여 곳이 대부분 일어를 하는 판사로 채워진 현상을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통역뿐만 아니라 언어 체계에도 반영되는데, 이 시기 들어온 전문 용어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과 법률 용어다.³⁴⁾ 법률·행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기반을 식민화했음을 의미한다.

34) 법률·행정 분야에서 일본어의 영향력이 컸음은 辭典 편찬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대한학회월보』 제8호(1908. 10)의 '隨聞隨錄'에는 이 시기 일본 유학생 한상우가 『法律經濟用辭』라는 서적을 편찬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실물

통감시대부터 일제의 식민 지배 및 일어 권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 병합을 옹호하는 단체가 출현한다. 이러한 흐름은 강점 직후 ‘국어로서의 일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리는 궁극적으로 일본어 헤게모니를 형성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적인 일본어 보급 정책과 결합하여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IV. 맺음말

언어 권력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작용하는 언어의 힘을 의미한다. 언어 권력은 개인 대 개인의 담화 상황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국어와 외국어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용한다. 특히 국어와 외국어의 관계에서 언어 권력은 외국어에 대한 국어 사용자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국제화시대 영어 공용어론’이나 ‘영어’를 외국어가 아닌 ‘제2 언어(모국어에 준하는 언어)’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러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가 권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근대 계몽기의 외국어 교육과 일어 권력 형성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계몽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근대적 지식 유통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근대식 학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880년대 일본과 중국에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를 파견한 이후, 서구의 지식과 정보를 수입하면서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사전은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용어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책명을 사용한 1917년 신문관장판의 『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를 참고할 때, 한상우 저술의 사전도 ‘법률’과 ‘경제’를 책명으로 사용했지만, 주요 내용은 ‘법률’과 ‘행정’ 용어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각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는 통상 조약이 처음 체결되고 외국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지식을 수용할 만한 적절한 국문 정리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동문학이나 육영공원과 같이 통역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제일 유학생이 출현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학제 도입기의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교육보다 더 관심을 끈 경향이 있는데, 외국어학교 관제 공포 이후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외국어 교육 경향이 변화하였다. 당시 외국어 학교의 중심 세력은 ‘영어’와 ‘일본어’였으나 일본어의 영향력이 급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본에 본격적으로 관비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일본어의 영향력이 더 증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통감시대에는 학부 관제를 개편하여 일본어가 모국어에 준하는 교과로 설정되었으며, 외국어 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또는 야학 교육에서 일어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비 제일 유학생도 급증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어 권력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소통 능력과 일본어의 권력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초기의 ‘어학(언어학)’은 타 언어를 배워 통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일본어 소통 능력이 강조되면서 일본어 구사 능력이 권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통감시대에는 국어와 국문보다도 일본어가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시기 국문으로 된 신문과 잡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어 권력의 형성 요인으로 식민 언어 정책의 근간이 된 ‘일본어의 국민어화’ 과정과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의 일본어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달리 말해 근대 계몽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일본어 보급 정책’의 기저에는 ‘일본어 = 일본 정신’이라는 등식을 가능하게 한 ‘일본 국민어’가 존재했으며, 일본을 경유하여 근대적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헤게모니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장 칼베가 ‘식민주의 언어’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본어 헤게모니는 행정·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로서의 일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논리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에서 일본어의 권력화는 일제 강점기 '일어 학습'의 당위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매일신보》를 비롯하여 식민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일어(일제 강점기의 국어) 학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차원에서 강조한다. 이는 초기의 통번역 담론이나 유학 담론과는 다른 차원의 논리다. 이러한 담론 분석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고영근, 1998, 『한국 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진 외, 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소명출판.
- 국사편찬위원회, 1977, 『음청사(陰晴史)·종정연표(從政年表)』,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2012, 『한국근대사 기초 자료집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문화원.
- 김경미, 2009, 『한국 근대 교육의 형성』, 해안.
- 김기주, 1993, 『한말 제일 한국유학생의 민족 운동』, 느티나무.
- 김미경, 2011,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어의 힘』, 소명출판.
-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 일기』, 역사비평사.
- 김석득, 1983, 『국어학사』, 정음문화사.
- 김형목, 2001, 『1910년 전후 아학운동의 실태와 기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혜운, 2008,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 박봉배, 1987, 『한국어교육 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배수찬, 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소명출판.
- 신문사 편집국, 1917, 『간명 법률경제숙어 사해』, 신문사.
- 유길준, 1895, 『서유견문』(이한섭 편, 2000), 박이정.
- 윤여탁 외, 2006, 『국어교육 100년사』 1·2,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광린, 1969,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 이광린, 1994, 『개화기 연구』, 일조각.
- 이만규, 1947, 『조선교육사』(1991년 거름출판사 재간행본).
- 이병근 외, 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병혁, 1988, 『언어사회학 서설 - 이데올로기와 언어』, 까치.
- 이병혁, 1993, 『한국 사회와 언어사회학』, 나남출판.
- 이연숙, 1996, 『국어라는 사상』(고영진·임경화 역, 2006, 소명출판).
- 이용호, 1973, 『개화기의 한글 운동』, 성청사.
- 이종국, 1991, 『한국의 교과서 -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일문 역주·김옥균, 1977, 『갑신일록』, 건국대학교출판부.
-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 한시준, 1985, 『한말 일본 유학생에 대한 일고찰』, 정음문화사.
- 허동현 편, 2003,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집5: 문부성 소할 목록』, 국학자료원.

허재영, 2010, 『통감시대 어문 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경진.

허재영, 2011, 『일제 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생활』, 경진.

가타기리 요시오 · 기무라 하지메 외, 이진상 옮김, 2011, 『일본 교육의 역사』, 논형.

미쓰이 다카시, 임경화 · 고영진, 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소명출판.

노먼 페어클립 지음 · 김지홍, 2011, 『언어와 권력』, 경진.

밀카 이비츠 · 김방한 역, 1988, 『언어학사』, 형설출판사.

오토 에스페르센 저 · 김선재 옮김, 1961, 『언어』,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강대민, 1986, 「한말 일본 유학생들의 애국 계몽사상」, 『경성대학교 논문집』 7, 경성대학교.

김형목, 2005, 「한말 야학 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 연구회.

송병기, 1988, 「개화기 일본 유학생 파견과 실태」, 『동양학』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유봉호, 1995, 「신학제 100년 중등 교육의 성장 과정」, 『근대 교육 100년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학제 도입 100주년 세미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웅, 1997, 「언어, 이데올로기, 실천 - 소련 시대의 “언어권력”(Logocratie)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7, 러시아문학연구회.

조기준, 1970,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의 성격」, 『한국사 시대 구분론』(한국경제사학회), 을유문화사.

조태린, 2012, 「식민지 시기 전후, 근대 국어 의식의 형성에 대하여」, 고영진 외,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소명출판.

최원오, 2012, 「구비설화에 갈무리된 입말, 문자, 언어 권력의 상관관계」, 『구비문학연구』 35, 구비문학회.

한용수, 2002, 「한국 근대시기의 한어(漢語) 교육」,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8, 한중인문학논총.

한용진, 2005, 「개화기 일본 민간단체 설립 학교 고찰 - 경성학당을 중심으로」, 『동양학』 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용진, 2005, 「경성학당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허재영, 2010, 「근현대 언어 권력 지형과 언어 교과서의 위상 변화 연구」, 『민족의 언어

와 이데올로기』(고길섭 외), 박이정.

허재영, 2012, 「근대 계몽기 야학의 대상과 교재 연구」, 『어문논집』 51, 중앙어문학회.

허재영, 2013, 「의사소통과 언어 권력 연구의 경향」, 『사회언어학』 제21-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홍윤표, 1995, 「국어사 시대 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 구분」, 『국어학』 제25집, 국어학회.

山田寛人, 2004, 『植民地 朝鮮における朝鮮語獎勵政策』, 東京: 不二出版.

Fishman, J., 1972, *The Sociology of Language: An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Approach to Language in Society*, Rowley, Mass: Newbury House.

Ross, Rev. J., 1877, *The Corean Language*. 고영근 외 역음, 『역대한국문법대계 2-01』, 탐출판사.

(본문에 주석한 기초 사료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ABSTRACT]

Stud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Japanese Language Influence
in the Modern Period

Heo J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 formation of Japanese language power in the modern period, when language influence was derived communicative ability in a foreign language. Language power is not a technical term, but many scholars have used “language and power” instead of “language power.” This tendency is similar to sociolinguistics. The term does not exist in the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though terms such as language change, language contact, language conflict, language rights, and language shifts do. Broadly these terms are related to language and power indirectly.

Foreign language power resulted from communication capability. This power came about from communication capability with foreigner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n Korea.

I divide the histor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to three steps. Firs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chool system in Korea (1880~1894), some government bureaucracies had an interest in foreign language, introducing a need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ome schools were established at this time for the purpose of interpretation and scientific skills. Such schools included Dongmunhak(同文學),

Wonsanhaksa(元山學舍), Yukyeong Gongwon(育英公院), and others. Second, after the Gabo reforms in 1894(甲午更張), the first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law for the foreign language school system was announced. Japanese was one of the foreign languages in these systems. The foreign language schools consisted of English, Japanese, French, German, Chinese, and Russian. But school buildings and teachers were separated into one language. Thir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supervision, the so-called Tonggam period(統監時代, 1906~1910), Japanese became a foreign language that was equal to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at the initial stage, Japanese language was a foreign language, and it continued to progress to become a foreign language equal to the mother language. Therefore, the Japanese language became a national language in the colonial period.

I believe that language is used for communication, and therefore language is related to race, culture, and society. This means that language is related to elements of social power. In particular, communicative ability is connected with the formation of language power. Interpretative and translation abil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connected with knowledge information circulation in the tim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chool system.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language strengthened gradually through Japanese colonial policies and the policy of language dissemination. I conclude that the study of language power is a sociolinguistic problem with a rich historical background.

Keywords

Modern period, foreign education, Japanese language power, perio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school system, Gabo reforms in 1894, period of Japanese supervis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禽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동북아역사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4호(2014. 6)

초판 1쇄 인쇄 2014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